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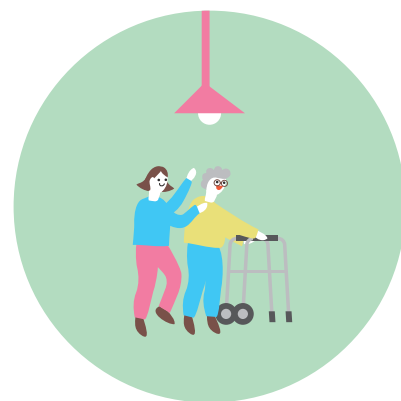
본 보고서의 표지는 친환경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동행·매력
특별서울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341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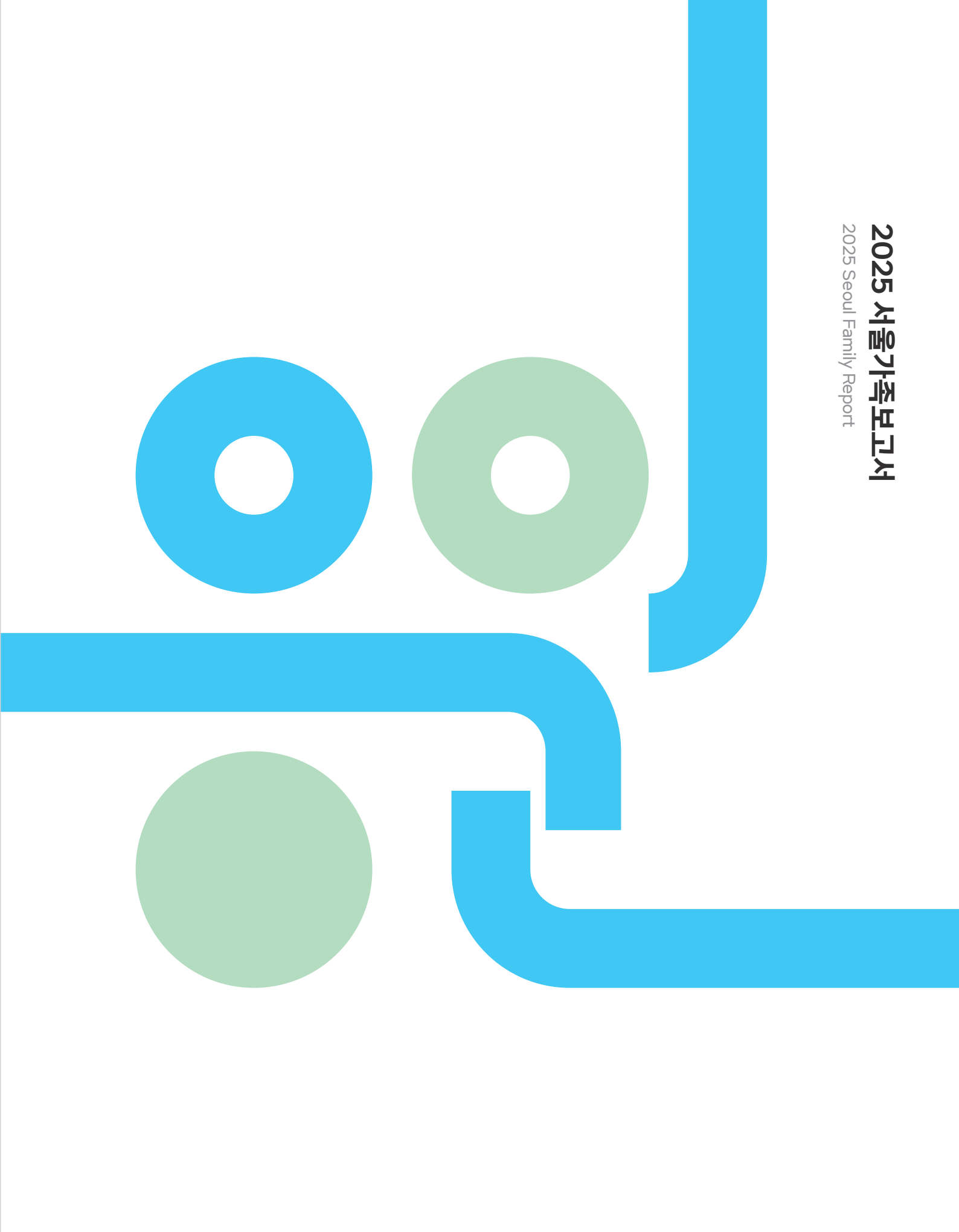
ISSN 3022-4179(Online)



2025 서울가족보고서

2025 Seoul Family Report





2025 서울가족보고서 **사용 설명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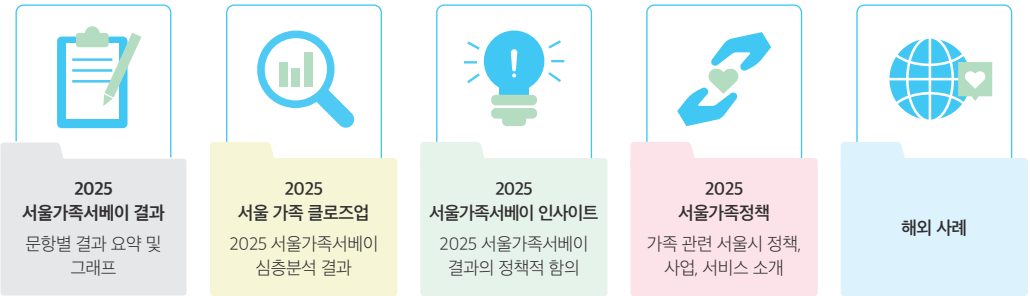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2025 서울가족서베이」 결과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서울가족서베이는 서울 가족의 현주소를 포착하고, 가족 관련 이슈에 대한 시민의 인식·태도, 가족정책 요구도·인지도를 조사합니다. 2018년에 시작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시계열적 분석 결과는 『2023 서울가족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25 서울가족보고서』 본문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로즈업, 인사이트, 서울가족정책, 해외 사례는 별도로 박스 처리하였습니다.



3

「2025 서울가족서베이」 결과를 활용할 때 다음을 주의하십시오.

- 서울가족서베이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이므로 결과에 통계적 오차가 존재합니다. 할당표집을 사용하였고, 가중치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하위집단 간 비교는 차이검증(티검증, 일원분산분석, 카이제곱검증 등)을 실시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만 차이를 기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자녀가 무자녀보다 ~했다’라고 기술했다면, 티검증 결과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음을 의미합니다.
- 설문 문항에 따라 응답 대상이나 분석 대상이 상이합니다. 집단 간 비교에 활용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조사 항목별로 다르며, 집단을 분류한 방식도 문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항목별 분석 대상 및 응답자 수는 그래프 하단 주석을 참고하십시오. 단, 보고서 도입부에 제시된 응답자 특성 표를 통해 하위집단별 응답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하였습니다.
- 통계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제시했기 때문에 세부 항목의 수치를 더한 값과 전체 합계가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올림으로 인해 구성비 합계가 100%를 약간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있습니다.

4

본 보고서의 해석과 제안은 「2025 서울가족서베이」 결과에 근거한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가족센터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서울시가족센터(02-318-0227)로 연락해 주십시오.

CONTENTS

1
가족 응원

1. 가족 친화도시 서울	15
서울은 어떤 시기의 가족에게 살기 좋은가?: 개괄	15
청년 및 신혼부부와 서울	15
자녀 양육기 가족과 서울	16
청소년기 가족과 서울	17
노인과 서울	18
💡 신혼부부에게는 상대적으로 살기 힘든 도시 서울	18
서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인가?: 개괄	19
서울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가?	19
서울은 육아 친화적인가?	20
서울은 부모역할을 응원하나?	21
💡 도시 전체의 육아 친화도 향상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필요	22

2. 탄생 응원 도시 서울	24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 인지도	24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 영역별 요구도	26
💡 남성은 경제 지원, 여성은 인프라 조성, 저출생 대응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	27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 선호도	28

3.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32
가족센터 인지도	32
영역별 가족 지원 서비스 참여 의향	33
가족생활 어려움에 도움이 되는 방법	34
💡 대화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족 지원 서비스	35
가족 지원 서비스 형태별 이용 경험	36
💡 자녀 있고 연령 낮을수록, 가족생활 행복도 높을수록 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있어	37
가족 지원 서비스 홍보 방법	37
💡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 가족센터, 홍보 역량 강화 및 홍보비 확대 필요	38

4. 효과적인 가족 교육	39
가족 교육 필요도 및 참여 의향	39
부모 교육 및 부모 코칭: 이용 경험, 도움 정도	40
부모 교육 주제 요구도: 중요도 및 충족도	41
부부 교육 주제 요구도: 중요도 및 충족도	42
💡 성인 대상, 아동 대상 효과적인 성교육 필요	44
효과적인 가족 교육 방법: 참가 인원, 회기 수, 강사 특성	45
💡 소집단, 대화기, 경험 많은 강사일 때 가족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여겨	46



2 일상 응원

1. 주거 생활	48
주택 및 주거 환경 만족도	48
(언젠가) '내 집'을 소유할 가능성	49
자녀 양육기에 중요한 주거 환경	50
거주하는 동네 육아 친화도	53
💡 결혼하지 않은 청년을 위한 안정적 주거 정책 필요	54
2. 미디어 생활	55
가족 관련 영상 콘텐츠	55
연애 및 비혼 가구 리얼리티	56
육아 리얼리티 및 솔루션	58
결혼 솔루션	60
육아생활 및 결혼생활 유튜브	61
치매 가족 돌봄 유튜브	63
💡 부모됨에 관한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민간 유튜브 채널과의 협력	65
3. 가족 시간과 웰빙	66
부모-자녀 공유 시간 충분성: 본인	66
부모-자녀 공유 시간 충분성: 배우자	67
부부 공유 시간 충분성	67
동거 가족 공유 시간 충분성	68
가족 식사 빈도	68
💡 자녀 발달단계별 맞춤형 가족 시간 지원 사업 필요	69
행복: 가족 및 개인	70
외로움 및 우울	71
4. 일-생활, 일-가족 균형	72
일, 개인생활, 가족생활 중요도	72
일-생활 균형: 인식, 변화 필요성	75
💡 양육자의 '개인생활'에 대한 정책적 관심 지속 필요	80
일-가족 갈등	81
일-가족 촉진	82
일-여가, 일-성장 갈등	83
근로 시간 및 근로 장소 유연성	86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	88
가족 친화 직장 제도 이용 가능성	89
💡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필요	91



3 설렘 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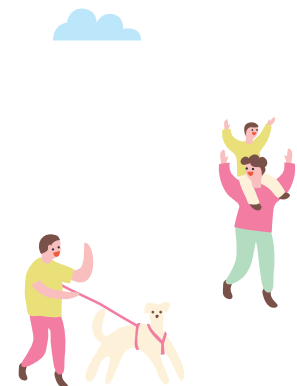
1. 설렘으로 만남	93
연애 여부, 연애 의향, 연인과 결혼 의향	93
💡 만남, 결혼 지원 정책에서 젠더 감수성 필요	95
연인관계 행복도 및 친밀감	96
연인과의 갈등	97
연인관계 평등성	97
2. 비혼이라는 선택	98
비혼 및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	98
1인가구 공동체,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태도	99
평생 비혼 의향	100
비혼 동거 의향	101
💡 자발적 비혼 등 다양한 삶의 양식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필요	101
3. 결혼이라는 선택	102
부부가 되는 시점	102
💡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한 부부도 (예비)신혼부부 지원 정책에 포함할 필요	103
결혼에 따르는 이점	103
결혼에 따르는 부담	107
💡 결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모두 가진 20대를 고려한 접근 필요	111
💡 결혼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 필요	111
결혼에 대한 태도	113
동성연애 및 동성결혼에 대한 태도	114
결혼 의향	116
결혼할 의향이 없는 이유	117
💡 결혼할 의향이 없는 이유 성별에 따라 다름을 고려한 정책 필요	119
결혼정보회사 이용 의향	123
결혼에 대한 부모 기대	123
4. 부부로 살아감	124
부부 개별화에 대한 태도	124
💡 따로 사는 부부, Living Apart Together (LAT)	125
💡 부부간 개별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중장년층을 위한 부부 교육 필요	127
섹스리스 부부에 대한 태도	128
결혼에 대한 만족 및 후회	128
부부관계 행복도 및 친밀감	129
💡 연인과의 관계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역전되는 성별 차이	130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 충분성	131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이혼 생각	131
💡 부부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133
부부의 성역할 분담	134
부부의 결혼생활 영역별 기여도	135
부부관계 평등성 및 분담 공평성	139



4

부모 응원

1. 부모라는 선택	141
부모가 될 의향	141
부모가 될 의향이 '있는' 이유	143
부모가 될 의향이 '없는' 이유	144
어떤 여건이 마련되면 부모가 될까?	147
💡 부모가 될 의향과 성별에 따라 저출생 정책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	149
부모됨에 대한 주변의 기대	150
무자녀 부부 유형	151
남자·정자 냉동 보관 의향	152
2. 부모됨과 부모역할에 대한 생각들	154
내가 부모가 된다면	154
부모역할에 대한 태도	155
다양한 방식의 부모됨에 대한 태도	156
💡 비혼 출산, 의향은 대체로 없지만 태도는 부정적이지 않아	157
💡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논의 심화 필요	158
집중적 부모역할에 대한 태도	161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아이에게 잘못?	163
3. 부모로 살아감	164
부모가 된 이유	164
부모로서의 행복과 후회	166
부모효능감: 본인 및 배우자	167
좋은 부모가 되려는 노력: 본인 및 배우자	168
자녀가 실패하지 않는 것은 중요?	168
자녀는 인생의 목표?	169
양육스트레스	169
💡 부모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설정 지원 필요	170
부모역할의 어려움	171
엄마와 아빠의 공동양육	175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응원	176
💡 부모의 공동양육 지원, 청소년기에도 꾸준한 노력 필요	177
4. 다자녀 부모라는 선택	178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	178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	180
어떤 여건이 마련되면 둘째 자녀를 가질까?	181



5

서로 돌봄 응원

1. 성인 자녀와 부모, 형제자매 관계	183
친밀감: 부모 관점	183
친밀감: 자녀 및 며느리·사위 관점	184
친밀감: 형제자매	186
갈등: 부모 관점	187
갈등: 자녀 및 며느리·사위 관점	188
갈등: 형제자매	190
시간 충분성: 부모 관점	191
시간 충분성: 자녀 및 며느리·사위 관점	192
헬리콥터 부모역할: 부모 관점	194
헬리콥터 부모역할: 자녀 관점	195
💡 부모-자녀 관계 등 가족체계 전체에 관심을 두는 저출생 대응 정책 필요	196
2. 성인 자녀 지원 및 상속	197
성인 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	197
💡 부모의 계층과 무관한 청년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해야	201
성인 자녀 지원 실제: 부모 관점	202
성인 자녀 지원 실제: 자녀 관점	204
성인 자녀 지원 실제: 며느리·사위 관점	206
노후를 위해 자녀 필요할까?	208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성공일까?	209
재산 상속,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할까?	210
3. 부모 돌봄	212
부모 돌봄, 누가 얼마나 해야 할까?	212
부모 돌봄에 대한 태도	215
셀프 효도에 대한 태도	218
돌봄 필요 여부: 부모 및 배우자 부모	219
부모 지원 실제	223
배우자 부모 지원 실제	226
💡 부모-자녀 간 지원 교환의 다양성을 고려한 지원 전략 필요	231
부록 1. 2025 서울 가족 현황	234
부록 2. 2015-2024 서울가족보고서	252
부록 3. 서울지역 가족센터 현황	253



2025 서울가족서베이 하이라이트

1장 가족 응원

서울, 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 육아 친화도 5점 만점 평균 3.3→3.5점 ↑…신혼부부 살기엔 여전히 부담
-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 평균 3.9점, 여성·기혼이 더 동의

서울시 저출생 해법, 남녀가 보는 핵심 달라

- 남성은 경제적 지원, 여성은 워라밸·돌봄 인프라 더 중시

서울시 저출생 정책 인지도, 연령대와 자녀유무 따라 차이

-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인지도 20~30대와 무자녀 상대적으로 낮아
- ‘미리내집’ 인지도 미취학 자녀 부모와 50대 상대적으로 높아

부모 교육·코칭 경험 시민 과반수 이상, “실제 도움”

- 부모 중 14% 경험, 그중 57% “도움 됐다”, 주로 학교·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 현재 부족하지만, 중요한 교육주제 1순위는 ‘효과적인 성교육’

2장 일상 응원

“내 집 마련 가능성? 보통” …자녀 양육에는 주거 안정·비용이 관건

- 무주택 시민 ‘내 집 가질 가능성’ 평균 3점
- 자녀 양육기 가족에게 주거 안정·비용 중요도 4.3점으로 높아

자주 접하는 가족 관련 영상은 ‘비혼 가구 리얼리티’ 압도적

- 월 1회 이상 접하는 방송 콘텐츠는 비혼 가구 리얼리티 > 육아 솔루션 > 연애 리얼리티 > 육아 리얼리티 > 결혼 솔루션 순
- 유튜브 콘텐츠는 육아생활 > 결혼생활 > 치매 가족 돌봄 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자녀 발달단계 따라 양상 달라

- 미취학·초등 시기는 배우자와 시간 부족, 청소년·성인기는 자녀와 시간 부족
- 청소년·성인기에 온가족 식사·함께하는 시간 상대적으로 적어

일하는 시민의 66% 일·생활 균형 “불만족”

- 가족·개인생활 확대 희망(약 41%)이 근로 시간 확대 희망(15%)보다 높은 비율
- 특히, 자녀가 있는 시민이 가족생활보다 개인생활 늘리길 더 원해

현재 직장 분위기, 아빠 육아휴직 활용은 엄마만큼 쉽지 않아

- 일하는 시민이 인식한 현재 직장의 분위기, 엄마의 육아휴직 3.4점, 아빠의 육아휴직 3.1점

3장 설렘 응원

비혼(미혼) 37% 연애 중…연인과 결혼 의향 대체로 있어

- 연애 중인 시민, 연인관계 행복·평등 인식 높고, 연인과 결혼 의향 ‘대체로 있음’
- 연애 중 아닌 시민, “언젠가 연애할 의향” 대체로 있음

비혼·동거 등 전통적 결혼의 대안, ‘보통 이상’ 수용

- 비혼·동거·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시민의 수용도, 모두 보통 이상
- 비혼(미혼)자 본인이 평생 결혼 안 하거나, 비혼 동거할 의향도 보통 이상

“부부 시작은 언제?” 20대는 혼인신고, 30대 이상은 결혼식 선택

- 통념상 부부가 되는 시점, 결혼식 > 혼인신고 > 결혼 앞둔 동거 순
- 20대는 혼인신고, 30대 이상은 결혼식 선택 가장 많아

각방, 재산 분리 등 ‘부부 개별화’…중장년이 더 동의하는 경향

- 부부 각방, 부부 개별 재산, 명절에 각자 부모 방문에 모두 보통 이상 동의
- 50대 이상이 30~40대보다 수용도 높아

4장 부모 응원

“안벽한 부모” 환상, 부모됨의 숨은 장벽

- 무자녀 시민 “좋은 부모되기 위해 노력할 것, 부모되면 행복할 것” 기대
- 그러나 “좋은 부모될 능력 없음, 기대만큼 잘 키울 자신 없음” 우려 커

저출생 정책 선호와 요구, 성별·자녀 유무·부모됨 의향 따라 달라

-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 부모됨에 필요한 이상적 여건에서 성별, 자녀 유무, 부모됨 의향에 따른 차이 뚜렷

자녀 성장에 따라 달라지는 부모 부담 양상

- 미취학 자녀 부모는 신체적 어려움, 초등·청소년 자녀 부모는 경제적 어려움 더 겪어
- 청소년 자녀 부모는 자녀 실패 두려워하며, 때로 자녀를 인생의 목표처럼 느껴

엄마, 아빠 공동양육, 청소년기 부모에서 약화

- ‘부모는 한 팀’ 인식, 배우자와 부모역할 분담, 자녀 정보 공유 모두 청소년기 부모가 미취학·초등 부모보다 낮아

5장 서로 돌봄 응원

부모와의 관계, 무자녀 시민이 부모가 될 의향에 영향

- 부모와 친밀할수록, 부모가 ‘자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부모됨 의향↑

노부모 부양, 젊은 세대가 책임 더 강하게 인식

- 노부모 동거, 경제적 부양, 아들·딸 구분 없이 부모 돌봄에 대해 20대가 50대 이상보다 동의

돌봄 기대, 상속 의향, “배우자 우선…아들·딸 비슷”

- 본인 돌봄 필요시 배우자 > 아들·딸 > 며느리·사위 순
- 사망 후 재산 상속…배우자 절반, 아들과 딸은 비슷하게 계획

2025 서울가족서베이 소개

『2025 서울가족보고서』는 <2025 서울가족서베이> 분석 결과를 핵심으로 합니다. 서베이의 개요 및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

서울가족서베이

개요

- 조사 대상 20~64세(1961~2005년생) 서울시 거주자
- 표집 방법 성별X 연령별X 거주권역별 인구비례 할당표집(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5. 4. 기준)
- 조사 방법 온라인 패널 활용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기간 2025. 6. 20. - 6. 29.
- 조사 업체 (주)마크로밀 엠브레인
- 표본 크기 1,667명
- 표집 방법, 조사 방법, 조사 업체는 2018년부터 동일
- 가구 구성 평균 가구원수 1.75명

	명	%
1인 가구	402	24.1
1세대: 기혼부부 2인	174	10.4
1세대: 비혼 동거 2인	20	1.2
1세대: 형제자매 2인 이상	34	2.0
2세대: 부+모+자녀(+기타)	825	49.5
2세대: 부/모+자녀	159	9.5
2세대: 조부모+손자녀	3	0.2
3세대: 조부모+부모+자녀	44	2.6
기타	6	0.4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특성

		전체				성별				연령							
		명		%		명		%		20~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1,667	100.0			861	100.0	806	100.0	340	100.0	369	100.0	359	100.0	599	100.0
거주권역	도심권	92	5.5	45	5.2	47	5.8	19	5.6	24	6.5	19	5.3	30	5.0		
	동북권	487	29.2	246	28.6	241	29.9	100	29.4	103	27.9	103	28.7	181	30.2		
	서북권	219	13.1	121	14.1	98	12.2	42	12.4	45	12.2	42	11.7	90	15.0		
	서남권	496	29.8	255	29.6	241	29.9	111	32.6	118	32.0	102	28.4	165	27.5		
	동남권	373	22.4	194	22.5	179	22.2	68	20.0	79	21.4	93	25.9	133	22.2		
결혼지위	기혼(배우자 있음)	775	46.5	392	45.5	383	47.5	13	3.8	124	33.6	204	56.8	434	72.5		
	비혼(미혼)	801	48.1	418	48.5	383	47.5	326	95.9	238	64.5	143	39.8	94	15.7		
	이혼, 별거, 사별	91	5.5	51	5.9	40	5.0	1	0.3	7	1.9	12	3.3	71	11.9		
자녀 유무	있음	721	43.3	360	41.8	361	44.8	7	2.1	59	16.0	179	49.9	476	79.5		
	없음	946	56.7	501	58.2	445	55.2	333	97.9	310	84.0	180	50.1	123	20.5		
일자리 유무	있음	1,221	73.2	602	69.9	619	76.8	221	65.0	292	79.1	274	76.3	434	72.5		
	없음	446	26.8	259	30.1	187	23.2	119	35.0	77	20.9	85	23.7	165	27.5		
주관적 계층	중하 이하(중하+하상+하하)	961	57.7	502	58.3	459	56.9	183	53.8	240	65.0	220	61.3	318	53.1		
	중상 이상(상상+상하+중상)	706	42.4	359	41.7	347	43.1	157	46.2	129	35.0	139	38.7	281	46.9		
부모 생존 여부	모두 생존	1,034	62.0	524	60.9	510	63.3	304	89.4	317	85.9	261	72.7	152	25.4		
	어머니만 생존	343	20.6	183	21.3	160	19.9	22	6.5	38	10.3	71	19.8	212	35.4		
	아버지만 생존	75	4.5	34	3.9	41	5.1	11	3.2	8	2.2	15	4.2	41	6.8		
	모두 사망/모름	215	12.9	120	13.9	95	11.8	3	0.9	6	1.6	12	3.3	194	32.4		
형제자매 유무	있음	1,535	92.1	797	92.6	738	91.6	291	85.6	330	89.4	333	92.8	581	97.0		
	없음	132	7.9	64	7.4	68	8.4	49	14.4	39	10.6	26	7.2	18	3.0		

<2025 서울가족서베이> 결혼지위별 응답자 특성

		기혼(배우자 있음)		비혼(미혼)		이혼 및 사별	
		명	%	명	%	명	%
전체		775	46.5	801	48.1	91	5.5
성별	여성	392	50.6	418	52.2	51	56.0
	남성	383	49.4	383	47.8	40	44.0
연령	20~29세	13	1.7	326	40.7	1	1.1
	30~39세	124	16.0	238	29.7	7	7.7
	40~49세	204	26.3	143	17.9	12	13.2
	50~64세	434	56.0	94	11.7	71	78.0
부모 생존 여부	한 명 이상 생존	634	81.8	760	94.9	58	63.7
	모두 사망	141	18.2	41	5.1	33	36.3
자녀 유무	유자녀	645	83.2	3	0.4	73	80.2
	무자녀	130	16.8	798	99.6	18	19.8
배우자/연인 동거 여부	동거 중	742	95.7	19	2.4	1	1.1
	동거 중 아님	33	4.3	782	97.6	90	98.9
일자리 유무	있음	578	74.6	567	70.8	76	83.5
	없음	197	25.4	234	29.2	15	16.5
주관적 계층	중하 이하(중하+하상+하하)	360	46.5	532	66.4	69	75.8
	중상 이상(상상+상하+중상)	415	53.6	269	33.6	22	24.2
결혼지속연수	0~4년	100	12.9				
	5~19년	287	37.0				
	20년 이상	388	50.1				
맞벌이 여부	맞벌이	485	61.0				
	맞벌이 외	310	39.0			-	
배우자 부모 생존 여부	모두 생존	359	46.3				
	어머니만 생존	220	28.4				
	아버지만 생존	31	4.0				
	모두 사망/모름	165	21.3				
연인 유무	있음	-		301	37.6	17	18.7
	없음			500	62.4	74	81.3

<2025 서울가족서베이>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응답자 특성

주: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초등학생'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응답자

		무자녀		유자녀(부모)		미취학		첫째 자녀 발달단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946	100.0	721	100.0	93	12.9	77	10.7	130	18.0	421	58.4
성별	여성	501	53.0	360	49.9	34	36.6	37	48.1	58	44.6	231	54.9
	남성	445	47.0	361	50.1	59	63.4	40	51.9	72	55.4	190	45.1
연령	20~29세	333	35.2	7	1.0	7	7.5	-	-	-	-	-	-
	30~39세	310	32.3	59	8.2	43	46.2	14	18.2	1	0.8	1	0.2
	40~49세	180	19.0	179	24.8	40	43.0	57	74.0	72	55.4	10	2.4
	50~64세	123	13.0	476	66.0	3	3.3	6	7.8	57	43.8	410	97.4
배우자 유무	있음(기혼)	130	13.7	645	89.5	89	95.7	75	97.4	123	94.6	358	85.0
	없음	816	86.3	76	10.5	4	4.3	2	2.6	7	5.4	63	15.0
일자리 유무	있음	679	71.8	542	75.2	76	81.7	59	76.6	102	78.5	305	72.4
	없음	267	28.2	179	24.8	17	18.3	18	23.4	28	21.5	116	27.6
맞벌이 여부 (기혼, 비혼 동거만)	맞벌이	103	69.1	382	59.1	62	69.7	43	57.3	83	66.9	194	54.2
	맞벌이 외	46	31.0	264	40.9	27	30.3	32	42.7	41	33.1	164	45.8
주관적 계층	중하 이하(중하+하상+하하)	610	64.5	351	48.7	42	45.2	36	46.8	65	50.0	208	49.4
	중상 이상(상상+상하+중상)	336	35.5	370	51.3	51	54.8	41	53.2	65	50.0	213	50.6
성인 첫째 자녀	연령	19~29세										237	56.3
		30세 이상										184	43.7
	동거 여부	동거										258	61.3
		비동거										163	38.7
	배우자 유무	있음										73	17.3
		없음										348	82.7

1 가족 응원



1. 가족 친화 도시 서울
2. 탄생 응원 도시 서울
3.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4. 효과적인 가족 교육

2025 서울가족서베이 하이라이트

서울, 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 육아 친화도 5점 만점 평균 3.3→3.5점 ↑...신혼부부 살기엔 여전히 부담
-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 평균 3.9점, 여성·기혼이 더 동의

서울시 저출생 해법, 남녀가 보는 핵심 달라

- 남성은 경제적 지원, 여성은 워라밸·돌봄 인프라 더 중시

서울시 저출생 정책 인지도, 연령대와 자녀유무 따라 차이

-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인지도 20-30대와 무자녀 상대적으로 낮아
- ‘미리내집’ 인지도 미취학 자녀 부모와 50대 상대적으로 높아

부모 교육·코칭 경험 시민 과반수 이상, “실제 도움”

- 부모 중 14% 경험, 그중 57% “도움 됐다”, 주로 학교·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 현재 부족하지만, 중요한 교육주제 1순위는 ‘효과적인 성교육’

1

가족 친화 도시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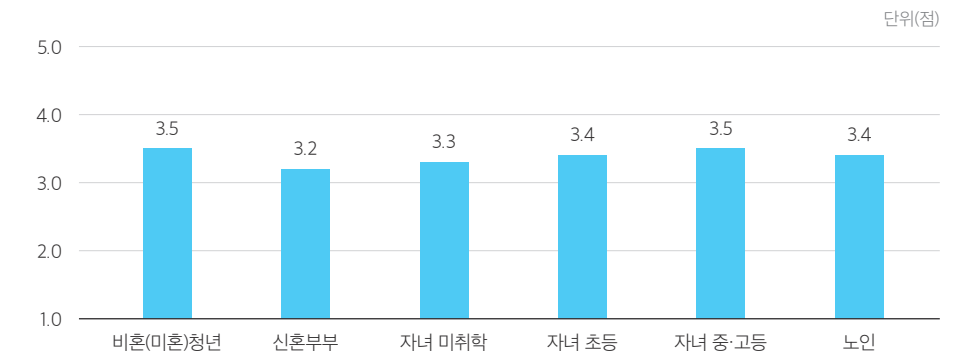


서울은 어떤 시기의 가족에게 살기 좋은가?: 개괄

신규 서울은 어떤 시기의 가족에게 살기 좋은 도시인가?: 전체

다양한 생애주기의 가족을 제시하고 서울은 누구에게 살기 좋은 곳인지(범위: 1-5점)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평균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평균 3.5점), **비혼(미혼) 청년**(3.5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3.4점), **노인**(3.4점),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3.3점), **신혼부부**(3.2점) 순으로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응답하였음

서울시는 OOO이(가) 살기 좋다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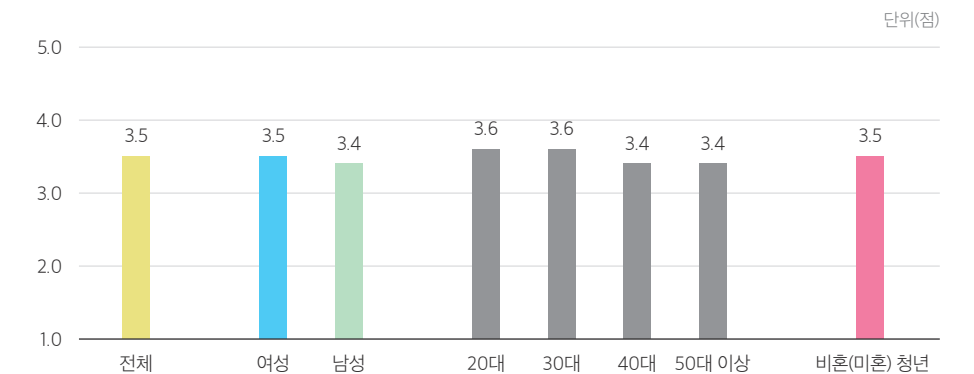


청년 및 신혼부부와 서울

신규 서울은 비혼(미혼) 청년에게 살기 좋은 지역인가?: 전체, 성별, 연령대별

- ‘서울시는 **비혼(미혼) 청년**이 살기 좋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5점으로 ‘보통이다’(3점)와 ‘대체로 그렇다’(4점)의 중간이었음
- **성별**로는 **여성**(3.5점)이 남성(3.4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20대**(3.6점)와 **30대**(3.6점)가 50대 이상(3.4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비혼(미혼) 청년**의 동의 수준은 **3.5점**으로 ‘보통이다’(3점)와 ‘대체로 그렇다’(4점)의 중간이었음

서울시는 비혼(미혼) 청년이 살기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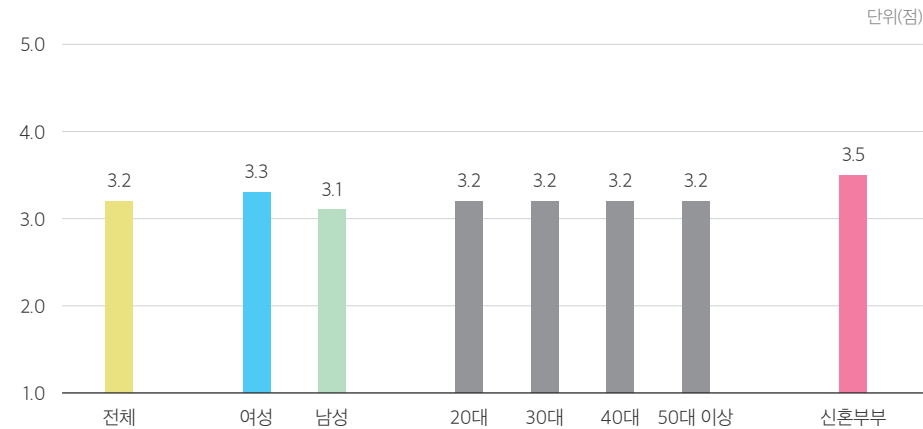
주
‘비혼(미혼) 청년’은 결혼하지 않은 20-30대 564명의 응답임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신규 서울은 신혼부부에게 살기 좋은 지역인가?: 전체, 성별, 연령대별

- ‘서울시는 **신혼부부**가 살기 좋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2점으로 ‘보통이다’(3점)보다 약간 높았음
- 성별로는 **여성**(3.3점)이 남성(3.1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신혼부부**의 동의 수준은 **3.5점**으로 ‘보통이다’(3점)와 ‘대체로 그렇다’(4점)의 중간이었음
-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서울시는 신혼부부가 살기 좋다



단위(점)

주
'신혼부부'는 결혼한지 7년 이하의 무
자녀 부부 90명의 응답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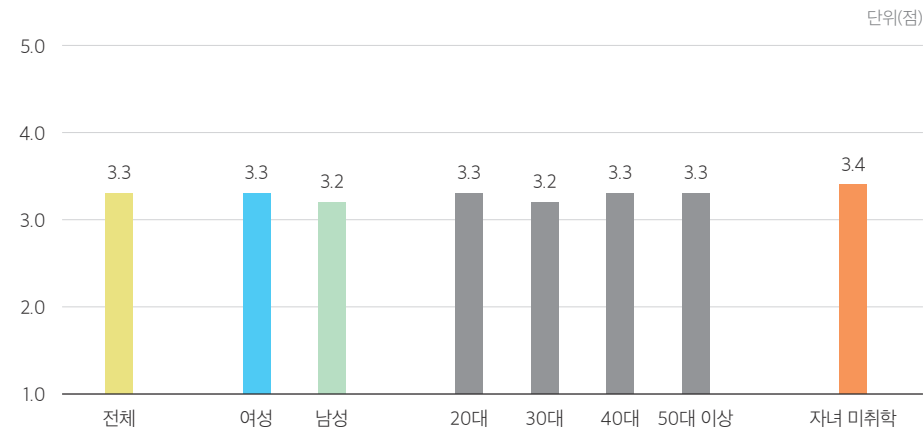


자녀 양육기 가족과 서울

신규 서울은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에게 살기 좋은 지역인가?: 전체, 성별, 연령대별

- ‘서울시는 **미취학 자녀**를 키우면서 살기 좋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3점**으로 ‘보통이다’(3점)보다 약간 높았음
-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동의 수준은 **3.4점**으로 ‘보통이다’(3점)보다 약간 높았음
- 성별 및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서울시는 미취학 자녀를 키우면서 살기 좋다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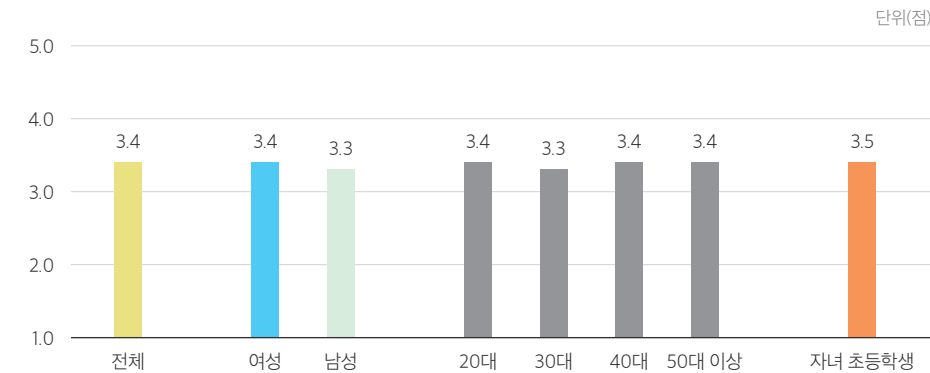
주
'자녀 미취학'은 미취학 자녀의 부모
52명의 응답(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신규 서울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에게 살기 좋은 지역인가?:전체, 성별, 연령대별

- ‘서울시는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면서 살기 좋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4점**으로 ‘보통이다’(3점)와 ‘대체로 그렇다’(4점)의 중간이었음
-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의 동의 수준은 **3.5점**으로 ‘보통이다’(3점)와 ‘대체로 그렇다’(4점)의 중간이었음
- 성별 및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서울시는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면서 살기 좋다



단위(점)

주
'자녀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부모 77명의 응답
(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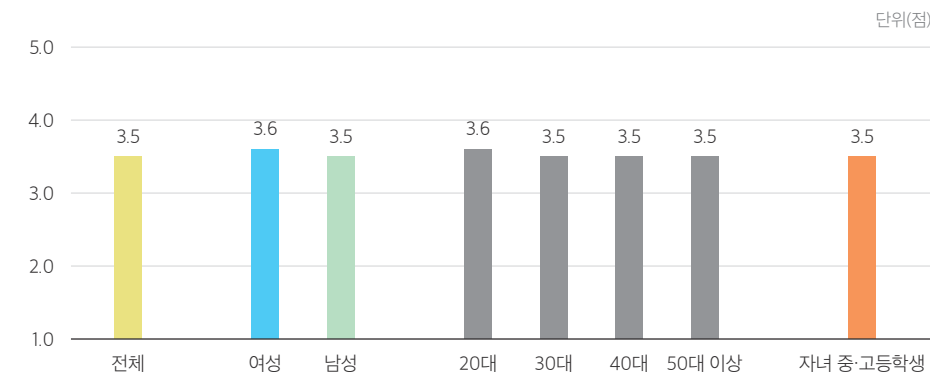


청소년기 가족과 서울

신규 서울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에게 살기 좋은 지역인가?:전체, 성별, 연령대별

- ‘서울시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면서 살기 좋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5점**으로 ‘보통이다’(3점)와 ‘대체로 그렇다’(4점)의 중간이었음
- 성별로는 **여성**(3.6점)이 남성(3.5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의 동의 수준은 **3.5점**으로 ‘보통이다’(3점)와 ‘대체로 그렇다’(4점)의 중간이었음
-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서울시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면서 살기 좋다



단위(점)

주
'자녀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부모 129명의 응답임
(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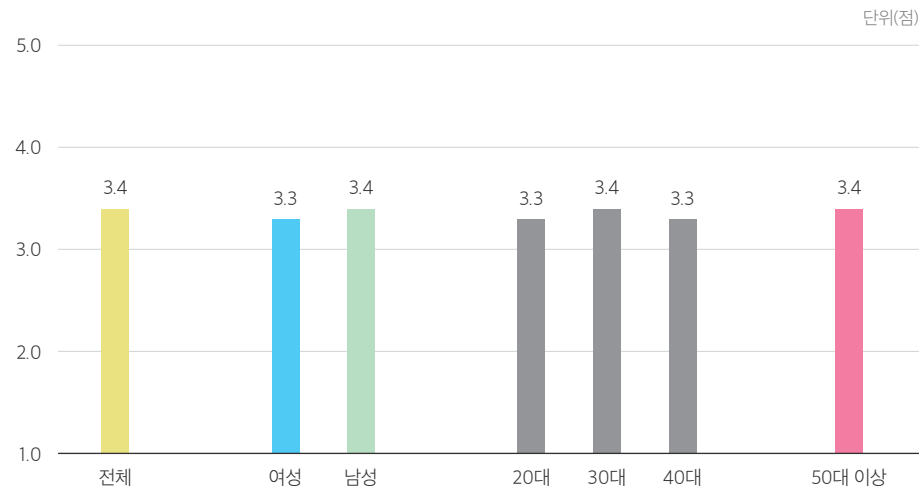


노인과 서울

신규 서울은 노인에게 살기 좋은 지역인가?: 전체, 성별, 연령대별

- ‘서울시는 노인이 살기 좋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4점**으로 ‘보통이다’(3점)와 ‘대체로 그렇다’(4점)의 중간이었음
- **50대 이상** 서울 시민의 응답은 **3.4점**으로 ‘보통이다’(3점)와 ‘대체로 그렇다’(4점)의 중간이었음
- 성별 및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서울시는 노인이 살기 좋다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신혼부부에게는 상대적으로 살기 힘든 도시 서울

2025년 서울가족서베이 결과, ‘서울은 신혼부부가 살기 좋다’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3.2점이었 다. 이는 함께 질문한 여러 시기의 가족, 즉 ‘비혼(미혼) 청년’,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 ‘초등학생 자 녀를 둔 가족’,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노인’이 살기 좋다는 문항의 평균보다 낮은 점수이다. 즉, 다른 시기와 비교할 때 서울이 신혼부부가 살기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도시라고 인식하고 있음 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서울에서 신혼부부 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시기에 부모됨을 계획하고 이행하 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이 신혼부부가 살기에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는 서 울이 전국에서도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광역자치단체인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을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미 리내집」과 같은 정책의 확대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서울이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진 정한 가족 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거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일자리, 돌봄 인프라, 여가와 사 회적 관계망 형성 등 물리적,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아우르는 다차원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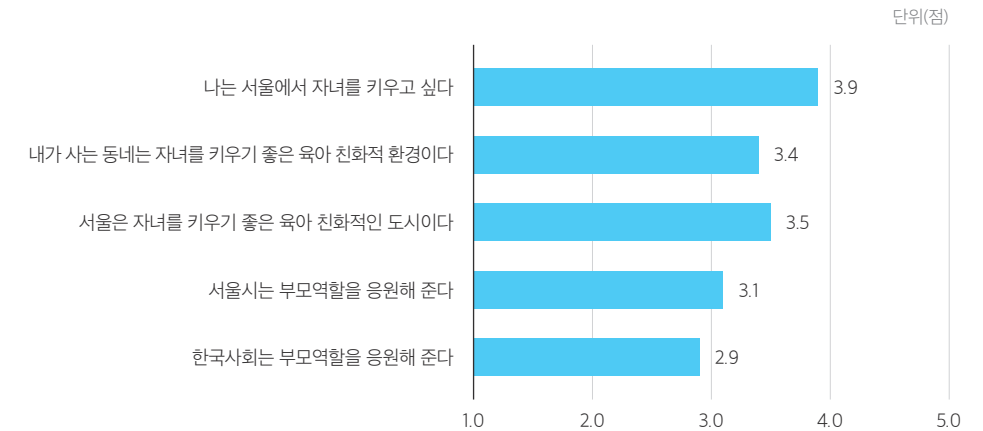


서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인가?: 개괄

서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인가?: 전체

- 서울의 **육아환경**에 대한 인식(범위: 1-5점)을 20-64세 서울 시민에게 질문한 결과, ‘나는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평균 **3.9점**으로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내가 사는 동네는 자녀를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적 환경이다’(3.4점)와 ‘서울은 자녀를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적인 도시이다’(3.5점)는 ‘보통이다’(3점)와 ‘대체로 그렇다’(4점)의 중간이었음
- ‘서울시는 부모역할을 응원해 준다’(3.1점)와 ‘한국사회는 부모역할을 응원해 준다’(2.9점)는 보통 수준이었음

서울에서의 자녀 양육 환경 인식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1. 기원전 도시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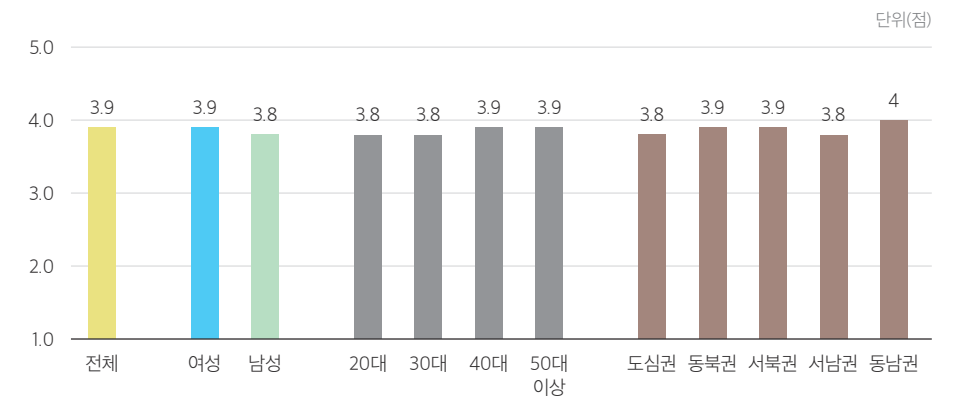


서울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가?

서울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가?: 전체,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 ‘나는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범위: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9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였음
- **성별**로는 여성(3.9점)이 남성(3.8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 차이와 권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나는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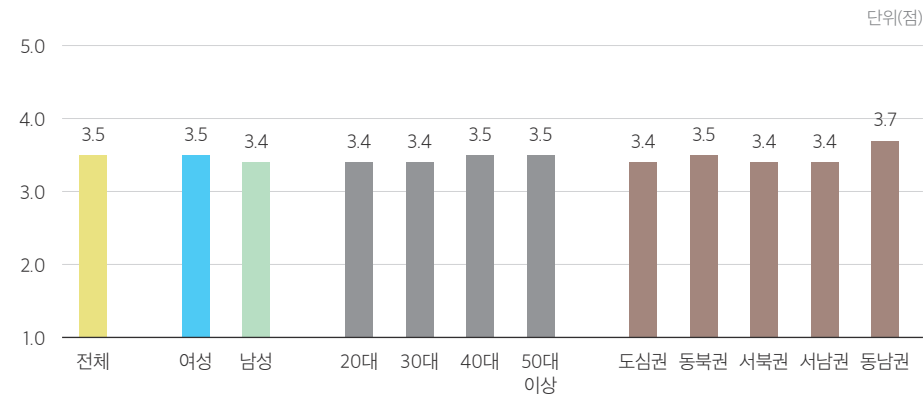


서울은 육아 친화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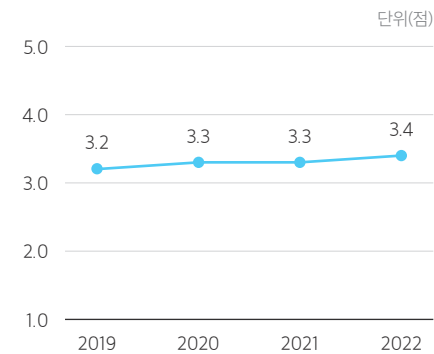
서울은 육아 친화적인가?: 전체,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 ‘서울은 자녀를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적인 도시이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5점**으로 ‘보통이다’(3점)와 ‘대체로 그렇다’(4점)의 중간이었음. **2023년 및 2024년의 평균 3.3점보다 약간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40대(3.5점)**와 **50대 이상(3.5점)**이 30대(3.4점)보다 높았음
- **권역별**로는 **동남권(3.7점)**이 타 권역에 비해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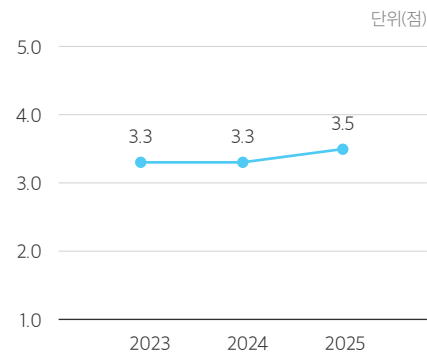
서울은 자녀를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적인 도시이다



서울은 가족이 살기 좋은 가족 친화적인 도시이다



서울은 자녀를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적인 도시이다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전체 응답자
(2019년 1,600명, 2020년 1,940명,
2021년 1,637명, 2022년 1,703명,
2023년 1,584명, 2024년 1,574명,
2025년 1,66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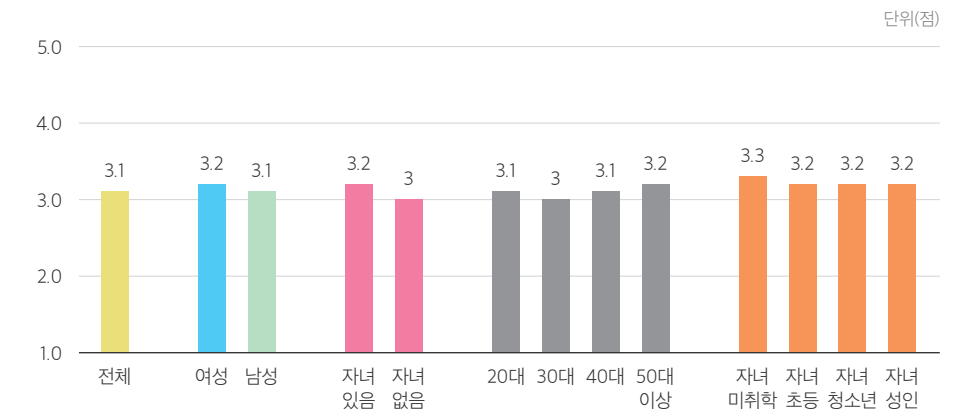
서울은 부모역할을 응원하나?

서울은 부모역할을 응원하는가?:

전체, 성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연령대별

- ‘서울시는 부모역할을 응원해 준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1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음
-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로는 **자녀가 있는 집단(3.2점)**이 자녀가 없는 집단(3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20대(3.1점), 40대(3.1점), 50대 이상(3.2점)**이 30대(3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서울시는 부모역할을 응원해 준다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
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응답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2025 서울 가족 클로즈업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할까?

‘나는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라는 진술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동의한 20~30대 무자녀 기혼 서울 시민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여성일 때
-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결혼한 사람이
- 부모님이 서울에 거주할 때
- 서울이 육아 친화적인 도시라고 인식할수록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응답자 중 20~30대이고, 배우자가 있으며, 자녀가 없는 응답자 805명



도시 전체의 육아 친화도 향상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필요

2025년 서울가족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서울을 육아 친화적인 도시라고 인식할수록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진술에 동의하였다. 이는 육아 지원을 위한 특정 정책이나 시설의 존재 이외에 도시 전반의 환경과 문화가 그 도시에서의 자녀 양육 의향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서울에서 자녀 양육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책 마련이나 개별 시설의 건립, 일회성 행사 개최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즉 도시 전체 수준의 거시적이고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육아 친화적인 물리적 인프라 구축, 육아 친화적 가치 확산 및 문화조성 등을 통해, 도시 전체가 육아에 적합한 환경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해외 사례



스웨덴 부모들의 자연스러운 양육모임

스웨덴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Svenska med Baby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만나고 소통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모여 특정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열린 모임을 제공한다. 자녀의 발달단계나 부모의 특성에 따라 ① 부모 모임(다양한 배경의 부모가 모여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형성), ② 아버지 모임(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 ③ 3세대 모임(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이주 가족과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노인들의 만남), ④ 주말 가족 모임(주말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요리, 놀이, 정원 가꾸기 등 활동), ⑤ 대상 특화 프로그램(난민, 이주 가족의 적응을 위해 스웨덴어 교육 및 취업 정보 전달) 등을 운영한다.

Svenska med Baby의 공동 창립자들은 자신의 육아휴직 중에 다양한 부모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을 체감하여 이 단체를 창립하였다. 이 단체의 모임은 양육 과정에서 느끼는 부모의 고립감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자발적인 부모 모임 형성을 통해 다른 부모들과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며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현재 스웨덴 내 20개 지자체, 26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자료 Svenska med Baby. (n.d). Parents' meetings for equality and inclusion.
<https://svenskamedbaby.se/en/>

해외 사례



호주 영유아와 양육자의 놀이모임

호주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Playgroup Australia는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배경의 영유아(0-5세)와 양육자가 놀이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모임을 제공한다. 이러한 모임은 운영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커뮤니티 놀이모임(community playgroup)은 영유아와 양육자가 자발적으로 모여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 가며 자유롭게 놀이하는 형태이며, 지원형 놀이모임(supported playgroup)은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해 부모 교육, 양육 상담,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놀이모임은 양육자와 영유아 모두에게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는 안전한 장을 제공하며, 양육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지지하는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Playgroup Australia는 40년 이상 운영되어 왔으며, 호주 전역에서 7,500개 이상의 놀이모임이 운영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자료 1) AIFS. (2025, June). What supports participation in playgroups?
<https://aifs.gov.au/resources/practice-guides/what-supports-participation-playgroups>
 2) Playgroup Australia. (2019, August 16). Ageless play intergenerational playgroups [Video].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_F Xu75XzYp4

2025 서울가족정책



서울시가족센터 맞돌봄 프로젝트

서울시가족센터 '맞돌봄 프로젝트'는 남성 양육자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14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일환으로 러닝, 보드게임, 합창 등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맞돌봄 프로젝트'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양육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장을 제공함으로써, 남성 양육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가족 내 역할 균형을 높이며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자료 패밀리서울(n.d). 서울시 맞돌봄 캠페인 '아자러너' 이벤트 안내.
<https://blog.naver.com/seoulfamilyc/224008672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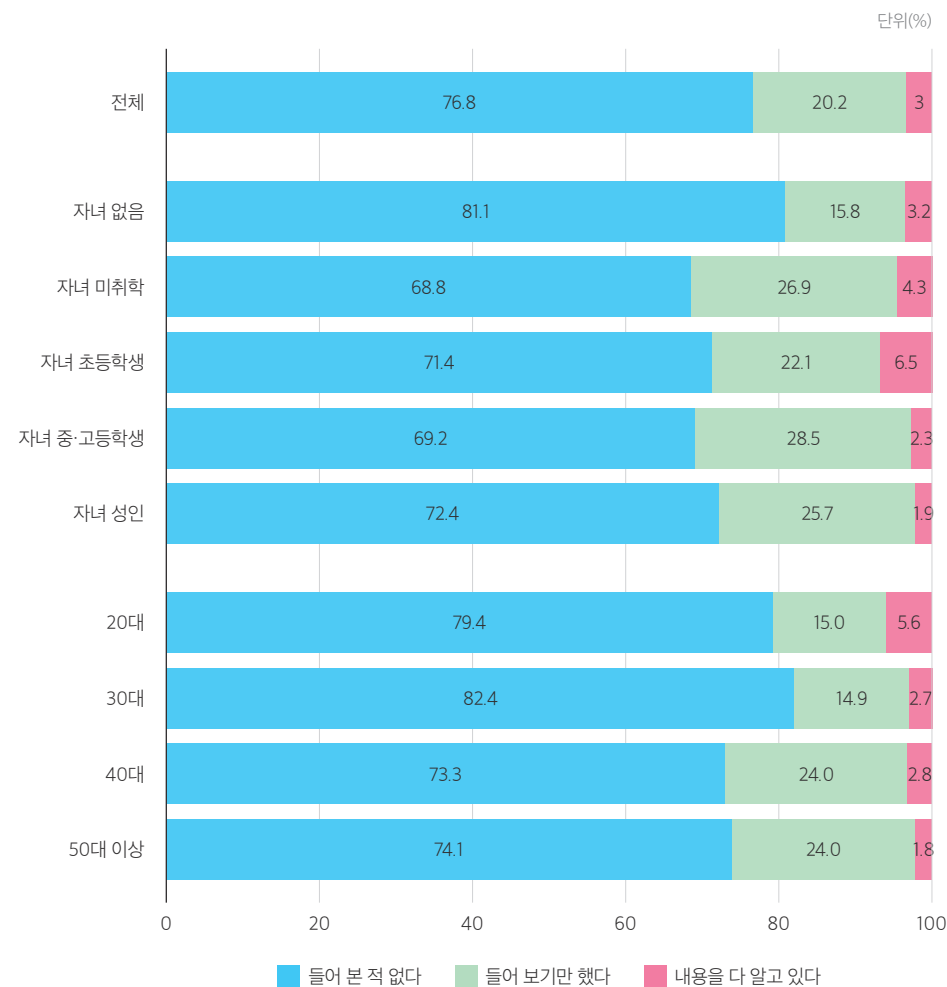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 인지도

신규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인지도: 전체,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연령대별

- ‘서울시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23.2%**는 내용을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었음
- 인지도를 1점부터 3점으로 하여 평균을 산출한 결과,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로는 **자녀가 있는 집단(1.3점)**이 자녀가 없는 집단(1.2점)보다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에 대해 알고 있었음
- **연령대별**로는 **40대(1.3점)**와 **50대(1.3점)**가 30대(1.2점)보다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음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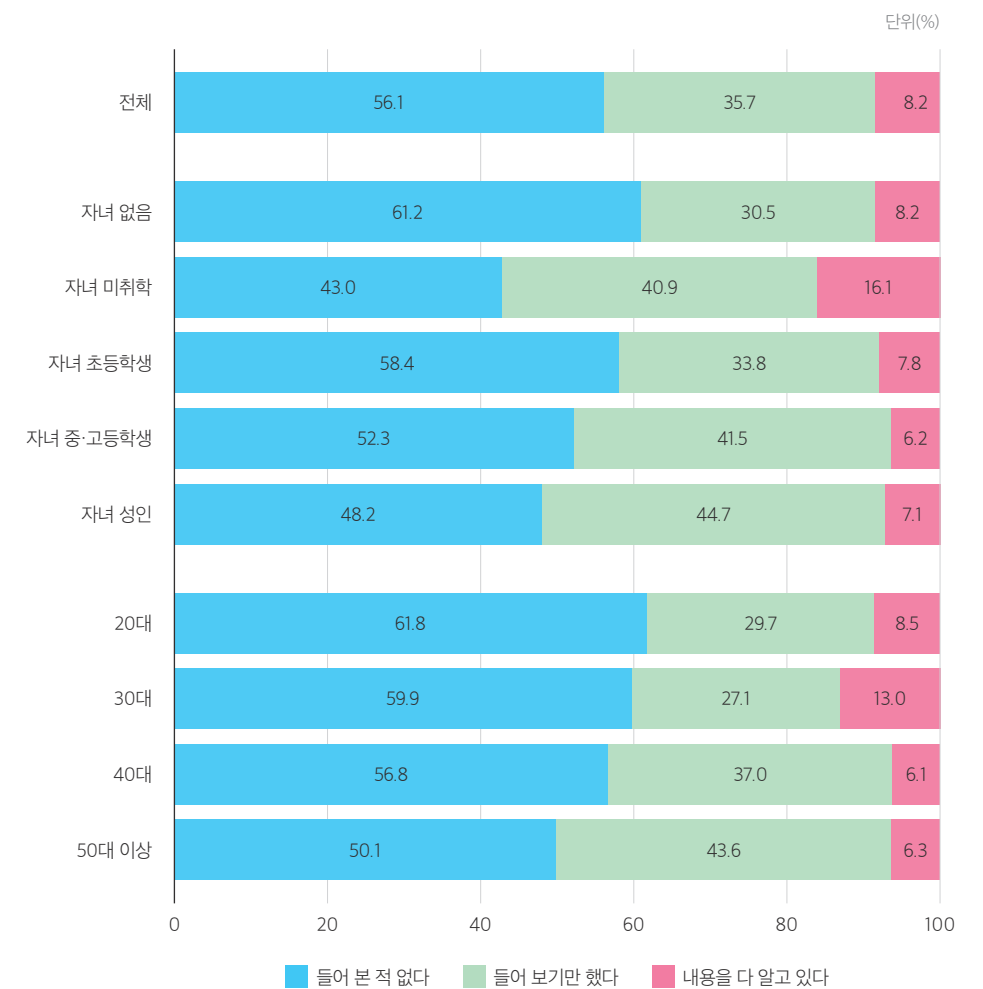
주
‘자녀 미취학’은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부모 93명, ‘자녀 초등학생’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77명, ‘자녀 중·고등학생’은 18세 이하의 중·고등 자녀를 둔 부모 130명, ‘자녀 성인’은 19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421명의 응답을 활용함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 전체 응답자

신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 인지도: 전체,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연령대별

- ‘서울시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알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43.9%**는 내용을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있었음
- 인지도를 1점부터 3점으로 하여 평균을 산출한 결과,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로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단(1.7점)**이 자녀가 없는 집단(1.5점),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단(1.5점),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단(1.5점)보다 「미리내집」에 대해 더 알고 있었음
- **연령대별**로는 **50대(1.6점)**가 20대(1.5점)보다 「미리내집」에 대해 더 알고 있었음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주
‘자녀 미취학’은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부모 93명, ‘자녀 초등학생’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77명, ‘자녀 중·고등학생’은 18세 이하의 중·고등 자녀를 둔 부모 130명, ‘자녀 성인’은 19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421명의 응답을 활용함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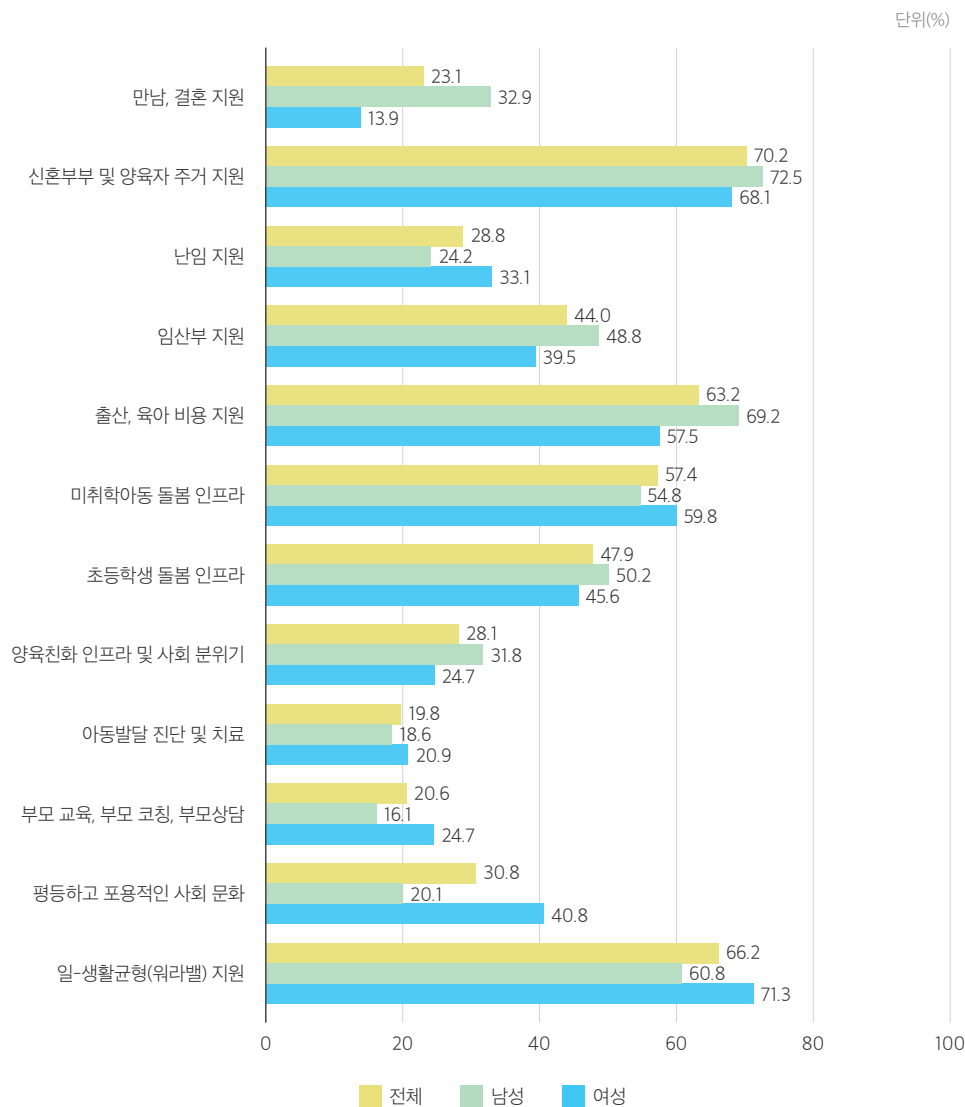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 영역별 요구도

신규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 영역별 요구도: 전체, 성별

- 저출생 대응을 위해 서울시가 정책적 노력을 한다면 어떤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5가지 영역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이 많이 선택한 영역은 ‘**신혼부부 및 양육자 주거 지원**’(70.2%), ‘**일-생활균형(워라밸) 지원**’(66.2%), ‘**출산, 육아 비용 지원**’(63.2%)이었음
- 남성이 가장 많이 선택한 영역은 ‘**신혼부부 및 양육자 주거 지원**’(72.5%), ‘**출산, 육아비용 지원**’(69.2%), ‘**일-생활균형 지원**’(60.8%) 순이었으며, 여성이 가장 많이 선택한 영역은 ‘**일-생활균형 지원**’(71.3%), ‘**신혼부부 및 양육자 주거 지원**’(68.1%), ‘**미취학 아동 돌봄 인프라**’(59.8%) 순이었음
- 성별에 따른 응답의 차이가 가장 큰 문항은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 문화**’(남성 20.1%, 여성 40.8%), ‘**만남, 결혼 지원**’(남성 32.9%, 여성 13.9%), ‘출산, 육아 비용 지원’(남성 69.2%, 여성 57.5%)이었음

저출생 대응을 위해 서울시가 정책적 노력을 한다면
어떤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가지 선택)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남성은 경제 지원, 여성은 인프라 조성, 저출생 대응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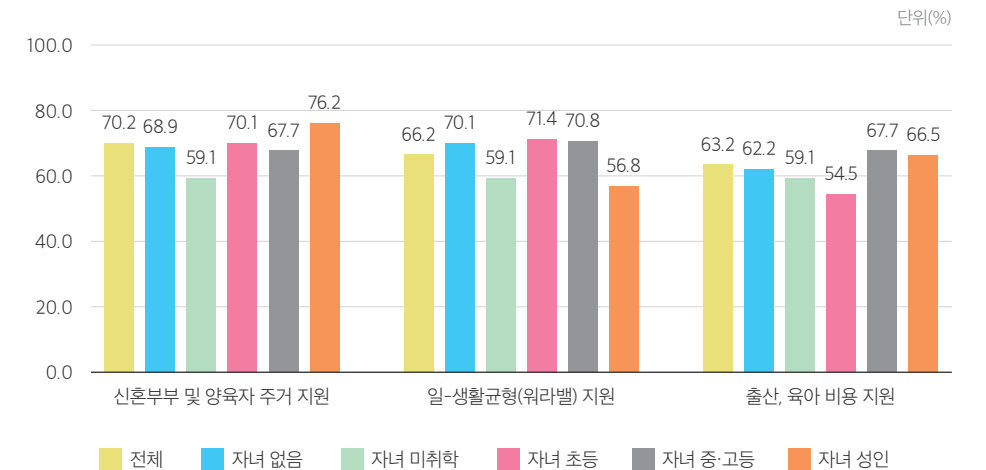
2025년 서울가족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정책 영역은 ‘신혼부부 및 양육자 주거 지원’, ‘출산 및 육아비용 지원’, ‘일-생활 균형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 경제적 지원을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반면, 여성은 ‘일-생활 균형 지원’, ‘신혼부부 및 양육자 주거 지원’, ‘미취학 아동 돌봄 인프라 구축’을 주요 정책 영역으로 응답하여, 양육과 돌봄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체감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돌봄 인프라 강화를 병행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가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책 효과를 성별로 구분해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규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 영역별 요구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 ‘신혼부부 및 양육자 주거 지원’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인 자녀를 둔 집단**(76.2%)이 미취학 자녀를 둔 집단(59.1%)보다 높았음
- ‘일-생활균형(워라밸) 지원’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녀가 없는 집단**(70.1%)이 미취학 자녀를 둔 집단(59.1%), 성인자녀를 둔 집단(56.8%)보다 높았으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집단**(71.4%) 혹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집단**(70.8%)이 성인 자녀를 둔 집단(56.8%)보다 높았음
- ‘출산, 육아 비용 지원’의 중요성 인식은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저출생 대응을 위해 서울시가 정책적 노력을 한다면
어떤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가지 선택)



주
‘자녀 미취학’은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부모 93명, ‘자녀 초등’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77명, ‘자녀 중·고등’은 18세 이하의 중·고등 자녀를 둔 부모 130명, ‘자녀 성인’은 19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421명의 응답을 활용함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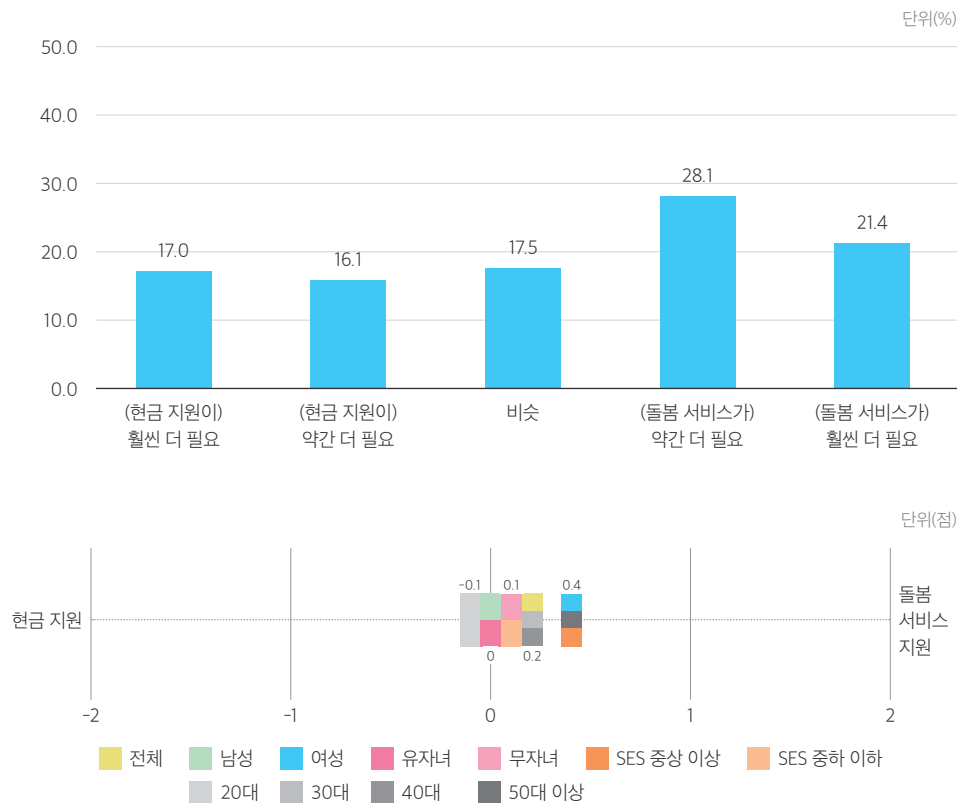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 선호도

신규 양육자 대상 현금 지원 vs. 돌봄 서비스 지원:

전체, 성별, 자녀 유무별, 연령대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별, 일자리 유무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양육자 정책으로 ‘**현금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와 ‘**돌봄 서비스가 훨씬 더 필요하다**’를 양쪽에 두고 20~64세 서울 시민이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지 조사한 결과, ‘돌봄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돌봄서비스가 ‘약간 더 필요하다’ 혹은 ‘훨씬 더 필요하다’)이 49.5%로 현금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인 33.1%보다 더 높았음
- ‘현금 지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에 -2점, ‘돌봄 서비스가 훨씬 많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에 2점을 부여한 결과, 전체 평균은 0.2점으로 ‘**비슷하다**’(0점)와 ‘**돌봄 서비스가 약간 더 필요하다**’(1점)의 사이였음
- **성별**로는 **여성**(0.4점)이 남성(0점)보다 돌봄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자녀 유무**로는 **자녀가 없는 집단**(0.1점)이 자녀가 있는 집단(0점)보다 돌봄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0.4점)이 다른 연령대보다 돌봄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0대**(-0.1점)는 다른 연령대보다 현금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로는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상 이상으로 인식하는 집단**(0.4점)은 그렇지 않은 집단(0.1점)보다 돌봄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일자리 유무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양육자 대상 현금 지원 vs. 돌봄 서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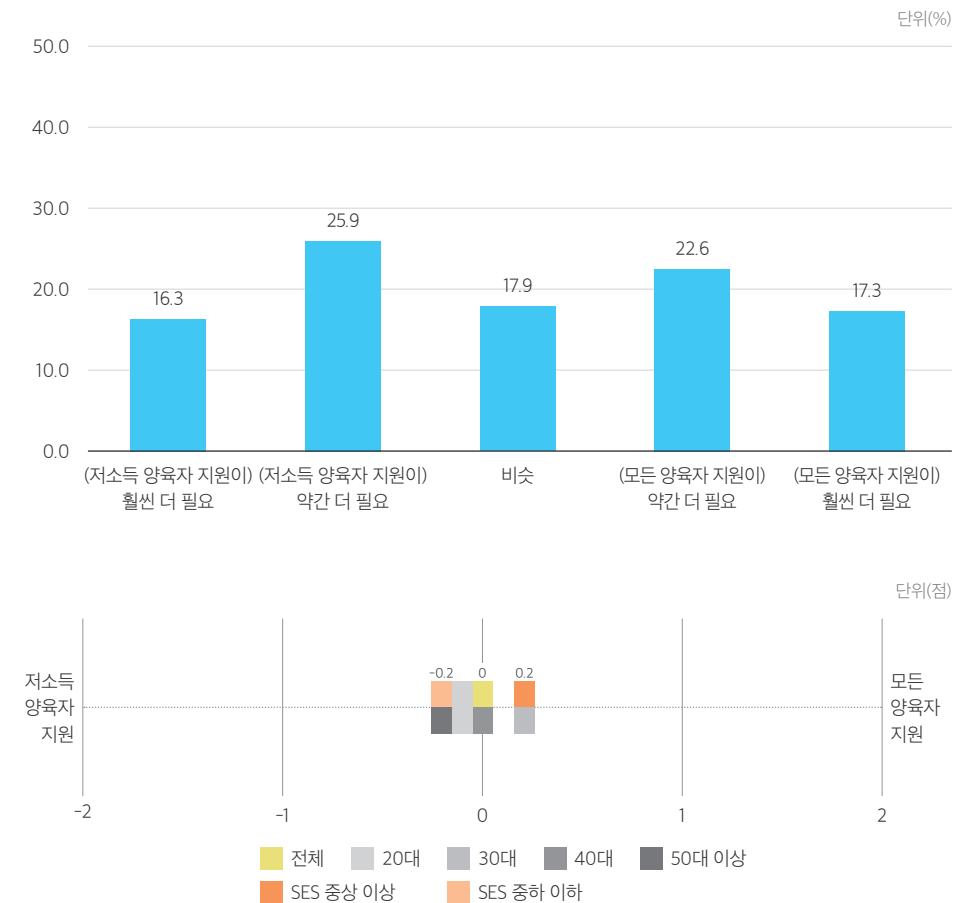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신규 저소득 양육자 지원 vs. 모든 양육자 지원:

전체, 성별, 자녀 유무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별, 연령대별, 일자리 유무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양육자 정책의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양육자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와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양육자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를 양쪽에 두고 20~64세 서울 시민이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지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양육자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소득 낮은 양육자 지원 ‘약간 더 필요하다’ 혹은 ‘훨씬 더 필요하다’)이 42.2%로 모든 양육자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인 39.9%보다 높았음
-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양육자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응답에 -2점,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양육자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응답에 2점을 부여한 결과, 전체 평균은 0점으로, 서울 시민은 소득이 낮은 양육자 지원과 소득과 무관한 모든 양육자 지원의 필요성을 **비슷하게 인식하였음**
- **연령대별**로는 **30대**(0.2점)가 20대(-0.1점)와 50대 이상(-0.2점)보다 모든 양육자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로는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상 이상으로 인식하는 집단**(0.2점)이 그렇지 않은 집단(-0.2점)보다 모든 양육자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성별, 자녀 유무별, 일자리 유무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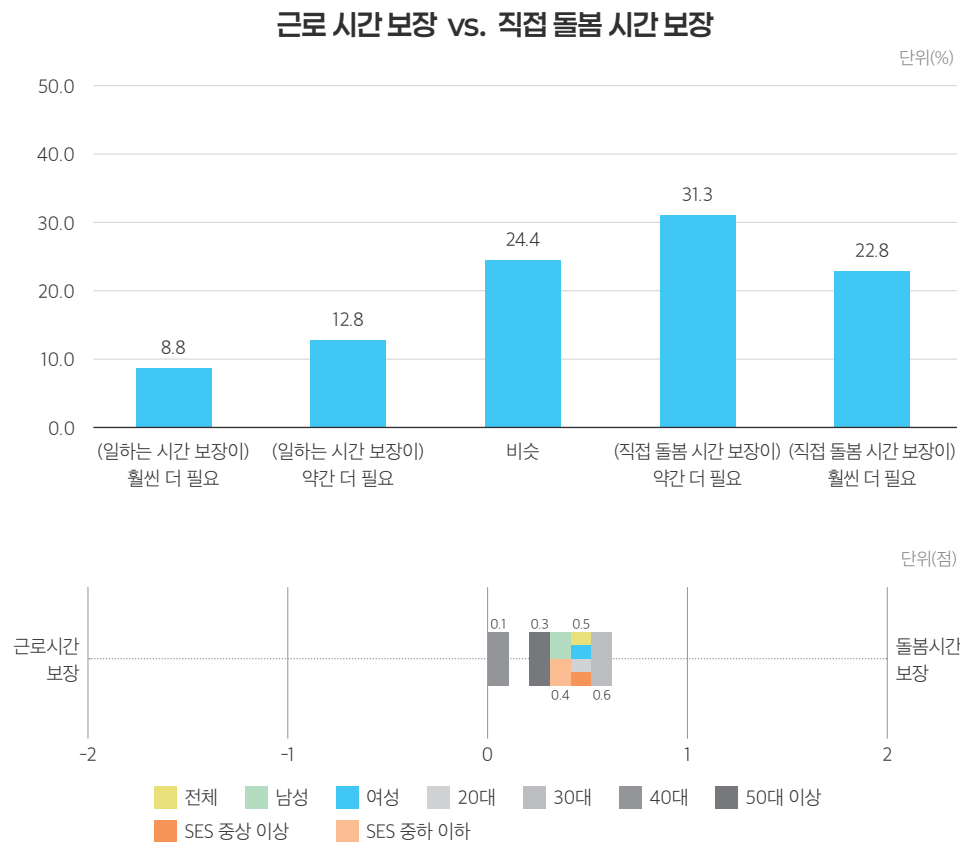
저소득 양육자 지원 vs. 모든 양육자 지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신규 **근로 시간 보장 vs. 직접 돌봄 시간 보장:**
전체, 성별, 자녀 유무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별, 연령대별, 일자리 유무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양육자 정책으로 ‘양육자의 일하는 시간 보장이 훨씬 더 필요하다’와 ‘양육자의 자녀 직접 돌봄 시간 보장이 훨씬 더 필요하다’를 양쪽에 두고 20~64세 서울 시민이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지 조사한 결과, ‘양육자의 자녀 직접 돌봄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양육자 직접 돌봄 시간 보장 ‘약간 더 필요하다’ 혹은 ‘훨씬 더 필요하다’)이 54.1%로 ‘양육자의 일하는 시간 보장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인 21.6%보다 더 높았음
- ‘양육자의 일하는 시간 보장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응답에 -2점, ‘양육자의 자녀 직접 돌봄 시간 보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응답에 2점을 부여한 결과, 전체 평균은 0.5점으로, ‘비슷하다’(0점)와 ‘직접 돌봄 시간이 약간 더 필요하다’(1점)의 중간이었음
- 성별로는 여성(0.5점)이 남성(0.4점)보다 양육자의 직접 돌봄 시간 보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음
- 연령대별로는 20대(0.5점)와 30대(0.6점)가 50대 이상(0.3점)보다, 50대 이상(0.3점)은 40대(0.1점)보다 양육자의 직접 돌봄 시간 보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음
- 사회경제적 지위별로는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상 이상으로 인식하는 집단(0.5점)이 그렇지 않은 집단(0.4점)보다 양육자의 직접 돌봄 시간 보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음
- 자녀 유무 및 일자리 유무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2025 서울 가족 클로즈업



20-40대의 저출생 대응 정책 인지도 및 주거 지원 정책 필요도

서울시 저출생 대응정책의 주요 대상인 20-40대 시민 중 어떤 이들이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와 「미리내집」 정책을 더 인지하고 있는지, 신혼부부 및 양육자 주거 지원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인지도

- 여성일 때
-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
- (무자녀 기혼자에 비해) 비혼(미혼) 무자녀일 때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인지도가 높았음

「미리내집」 인지도

-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
- 배우자가 있을 때



「미리내집」 정책 인지도가 높았음

신혼부부 및 양육자 주거 지원 정책 필요도

- 남성일 때
-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때
- 초등학교 이상 연령의 자녀가 있을 때
- 주거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여길수록



신혼부부 및 양육자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20-40대 전체 응답자 1,06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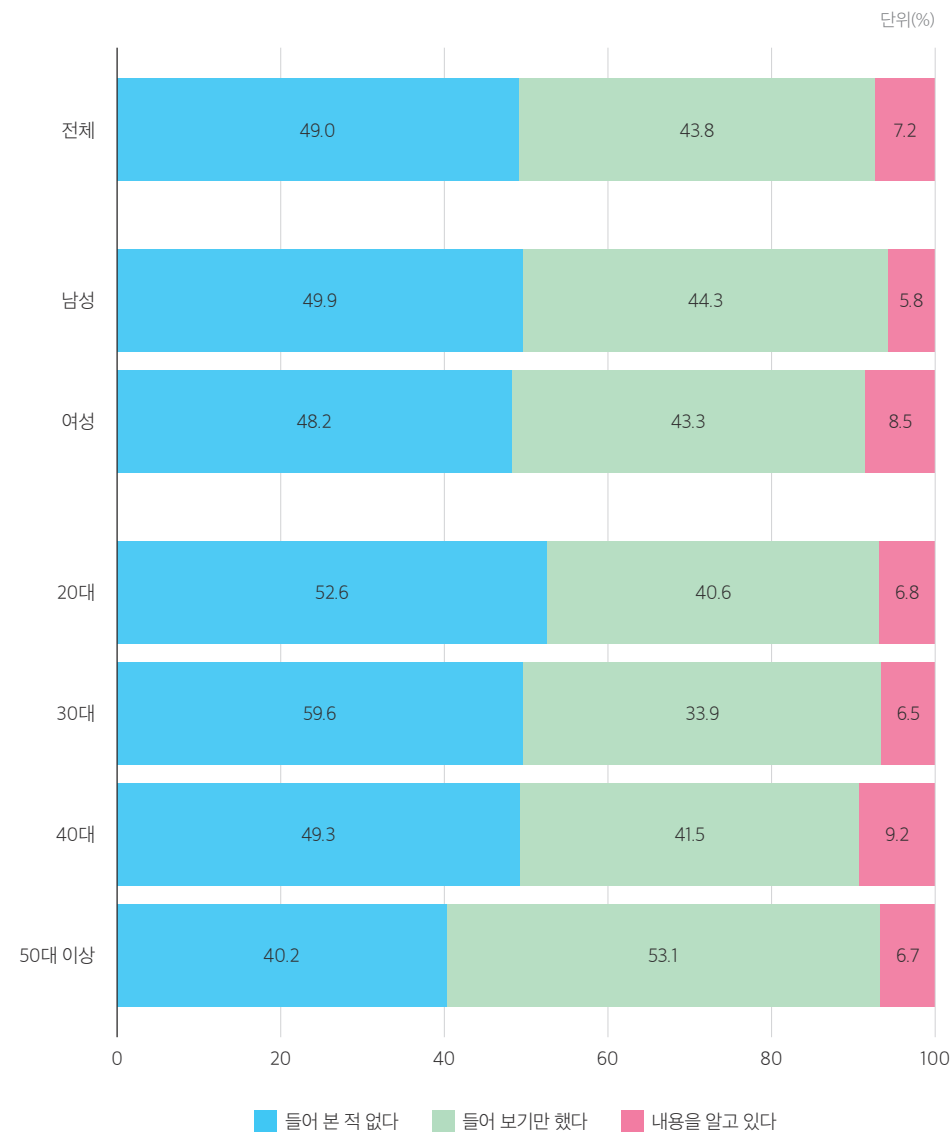


가족센터 인지도

가족센터 인지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 '귀하는 가족센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51%**는 가족센터에 관해 들어 본 적이 있거나 내용을 알고 있었음
- 인지도를 1점부터 3점으로 하여 평균을 산출한 결과, **연령대별**로는 **40대**(1.6점)와 **50대**(1.7점)가 20대(1.5점)와 30대(1.5점)보다 높았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귀하는 가족센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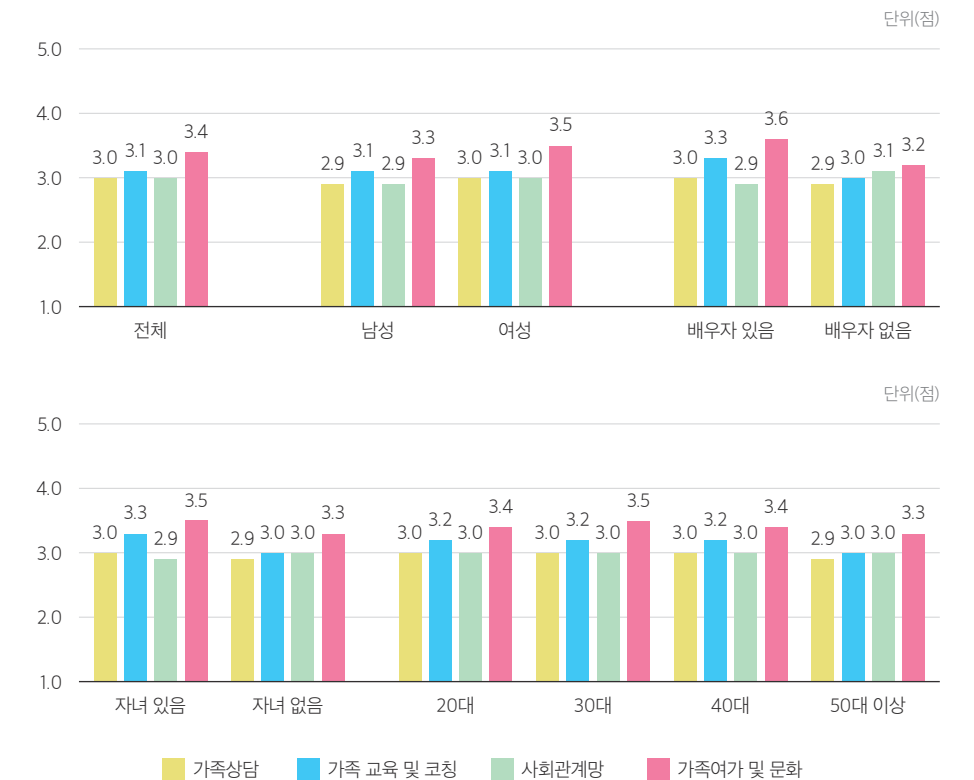


영역별 가족 지원 서비스 참여 의향

신규 영역별 가족 지원 서비스 참여 의향: 전체, 성별, 결혼 여부별, 자녀 유무별, 연령대별

-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가족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면 참여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의 평균은 **3.4점**으로 '보통이다'(3점)와 '대체로 있다'(4점) 사이였으며 **가족 상담**(3점), **가족 교육 및 코칭**(3.1점), **사회관계망 형성지원 서비스**(3점)의 경우 보통 수준이었음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관계망 형성 서비스**(여성 3점, 남성 2.9점)와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여성 3.5점, 남성 3.3점)에 대한 참여 의향이 높았음
- **결혼 여부**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보다 **가족상담**(유배우자 3점, 무배우자 2.9점), **가족 교육 및 코칭**(유배우자 3.3점, 무배우자 3점),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유배우자 3.6점, 무배우자 3.2점)에 대한 참여 의향이 높았으며 **사회관계망 형성지원 서비스**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집단**(3.1점)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2.9점)에 비해 참여 의향이 높았음
- **자녀 유무**로는 **자녀가 있는 집단**이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 **가족상담**(유자녀 3점, 무자녀 2.9점), **가족 교육 및 코칭**(유자녀 3.3점, 무자녀 3점),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유자녀 3.5점, 무자녀 3.3점)에 대한 참여 의향이 높았으나, **사회관계망 형성지원 서비스**는 **자녀가 없는 집단**(3점)이 자녀가 있는 집단(2.9점)보다 높았음
- **연령대**로는 **20대**(3.2점), **30대**(3.2점), **40대**(3.2점)가 50대 이상(3점)보다 **가족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참여 의향이 높았음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가족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면 참여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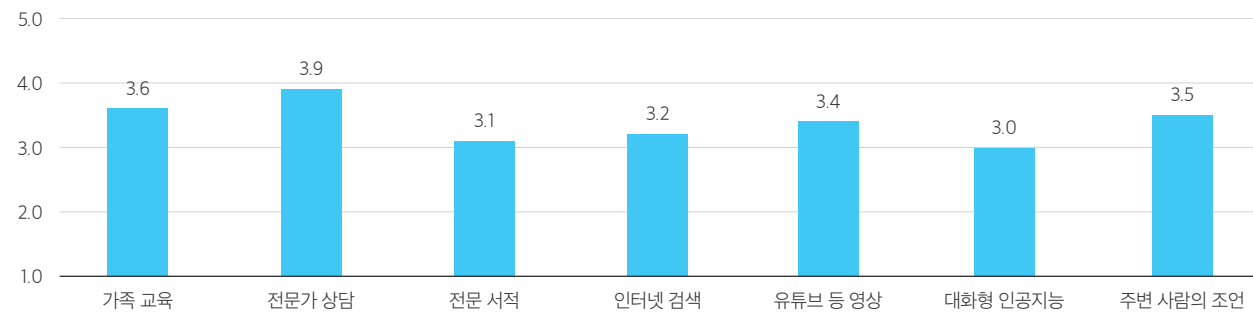
신규 가족생활 및 부모역할 어려움에 도움이 될 방법: 전체

가족생활 어려움에 도움이 되는 방법

- '귀하가 가족생활이나 부모역할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다음의 항목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은 '전문가 상담'(3.9점)이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했음
- '가족 교육'(3.6점), '유튜브 등 영상'(3.4점), '주변 사람의 조언'(3.5점)은 '보통이다'(3점)와 '대체로 그렇다'(4점)의 중간이었음
- '전문 서적'(3.1점), '인터넷 검색'(3.2점), '대화형 인공지능'(3점)은 보통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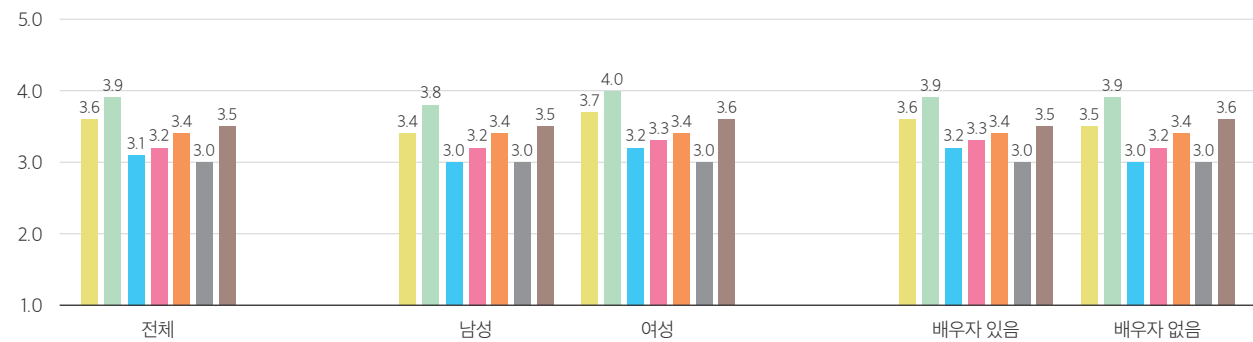
가족생활 및 부모역할에 다음의 항목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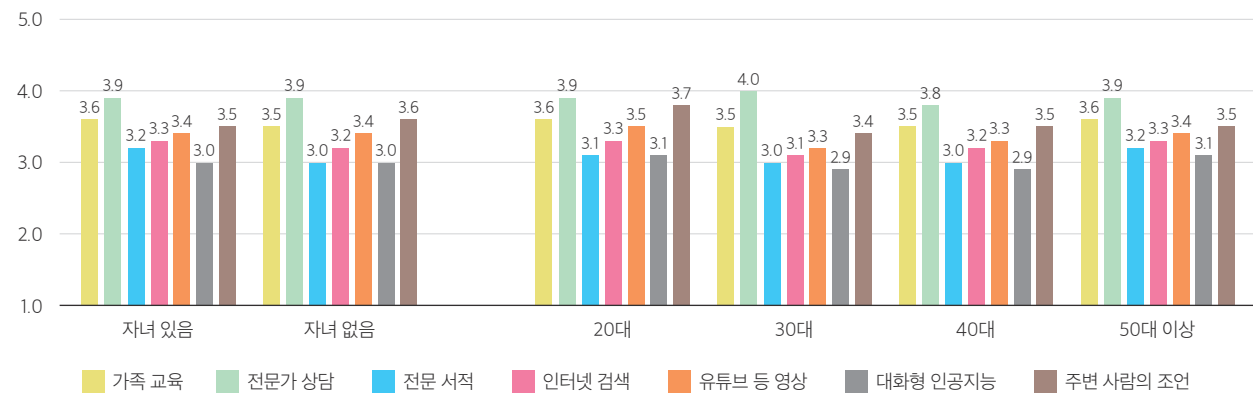


가족생활 및 부모역할에 다음의 항목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점)



단위(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대화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족 지원 서비스

2025년 서울가족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20-64세 서울 시민은 가족생활이나 부모역할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대화형 인공지능'이 '전문 서적'과 '인터넷 검색'과 비슷한 수준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대화형 인공지능이 가족생활 및 부모역할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한 정보 검색의 수단으로서 기존의 방법들과 유사한 수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대화형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심리상담 및 감정적 동반자'(Zao-Sanders, 2025)임을 고려할 때, 대화형 인공지능은 가족생활과 부모역할 수행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족에게 정보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까지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화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족상담이나 가족 교육과 같은 가족 지원 서비스가 공공영역에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가족센터 종사자들이 대화형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자료 Zao-Sanders, M. (2025). How people are really using generative AI now. Harvard Business Review. <https://learn.filtered.com/hubfs/The%202025%20Top-100%20Gen%20AI%20Use%20Case%20Report.pdf>

해외 사례



스웨덴 가사분담 모니터링 앱

스웨덴에서 개발된 가사분담 모니터링 앱 'Accord'는 가족 구성원이 각자 담당한 가사노동을 입력하고 그 진행 상황을 가족 모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누가 어떤 가사노동을 수행했는지 공개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참여도를 추적할 수 있으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가사가 있다면 다른 가족이 알림을 보내 가사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능은 단순히 가사노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넘어, 가족 간 역할 분담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Accord'의 사례는 앱을 활용한 기술적 개입이 가족들에게 거부감 없이 가족 내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대화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족상담, 앱을 활용한 맞춤형 가족 교육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영역에서도 기술적 개입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자료 Zakavati, N. (2024, November 19). Swedish app Aims to solve household chore disputes. GMA News Online. <https://www.gmanetwork.com/news/scitech/technology/927548/swedish-app-aims-to-solve-household-chore-disputes/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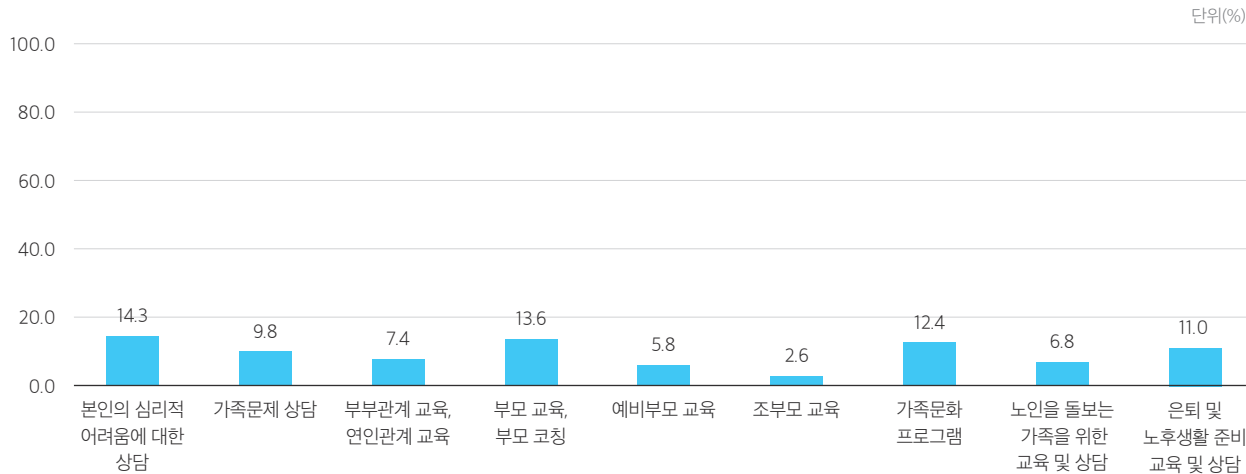


가족 지원 서비스 형태별 이용 경험

가족 지원 서비스 형태별 이용 경험: 전체

· '귀하는 다음과 같은 가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한 가족 지원 서비스는 '본인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14.3%), '부모 교육 및 부모 코칭'(13.6%), '가족문화 프로그램'(12.4%), '은퇴 후 노후생활 준비교육 및 상담'(11%) 순이었음

귀하는 다음과 같은 가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 '부모 교육, 부모 코칭 (아버지 교육 포함)' 문항의 응답 대상은 자녀가 있는 인원만 응답하였으며 '조부모 교육 (예비조부모 교육 포함)' 문항의 경우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인원만 응답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2025 서울 가족 클로즈업



어떤 사람이 가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까?

2025 서울가족서베이에 제시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한 가지 이상 이용해 본 적 있는지를 예측하는 요인을 로짓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가 있을 때

연령이 낮을수록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생활이 행복하다고 느낄수록



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었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1,667명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자녀 있고 연령 낮을수록, 가족생활 행복도 높을수록 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있어

2025년 서울가족서베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있을 때, 연령이 낮을수록,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생활이 행복하다고 느낄수록 가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가족센터의 서비스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가족 지원 서비스는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객관적 또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계층이 높고 젊은 유자녀 시민이 더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이다.

가족 지원 서비스를 설계하고 확장할 때는 다양한 가족의 상황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자녀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가족도 가족 지원 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법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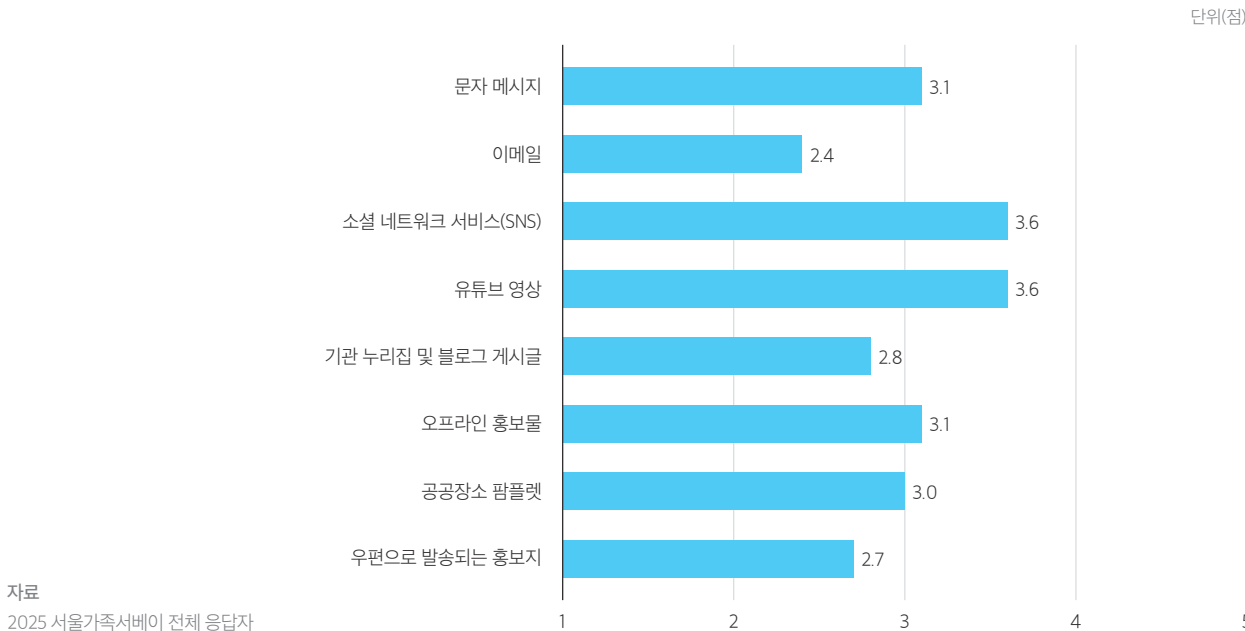


신규 가족 지원 서비스 홍보 방법: 전체

가족 지원 서비스 홍보 방법

· '지역사회에서 가족 지원 서비스를 홍보한다면 귀하에게는 어떤 홍보 방법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홍보 방법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3.6점)와 '유튜브 영상'(3.6점)을 활용한 홍보 방법으로 '보통이다'(3점)와 '대체로 그렇다'(4점)의 중간이었음

지역사회에서 가족 지원 서비스를 홍보한다면 귀하에게는 어떤 홍보 방법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 가족센터, 홍보 역량 강화 및 홍보비 확대 필요

2025년 서울가족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민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매체를 통한 홍보 방법이 기관 누리집 및 블로그, 오프라인 홍보물 등 전통적인 방법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결과는 SNS 및 유튜브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SNS와 유튜브를 통한 홍보는 각 플랫폼의 특성과 문화를 고려한 기획, 이용자의 반응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콘텐츠 구성, 그리고 유튜브 영상의 기획·촬영·편집 등 전문적인 홍보 역량을 필요로 한다. 즉, 단순히 매체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플랫폼의 특성과 이용자 행동에 기반한 기획과 체계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홍보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가족센터는 이러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홍보비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족센터 종사자 역량 차원에서는 홍보물 기획·제작 능력, 플랫폼별 특성 파악 능력 등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족센터 실무자가 전문적인 수준에서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전문업체나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위해 가족센터의 홍보비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완성도 높은 가족센터 홍보자료를 통해 가족센터의 인지도 및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활용 서울가족학교 홍보

유튜브 활용 홍보

서울시가족센터는 생애주기별 가족생활교육 브랜드인 '서울가족학교'의 인지도 향상과 참여 확대를 위해 구독자 140만 규모의 유튜브 채널과 협업하여 홍보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 이는 젊은 세대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해당 채널은 사회실험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사회·문화 전반의 주제를 주로 다루며, 시청자의 몰입과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강점이 있다.

이러한 협업은 공공기관과 민간 콘텐츠 제작자의 강점을 결합한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족센터가 해당 유튜브 채널과 연계해 제작한 홍보영상에는 약 700여개의 댓글이 달리며 생애주기별 가족생활교육인 서울가족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시청자의 높은 공감감이 확인되었다.

인스타그램 활용 홍보

서울시가족센터와 각 자치구 가족센터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향후 일정을 카드뉴스 형태로 게시하는 등 홍보 방식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접근성이 높고, '좋아요'와 같은 이용자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자료 1) 서울시가족센터(2021.11.15.). 서울가족학교 예비·신혼부부교실 '결혼 전 나눠야 할 대화' [비디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6MYTTxxVBIM>

2) 서울시가족센터(2025.07.23.). 서울가족학교 8월 일정 [사진]. https://www.instagram.com/p/DMcSZKPyOPY/?img_index=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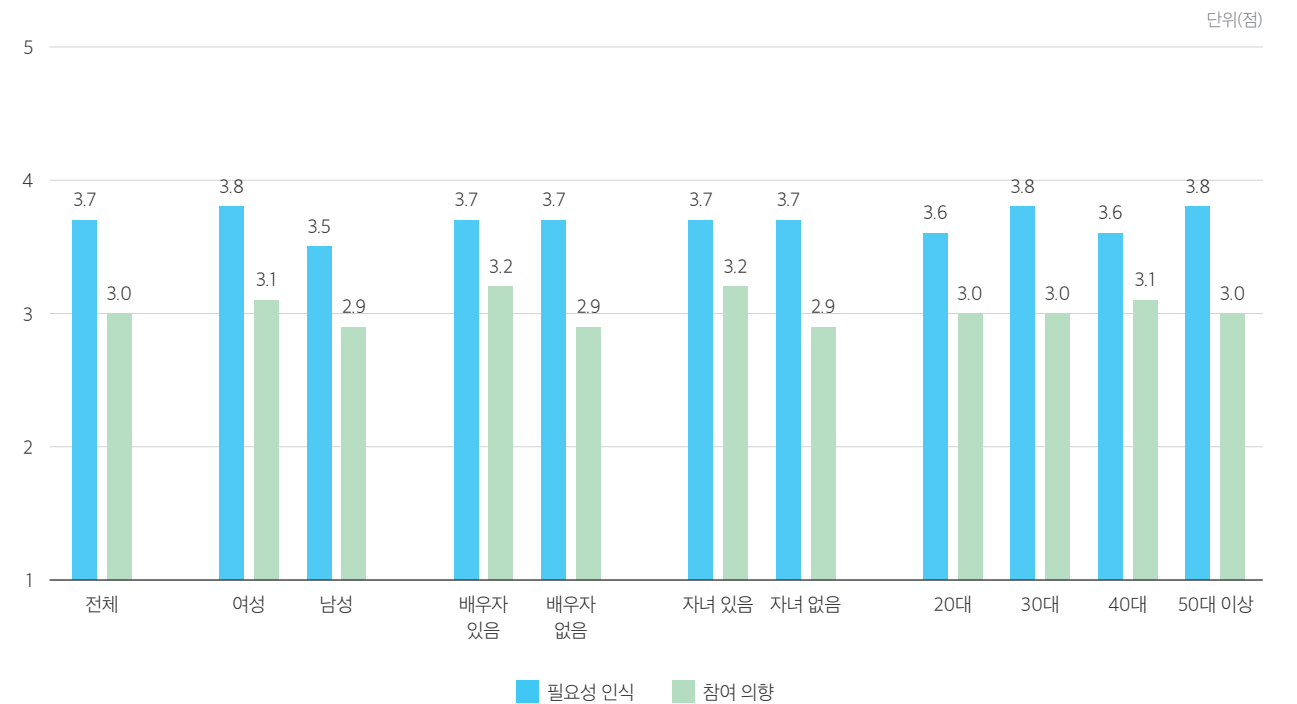
가족 교육 필요도 및 참여 의향

신규 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전체, 성별, 혼인 여부별, 자녀 유무별, 연령대별

- '귀하는 가족관계를 지원하는 교육 및 코칭 등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평균은 **3.7점**으로 '대체로 필요하다' (4점)에 조금 못 미쳤음
- '귀하의 가족관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서 제공된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평균은 **3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음
- 가족관계를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으로는 **여성**(3.8점)이 남성(3.5점)보다, **30대**(3.8점)와 **50대 이상**(3.8점)이 20대(3.6점)와 40대(3.6점)보다 높았음
- 가족관계를 지원하는 서비스에 **참여할 의향**으로는 **여성**(3.1점)이 남성(2.9점)보다, **배우자가 있는 집단**(3.2점)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2.9점)보다, **자녀가 있는 집단**(3.2점)이 자녀가 없는 집단(2.9점)보다 높았음

가족관계를 지원하는 교육 및 코칭 등 프로그램 필요도 및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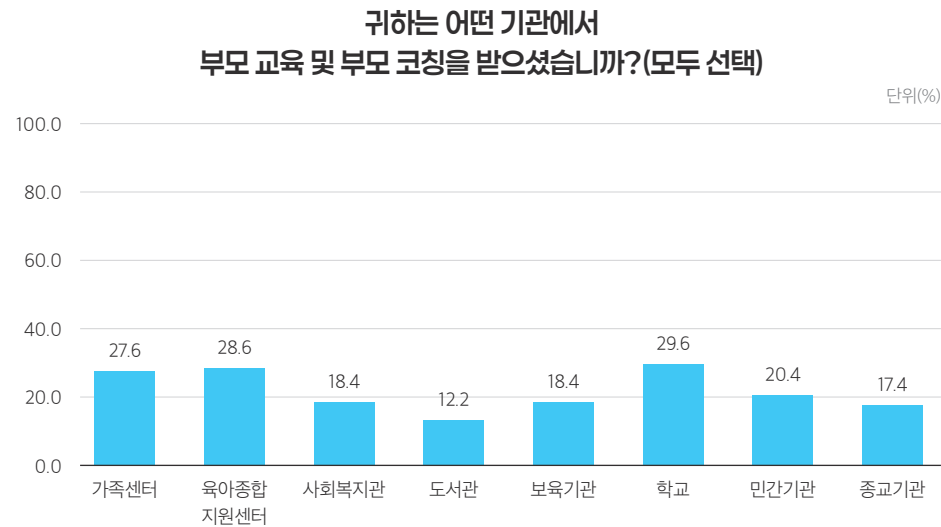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부모 교육 및 부모 코칭: 이용 경험, 도움 정도

신규 부모 교육 및 부모 코칭 경험 기관: 전체

- 부모 교육 및 부모 코칭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서울 시민에게 어떤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기관은 **학교**(29.6%), **육아종합지원센터**(28.6%), **가족센터**(27.6%)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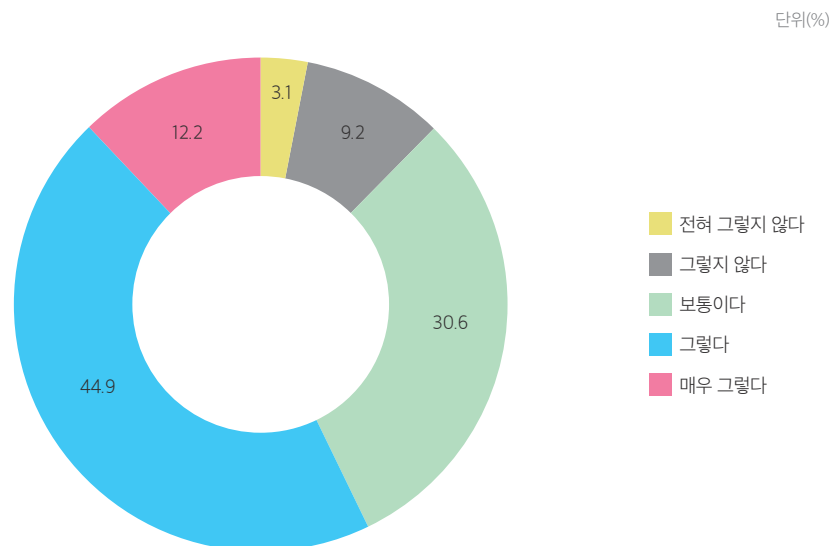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부모 교육, 부모 코칭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98명)

신규 부모 교육 및 부모 코칭의 도움 정도: 전체

- ‘귀하가 이용하신 부모 교육 및 코칭은 귀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부모 교육 및 부모 코칭을 이용한 **서울 시민의 57.1%**는 부모 교육 및 부모 코칭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귀하가 이용하신 부모 교육 및 코칭은 귀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부모 교육, 부모 코칭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98명)



부모 교육 주제 요구도: 중요도 및 충족도

신규 부모 교육 주제별 중요도 및 충족도: 19세 미만 자녀 양육자

-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의 주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본인이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음(범위: 1-5점)
- 주제별 중요도의 평균은 ‘**자녀 발달단계 및 특성 이해**’(4.2점),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자녀 양육**’(4.1점), ‘**효과적인 대화 및 갈등관리**’(4점), ‘**부모로서 자신을 돌보기**’(4점), ‘**효과적인 성교육**’(3.9점), ‘**효과적인 디지털기기 사용지도**’(3.8점) 순으로 높았음
- 모든 주제에서 충족도는 중요도보다 평균적으로 낮았음
- 중요도와 충족도의 평균 차이가 큰 주제는 ‘**효과적인 성교육**’(0.9점 차이), ‘**부모로서 자신을 돌보기**’(0.7점), ‘**효과적인 대화 및 갈등관리**’(0.6점), ‘**자녀 발달단계 및 특성 이해**’(0.6점),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자녀 양육**’(0.6점), ‘**효과적인 디지털기기 사용지도**’(0.5점)였음

부모역할 주제별 중요도 및 충족도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34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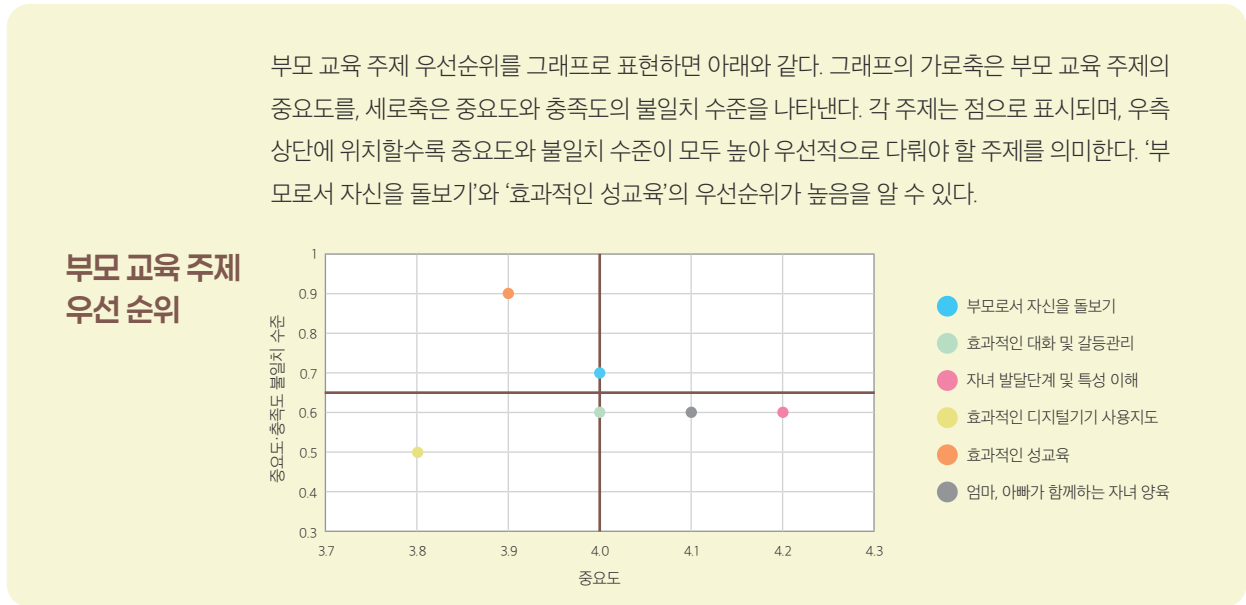
2025 서울 가족 클로즈업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부모 교육 주제는 무엇일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역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와 현재 충족 수준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필요한 부모 교육 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보리치 요구도 분석(Borich, 1980)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에서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다. 보리치 요구도 분석을 통해 도출한 부모 교육 주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효과적인 성교육	2순위: 부모로서 자신을 돌보기
3순위: 자녀 발달단계 및 특성 이해	4순위: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자녀 양육
5순위: 효과적인 대화 및 갈등관리	6순위: 효과적인 디지털기기 사용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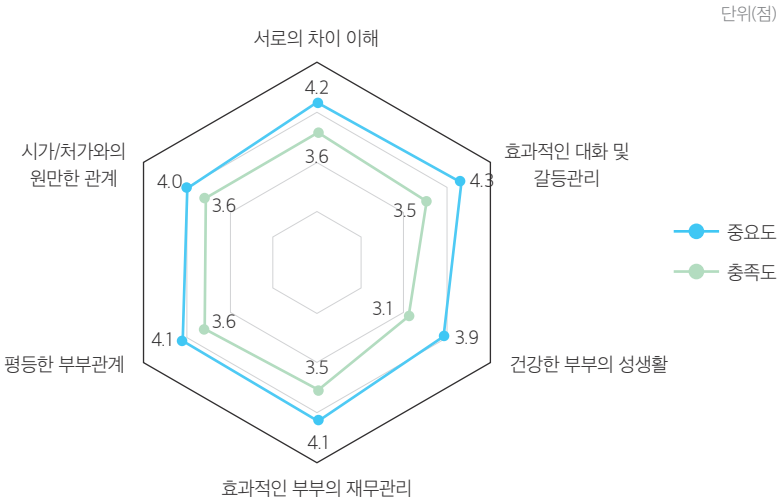


부부 교육 주제 요구도: 중요도 및 충족도

신규 부부 교육 주제별 중요도 및 충족도: 유배우자 전체

- 결혼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부부 교육의 주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본인의 결혼생활에서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음(범위: 1-5점)
- 주제별 중요도의 평균은 **‘효과적인 대화 및 갈등관리’**(4.3점), **‘서로의 차이 이해’**(4.2점), **‘평등한 부부관계’**(4.1점), **‘효과적인 부부의 재무관리’**(4.1점), **‘시가/처가와와의 원만한 관계’**(4점), **‘건강한 부부의 성생활’**(3.9점) 순으로 높았음
- 모든 주제에서 충족도는 중요도보다 평균적으로 **낮았음**
- 주제별 중요도와 충족도의 평균 차이는 **‘효과적인 대화 및 갈등관리’**(0.8점 차이)와 **‘건강한 부부의 성생활’**(0.8점), **‘효과적인 부부의 재무관리’**(0.7점), **‘서로의 차이 이해’**(0.6점), **‘평등한 부부관계’**(0.5점), **‘시가/처가와와의 원만한 관계’**(0.4점) 순으로 컸음

결혼생활 주제별 중요도 및 충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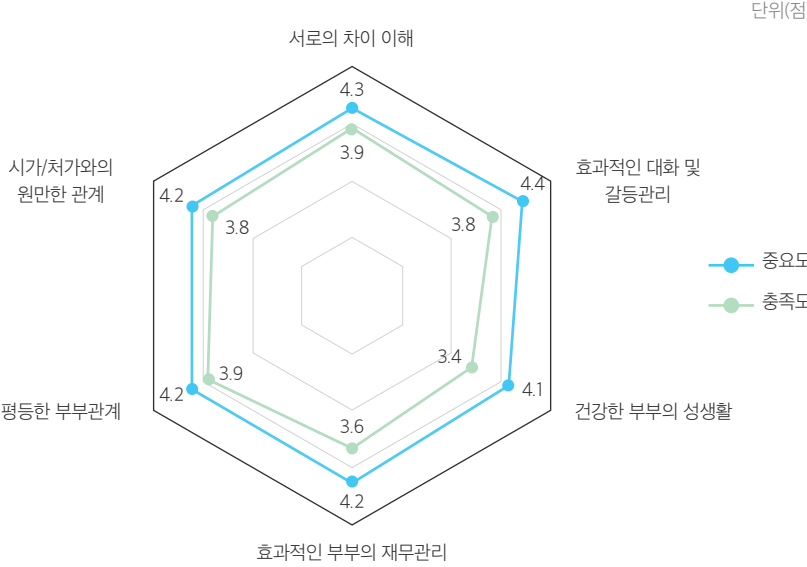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775명)

신규 부부 교육 주제별 중요도 및 충족도: 20-30대 무자녀 신혼부부, 40대 이상 부부

- 20-30대 무자녀 신혼부부와 40대 이상 부부 모두 **충족도가 중요도보다 낮았으며** 특히 **40대 이상 부부에서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음**
- 20-30대 무자녀 신혼부부와 40대 이상 부부 모두 **‘건강한 부부의 성생활’**, **‘효과적인 대화 및 갈등관리’**에서의 중요도-충족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음
- **20-30대 무자녀 신혼부부**는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부부의 재무관리’**에서의 중요도-충족도 차이가 컸으며 **40대 이상 부부**는 **‘서로의 차이 이해’**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부부 교육 주제별 중요도 및 충족도(20-30 무자녀 신혼부부)



부부 교육 주제별 중요도 및 충족도(40대 이상 부부)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자녀가 없고 결혼 기간이 7년 이하인 20-30대 69명, 결혼 기간이 8년 이상인 40대 이상 59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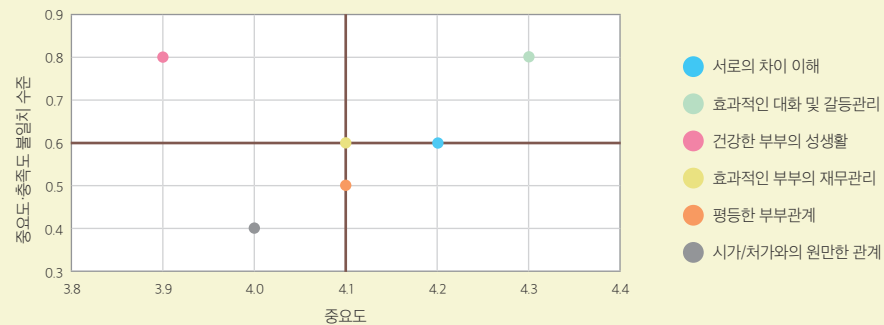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부부 교육 주제는 무엇일까?

결혼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와 현재 충족 수준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필요한 부부 교육 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보리치 요구도 분석(Borich, 1980)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 방법에서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잘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다. 보리치 요구도 분석을 통해 도출한 부부 교육 주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효과적인 대화 및 갈등관리	2순위: 건강한 부부의 성생활
3순위: 서로의 차이 이해	4순위: 효과적인 부부의 재무관리
5순위: 평등한 부부관계	6순위: 시가/처가와와의 원만한 관계

부부 교육 주제 우선순위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부부 교육 주제의 중요도를, 세로축은 중요도와 충족도의 불일치 수준을 나타낸다. 각 주제는 점으로 표시되며, 우측 상단에 위치할수록 중요도와 불일치 수준이 모두 높아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주제를 의미한다. '효과적인 대화 및 갈등관리'가 우측 상단에 위치하여 우선순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부 교육 주제 우선 순위



성인 대상, 아동 대상 효과적인 성교육 필요

2025년 서울가족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부모 교육 주제별 요구도는 1순위가 '효과적인 성교육'이었고, 부부 교육 주제별 요구도는 2순위가 '건강한 부부의 성생활'이었다. 이는 성(性)과 관련된 주제가 여전히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부부관계와 자녀 양육이라는 두 영역 모두에서 지원과 교육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성인을 대상으로는 부부관계에서 건강한 성생활을 지원하고, 부모가 가정 내에서 자녀에게 적절한 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아동에게는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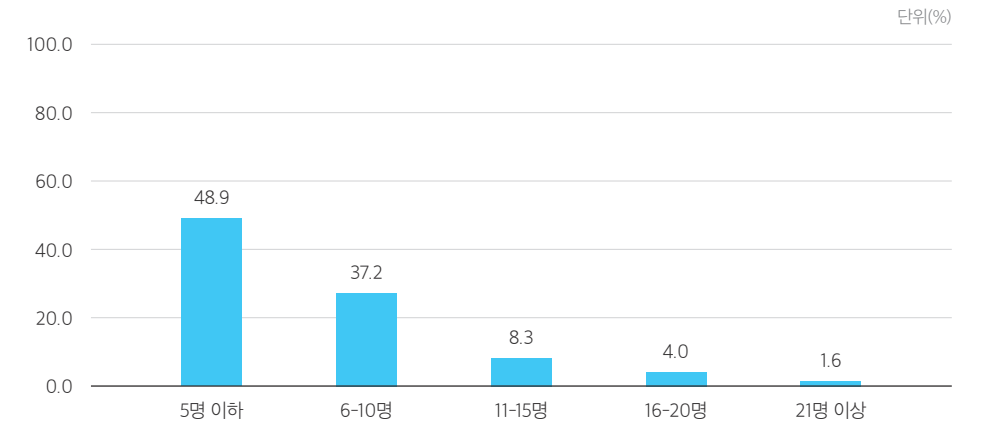


효과적인 가족 교육 방법: 참가 인원, 회기 수, 강사 특성

신규 효과적인 가족 교육을 위한 참가 인원: 전체

- '함께 교육을 받는 인원은 몇 명일 때, 귀하의 가족생활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48.9%는 5명 이하의 소집단을 선택하였음. 이어 6-10명(37.2%), 11-15명(8.3%), 16-20명(4.0%)으로 소집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였음

함께 교육을 받는 인원은 몇 명일 때, 귀하의 가족생활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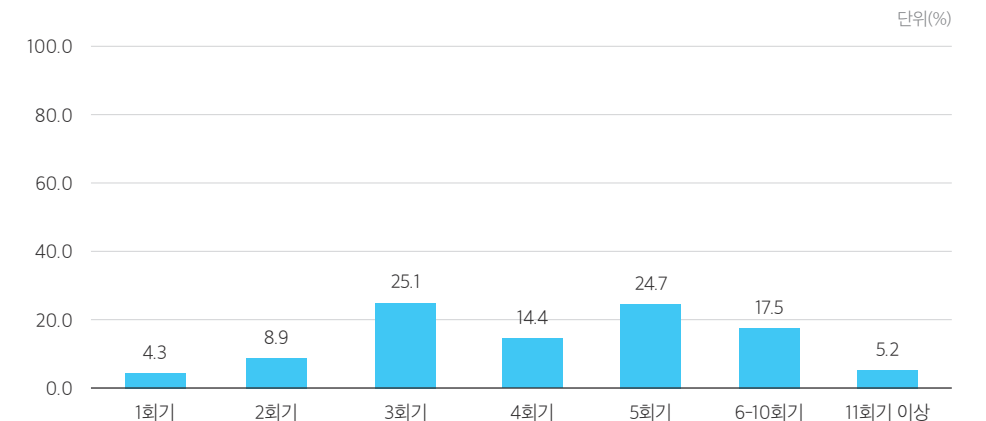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신규 효과적인 가족 교육을 위한 회기 수: 전체

- '몇 회의 교육이 귀하의 가족생활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의 서울 시민은 3회기(25.1%)와 5회기(24.7%)가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음. 이어 6-10회기(17.5%), 4회기(14.4%) 등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음
- 전반적으로 3-5회기의 교육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고, 6-10회기로 비교적 회기 수가 많은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

몇 회의 교육이 귀하의 가족생활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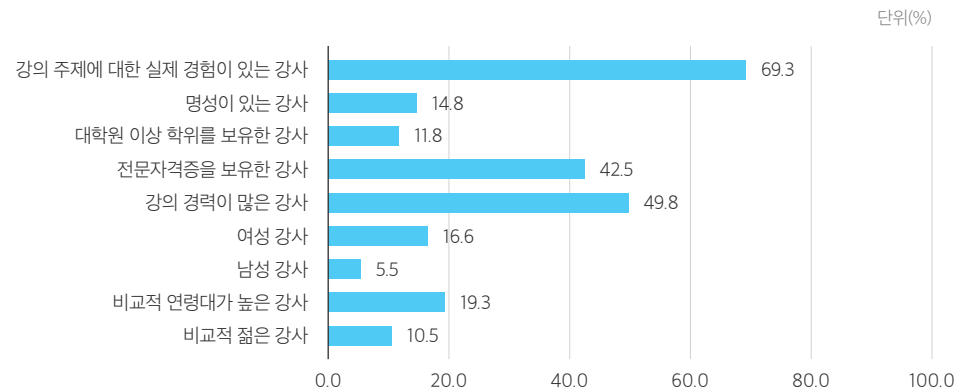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신규 효과적인 가족 교육을 위한 강사 특성: 전체

· 어떤 강사가 진행하는 교육이 가족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9개의 특성을 제시하고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이 많이 선택한 특성은 ‘강의 주제에 대한 실제 경험이 있는 강사’(69.3%), ‘강의 경력이 많은 강사’(49.8%),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강사’(42.5%) 순이었음

어떤 강사가 진행하는 교육이 귀하의 가족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소집단, 다회기, 경험 많은 강사일 때 가족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여겨

2025년 서울가족서베이에서는 가족 교육의 적정 인원, 회기 수, 강사 특성에 대한 서울 시민의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함께 교육을 받는 인원은 몇 명일 때 가족생활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6.1%가 10명 이하를 선택하여, 소집단 가족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교육 회기 수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3회기 이상을 선택하여, 일회성 교육보다는 상대적으로 긴 호흡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교육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어떤 강사가 교육을 진행할 때 가족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강의 주제에 대한 실제 경험이 있는 강사’(69.3%), ‘강의 경력이 많은 강사’(49.8%),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42.5%)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종합하면, 시민들은 10명 이하 소집단을 대상으로, 3회기 이상의 다회기 가족 교육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진행할 때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의 가족 교육에 표준이 높은 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가족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교육은 참여자 모집과 유지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일회성 교육이나 회기 수가 적은 교육의 비중이 크다. 참여자 인원수의 경우에는 센터의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집단 교육을 중심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강사의 경우에는 개인차가 크지만, 대학에서 가족 관련 전공자나 가족 교육 관련 자격증 보유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현실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가족 교육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가족센터의 가족 교육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회기 교육 및 소집단 교육을 확대하고, 강사의 경험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교육의 품질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일상 응원



1. 주거 생활
2. 미디어 생활
3. 가족 시간과 웰빙
4. 일-생활(가족) 균형

2025 서울가족서베이 하이라이트

“내 집 마련 가능성? 보통”...자녀 양육에는 주거 안정·비용이 관건

- 무주택 시민 ‘내 집 가질 가능성’ 평균 3점
- 자녀 양육기 가족에게 주거 안정·비용 중요도 4.3점으로 높아

자주 접하는 가족 관련 영상은 ‘비혼 가구 리얼리티’ 압도적

- 월 1회 이상 접하는 방송 콘텐츠는 비혼 가구 리얼리티 > 육아 솔루션 > 연애 리얼리티 > 육아 리얼리티 > 결혼 솔루션 순
- 유튜브 콘텐츠는 육아생활 > 결혼생활 > 치매 가족 돌봄 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자녀 발달단계 따라 양상 달라

- 미취학·초등 시기는 배우자와 시간 부족, 청소년·성인기는 자녀와 시간 부족
- 청소년·성인기에 온가족 식사·함께하는 시간 상대적으로 적어

일하는 시민의 66% 일·생활 균형 “불만족”

- 가족·개인생활 확대 희망(약 41%)이 근로 시간 확대 희망(15%)보다 높은 비율
- 특히, 자녀가 있는 시민이 가족생활보다 개인생활 늘리길 더 원해

현재 직장 분위기, 아빠 육아휴직 활용은 엄마만큼 쉽지 않아

- 일하는 시민이 인식한 현재 직장의 분위기, 엄마의 육아휴직 3.4점, 아빠의 육아휴직 3.1점



주택 및 주거 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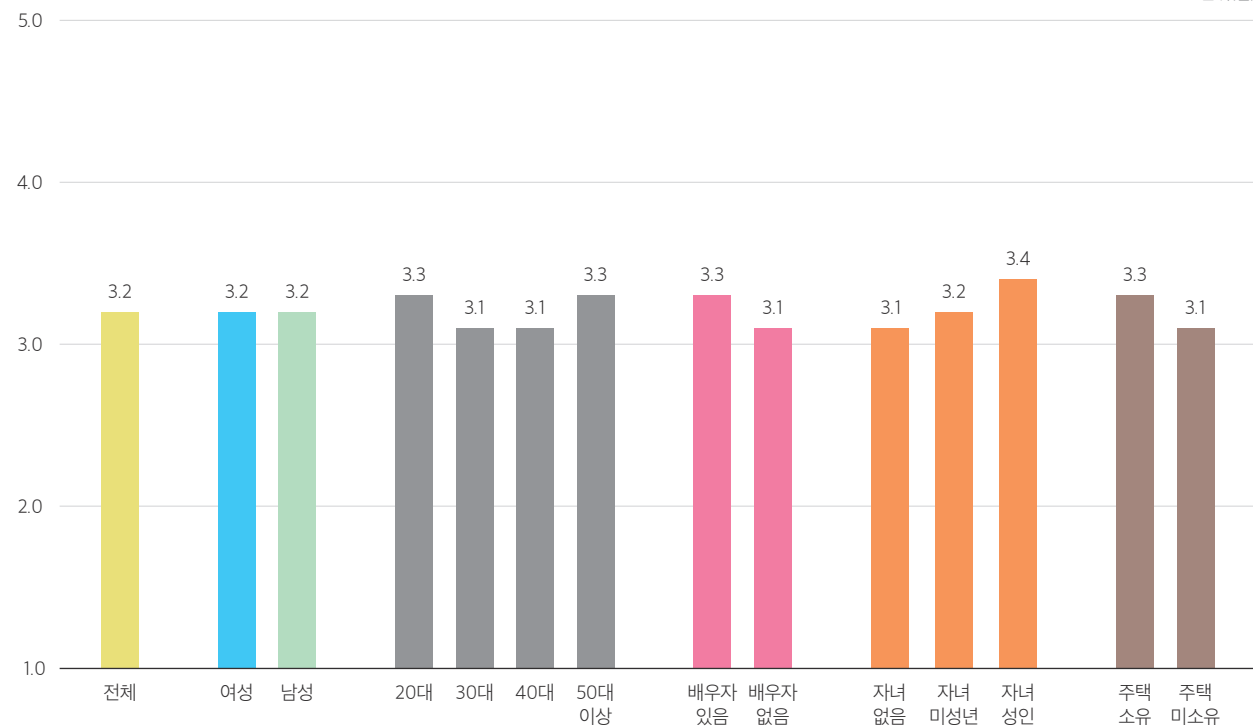
주택 및 주거 환경 만족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자녀 유무 및 연령대별, 자가 여부별

- 현재 거주하는 **집 및 주거 환경**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만족도는 **평균 3.2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음
- **20대(3.3점)와 50대 이상(3.3점)**이 30대(3.1점), 40대(3.1점)보다 주거 환경에 만족하였음
- **배우자가 있는 집단(3.3점)**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3.1점)보다 주거 환경에 만족하였음
- **자녀 유무 및 연령대별**로는 **성인 자녀 부모(3.4점)**가 자녀가 없거나(3.1점) 미성년 자녀 부모(3.2점)보다 주거 환경에 만족하였음
-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3.3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집단(3.1점)보다 주거 환경에 만족하였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현재 거주하는 집 및 주거 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단위(점)



주 1) '자녀 미성년'은 첫째 자녀가 18세 이하인 부모,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부모

2)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언젠가) '내 집'을 소유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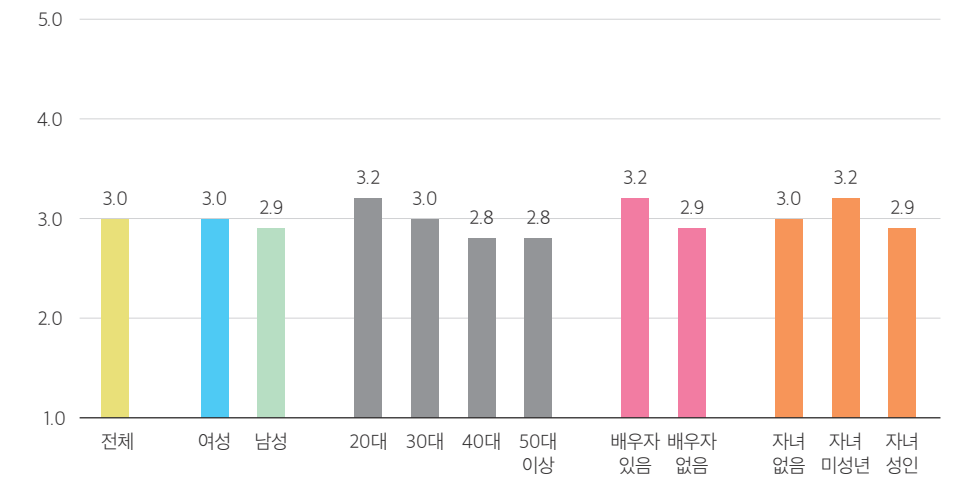
(언젠가) 내 집을 소유할 가능성: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자녀 유무 및 연령대별

- '(언젠가) 내 집을 소유할 가능성'(범위: 1-5점)에 대한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점으로 '보통'이었음
- 연령대별로 **20대(3.2점)**가 30대(3점), 40대(2.8점), 50대 이상(2.8점)에 비해 내 집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음
- **배우자가 있는 집단(3.2점)**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2.9점)보다 내 집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음
- 성별, 자녀 유무 및 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언젠가) 내 집을 소유할 가능성

단위(점)



주
'자녀 미성년'은 첫째 자녀가 18세 이하인 부모,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부모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본인 혹은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90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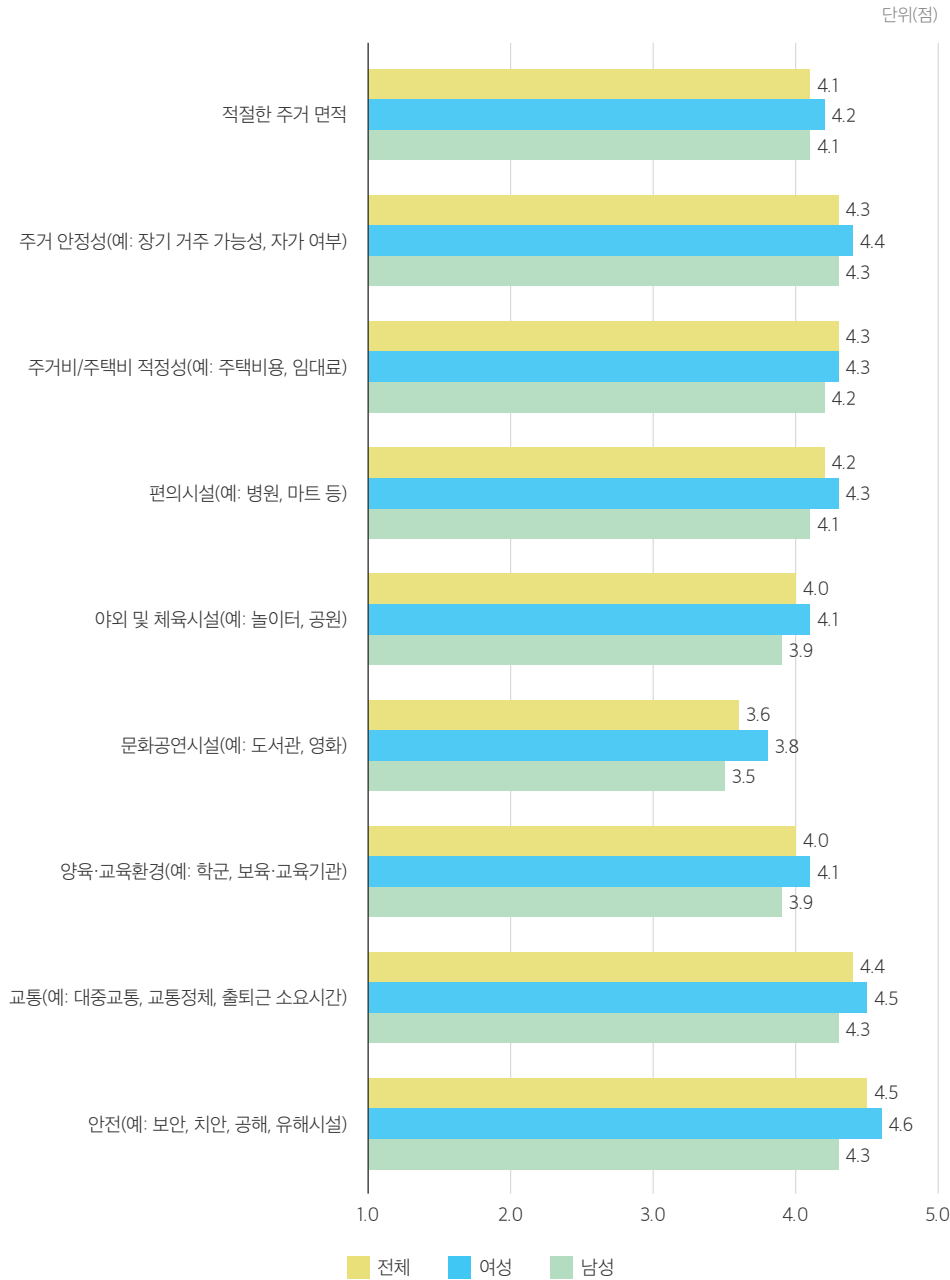


자녀 양육기에 중요한 주거 환경

신규 자녀 양육기에 중요한 주거 환경의 측면: 전체 및 성별

- 서울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게 **주거 환경**의 어떤 측면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범위: 1-5점)를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은 ‘**안전**(예: 보안, 치안, 공해, 유해시설)’ (평균 4.5점), ‘**교통**(예: 대중교통, 교통정체, 출퇴근 소요시간)’(4.4점), ‘**주거 안정성**(예: 장기 거주 가능성, 자가 여부)’(4.3점), ‘**주거비/주택비 적정성**(예: 주택비용, 임대료)’(4.3점)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음
-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각 주거 환경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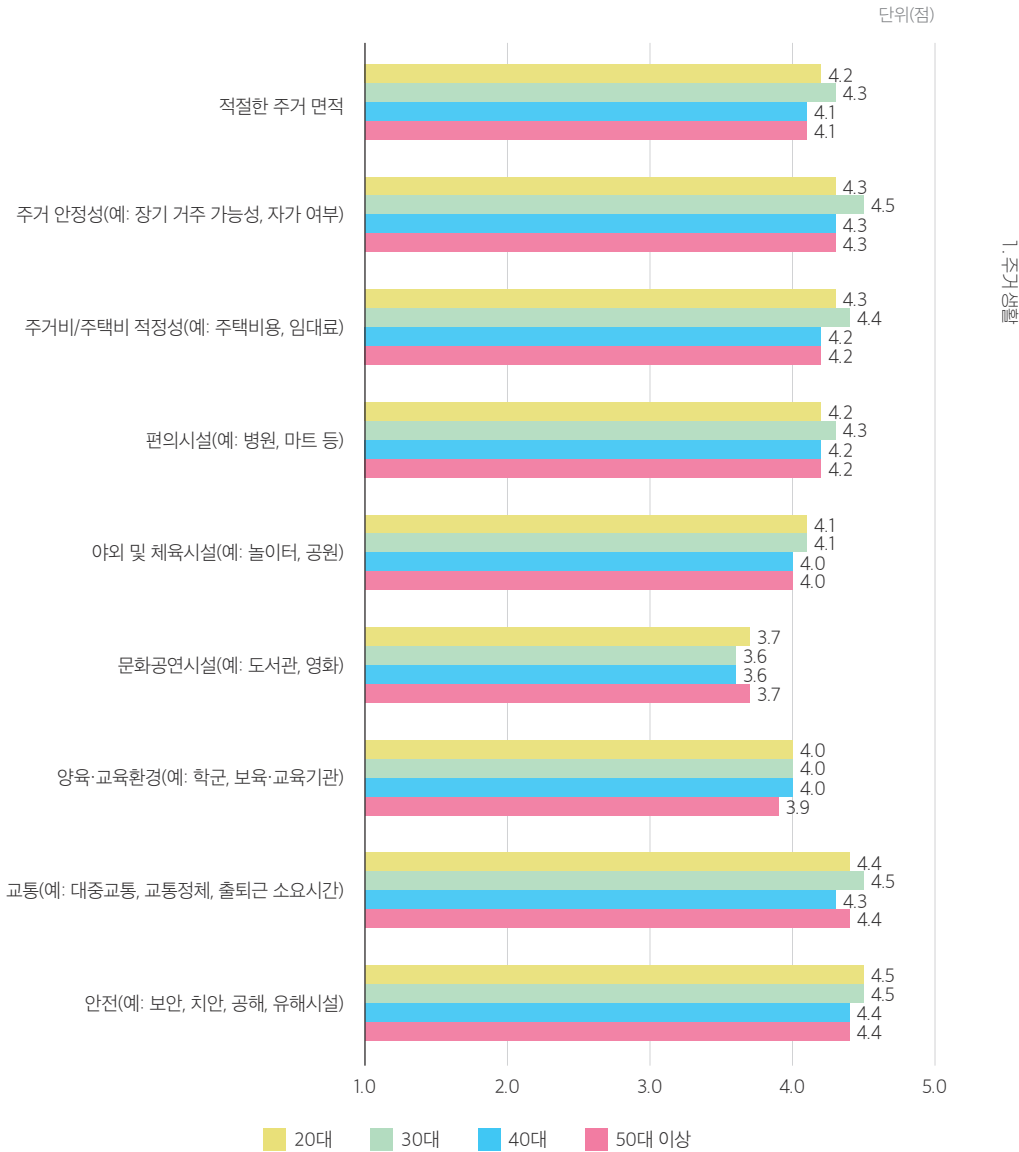
서울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게
주거 환경의 어떤 측면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규 자녀 양육기에 중요한 주거 환경의 측면: 연령대별

- 적절한 주거 **면적**의 중요성은 **20대**(4.2점)와 **30대**(4.3점)가 40대(4.1점)와 50대 이상(4.1점)보다 높았음
- **주거 안정성**은 **30대**(4.5점)가 다른 연령대(4.3점)에 비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주거비/주택비 적정성**은 **30대**(4.4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0대(4.3점), 40대(4.2점) 및 50대 이상(4.2점) 순이었음
- **편의시설**은 **30대**(4.3점)가 다른 연령대(4.2점)에 비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교통**은 **30대**(4.5점)가 40대(4.3점)에 비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안전**은 **20대**(4.5점)와 **30대**(4.5점)가 40대(4.4점)에 비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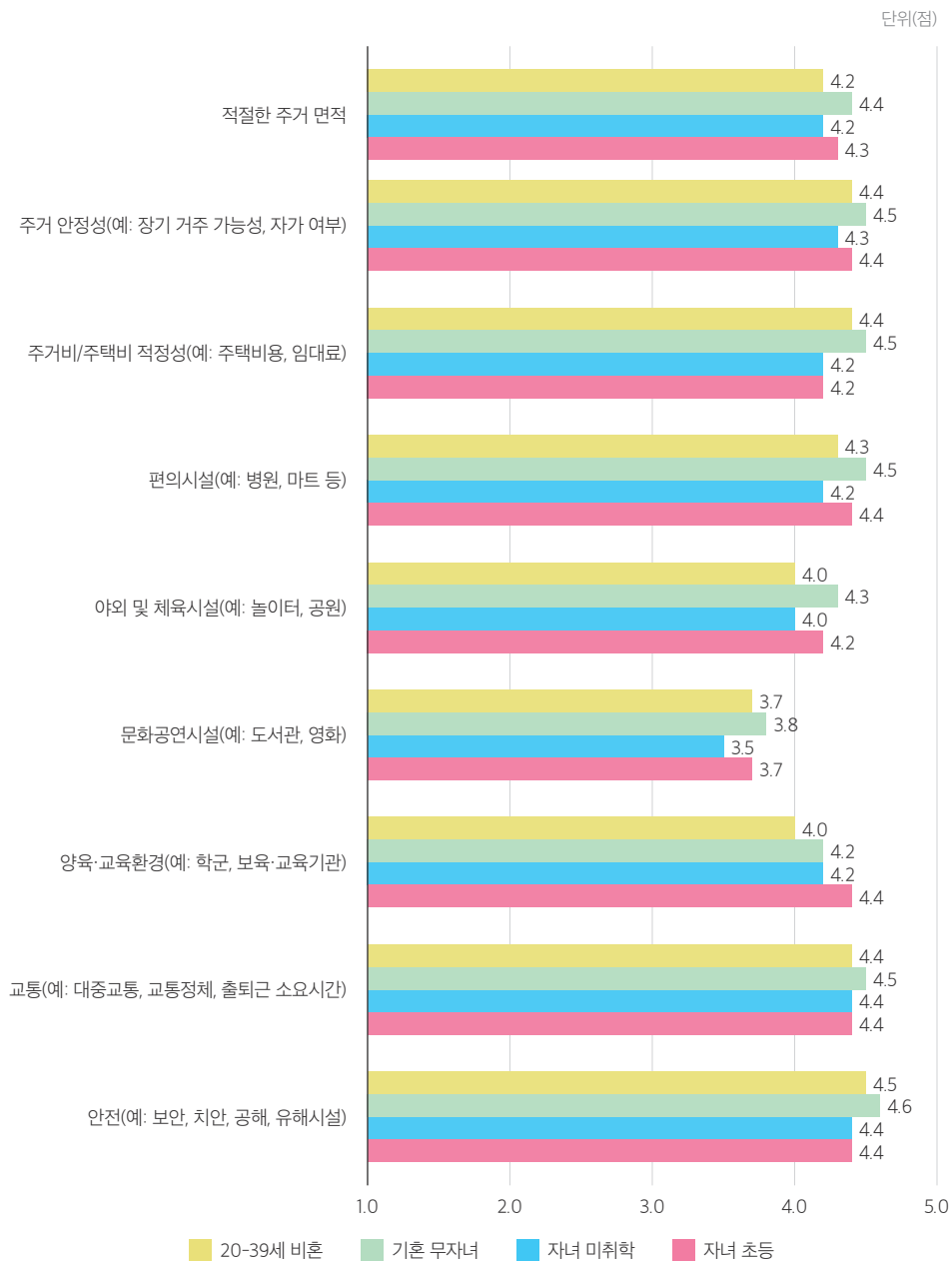
서울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게
주거 환경의 어떤 측면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규 자녀 양육기에 중요한 주거 환경의 측면: 결혼지위 × 자녀유무·발달단계별

- 주거비/주택비 적정성은 20-39세 비혼(4.4점)과 기혼 무자녀(4.5점)가 미취학 자녀 부모(4.2점), 초등 자녀 부모(4.2점)에 비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편의시설은 기혼 무자녀(4.5점)가 미취학 자녀 부모(4.2점)에 비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야외 및 체육시설은 기혼 무자녀(4.3점)가 20-39세 비혼(4.0점) 및 미취학 자녀 부모(4.0점)에 비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양육·교육환경은 초등 자녀 부모(4.4점)가 20-39세 비혼(4.0점)에 비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서울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게
주거 환경의 어떤 측면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20-39세 비혼'은 결혼한 적이 없는 20-39세, '기혼 무자녀'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자녀가 없는 20-49세,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부모, '자녀 초등학생'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부모의 응답임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20-39세 비혼 563명, 기혼 무자녀 108명, 미취학 자녀의 부모 93명, 초등학생 자녀의 부모 77명; 총 84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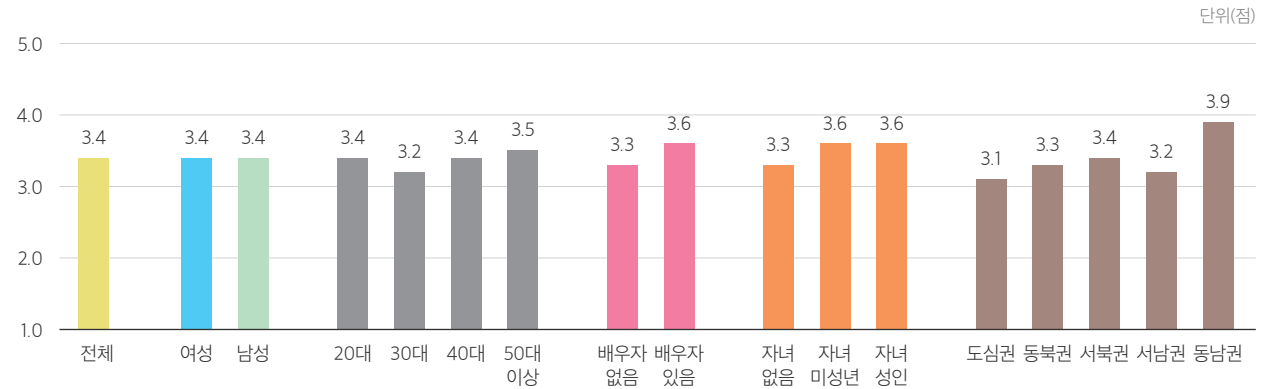
**거주하는 동네
육아 친화도**

거주하는 동네 육아 친화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자녀 유무 및 연령대별, 권역별

- “내가 사는 동네(예: OO동)는 자녀를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적인 지역이다”(범위: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4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높았음
- 연령대별로 30대(3.2점)가 20대(3.4점), 40대(3.4점), 50대 이상(3.5점)보다 낮았음
- 배우자 유무별로 배우자가 있는 집단(3.6점)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3.3점)보다 자신이 사는 동네를 육아 친화적이라고 인식하였음
- 자녀 유무 및 연령대별로 자녀가 있는 집단(3.6점)이 자녀가 없는 집단(3.3점)에 비해 자신이 사는 동네를 육아 친화적이라고 인식하였음
- 권역별로 동남권(3.9점)이 자신이 사는 동네를 가장 육아 친화적인 지역으로 인식하였으며, 그다음은 동북권(3.3점), 서북권(3.4점)이 높았고, 도심권(3.1점), 서남권(3.2점)이 가장 낮았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내가 사는 동네(예: OO동)는 자녀를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적인 지역이다



주 '자녀 미성년'은 첫째 자녀가 18세 이하인 부모,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부모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1. 주거 생활

2025 서울가족정책



장기전세주택 II 「미리내집」: 신혼부부·예비부부 주택 지원사업

서울시가 기존 저출생 대응 정책을 업그레이드한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에서는 저출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을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장기전세주택 II 「미리내집」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가 출산·양육 계획과 함께 내 집 마련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에게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금으로 집을 임대해 주고 최장 10년에서 20년의 거주를 보장한다. 특히,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하던 주택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5 서울가족서베이 결과, 20-49세 무자녀 기혼자는 자녀가 있는 집단보다 주거비와 주택비의 적정성을 자녀 양육 가족에게 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최우선 정책 영역으로 '신혼부부 및 양육자 주거 지원'이 지목되었다. 이는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미리내집' 사업의 방향이 적절하며,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신혼부부 입주 시	1자녀 출산 시	2자녀 출산 시	3자녀 이상 출산 시
거주기간	최장 10년	최장 20년	최장 20년	최장 20년
소득기준	60㎡ 이하 월별소득 120% (맞벌이 180%) 60㎡ 초과 월별소득 150% (맞벌이 200%)	소득기준 폐지 (재계약시)	소득기준 폐지 (재계약시)	소득기준 폐지 (재계약시)
자산기준	총 자산 : 6억 5,500만원 이하	자산기준 폐지 (재계약시)	자산기준 폐지 (재계약시)	자산기준 폐지 (재계약시)
우선 매수청구권	X	X	O	O
매매가격 안센티브	X	X	O 시세90%	O 시세80%

자료 1) 서울특별시 분야별정보(2025.08.22). 장기전세주택 II (미리내집)이란?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5640>
 2) 서울사랑. 미리 내 집 마련 어때요?
<https://love.seoul.go.kr/articles/10209>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결혼하지 않은 청년을 위한 안정적 주거 정책 필요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대상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예비양육자까지 확대하였다. 그러나 「미리내집」과 같은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은 예비부부, 신혼부부와 같이 결혼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따라 결혼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2025 서울가족서베이에서 결혼 경험이 없는 20-39세 청년 또한 기혼 자녀가 없는 집단과 비슷하게 주거비와 주택비의 적정성을 자녀 양육기에 중요한 주거 환경으로 꼽았다. 이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 역시 저출생 문제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혼을 기준으로 하는 정책을 넘어 다양한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2

미디어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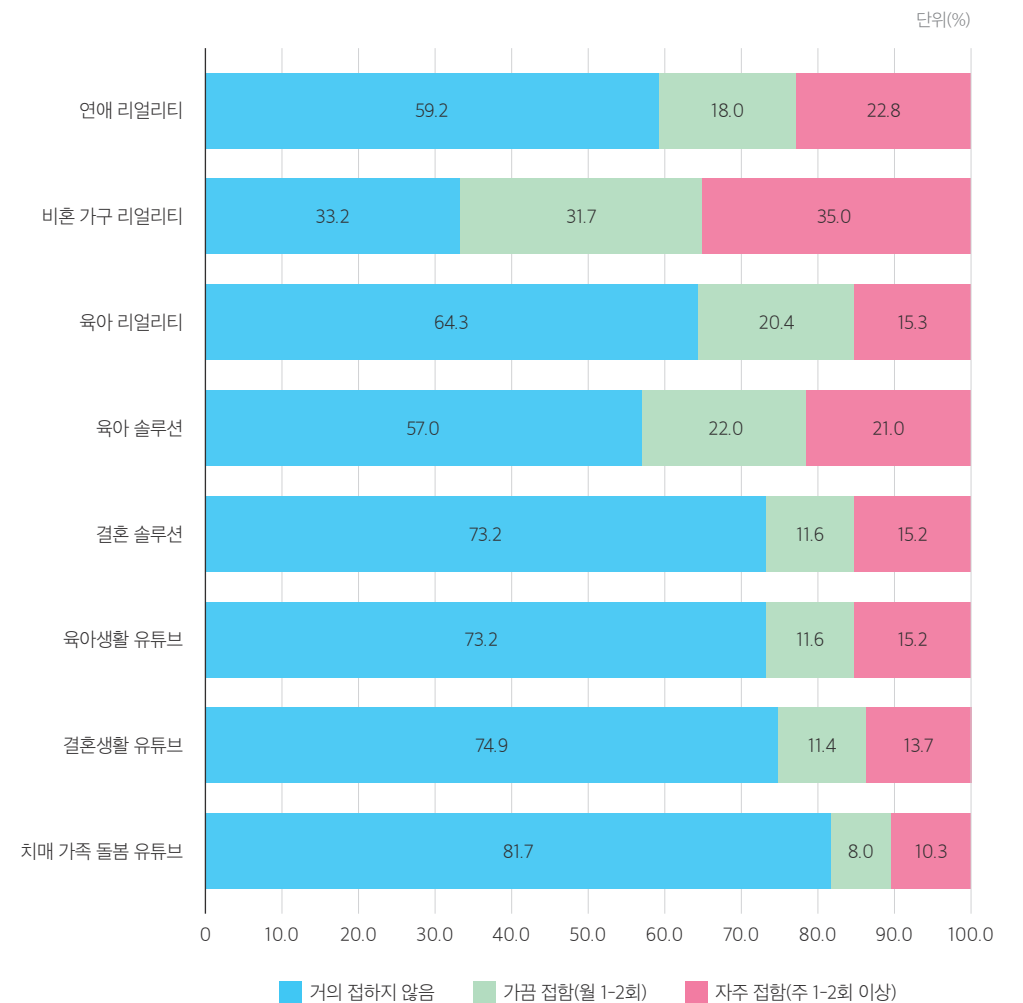


가족 관련 영상 콘텐츠

신규 가족 관련 영상 콘텐츠: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 8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유형의 영상 콘텐츠를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이 월 1회 이상 시청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영상 콘텐츠는 **비혼 가구 리얼리티**(예: 나혼자산다, 미운오리새끼)(66.7%)였음
- 이어, 방송 콘텐츠는 **육아 솔루션**(예: 금쪽같은내새끼)(43%), **연애 리얼리티**(예: 나는솔로, 환승연애)(40.8%), **육아 리얼리티**(예: 슈퍼맨이돌아왔다)(35.7%), **결혼 솔루션**(예: 결혼지옥, 이혼숙려캠프)(26.8%) 순이었음
- 유튜브 콘텐츠는 **육아생활 유튜브**(예: 태요미네)(26.8%), **결혼생활 유튜브**(예: 인생녹음중)(25.1%), **치매 가족 돌봄 유튜브**(예: 시골청년)(18.3%) 순이었음

귀하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영상 콘텐츠를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



주
 거의 접하지 않음, '1개월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거의 매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이 중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거의 매일'의 세 가지 응답을
 '자주 접함'으로 묶어서 제시함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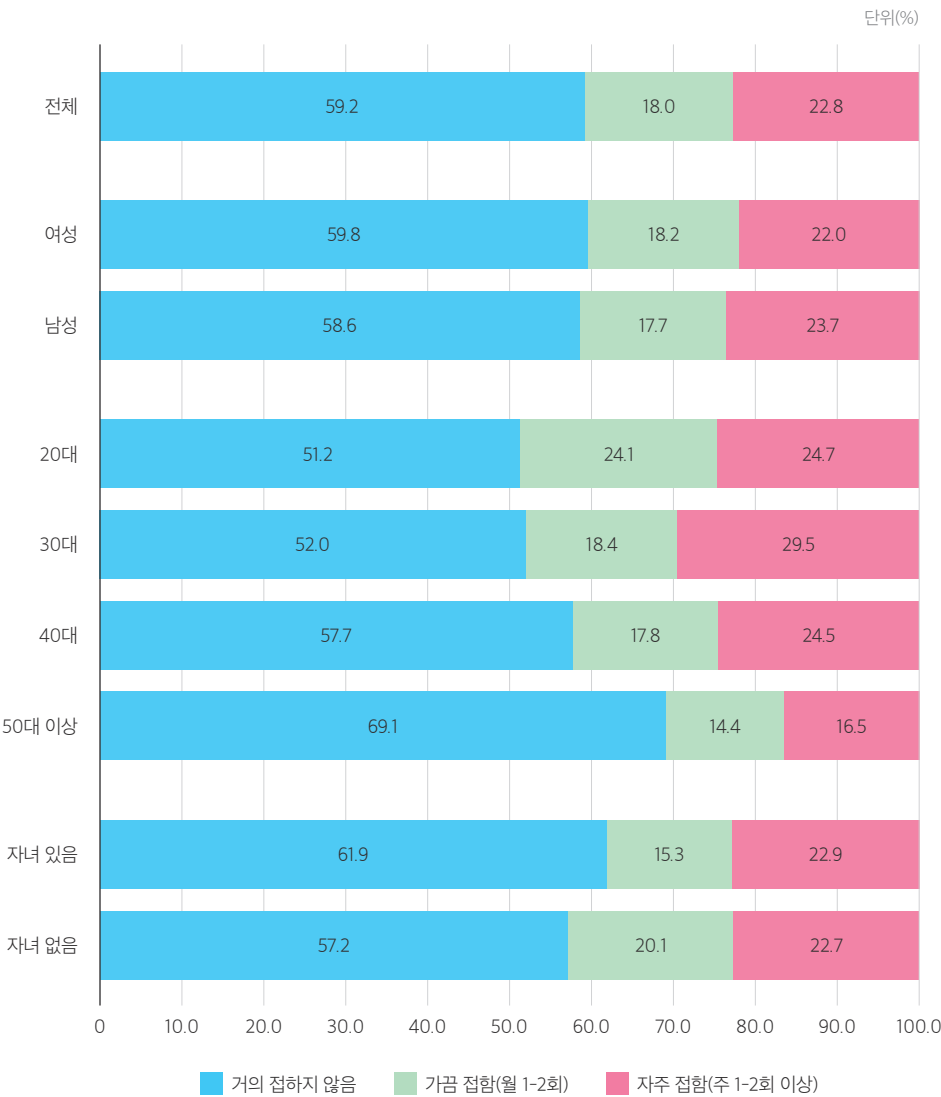


연애 및 비혼 가구 리얼리티

신규 연애 리얼리티: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예: 나는솔로, 환승연애)는 ‘거의 접하지 않음’ 59.2%, ‘가끔 접함(월 1-2회)’ 18%, ‘자주 접함(주 1-2회 이상)’ 22.8% 순으로 나타났음
- 연령대별로 **20-30대**가 40-50대 이상에 비해 연애 리얼리티를 ‘자주’ 또는 ‘가끔’ 접했음(20대 48.8%, 30대 47.9%). 특히 30대는 29.5%의 응답자가 ‘자주’ 접했음
- 자녀 유무별로 **자녀가 없는 집단**(42.8%)이 자녀가 있는 집단에 비해 연애 리얼리티를 ‘자주’ 또는 ‘가끔’ 접했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귀하는 연애 리얼리티를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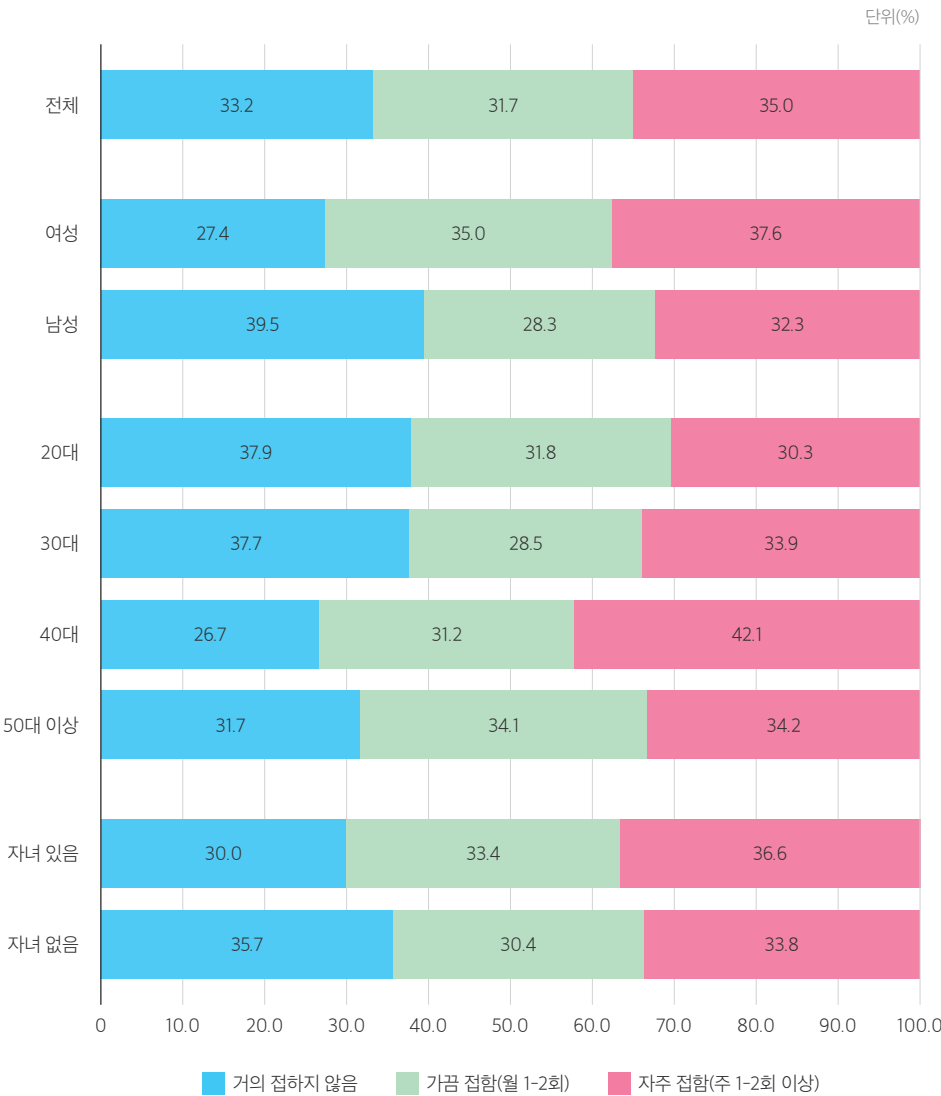
주
‘거의 접하지 않음’, ‘1개월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거의 매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이 중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거의 매일’의 세 가지 응답을
‘자주 접함’으로 묶어서 제시함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에 전체 응답자

신규 비혼 가구 리얼리티: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비혼 가구 리얼리티 프로그램(예: 나혼자산다, 미운오리새끼)은 ‘자주 접함(주 1-2회 이상)’ 35.0%, ‘거의 접하지 않음’ 33.2%, ‘가끔 접함(월 1-2회)’ 31.7%로 나타났음. 20-64세 서울 시민의 1/3 이상이 주 1회 이상 비혼 가구 리얼리티를 접했음
- 성별로 **여성**(72.6%)이 남성에 비해 비혼 가구 리얼리티를 ‘가끔’ 또는 ‘자주’ 접하는 비율이 높았음. 특히 ‘거의 접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은 27.4%였던 반면, 남성의 비율은 39.5%로 그 차이가 컸음
- 연령대별로 **40대**(73.3%)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비혼 가구 리얼리티를 ‘가끔’ 또는 ‘자주’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0대 이상**(68.3%) 순으로 나타남. 20대와 30대는 ‘거의 접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20대 37.9%, 30대 37.7%)
- 자녀 유무별로 자녀가 있는 집단(70%)이 자녀가 없는 집단에 비해 비혼 가구 리얼리티를 ‘가끔’ 또는 ‘자주’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귀하는 비혼 가구 리얼리티를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



주
‘거의 접하지 않음’, ‘1개월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거의 매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이 중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거의 매일’의 세 가지 응답을
‘자주 접함’으로 묶어서 제시함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에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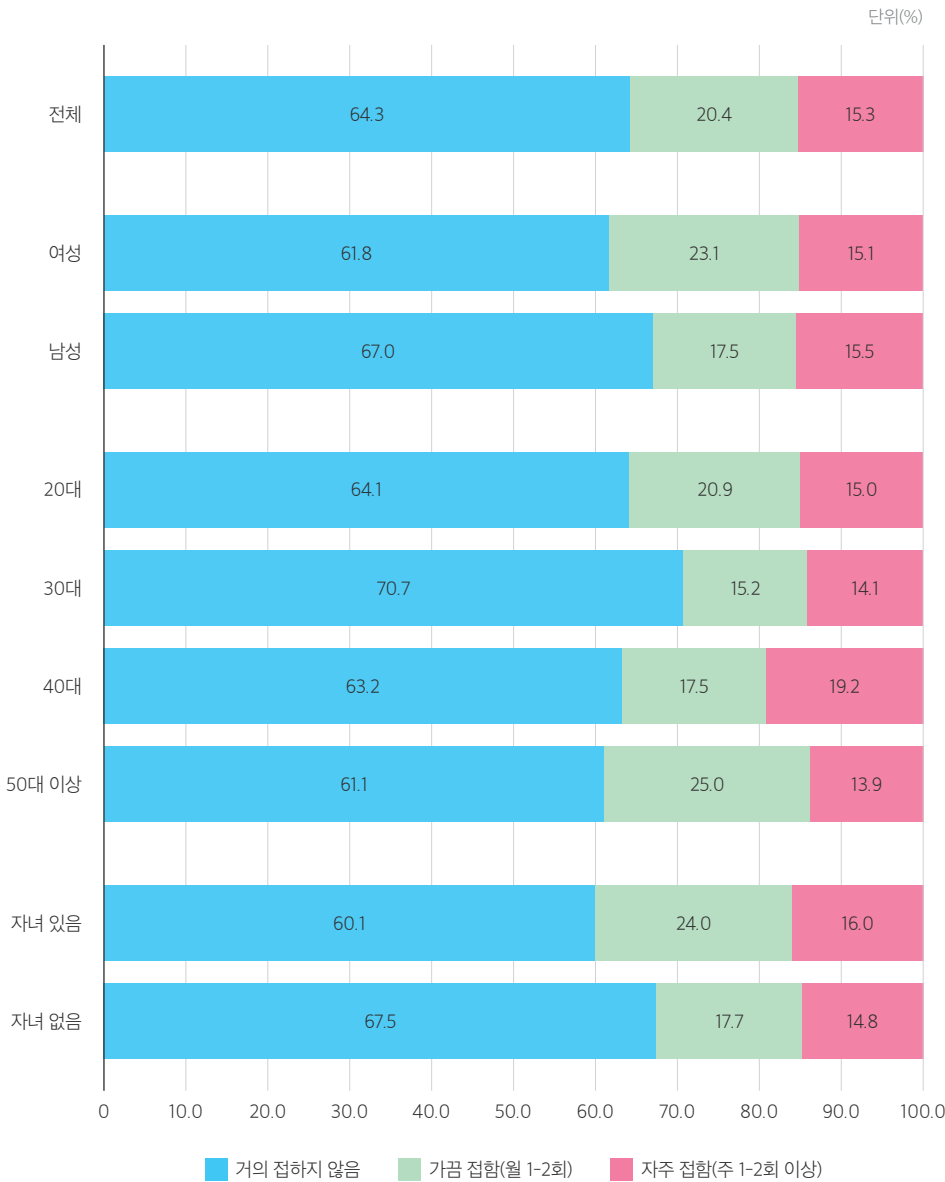


육아 리얼리티 및 솔루션

신규 육아 리얼리티: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예: 슈퍼맨이돌아왔다)은 ‘거의 접하지 않음’ 64.3%, ‘가끔 접함(월 1-2회)’ 20.4%, ‘자주 접함(주 1-2회 이상)’ 15.3%로 나타났음
- 성별로 **여성**(23.1%)이 남성에 비해 육아 리얼리티를 ‘가끔’ 접하는 비율이 높았고 **남성**은 ‘거의 접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67.0%)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대별로 **50대 이상**(25%)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육아 리얼리티를 ‘가끔’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30대**는 ‘거의 접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응답 비율(70.7%)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자녀 유무별로 **자녀가 있는 집단**(24%)이 자녀가 없는 집단에 비해 육아 리얼리티를 ‘가끔’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자녀가 없는 집단은 ‘거의 접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67.5%)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귀하는 육아 리얼리티를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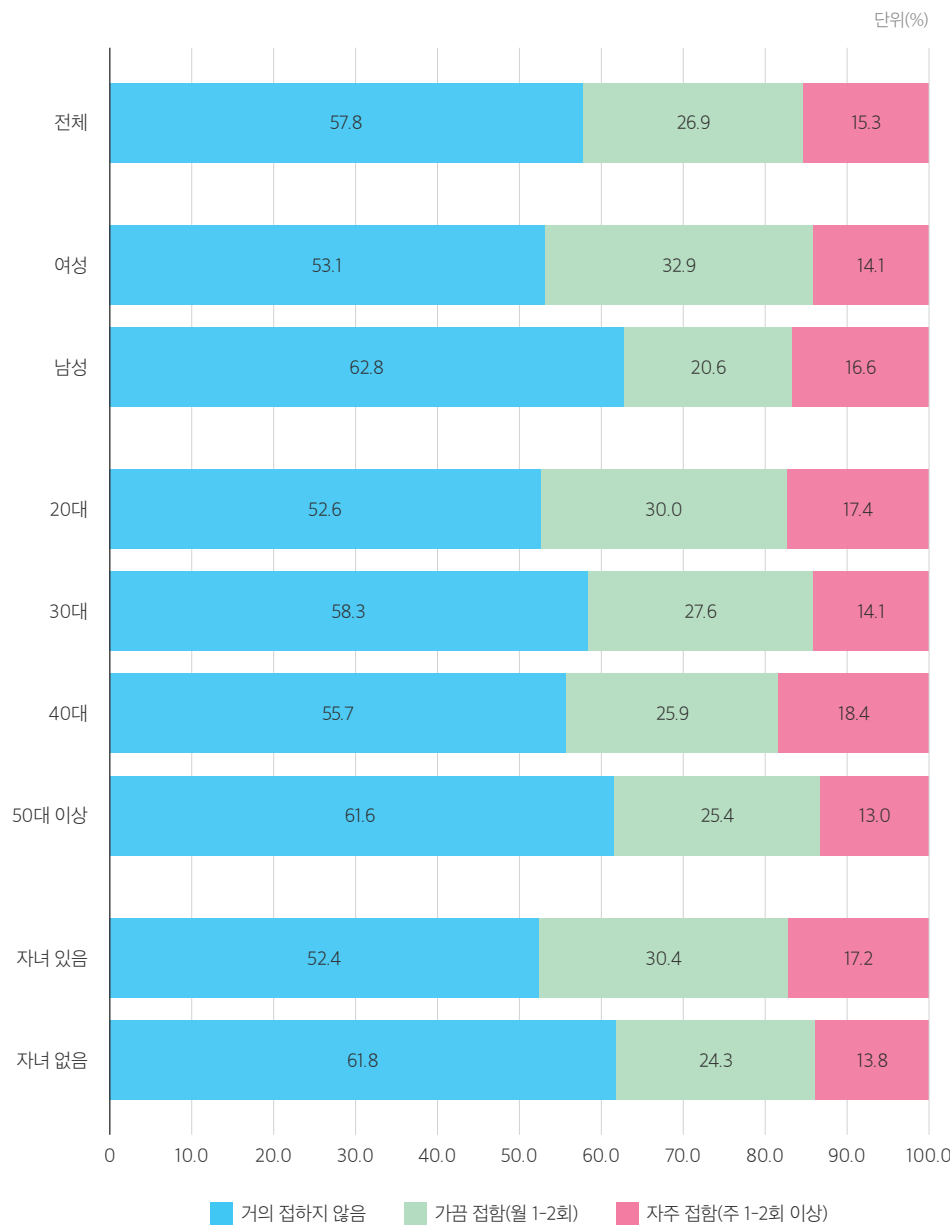
주
'거의 접하지 않음', '1개월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거의 매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이 중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거의 매일'의 세 가지 응답을
'자주 접함'으로 묶어서 제시함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신규 육아 솔루션: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육아 솔루션 프로그램**(예: 금쪽같은내새끼)에 대해 ‘거의 접하지 않음’ 57.8%, ‘가끔 접함(월 1-2회)’ 26.9%, ‘자주 접함(주 1-2회 이상)’ 15.3%로 나타났음
- 성별로 **여성**(‘가끔’ 32.9%)이 남성에 비해 육아 솔루션을 ‘가끔’ 접하는 비율이 높았음. 반면 남성은 ‘거의 접하지 않음’(62.8%)과 ‘자주’ 접하는 비율(16.6%) 모두가 여성에 비해 높았음
- 연령대별로 **20대**(47.4%)가 육아 솔루션을 ‘자주’ 또는 ‘가끔’ 접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40대(44.3%), 30대(41.7%), 50대 이상(38.4%)의 순이었음
-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있는 집단**(47.6%)이 자녀가 없는 집단에 비해 육아 솔루션을 ‘가끔’ 또는 ‘자주’ 접하는 비율이 높았음

귀하는 육아 솔루션 영상 콘텐츠를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



주
'거의 접하지 않음', '1개월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거의 매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이 중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거의 매일'의 세 가지 응답을
'자주 접함'으로 묶어서 제시함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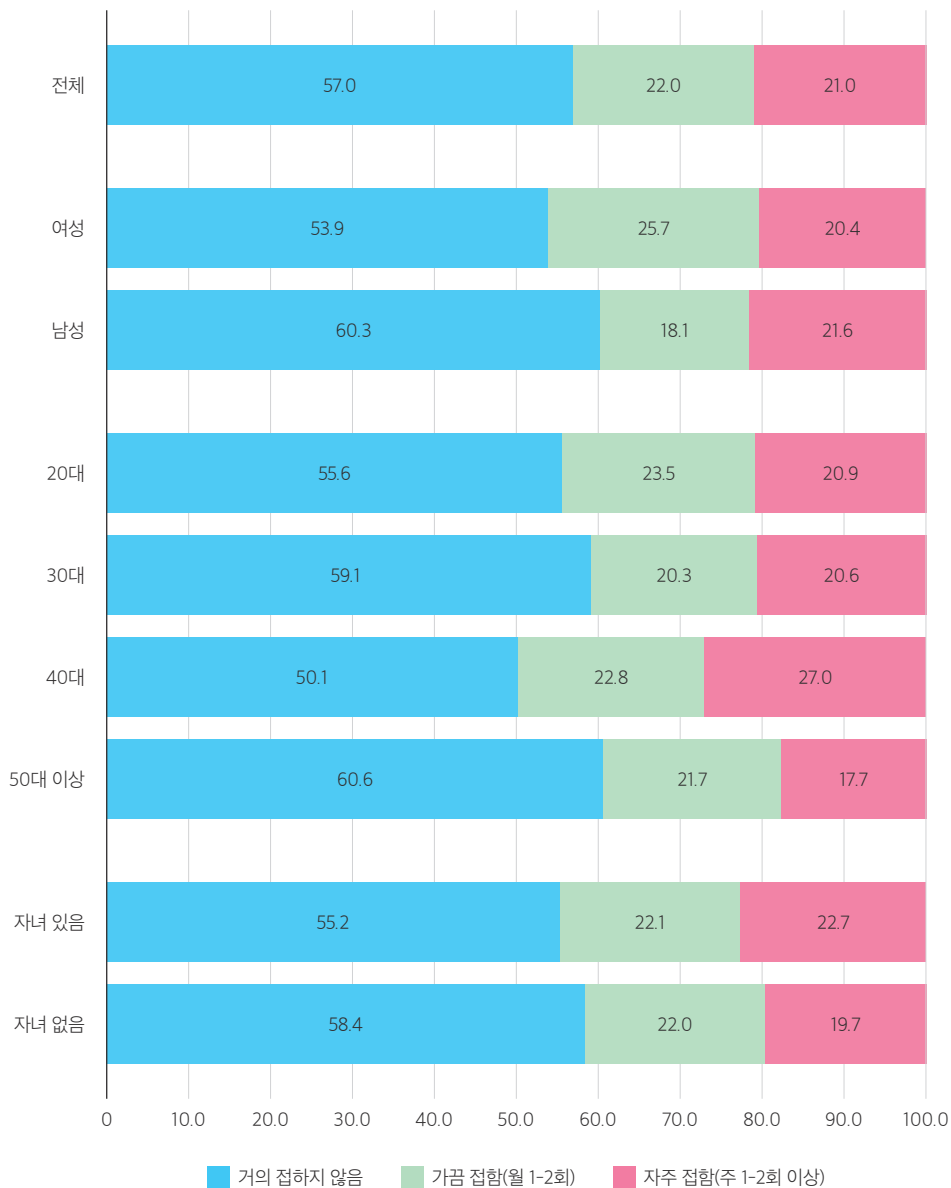
결혼 솔루션

신규 결혼 솔루션: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결혼 솔루션 프로그램**(예: 이혼속려캠프)에 대해 ‘거의 접하지 않음’ 57%, ‘가끔 접함(월 1-2회)’ 22%, ‘자주 접함(주 1-2회 이상)’ 21%로 나타났음
- 성별로 **여성**(‘가끔’ 25.7%)이 남성에 비해 결혼 솔루션을 ‘가끔’ 접하는 비율이 높았고 남성(60.3%)은 ‘거의 접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대별로 **40대**(49.8%)가 결혼 솔루션을 ‘가끔’ 또는 ‘자주’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대**(20대 44.4%) 순으로 나타남. 반면 30대와 50대 이상은 ‘거의 접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30대 59.1%, 50대 이상 60.6%)
- 자녀 유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귀하는 결혼 솔루션 영상 콘텐츠를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

단위(%)



주
 ‘거의 접하지 않음’, ‘1개월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거의 매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이 중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거의 매일’의 세 가지 응답을
 ‘자주 접함’으로 묶어서 제시함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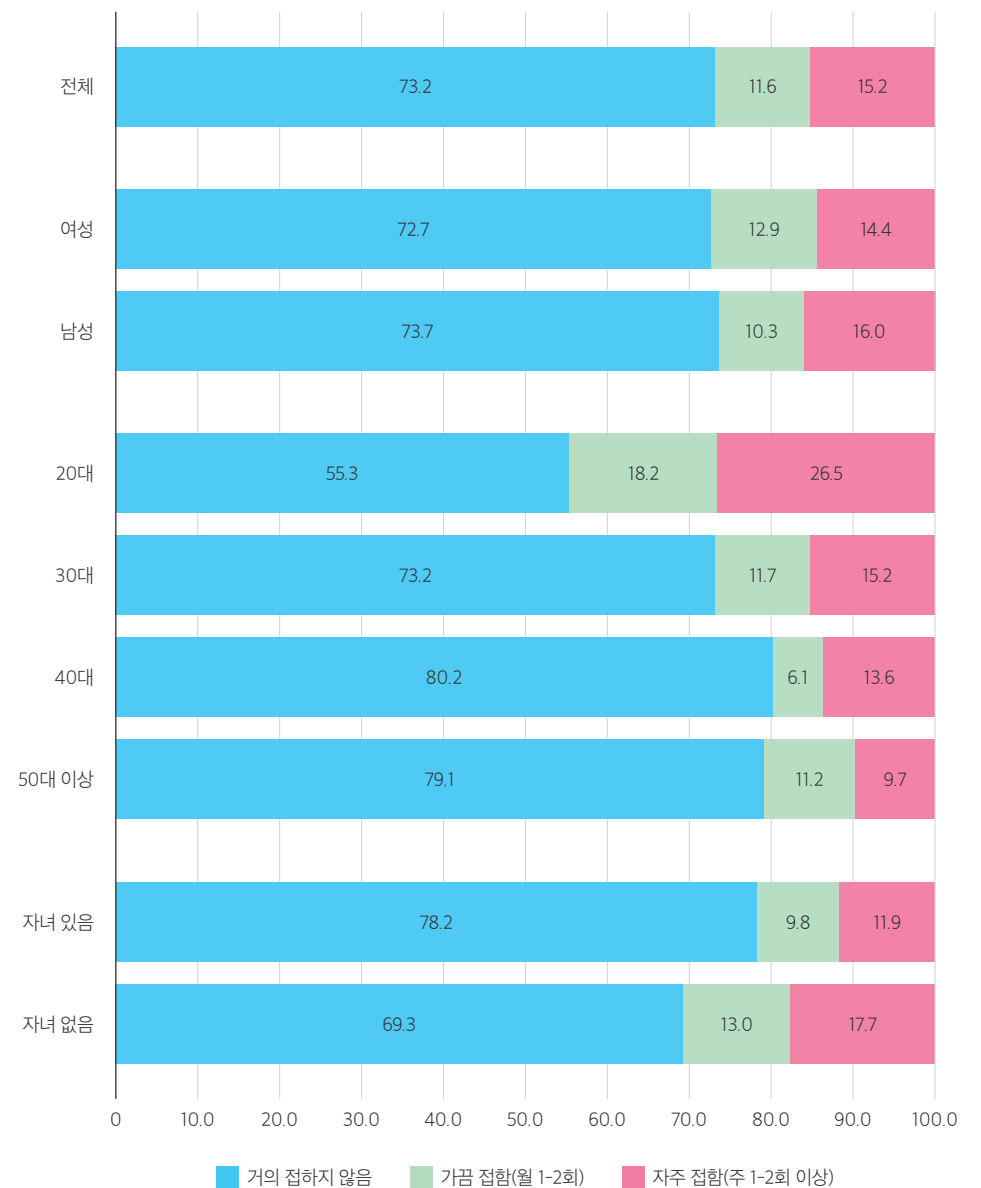
육아생활 및 결혼생활 유튜브

신규 육아생활 유튜브: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육아생활 유튜브**(예: 태요미네)에 대해 ‘거의 접하지 않음’ 73.2%, ‘가끔 접함(월 1-2회)’ 11.6%, ‘자주 접함(주 1-2회 이상)’ 15.2%로 나타났음
- 연령대별로 **20대**가 육아생활 유튜브를 ‘가끔’ 또는 ‘자주’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4.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대**(26.9%) 순으로 나타남. 40대와 50대 이상은 ‘거의 접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40대 80.2%, 50대 이상 79.1%)
-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없는 집단**(30.7%)이 자녀가 있는 집단에 비해 육아생활 유튜브를 ‘가끔’ 또는 ‘자주’ 접하는 비율이 높았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귀하는 육아생활 유튜브를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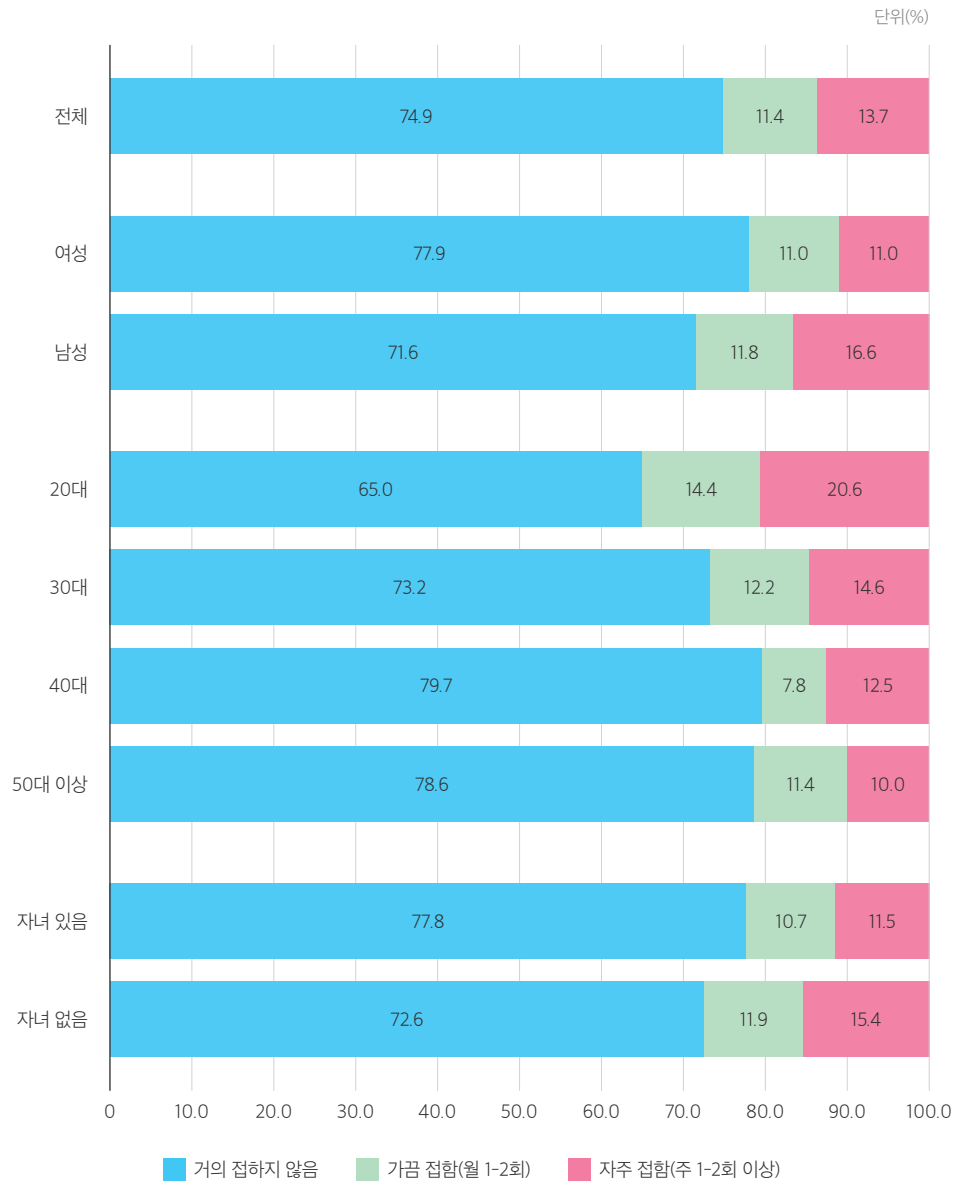
주
 ‘거의 접하지 않음’, ‘1개월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거의 매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이 중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거의 매일’의 세 가지 응답을
 ‘자주 접함’으로 묶어서 제시함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 전체 응답자

신규 결혼생활 유튜브: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결혼생활 유튜브**(예: 인생녹음중)에 대해 ‘거의 접하지 않음’ 74.9%, ‘자주 접함(주 1-2회 이상)’ 13.7%, ‘가끔 접함(월 1-2회)’ 11.4%로 나타났음
- 성별로 **남성**(‘자주’ 16.6%)이 여성에 비해 결혼생활 유튜브를 ‘자주’ 접하는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거의 접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77.9%)
- 연령대별로 **20대**(35%)가 결혼생활 유튜브를 ‘가끔’ 또는 ‘자주’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대**(26.8%) 순으로 나타남. 40대와 50대 이상은 ‘거의 접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40대 79.7%, 50대 이상 78.6%)
-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없는 집단**(‘자주’ 15.4%)이 자녀가 있는 집단에 비해 결혼생활 유튜브를 ‘자주’ 접하는 비율이 높았음

귀하는 결혼생활 유튜브를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



주
‘거의 접하지 않음’, ‘1개월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거의 매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이 중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거의 매일’의 세 가지 응답을
‘자주 접함’으로 묶어서 제시함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에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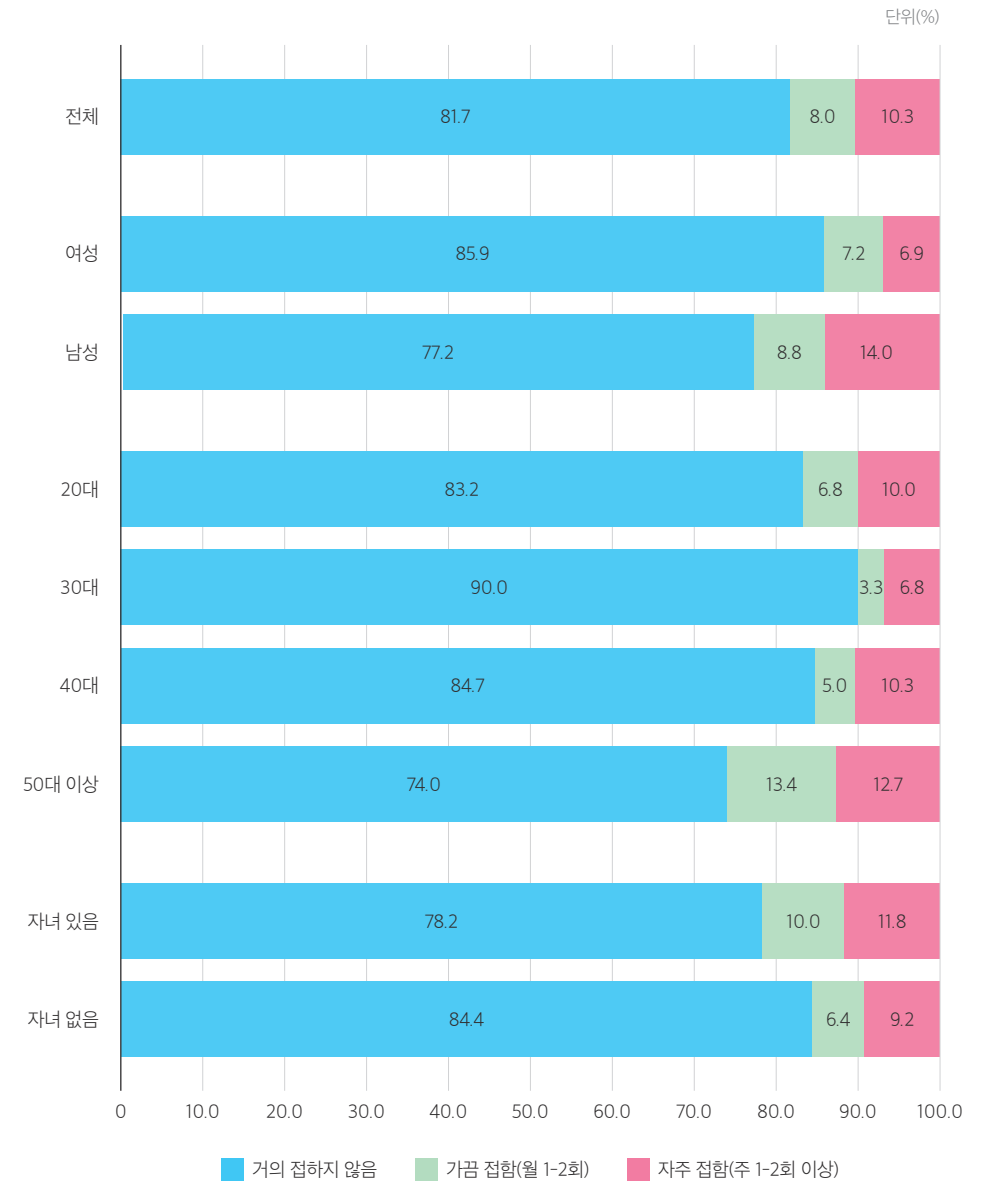


치매 가족 돌봄 유튜브

신규 치매 가족 돌봄 유튜브: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치매 가족 유튜브**(예: 시골청년)에 대해 ‘거의 접하지 않음’ 81.7%, ‘자주 접함(주 1-2회 이상)’ 10.3%, ‘가끔 접함(월 1-2회)’ 8%로 나타났음
- 성별로 **남성**(‘자주’ 14%)이 여성에 비해 치매 가족 유튜브를 ‘자주’ 접하는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거의 접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85.9%)
- 연령대별로 **50대 이상**(26.1%)가 치매 가족 유튜브를 ‘가끔’ 또는 ‘자주’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대**(‘가끔’ 6.8% + ‘자주’ 10%)와 **40대**(15.3%) 순으로 나타남. 30대는 대부분의 경우 ‘거의 접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하였음(90%)
-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있는 집단**(21.8%)이 자녀가 없는 집단에 비해 치매 가족 유튜브를 ‘가끔’ 또는 ‘자주’ 접하는 비율이 높았음

귀하는 치매 가족 돌봄 유튜브를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



주
‘거의 접하지 않음’, ‘1개월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거의 매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이 중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거의 매일’의 세 가지 응답을
‘자주 접함’으로 묶어서 제시함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에 전체 응답자



가족 관련 영상 콘텐츠 이용은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을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족 관련 영상 콘텐츠 이용과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요인

- 남성일 때
- 연령이 낮을수록
- 본인의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가족 요인

- 배우자가 있을 때
- (첫째 자녀가 청소년일 때에 비해) 자녀가 없을 때
- (자녀가 없을 때에 비해) 첫째 자녀가 성인일 때

영상 콘텐츠 요인

- 연애 리얼리티를 자주 접할수록
- 결혼 솔루션을 덜 접할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음

사회인구학적 요인

- 남성일 때
-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 본인의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가족 요인

- 배우자가 있을 때
- (자녀가 없을 때에 비해) 자녀가 있을 때

영상 콘텐츠 요인

- 결혼 솔루션을 덜 접할수록
- 육아생활 유튜브를 자주 접할수록
- 결혼생활 유튜브를 덜 접할수록



자녀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1,667명



부모됨에 관한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민간 유튜브 채널과의 협력

서울시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유튜브 채널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https://www.youtube.com/@happy_umppa) 등을 통해 결혼 및 부모됨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족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 서울가족서베이 결과,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30대는 육아 및 결혼생활 유튜브 콘텐츠를 상대적으로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튜브를 통한 저출생 대응 정책 홍보가 주요 타겟인 청년층에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2025 서울가족서베이 결과를 심층 분석한 결과, 육아 및 결혼생활 관련 유튜브 콘텐츠 시청이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관련 유튜브가 가족형성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30대에게 결혼 및 부모됨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체 유튜브 콘텐츠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 기업, 기관 등 다른 유튜브 채널과 협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민간 유튜브 채널 중에는 부모됨에 대한 정보 제공, 정체성 형성, 사회적 지지 제공과 같은 순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익화를 위해 근거 없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격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Chee et al., 2023). 서울시가 부모됨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민간 유튜브 채널과 협력하여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을 홍보하거나, 부모됨에 대한 현실적이고 근거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부모를 '응원'하는 도시로서 포용적 분위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Chee, R. M., Capper, T. S., & Muurlink, O. T. (2023). The impact of social media influencers on pregnancy, birth, and early parenting experiences: A systematic review. *Midwifery*, 120, 103623. <https://doi.org/10.1016/j.midw.2023.103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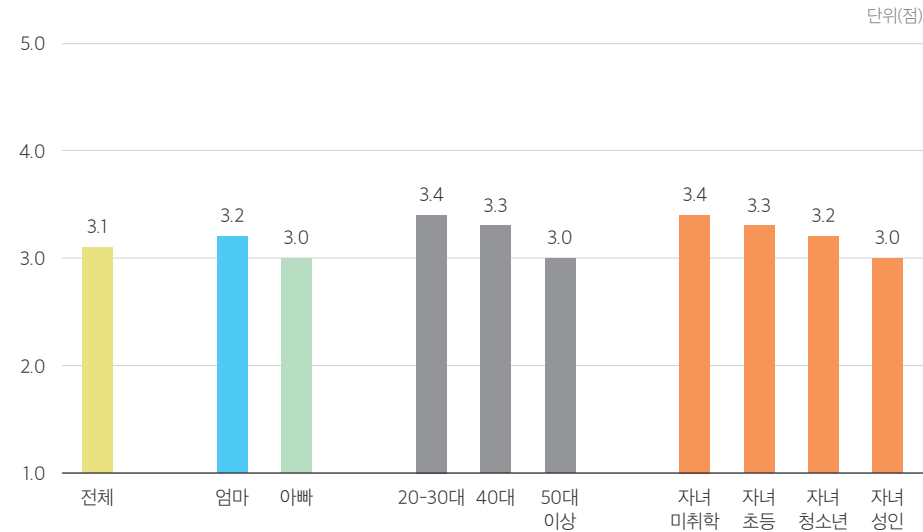


부모-자녀 공유 시간 충분성: 본인

본인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 충분성: 부모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본인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범위: 1-5점)라는 문항에 대한 유자녀 서울 시민의 평균은 **3.1점**으로 ‘보통’(3점)이라고 인식하였음
- 성별로는 **엄마**(3.2점)가 **아빠**(3점)보다 본인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음
- 연령대별로는 **20-30대**(3.4점)와 **40대**(3.3점)가 50대 이상(3점)에 비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음
- 자녀 발달단계별로는 **미취학 자녀 부모**(3.4점)와 **초등 자녀 부모**(3.3점)가 성인 자녀 부모(3점)에 비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음

내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 (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응답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자녀가 있는 응답자 721명)



부모-자녀 공유 시간 충분성: 배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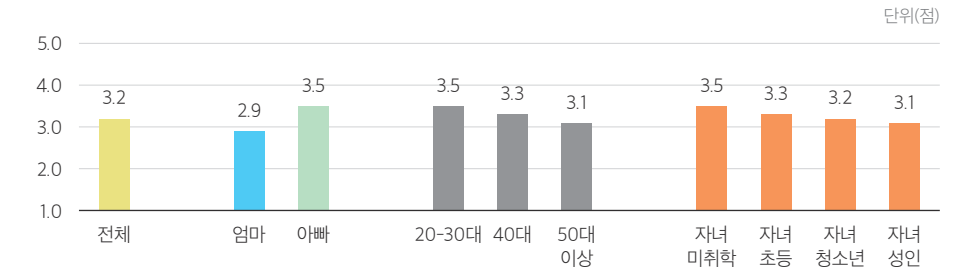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 (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응답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응답자 646명)

배우자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 충분성: 부모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가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서울 시민의 **평균은 3.2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음
- 성별로는 **남성**(3.5점)이 여성(2.9점)보다 배우자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음. 즉 남편이 생각한 아내-자녀 공유 시간 충분성이 아내가 생각한 남편-자녀 공유 시간 충분성보다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20-30대**(3.5점)와 **40대**(3.3점)가 50대 이상(3.1점)에 비해 배우자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음
- 자녀 발달단계별로는 **미취학 자녀 부모**(3.5점)가 청소년 자녀 부모(3.2점)와 성인 자녀 부모(3.1점)에 비해 배우자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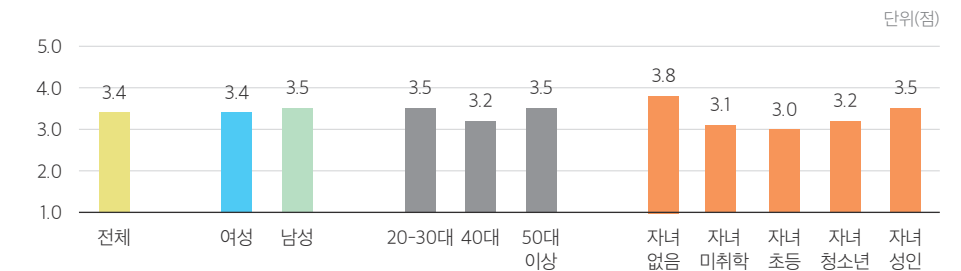
배우자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과 배우자가 보내는 시간 충분성: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 ‘자신과 배우자가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20-64세 서울 시민의 평균은 **3.4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충분’(4점)의 중간 수준이었음
- 연령대별로는 **20-30대**(3.5점)와 **50대 이상**(3.5점)이 40대(3.2점)에 비해 부부 공유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음
-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로는 **자녀가 없는 집단**(3.8점)이 가장 부부 공유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성인 자녀 부모**(3.5점), 청소년 자녀 부모(3.2점), 미취학 자녀 부모(3.1점), 초등학생 자녀 부모(3점)의 순이었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나와 배우자가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 (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응답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775명)



동거 가족 공유 시간 충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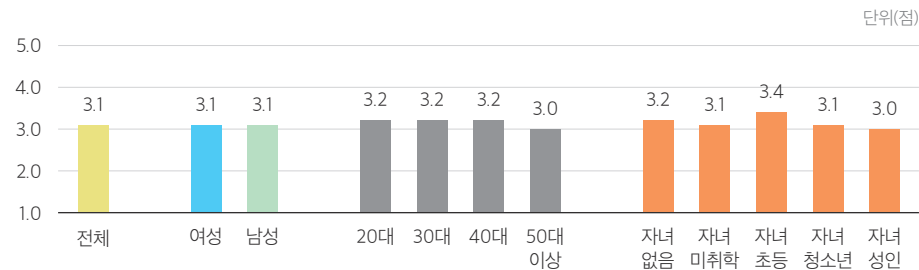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
(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응답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동거 가구원이
2명 이상이며 가족과 동거하는
응답자 989명)

신규 같이 사는 가족이 다함께 보내는 시간 충분성: 부모 전체, 성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 같이 사는 가족이 다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2명 이상의 가족과 동거하는 20-64세 서울 시민의 평균은 3.1점으로 '보통'(3점)이라고 인식하였음
- 연령대별로 **20대**(3.2점)와 **40대**(3.2점)가 50대 이상(3.0점)에 비해 가족이 다함께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음
-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로는 **자녀가 없는 집단**(3.2점)과 **초등 자녀 부모**(3.4점)가 성인 자녀 부모(3점)에 비해 가족이 다함께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가족이 다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 식사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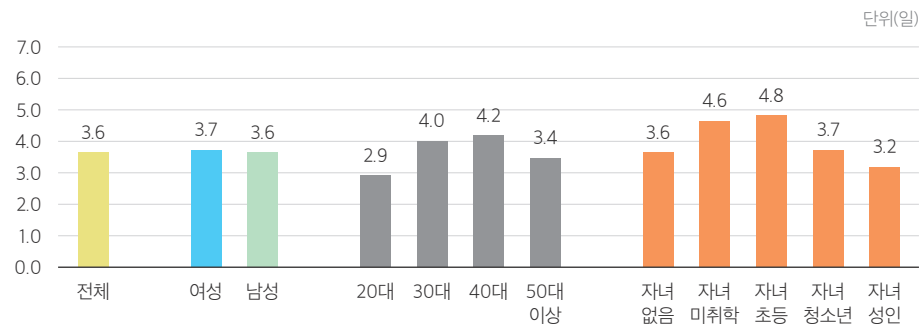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
(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응답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1인 가구가
아닌 응답자 1,265명)

신규 같이 사는 '온 가족' 식사 빈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 “같이 사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날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며칠입니까?”(범위: 0-7일)라고 질문한 결과, 1인 가구가 아닌 20-64세 서울 시민의 평균은 3.6일이었음
- 연령대별로 **30대**(4일)와 **40대**(4.2일)는 약 4일 정도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 50대 이상(3.4일), 20대(2.9일)의 순이었음
-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로는 **미취학 자녀 부모**(4.6일)와 **초등 자녀 부모**(4.8일)가 7일 중 5일 가까이 동거 가족이 함께 식사하였고, 이어 자녀가 없는 집단(3.6일)과 청소년 자녀 부모(3.7일)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성인 자녀 부모(3.2일)는 동거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같이 사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날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며칠입니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자녀 발달단계별 맞춤형 가족 시간 지원 사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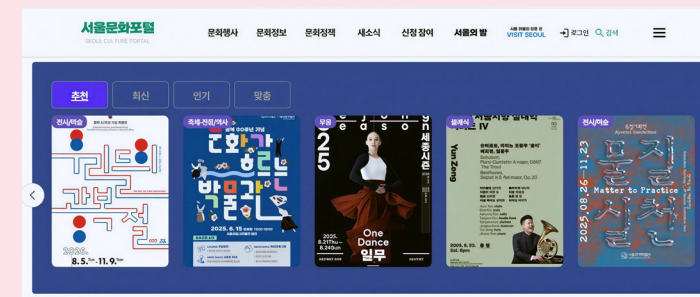
2025 서울가족서베이 분석 결과, 자녀가 영유아거나 초등학생 시기일 때는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이 덜 충분하다고 인식한 반면, 자녀가 청소년이나 성인기일 때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덜 충분하다고 인식하였다. 청소년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은 온가족과 보내는 시간 및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빈도가 자녀가 어린 가족에 비해 적었다. 이는 가족 시간의 특성이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시기별로 맞춤형 가족 시간 지원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미취학 혹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자녀 양육기 부부에게는 야간과 주말 시간을 활용하여 '육퇴'(육아 퇴근의 줄임말로, 저녁에 아이를 재운 뒤의 자유시간을 의미함) 후 부부만의 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반면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는 가족 전체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자녀와의 공유 시간 충분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자녀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함께하는 식사'와 같이 복잡하지 않지만 일상 속 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5 서울가족정책



서울문화포털,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서비스: 가족 여가활동 지원

서울시는 가족이 여가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문화포털'은 각종 문화행사와 문화공간을 안내한다. 주로 한국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서울문화포털 누리집을 통해 한국문화 체험, 서울역사 강좌 안내, 서울시 월별 문화프로그램 안내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에서는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체험과 교육 강좌를 안내하는 동시에 가족이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공 공간 대여 예약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여 가능한 공간은 캠핑장, 체육시설 등이며 문화 체험과 교육 강좌 또한 전시/관람, 농장 체험, 교육 체험부터 미술, 교양/어학, 스포츠까지 다양하다.



자료 1) 서울특별시. 청소년 자녀 부모 서울문화포털. <https://culture.seoul.go.kr/culture>
2) 서울특별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https://yeyak.seou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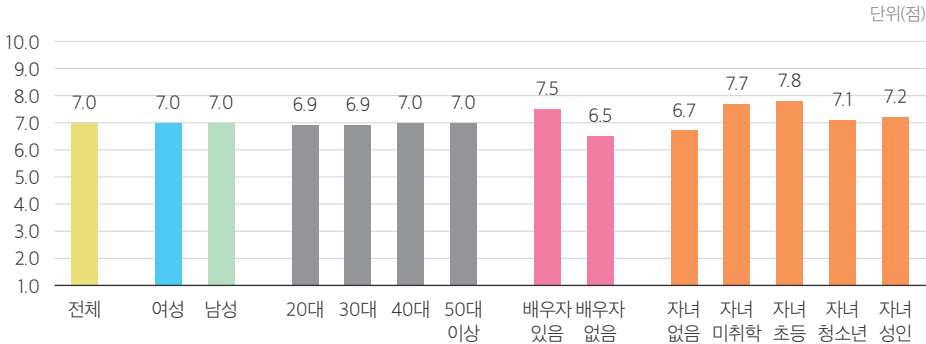


행복:
가족 및 개인

가족의 행복: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 ‘지난 한 달 동안 귀하의 가족생활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범위: 1-10점)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평균은 7점으로 대체로 행복한 수준이었음
- 배우자 유무별로 배우자가 있는 집단(7.5점)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6.5점)보다 개인이 더 행복했다고 응답하였음
-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로 미취학 자녀 부모(7.7점)와 초등 자녀 부모(7.8점)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청소년 자녀 부모(7.1점), 성인 자녀 부모(7.2점)가 높았으며, 자녀가 없는 집단(6.7점) 순이었음
- 성별,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지난 한 달 동안 귀하의 가족생활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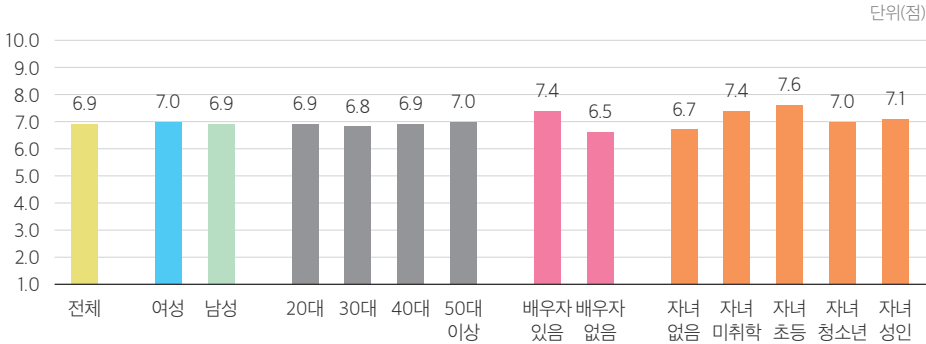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응답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개인의 행복: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 ‘지난 한 달 동안 본인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범위: 1-10점)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평균은 6.9점으로 대체로 행복한 수준이었음
- 배우자 유무별로 배우자가 있는 집단(7.4점)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6.5점)보다 더 행복했다고 응답하였음
-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로 미취학 자녀 부모(7.4점), 초등 자녀 부모(7.6점), 성인 자녀 부모(7.1점)가 자녀가 없는 집단(6.7점)보다 더 행복했다고 응답하였음
- 성별,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지난 한 달 동안 귀하 본인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응답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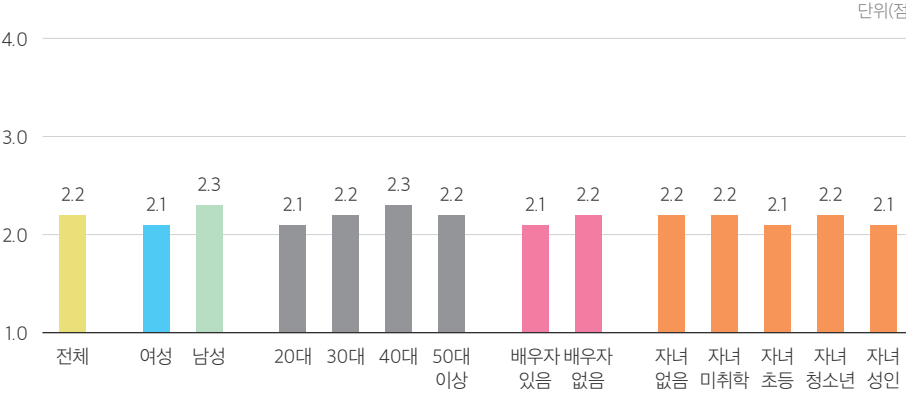


외로움 및 우울

외로움: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 20-64세 서울 시민의 외로움 수준(범위: 1-4점)은 평균 2.2점으로 제시된 상황을 ‘드물게 그렇다’(2점) 정도로 경험하였음
- 성별로 남성(2.3점)이 여성(2.1점)보다 외로움 수준이 높았음
- 배우자 유무별로 배우자가 없는 집단(2.2점)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2.1점)보다 외로움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외로움



주1
Russell 외(1980)의 ULCA 외로움 척도 중 8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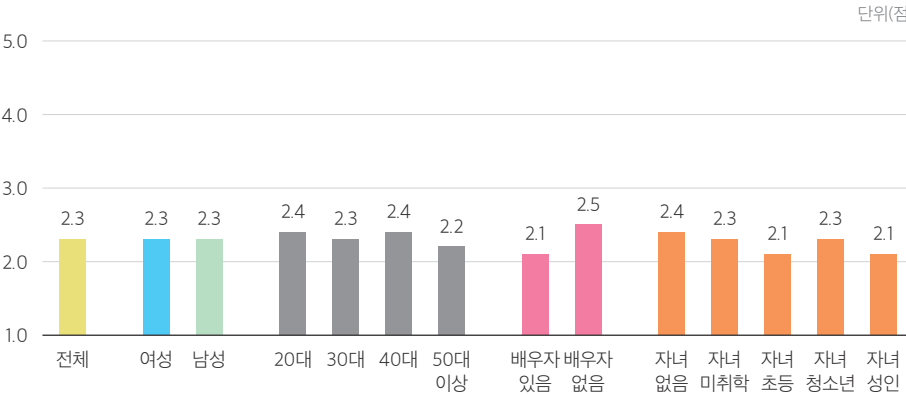
주2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응답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우울: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 20-64세 서울 시민의 우울 수준(범위: 1-5점)은 평균 2.3점으로 ‘별로 그렇지 않았다’(2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음
- 연령대별로 20대(2.4점), 30대(2.3점), 40대(2.4점)가 50대 이상(2.2점)보다 우울 수준이 높았음
- 배우자 유무별로 배우자가 없는 집단(2.5점)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2.1점)보다 우울 수준이 높았음
-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로 자녀가 없는 집단(2.4점), 미취학 자녀 부모(2.3점), 청소년 자녀 부모(2.3점)가 초등 자녀 부모(2.1점), 성인 자녀 부모(2.1점)보다 우울 수준이 높았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우울



주1
Kessler 외(2002)의 K6 심리적 디스트레스/우울 척도 6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주2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응답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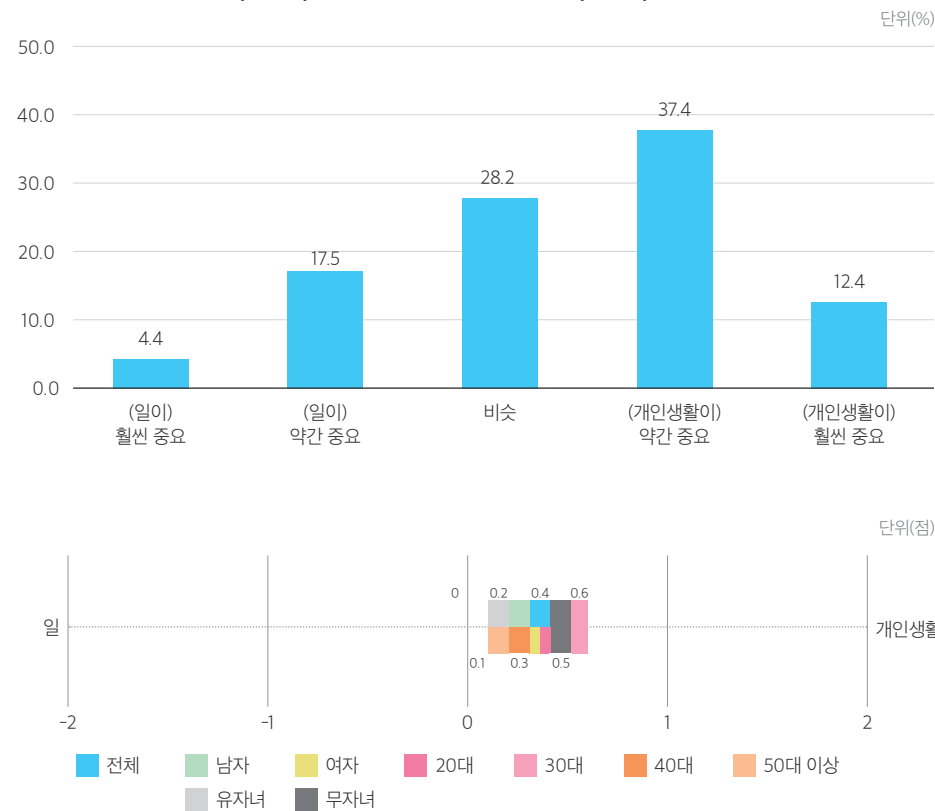


일, 개인생활, 가족생활 중요도

일 vs. 개인생활 중요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일(직장, 취업, 진로)’과 ‘개인생활(여가, 휴식, 자기계발 등)’을 양쪽에 두고 어떤 쪽이 더 중요한지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은 **개인생활이 ‘약간 중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음. 2024년 서울가족서베이의 동일 문항에서 일과 개인생활의 중요도가 ‘비슷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32.4%로 가장 높았던 것과 차이가 있었음
-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응답에 -2점, ‘개인생활’이 훨씬 중요하다는 응답에 2점을 부여한 결과, **전체 평균은 0.4점**으로 일과 개인생활이 ‘비슷하다’(0점)와 개인생활이 ‘약간 중요하다’(1점)의 중간이었음
- 연령대별로는 **30대**(0.6점)가 개인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0대(0.4점) 및 40대(0.3점)가 유사한 수준이었고 50대 이상(0.2점)이 가장 낮았음
-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없는 집단**(0.5점)이 자녀가 있는 집단(0.2점)보다 개인생활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일(직장, 취업, 진로) vs. 개인생활(여가, 휴식, 자기계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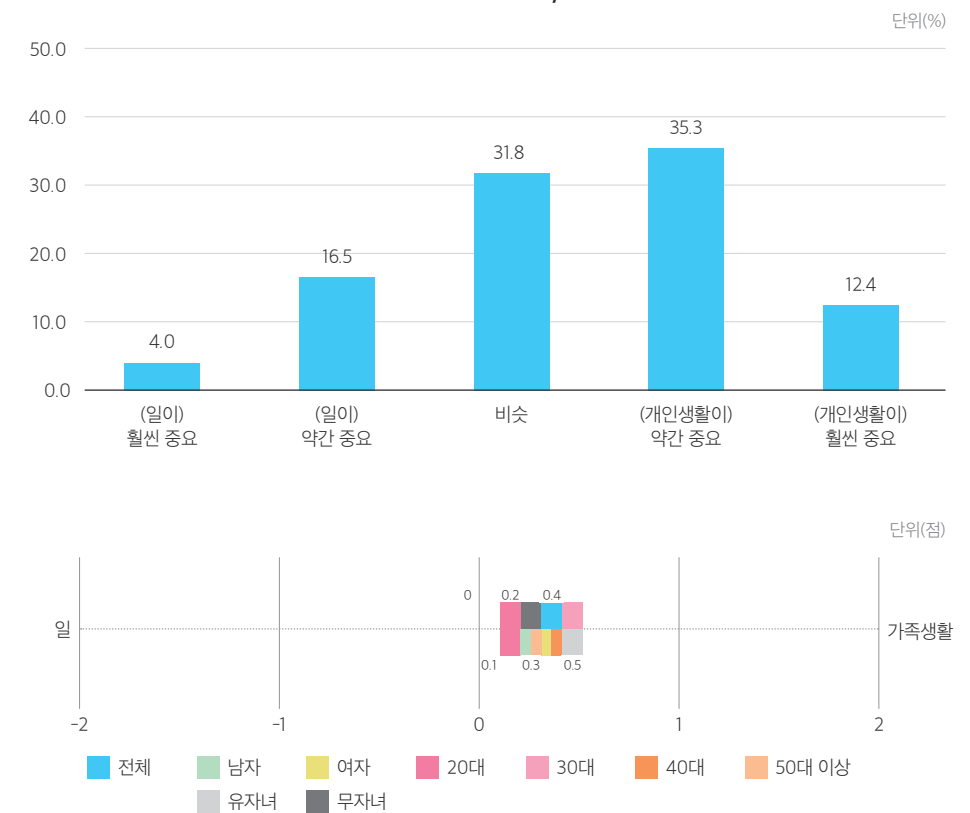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일 vs. 가족생활 중요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일(직장, 취업, 진로)’과 ‘가족생활(가족과의 공유 시간, 돌봄 및 가사 등)’을 양쪽에 두고 어떤 쪽이 더 중요한지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은 전체적으로 **가족생활이 ‘약간 중요하다’**(35.3%)와 일과 가족생활의 중요도가 ‘비슷하다’(31.8%)의 비중이 유사하였음
- **전체 평균은 0.4점**으로 일과 가족생활이 ‘비슷하다’(0점)와 가족생활이 ‘약간 중요하다’(1점)의 중간이었음
- 연령대별로는 **30대**(0.5점)가 가족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0대(0.4점) 및 50대 이상(0.3점)이 유사한 수준이었고 20대(0.2점)가 가장 낮았음
-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있는 집단**(0.5점)이 자녀가 없는 집단(0.3점)보다 가족생활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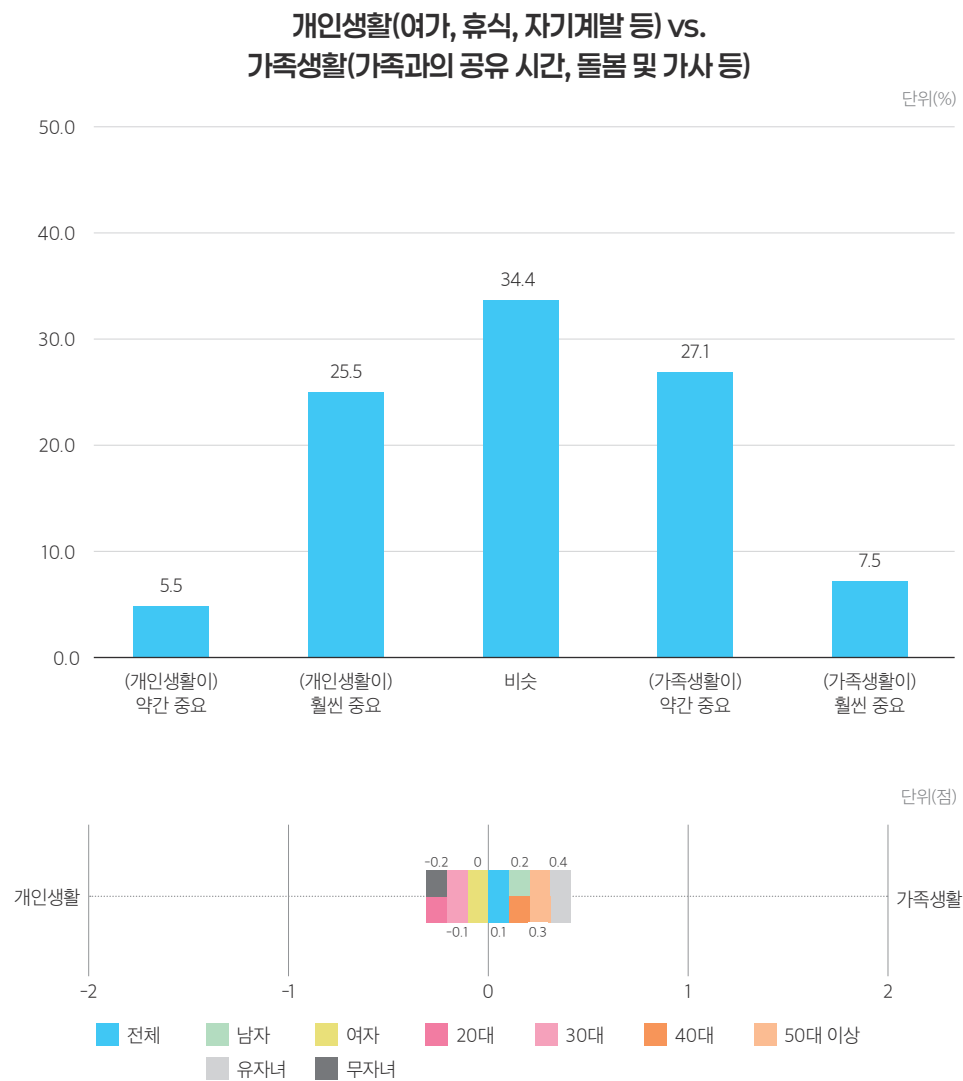
일(직장, 취업, 진로) vs. 가족생활(가족과의 공유 시간, 돌봄 및 가사 등)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신규 **개인생활 vs. 가족생활 중요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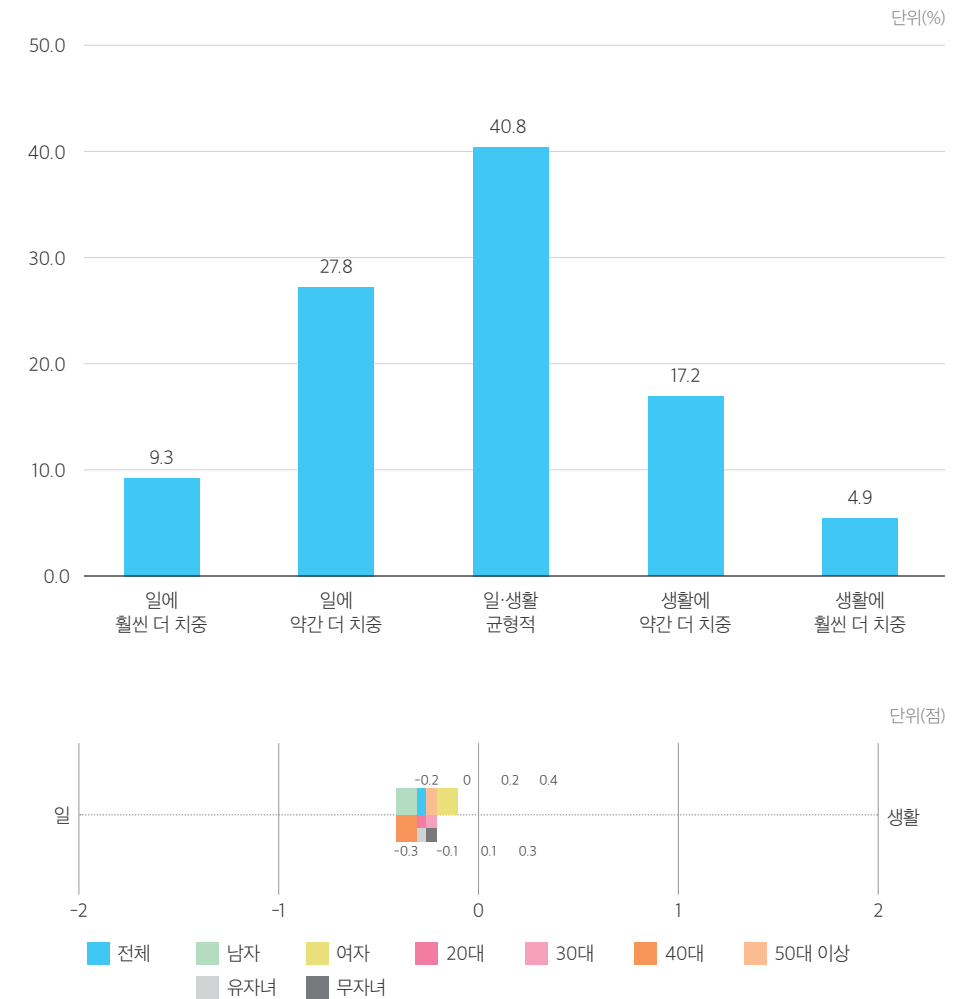
- ‘개인생활(여가, 휴식, 자기계발 등)’과 ‘가족생활(가족과의 공유 시간, 돌봄 및 가사 등)’을 양쪽에 두고 어떤 쪽이 더 중요한지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은 전체적으로 **개인생활과 가족생활의 중요도가 ‘비슷하다’**(34.4%)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음
- **전체 평균은 0.1점**으로 두 가지가 비슷하게 중요하다는 경향이었음
- 성별로 **남성(0.2점)**이 여성(0점)보다 가족생활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있는 집단(0.4점)**이 자녀가 없는 집단(-0.2점)보다 가족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0.3점)** 및 **40대(0.2점)**가 가족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0대(-0.1점)는 비슷하게 중요한 편이었으며, 20대(-0.2점)가 가장 개인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신규 **일-생활 균형(워라밸) 상태: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일’과 ‘생활’을 양쪽에 두고 어떤 쪽에 더 치중해 있는지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은 **‘일-생활이 균형적’**(40.8%), ‘일에 약간 더 치중’(27.8%), ‘생활에 약간 더 치중’(17.2%)의 순이었음
- **전체 평균은 -0.2점**으로 ‘일-생활이 균형적’(0점)에 가까웠음
- 성별로는 **남성(-0.3점)**이 여성(-0.1점)보다 일에 더 치중한다고 응답하였음
- 연령대 및 자녀 유무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전반적으로 귀하의 일·생활 균형(워라밸)은 어떤 상태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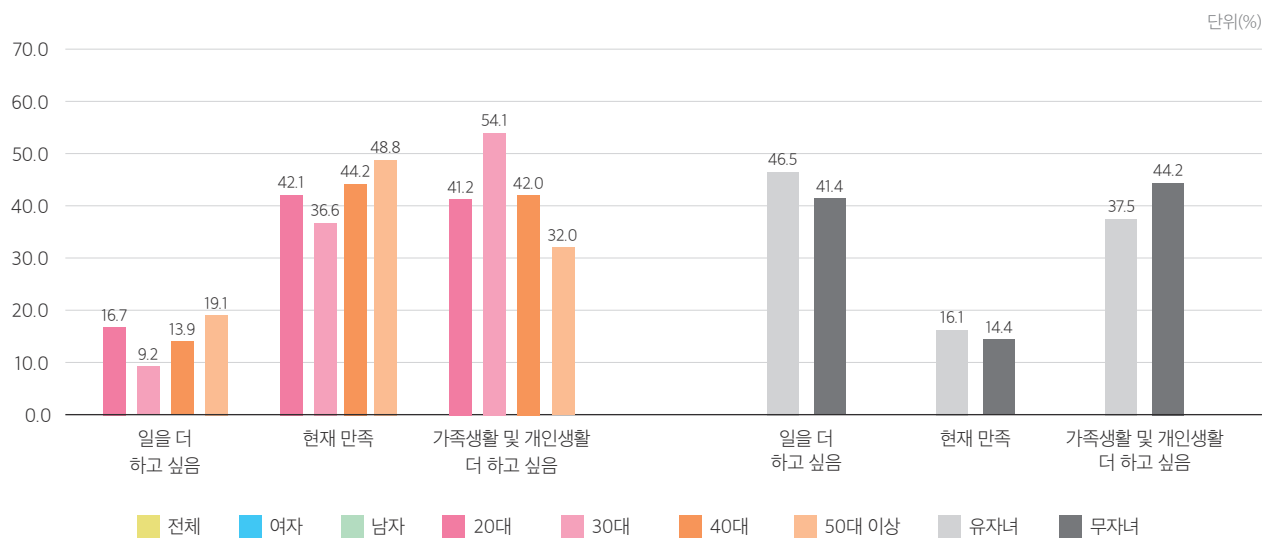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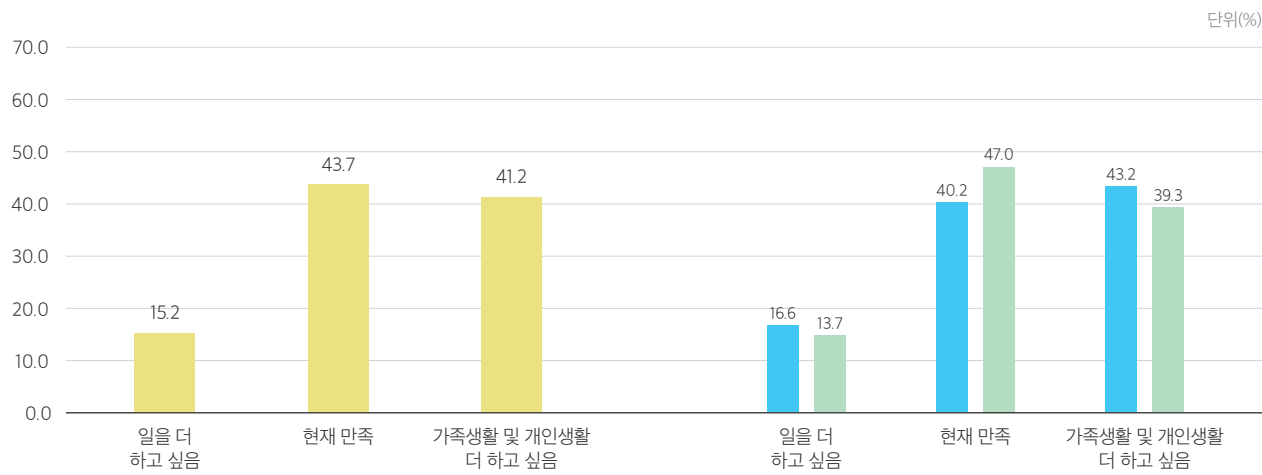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지난 일주일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했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근무했거나, 일자리가 있었던 응답자 1,221명)

신규 일-생활 균형(워라벨) 균형 상태: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일-생활 균형(워라벨)에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를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응답은 **‘현재 만족’(43.7%)**과 **‘가족생활 및 개인생활을 더 하고 싶음’(41.2%)**의 비율이 유사하게 높았음
- 성별로는 **현재 만족**한다는 **남성**의 비율(47%)이 여성의 비율(40.2%)보다 높았음. **여성은 가족생활 및 개인생활을 더 하고 싶다는**(43.2%) 응답의 비율이 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율보다 높았고, **일을 더 하고 싶다는** 비율(16.6%)도 남성보다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현재 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30대**의 경우에는 **가족생활 및 개인생활을 더 하고 싶다는** 응답(54.1%)이 절반을 넘어 차이가 두드러졌음
-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없는 집단**에서 **가족생활 및 개인생활을 더 하고 싶다는** 응답의 비율 (44.2%)이 자녀가 있는 집단(37.5%)보다 높았음

일-생활 균형(워라벨)에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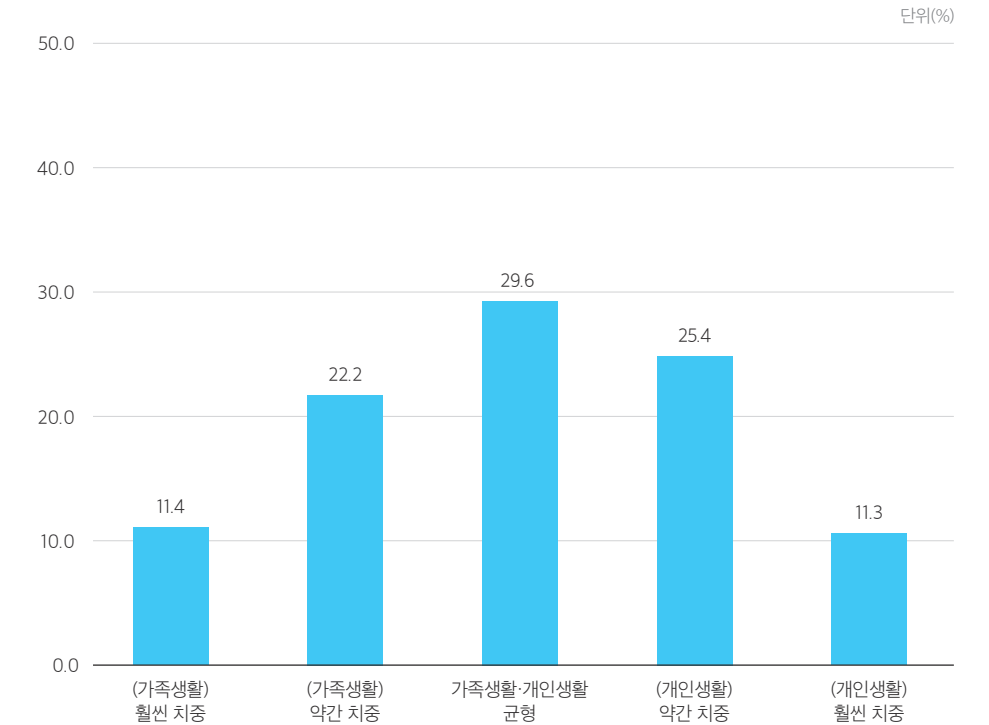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지난 일주일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했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근무했거나, 일자리가 있었던 응답자 1,221명)

신규 가족생활 vs. 개인생활 균형 상태: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가족생활’과 ‘개인생활’을 양쪽에 두고 어떤 쪽에 더 치중해 있는지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은 **‘가족생활-개인생활이 균형적’(29.6%)**, **‘개인생활’ 약간 치중’(25.4%)**, **‘가족생활’ 약간 치중’(22.2%)**의 순이었음
- **전체 평균은 0점**으로 ‘가족생활과 개인생활이 균형적’(0점)인 수준이었음
- 연령대별로는 **20대**(0.6점)가 개인생활에 가장 치중한다고 응답하였음
-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없는 집단**(0.5점)이 자녀가 있는 집단(-0.6점)보다 개인생활에 치중한다고 응답하였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가족생활 - 개인생활 균형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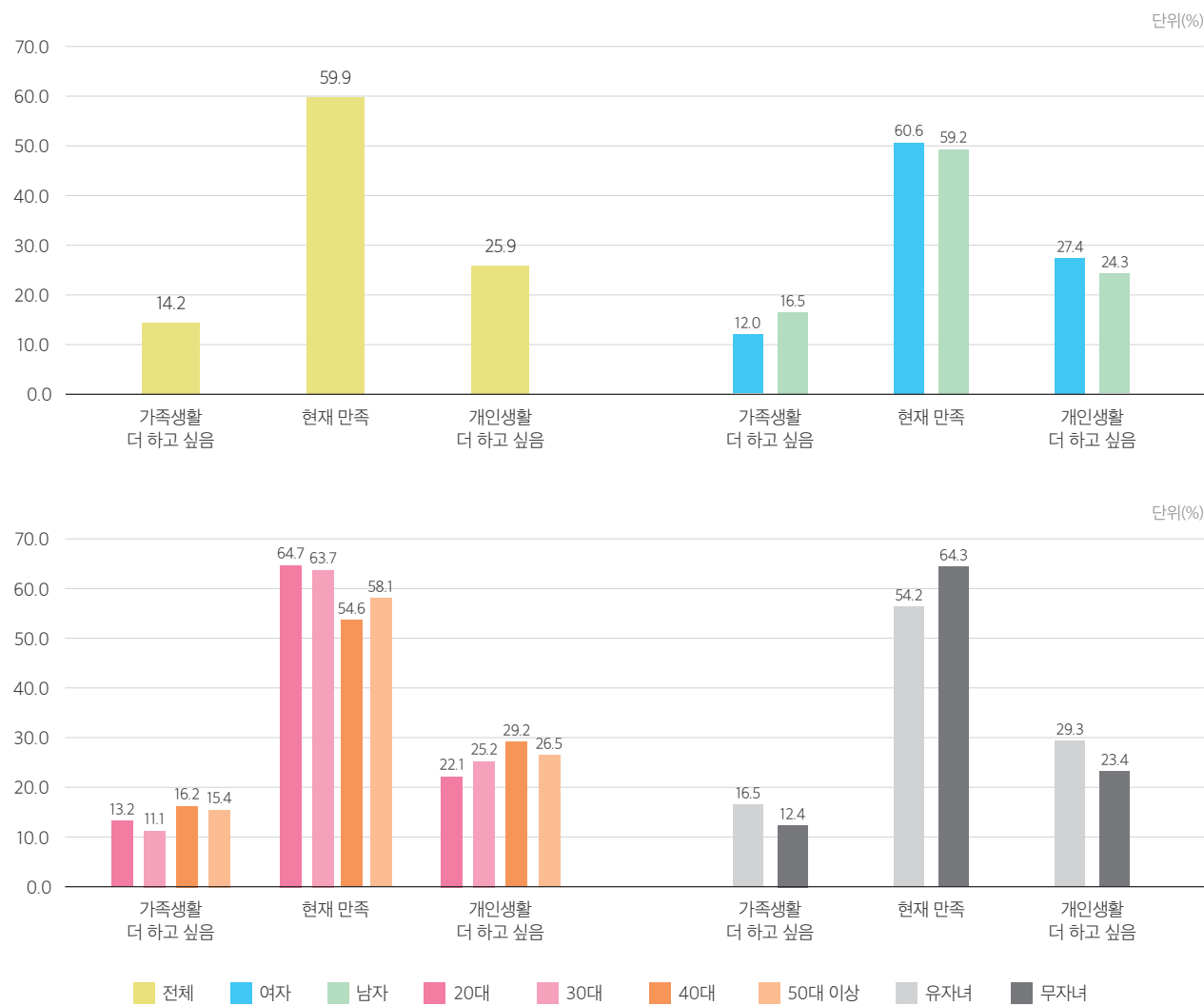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 전체 응답자

신규 가족생활 vs. 개인생활 균형 상태: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일 영역을 제외한 '가족생활-개인생활 균형에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응답은 '현재 만족'(59.9%), '가족생활 및 개인생활을 더 하고 싶음'(25.9%), '일을 더 하고 싶음'(14.2%)의 순이었음
- 성별로는 가족생활을 더 많이 하기를 희망하는 남성의 비율(16.5%)이 여성(12%)에 비해 높았고, 개인생활을 더 많이 하기를 희망하는 여성의 비율(27.4%)이 남성(24.3%)보다 높았음
- 자녀 유무별로는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자녀가 없는 집단(64.3%)이 자녀가 있는 집단(54.2%)보다 높았음. 가족생활을 더 원하는 응답의 비율은 자녀가 있는 집단(16.5%)이 자녀가 없는 집단(12.4%)보다 높았음. 개인생활을 더 원하는 응답의 비율은 자녀가 있는 집단(29.3%)이 자녀가 없는 집단(23.4%)보다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가족생활 - 개인생활 균형에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2025 서울 가족 클로즈업



어떤 사람이 워라밸과 가족-개인생활 비중의 변화를 원할까?

어떤 사람이 일 vs. 생활의 비중에서 변화를 원할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서울 시민이 일-생활 균형 상태에 대해 응답한 결과(만족, 일을 더 하고 싶음, 가족-개인생활을 더 하고 싶음)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근로 소득이 적을수록

· (자녀가 없는 집단에 비해)

12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때

· (상용직에 비해)

일용직, 자영업자일 때



(워라밸 상태에 만족하는
집단에 비해)
일을 더 하고 싶었음

· 여성일 때

· 연령이 낮을수록

· 주당 근로 시간이 길수록

· 평균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 평균 통근 시간이 길수록



(워라밸 상태에 만족하는
집단에 비해) 가족·
개인생활을 더 하고 싶었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지난 일주일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했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근무한 응답자 1,122명)

어떤 사람이 가족생활 vs. 개인생활의 비중에서 변화를 원할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족생활-개인생활 상태에 대해 응답한 결과(만족, 가족생활을 더 하고 싶음, 개인생활을 더 하고 싶음)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남성일 때
- 교육연수가 짧을수록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 12세 미만 자녀가 있을 때

➤ (균형 상태에 만족하는 집단에 비해) 가족생활을 더 하고 싶었음

-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때
- (직업이 없을 때에 비해) 자영업자일 때
-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 (균형 상태에 만족하는 집단에 비해) 개인생활을 더 하고 싶었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1,667명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양육자의 '개인생활'에 대한 정책적 관심 지속 필요

2025 서울가족서베이 분석 결과, 가족생활-개인생활 균형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유자녀 서울 시민의 비율은 54.2%로 전체 응답자의 비율(59.9%)보다 낮았다.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유자녀 집단이 희망하는 변화의 방향을 살펴보면, '가족생활'을 더 하고 싶다고 응답(16.5%)보다 '개인생활'을 더 하고 싶다는 응답(29.3%)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심층분석 결과,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때 개인생활을 더 하고 싶어했다. 즉, 서울시의 양육자는 가족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생활 시간을 희망함을 알 수 있다.

현재 「탄생 응원 서울프로젝트 시즌2」는 정책의 핵심과제로서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벨)을 내세우고 있고,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3종 세트', '육아휴직동료응원수당'과 같이 일하는 양육자의 일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워라벨 정책을 세부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2025 서울가족서베이 분석 결과 양육자가 가족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생활에 대한 수요 또한 크게 느끼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거 서울시가 '엄마야빠 행복프로젝트'를 통해 강조했던 양육자의 휴식과 힐링에 대한 관심을 이어 가는 것도 워라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가족 갈등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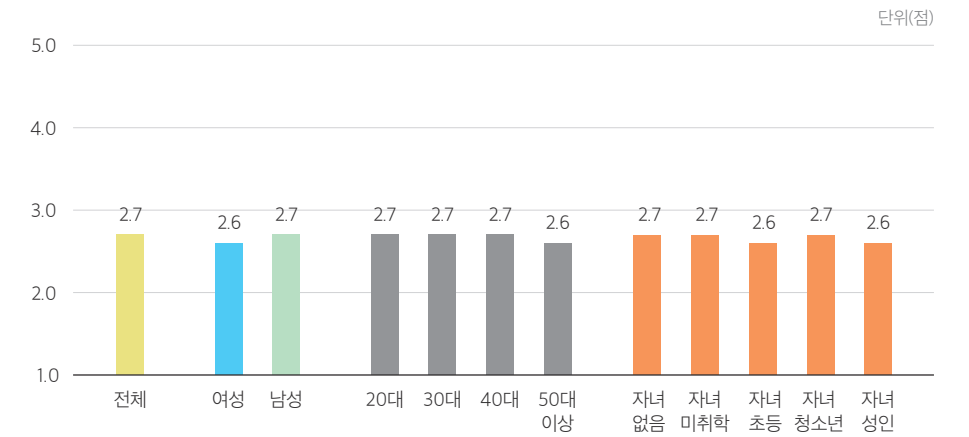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지난 일주일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했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근무했거나, 일자리가 있었던 응답자 1,221명)

일→가족 갈등: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 '일 때문에 가족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에 동의하는 정도(범위: 1-5점)를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 근로자의 평균은 **2.7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음
- **남성**(2.7점)이 여성(2.6점)에 비해 일→가족 갈등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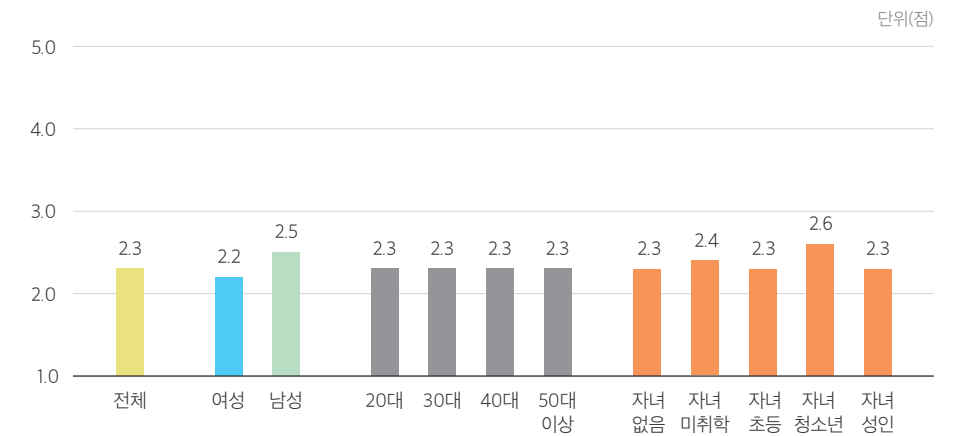
일 때문에 가족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



가족→일 갈등: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 '가족(집안일) 때문에 일에 집중을 하지 못했다'에 동의하는 정도(범위: 1-5점)를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 근로자의 평균은 **2.3점**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2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음
- 성별로 **남성**(2.5점)이 여성(2.2점)에 비해 가족→일 갈등 수준이 높았음
-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로 **청소년 자녀 부모**(2.6점)가 자녀가 없는 집단(2.3점)과 성인 자녀 부모(2.3점)에 비해 가족→일 갈등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가족(집안일) 때문에 집중을 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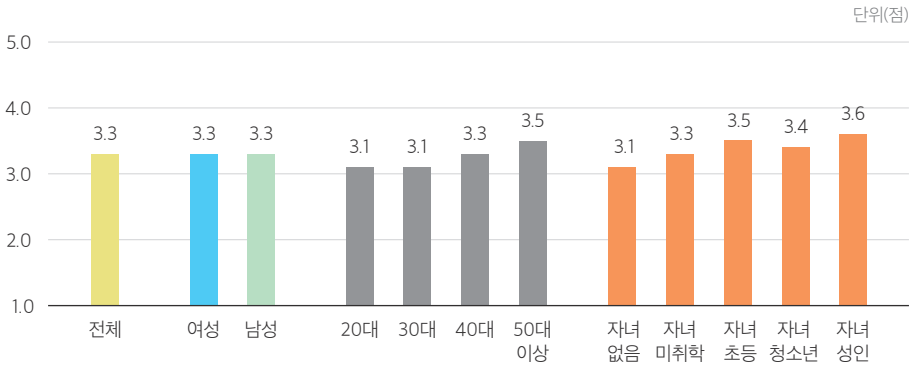


일-가족 축진

신규 일→가족 축진: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 ‘일을 하는 것은 나의 가족생활에 활력을 준다’에 동의하는 정도(범위: 1-5점)를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 근로자의 **평균은 3.3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었음
- 연령대별로 **50대 이상**(3.5점)이 일→가족 축진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40대(3.3점)였고 30대(3.1점)와 20대(3.1점)는 비슷한 수준이었음
-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로 **초등 자녀 부모**(3.5점), **청소년 자녀 부모**(3.4점), **성인 자녀 부모**(3.6점)가 자녀가 없는 집단(3.1점)에 비해 일→가족 축진 수준이 높았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일을 하는 것은 나의 가족생활에 활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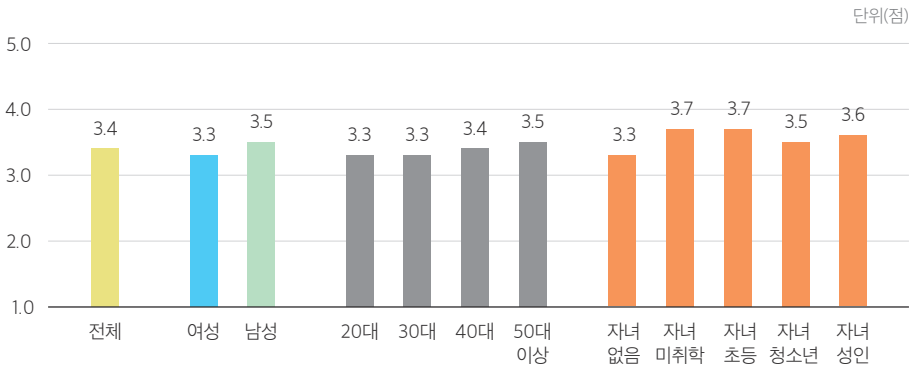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응답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지난 일주일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했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근무했거나, 일자리가 있었던 응답자 1,221명)

신규 가족→일 축진: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 ‘가족생활은 내가 일하는 데 활력을 준다’에 동의하는 정도(범위: 1-5점)를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 근로자의 **평균은 3.4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었음
- 성별로 **남성**(3.5점)이 여성(3.3점)에 비해 가족→일 축진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 **50대 이상**(3.5점)이 20대(3.3점)와 30대(3.3점)에 비해 가족→일 축진 수준이 높았음
-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로 **자녀가 있는 집단**(미취학 자녀 부모 3.7점, 초등 자녀 부모 3.7점, 청소년 자녀 부모 3.5점, 성인 자녀 부모 3.6점)이 자녀가 없는 집단(3.3점)에 비해 가족→일 축진 수준이 높았음

가족생활은 내가 일하는 데 활력을 준다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응답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지난 일주일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했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근무했거나, 일자리가 있었던 응답자 1,221명)



일-여가, 일-성장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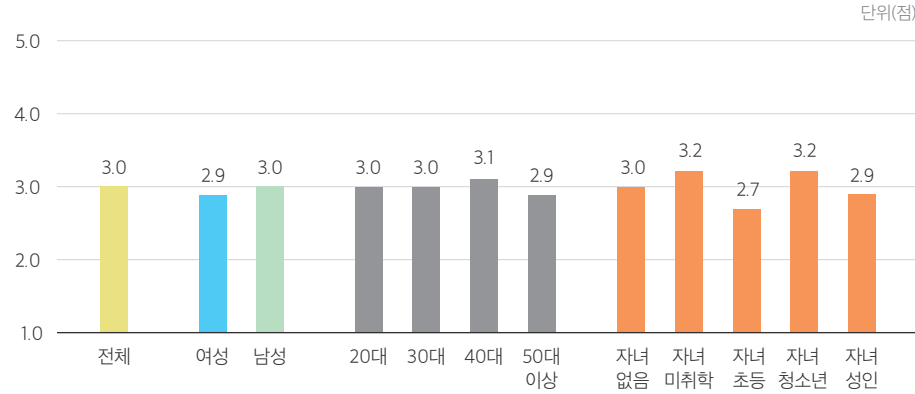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응답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지난 일주일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했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근무했거나, 일자리가 있었던 응답자 1,221명)

일→여가 갈등: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 ‘일 때문에 여가활동이나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에 동의하는 정도(범위: 1-5점)를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 근로자의 평균은 3점으로 ‘보통’(3점) 수준이었음
-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로 **미취학 자녀 부모**(3.2점)와 **청소년 자녀 부모**(3.2점)가 초등 자녀 부모(2.7점)와 성인 자녀 부모(2.9점)에 비해 일→여가 갈등 수준이 높았음
- 성별,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일 때문에 여가활동이나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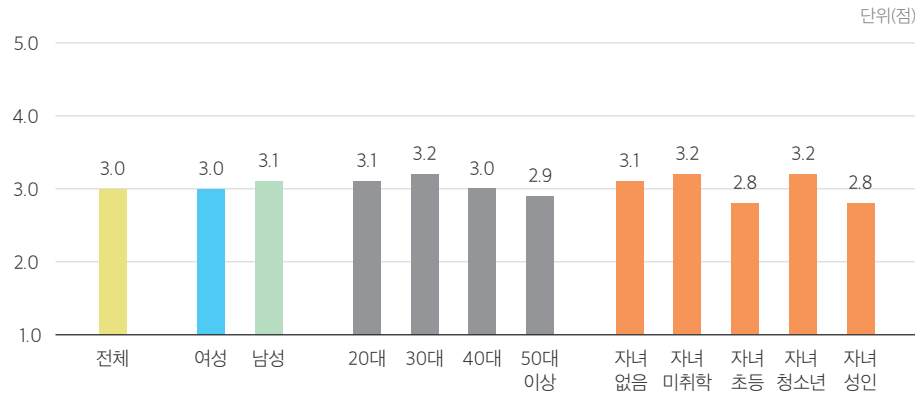


단위(점)

일→성장 갈등: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 ‘일 때문에 자기계발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에 동의하는 정도(범위: 1-5점)를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 근로자의 평균은 3점으로 ‘보통’(3점) 수준이었음
- 연령대별로 **20대**(3.1점), **30대**(3.2점), **40대**(3점)가 50대 이상(2.9점)에 비해 일→성장 갈등 수준이 높았음
-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로 **자녀가 없는 집단**(3.1점), **미취학 자녀 부모**(3.2점), **청소년 자녀 부모**(3.2점)가 초등 자녀 부모(2.8점), 성인 자녀 부모(2.8점)에 비해 일→성장 갈등 수준이 높았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일 때문에 자기계발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단위(점)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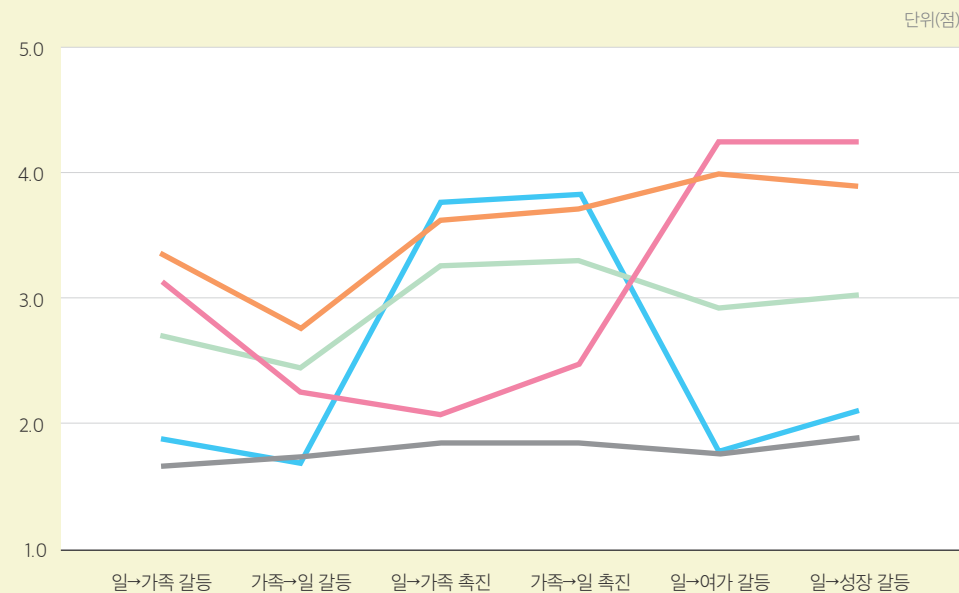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지난 일주일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했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근무했거나, 일자리가 있었던 응답자 1,221명)



일-생활 갈등과 일-생활 촉진에 따라 서울 시민을 유형화하면?

2025 서울가족서베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서울 시민이 응답한 일-생활 갈등 및 촉진의 6가지 영역 ① 일→가족 갈등 ② 가족→일 갈등 ③ 일→가족 촉진 ④ 가족→일 촉진 ⑤ 일→여가 갈등 ⑥ 일→성장 갈등을 분류지표로 ‘일-생활 갈등 및 촉진’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때 촉진(facilitation)은 한 영역에서의 긍정적 경험이 다른 영역에서의 역할 수행을 돕거나 보완하는 상승효과를 의미한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5개 유형이 나타났다.

- **일-생활 촉진형(26.8%):** 일로 인한 생활에서의 갈등은 낮고, 일과 가족 간의 촉진은 높음
- **일-생활 보통형(32.7%):** 일로 인한 생활에서의 갈등은 낮은 편이고, 일과 가족 간 촉진은 보통 수준
- **일로 인한 갈등형(9.6%):** 일로 인한 가족 및 여가/성장에서의 갈등이 높은 반면, 가족으로 인한 일에서의 갈등은 높지 않음
- **일-생활 갈등·촉진형(24.9%):** 일로 인한 갈등과 일-가족 간의 촉진 모두 높은 수준
- **일-생활 분리형(5.9%):** 일-생활 영역 간의 갈등과 촉진 모두 낮은 수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유형에 속할까?

- 여성일 때
-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에 비해) 상용직일 때
- 근로 시간이 길수록
-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 통근시간이 길수록



(일-생활 촉진형에 비해)일로 인한
갈등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음

- 연령이 낮을수록
- (무자녀에 비해) 첫째 자녀가 청소년일 때
- 근로 시간이 길수록
- 통근시간이 길수록



(일-생활 촉진형에 비해)일-생활 갈등·
촉진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음

- 통근시간이 길수록



(일-생활 촉진형에 비해)일-생활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음

- 연령이 낮을 때
-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첫째 자녀가 청소년일 때
-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일-생활 촉진형에 비해)일-생활
보통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음

어떤 유형이 더 행복할까?

일-생활 촉진형 > 일-생활 보통형, 일-생활 촉진·갈등형 > 일-생활 분리형, 일로 인한 갈등형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지난 일주일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했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근무한 응답자 1,122명)

해외 사례



독일 일-성장을 위한 유급 교육휴가

독일 연방주는 근로자의 평생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연간 최대 5일의 유급 교육휴가(Bildungszeit)를 제공하고 있다. 바이에른주와 작센주를 제외한 14개 주에서 시행 중이며, 6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 아래에서 근로했다면 전일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유급 교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기간 동안 근로자는 연방 주가 공인한 교육 프로그램을 총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교육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국어, 문화, 정치교육, 건강관리 등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교육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기계발과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개인적인 성장과 직무 역량 향상을 모두 추구할 수 있다.

자료 Senatsverwaltung für Arbeit, Soziales, Gleichstellung, Integration, Vielfalt und Antidiskriminierung, Bildungszeit.
<https://www.berlin.de/sen/arbeitsweiterbildung/bildungsze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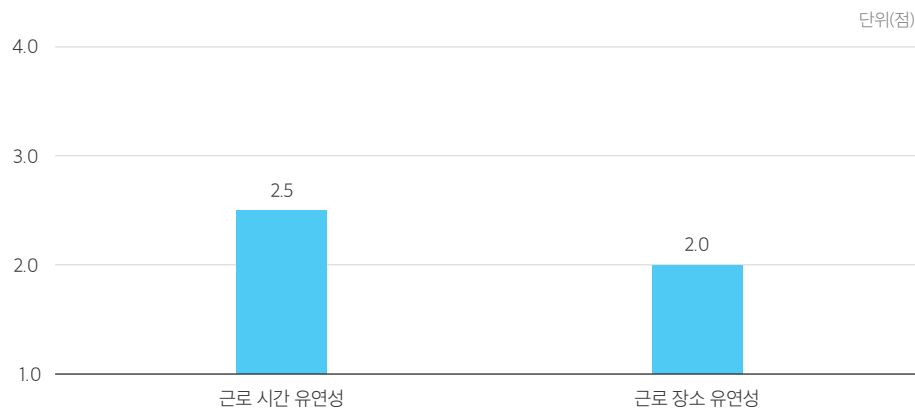


근로 시간 및 근로 장소 유연성

근로 시간 및 근로 장소 유연성: 전체

- ‘현재 일자리에서 **근로 시간**을 얼마나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범위: 1-4점)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 근로자의 평균은 **2.5점**으로 ‘대체로 조정하기 어렵다’(2점)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3점)의 중간이었음
- ‘현재 일자리에서 **근로 장소**를 얼마나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범위: 1-4점)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 근로자의 평균은 **2점**으로 대체로 조정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음
 평균적으로 근로 시간 유연성이 근로 장소 유연성보다 높았음

현재 일자리에서 근로 시간/근로 장소를 얼마나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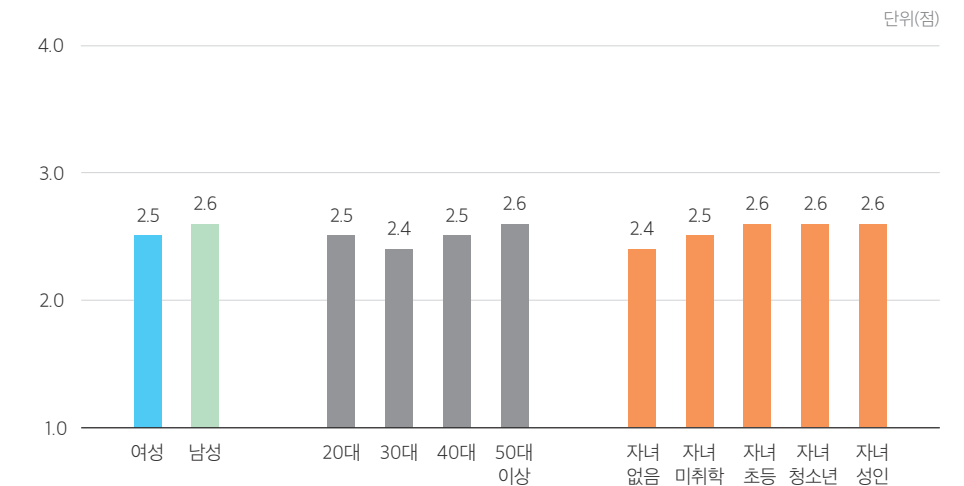
주
 점수가 높을수록 근로 시간 및 근로 장소 유연성이 높음을 의미함
 (1 = 전혀 조정할 수 없다.
 2 = 대체로 조정하기 어렵다,
 3 =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
 4 = 항상 조정할 수 있다)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지난 일주일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했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근무했거나, 일자리가 있었던 응답자 1,22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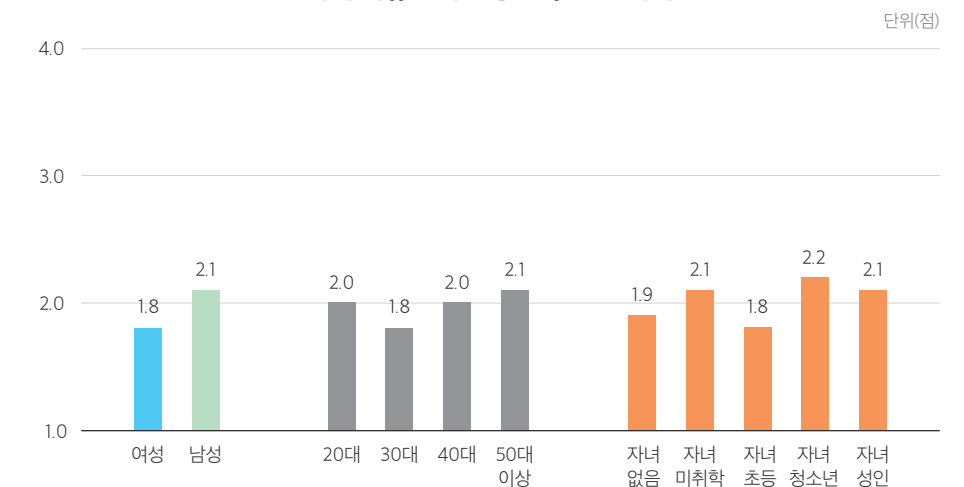
근로 시간 및 근로 장소 유연성: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 근로 시간 유연성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근로 장소 유연성은 **남성**(2.1점)이 여성(1.8점)에 비해 높았음
- 연령대별로 **30대**가 근로 시간 유연성(2.4점), 근로 장소 유연성(1.8점) 모두 상대적으로 **낮았음**
-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로 성인 자녀 부모(2.6점)가 자녀가 없는 집단(2.4점)보다 근로 시간 유연성이 높았으며, 청소년 자녀 부모(2.2점)와 성인 자녀 부모(2.1점)가 자녀가 없는 집단(1.9점)보다 근로 장소 유연성이 높았음

현재 일자리에서 근로 시간을 얼마나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현재 일자리에서 근로 장소를 얼마나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근로 시간 및 근로 장소 유연성이 높음을 의미함
 (1 = 전혀 조정할 수 없다.
 2 = 대체로 조정하기 어렵다,
 3 =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
 4 = 항상 조정할 수 있다),
 2)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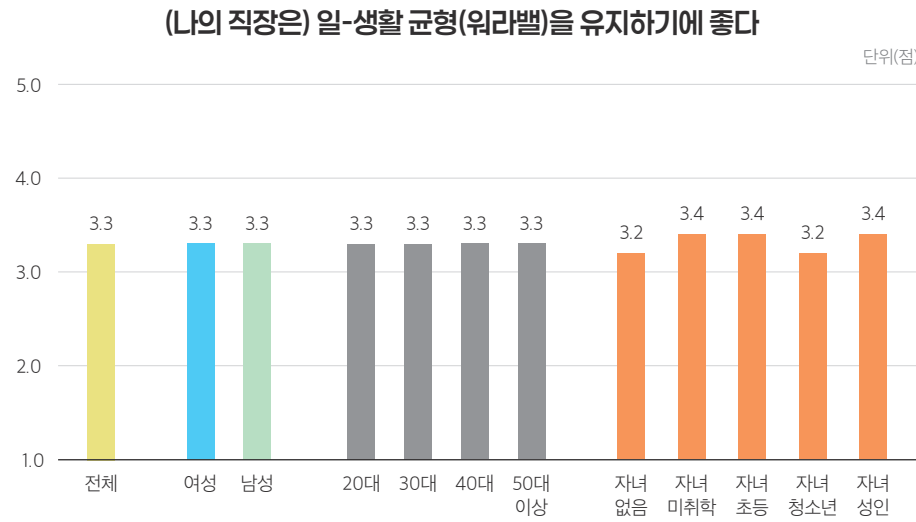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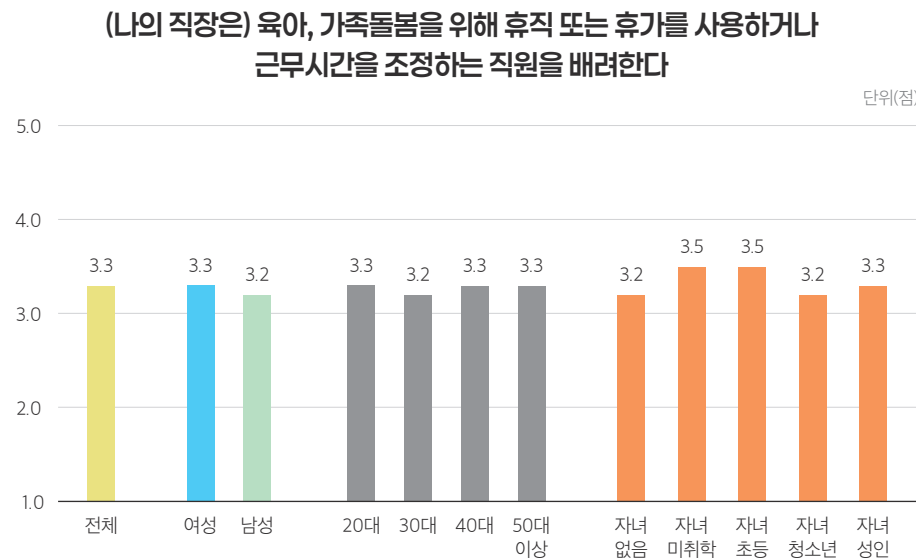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지난 일주일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했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근무했거나, 일자리가 있었던 응답자 1,221명)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 전체, 성별, 연령대,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 ‘(나의 직장은) 육아, 가족돌봄을 위해 휴직 또는 휴가를 사용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직원을 배려한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 근로자의 동의 수준은 **평균 3.3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음
- ‘(나의 직장은)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유지하기에 좋다’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 근로자의 동의 수준은 **평균 3.3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더 동의하였음
-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로 **미취학 자녀 부모**(3.5점)가 자녀가 없는 집단(3.2점)보다 ‘육아, 가족돌봄을 위해 휴직 또는 휴가를 사용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직원을 배려한다’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성별,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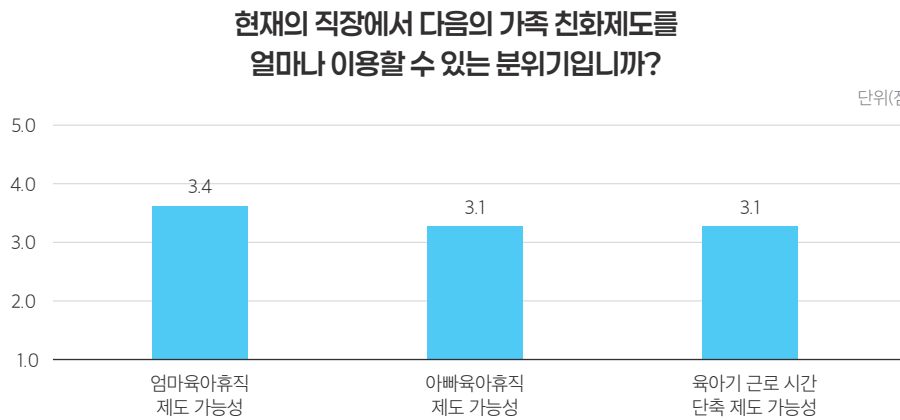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아니면서 지난 일주일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했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근무하였거나, 일자리가 있었던 응답자 1,1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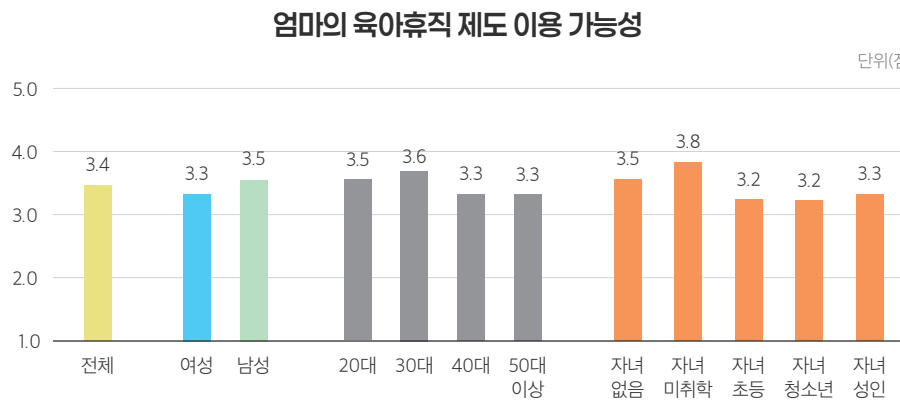
가족 친화 직장 제도 이용 가능성

가족 친화 직장 제도 이용 가능성: 전체

- 20-64세 서울 시민 근로자에게 현재의 직장이 **가족 친화제도**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를 3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음
- ‘**엄마의 육아휴직 활용**’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3.4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음. ‘**아빠의 육아휴직 활용**’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3.1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음. 평균적으로 엄마의 육아휴직 활용 가능성이 아빠의 육아휴직 활용보다 이용 가능성보다 높다고 인식하였음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활용**’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3.1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음
- 성별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엄마 육아휴직 활용’(남성 3.5점, 여성 3.3점)과 ‘아빠 육아휴직 활용’ 가능성(남성 3.2점, 여성 3점)을 높게 인식하였음
- 연령대별로 **20대**(3.5점)와 **30대**(3.6점)가 40대(3.3점)와 50대 이상(3.3점)에 비해 ‘엄마 육아휴직 활용’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였음
-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로 **미취학 자녀 부모**(각 문항 3.8점, 3.4점)가 청소년 자녀 부모(각 문항 3.2점, 2.8점)에 비해 ‘엄마 육아휴직 제도 활용’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활용’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였음



엄마 육아휴직 이용 가능성: 전체, 성별, 연령대,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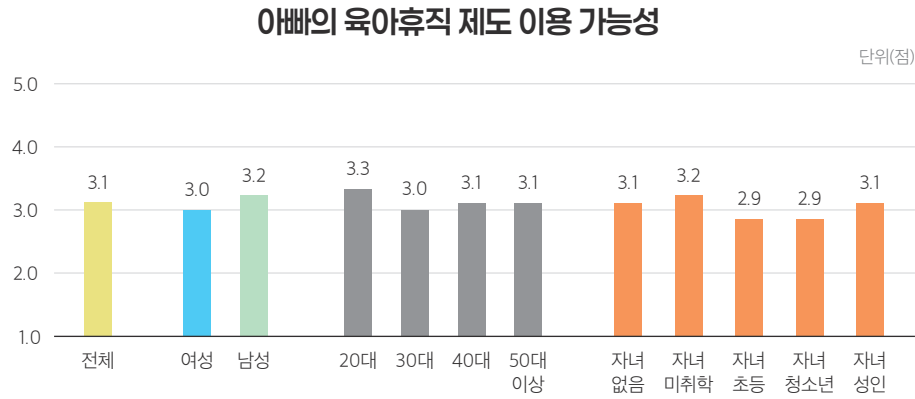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응답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아니면서 지난 일주일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했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근무하였거나, 일자리가 있었던 응답자 1,1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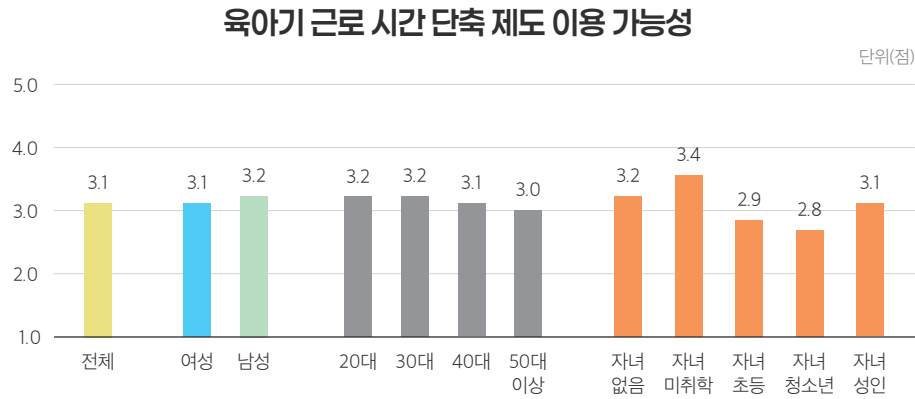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응답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아니면서 지난 일주일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했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근무하였거나, 일자리가 있었던 응답자 1,150명)

아빠 육아휴직 이용 가능성: 전체, 성별, 연령대,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이용 가능성: 전체, 성별, 연령대,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응답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아니면서 지난 일주일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했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근무하였거나, 일자리가 있었던 응답자 1,150명)

2025 서울가족정책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서울시는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워라벨 프로그램의 사 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양육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구축하 도록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를 도입했다. 중소기업의 양육친화 및 일- 생활 균형 지원 실적에 따라 포인트와 등급(진입형, 성장형, 선도형)을 부여하며, 이에 따라 인센티 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진입형 중소기업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와 동료 응원수당, 성장 형 중소기업에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가산점과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선도형 중소기업 에는 서울시장 표창 추천과 서울시 세무조사 유예 자격 등을 부여한다. 이 제도는 청년 구직자가 선호하는 워라벨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채용 경쟁력을 높 이고, 등급 상승에 따라 자금·컨설팅·홍보 지원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장기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 대할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출산 축하금, 동료 응원수당 같은 생활 밀착형 복지가 확대됨으 로써 일과 삶의 균형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료 1)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 <https://www.pointseoul.or.kr/assets/cni/land.jsp>
2) 서울특별시(2025.03.14.).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찾아요! 대체인력·동료수당 지원. 내 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3738>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필요

2025 서울가족서베이 분석 결과, '엄마의 육아휴직 활용' 가능성에 대한 동의 수준(범위: 1-5점)은 평균 3.4점, '아빠의 육아휴직 활용' 가능성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3.1점이었다. 아빠의 육아휴 직은 아빠의 삶의 질 개선, 엄마의 결혼 만족도 증가, 자녀와의 긍정적 애착 형성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izarro & Gartzia, 2024). 그러나, 2023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아빠가 차지하는 비율은 25.7%로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양상은 중 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차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전체 여성 육아휴직자의 기업체 규모는 300명 이상 58.2%, 50명 미 만 26.4%로 중소기업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보급된 편이다. 그러나 남성은 전체 육아휴직자 중 300명 이상 기업체 근로 자가 70.0%, 50명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14.7%로 여성에 비해 격차가 컸다(통계청, 2024).

서울시는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운영하여 임 금 수준과 관계없이 아빠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빠의 육아휴직 결정은 직장 문 화, 상사와 동료의 태도, 승진·배치 등과 관련되며(홍승아, 2018),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김성원, 2024). 따라서, 현금성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아빠의 육아휴직에 포용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자료 1) Pizarro, J., & Gartzia, L. (2024). Paternity leave: A systematic review and directions for research.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34(1), 1-18. <https://doi.org/10.1016/j.hrmr.2023.101001> / 2) 통계청(2024). 2023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 3) 홍승아(2018). 남성 육아휴직과 기업의 조직문화. 젠더와 문화, 11(1), 145-183. / 4) 김성원(2024.02.27.). 쉴 땀 눈치, 복귀 땀 걱정 아빠 육아휴직 현실은 '산 넘어 산'. 르데스크. <https://www.ledesk.co.kr/view.php?uid=8379#>



설렘 응원



1. 설렘으로 만남
2. 비혼이라는 선택
3. 결혼이라는 선택
4. 부부로 살아감

2025 서울가족서베이 하이라이트

비혼(미혼) 37% 연애 중...연인과 결혼 의향 대체로 있어

- 연애 중인 시민, 연인관계 행복·평등 인식 높고, 연인과 결혼 의향 ‘대체로 있음’
- 연애 중 아닌 시민, “언젠가 연애할 의향” 대체로 있음

비혼·동거 등 전통적 결혼의 대안, ‘보통 이상’ 수용

- 비혼·동거·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시민의 수용도, 모두 보통 이상
- 비혼(미혼)자 본인이 평생 결혼 안 하거나, 비혼 동거할 의향도 보통 이상

“부부 시작은 언제?” 20대는 혼인신고, 30대 이상은 결혼식 선택

- 통념상 부부가 되는 시점, 결혼식 > 혼인신고 > 결혼 앞둔 동거 순
- 20대는 혼인신고, 30대 이상은 결혼식 선택 가장 많아

각방, 재산 분리 등 ‘부부 개별화’...중장년이 장년이 더 동의하는 경향

- 부부 각방, 부부 개별 재산, 명절에 각자 부모 방문에 모두 보통 이상 동의
- 50대 이상이 30~40대보다 수용도 높아

1

설렘으로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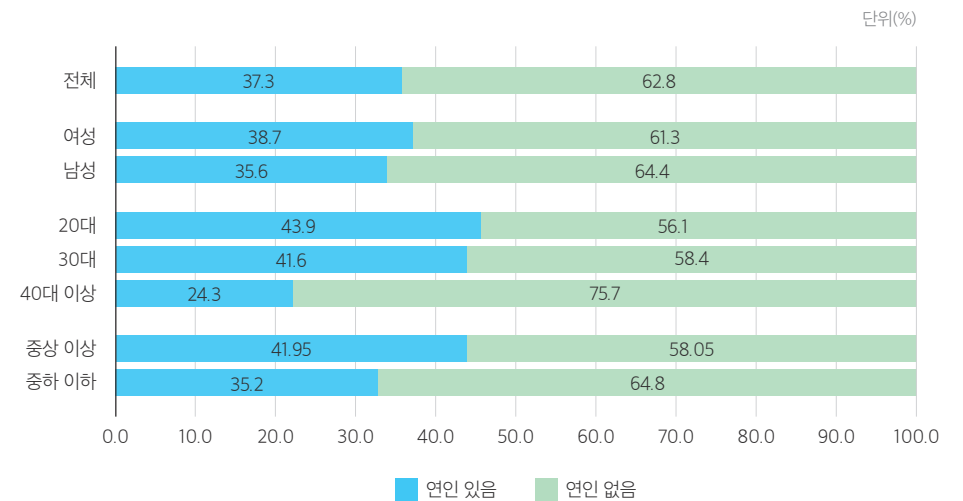


연애 여부, 연애 의향, 연인과 결혼 의향

연애 여부: 전체, 성별, 연령대별, 주관적 계층별

- ‘귀하는 **현재 연애**하는 상대가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62.8%는 연애하지 않고 있었음**
- **연령대별**로는 **20대**(43.9%)와 **30대**(41.6%)가 40대 이상(24.3%)보다 연애 중인 비율이 높았음
- 성별 및 주관적 계층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연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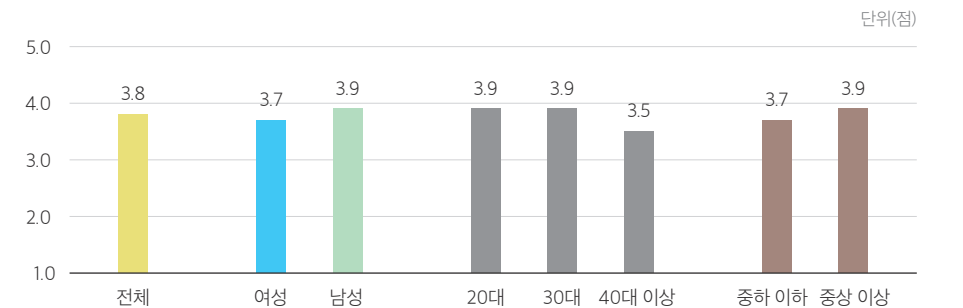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과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816명)

연애 의향: 전체, 성별, 주관적 계층별

- 현재 연애 중이지 않은 20~64세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언젠가 연애할 의향**’(범위: 1-5점)은 **평균 3.8점**으로 연애 의향이 **대체로 있는** 편이었음
- **연령대별**로는 **20대**(3.9점)와 **30대**(3.9점)가 40대 이상(3.5점)보다 연애 의향이 더 있었음
- 성별 및 주관적 계층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언젠가) 연애할 의향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과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현재 연애하지 않는 512명)



‘설렘, in 한강’: 서울시 비혼(미혼) 남녀 만남 행사

서울시는 비혼(미혼) 남녀가 인연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만남 행사 ‘설렘, in 한강’을 주최하였다. 이 행사는 2024년 11월에는 시즌1, 2025년 6월에는 시즌2로 각각 서울시에 거주하는 25-45세 비혼(미혼)남녀 총 100명을 모집하여 진행하였다. ‘설렘, in 한강’ 시즌2는 ‘저출생 위기 극복 업무 협약’에 따라 한 카드사가 행사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서울시가 참가자 모집 및 운영을 맡았다.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연애 코칭, 1:1 테이블 순환 대화, 야외 데이트 활동, 요트 체험, 단체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만남, 결혼 지원 정책에서 젠더 감수성 필요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는 3대 분야 중 하나로 ‘만남·출산’을, 10개 핵심과제 중 하나로 ‘만남·결혼 지원’을 설정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설렘 in 서울’ 행사는 이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비혼(미혼) 남녀가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결혼 의향은 있으나 인연을 만날 기회와 자원이 부족한 청년의 결혼 이행을 지원한다. 궁극적으로는 결혼하고 부모가 됨으로써 저출생 완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행사이다.

이와 관련해 ‘설렘 in 서울’과 같은 비혼(미혼) 청년 만남 행사에 대한 반응에서의 성별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5 서울가족서비스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서울시가 집중해야 할 정책 영역 5가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만남·결혼 지원’을 고른 비율이 남성은 32.9%, 여성은 13.9%로 차이가 컸다(1장 「가족응원」 참고). 또한 언젠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나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할 의향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3절 참고). 이는 ‘설렘 in 한강’과 같은 행사에 대해 결혼을 위한 만남의 기회로 남성이 더 큰 관심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2025 서울가족서비스에서 여성 청년은 전반적으로 결혼할 의향이 남성보다 적고, 결혼제도가 지닌 젠더 불평등에 공감하는 비율이 높았다. 부모가 될 의향도 남성보다 낮았으며, 전통적 성역할 부담으로 인한 양육·돌봄 부담을 우려하는 경향도 강했다. 따라서 여성 청년은 만남·결혼·출산의 연계를 전제로 한 만남 행사에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설렘 in 서울’과 같은 행사가 외모나 조건 중심의 만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중시하거나 외모를 평가하는 문화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설렘 in 서울’과 같은 만남 행사를 추진할 때는 높은 수준의 젠더 감수성이 요구된다. 청년기의 사랑과 결혼이 지닌 구조적 불평등을 인식하고, 기획 단계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랑, 결혼, 부모됨에서 성평등한 문화가 선행될 때 이러한 만남 행사가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사례



싱가포르 비혼(미혼) 남녀 만남·교류 지원 정책

싱가포르 정부는 비혼(미혼) 청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결혼으로 이어지는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련의 제도 및 프로그램 Social Development Network(SDN)를 운영하고 있다. 「Spark Connections」 등의 만남 행사도 개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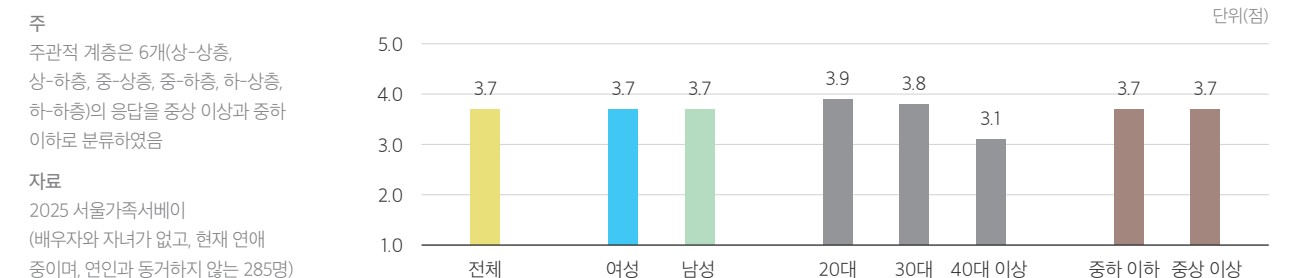
SDN의 전신인 Social Development Unit(SDU)은 1984년에 청년의 결혼 이행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정부 차원의 민간 매칭 업체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현재는 정부 차원의 만남 지원이나 매칭 업체 인증 제도는 폐지되고, 비혼(미혼) 청년의 사회적 교류 증진, 관계 기술 습득 등의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자료 1) 박혜원(2018. 3. 19.). [저출산 위기에 맞선 정부들] ④ 한국의 ‘동병상련’ 싱가포르, 비혼(미혼) 남녀 ‘중매’ 나서. 뉴스투데이. <https://www.news2day.co.kr/100772>
 2) Han, G. Y. (2024. 3. 17.). At 40, SDN not so hot anymore but still in the matchmaking game to help singles find love. The Straits Times.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as-it-turns-40-national-matchmaker-sdn-shuts-website-and-shifts-focus>
 3) Mathews, M., & Straughan, P. T. (2016). Single Singaporeans and their hesitation to use commercial matchmaking service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7(2), 247-266. <https://www.jstor.org/stable/44109621>

현재 연인과의 결혼 의향: 전체, 성별, 연령대별, 주관적 계층별

- ‘귀하는 **현재의 연인과 결혼할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현재 연애 중인 20-64세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평균은 3.7점**으로 ‘대체로 그렇다’(4점)에 가까웠음
- 연령대별로는 **20대**(3.9점)와 **30대**(3.8점)가 40대 이상(3.1점)보다 현재 연인과의 결혼 의향이 더 있었음
- 성별 및 주관적 계층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현재 연인과 결혼할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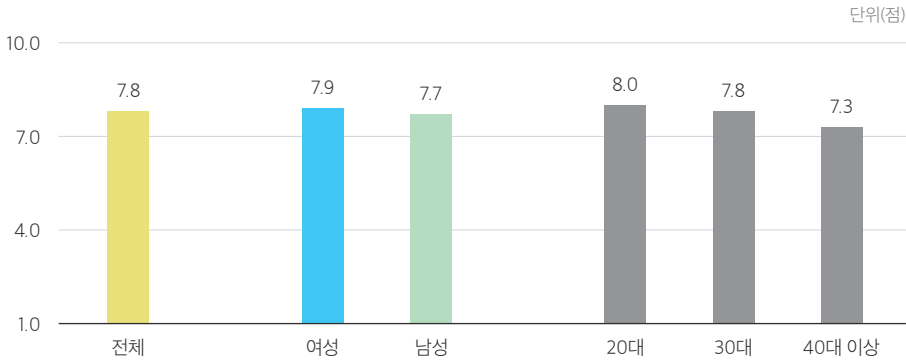


연인관계 행복도 및 친밀감

연인관계 행복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 ‘귀하와 현재 연인과의 관계는 최근 1개월 동안 **얼마나 행복했습니까?**(범위: 1-10점)라고 질문한 결과, 현재 연애 중인 20-64세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평균은 7.8점**으로 연인과의 관계가 대체로 행복하다고 하였음
- **연령대별**로는 **20대**(8점)가 40대 이상(7.3점)보다 연인관계 행복도가 높았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연인과 최근 1개월 동안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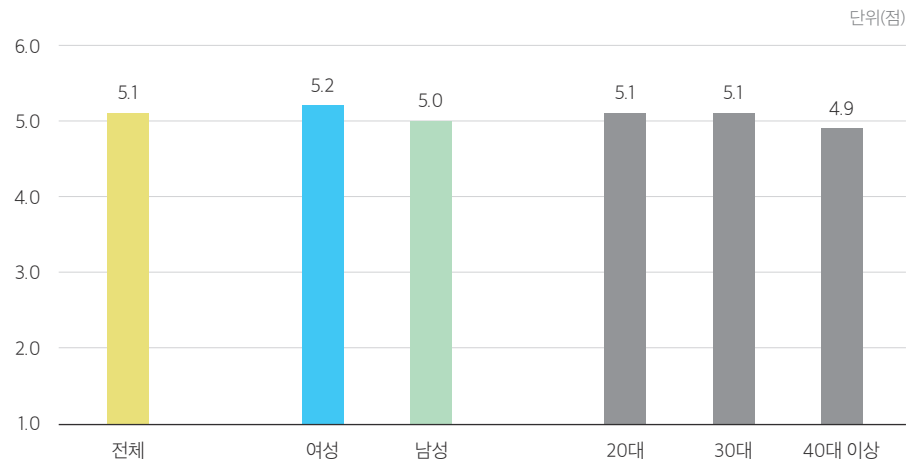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현재 연애 중
이며, 연인과 동거하지 않는 285명)

연인과의 친밀감: 전체, 성별, 연령대별

-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인생의 현 시점에서 귀하는 귀하와 연인(교제상대)과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십니까?’(범위: 1-6점)라고 질문한 결과, 현재 연애 중인 20-64세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평균은 5.1점**으로 연인과 가깝다고 인식하였음
- **성별**로는 **여성**(5.2점)이 남성(5점)보다 가깝다고 인식하였음
-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연인과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십니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현재 연애 중
이며, 연인과 동거하지 않는 28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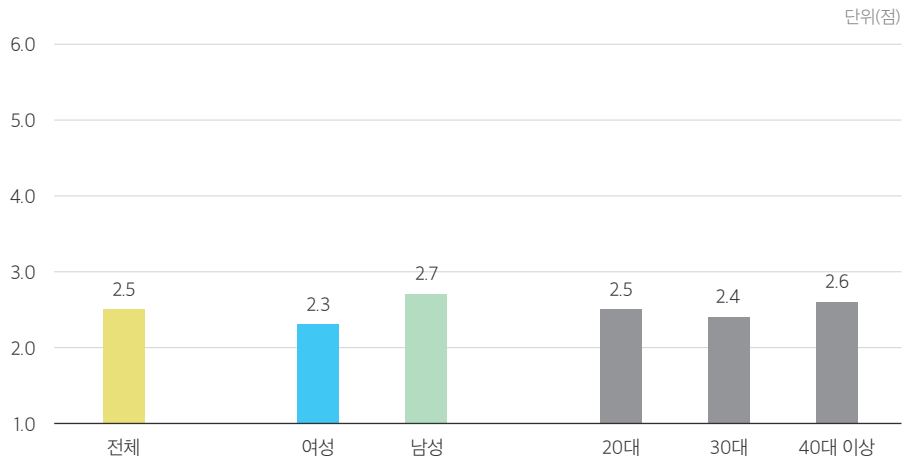


연인과의 갈등

연인과의 갈등: 전체, 성별, 연령대별

- ‘귀하와 연인(교제상대)과의 **갈등(관계상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범위: 1-6점)라고 질문한 결과, 현재 연애 중인 20-64세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평균은 2.5점**으로 ‘심각하지 않다’(2점)와 ‘별로 심각하지 않다’(3점)의 중간이었음
- **성별**로는 **여성**(2.3점)이 남성(2.7점)보다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음
-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연인과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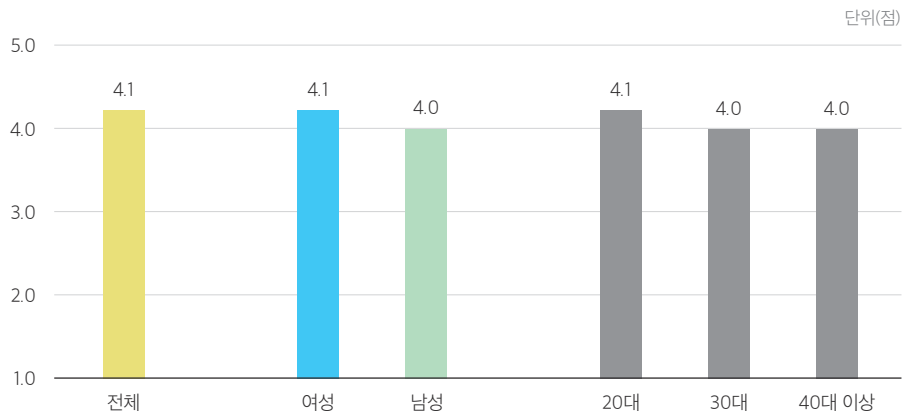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현재 연애 중
이며, 연인과 동거하지 않는 285명)

연인관계 평등성: 전체, 성별, 연령대별

- ‘귀하와 현재 연인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현재 연애 중인 20-64세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평균은 4.1점**으로 연인과의 관계가 ‘**대체로 평등하다**’(4점)고 인식하였음
- 성별 및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연인과 전반적으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현재 연애 중
이며, 연인과 동거하지 않는 28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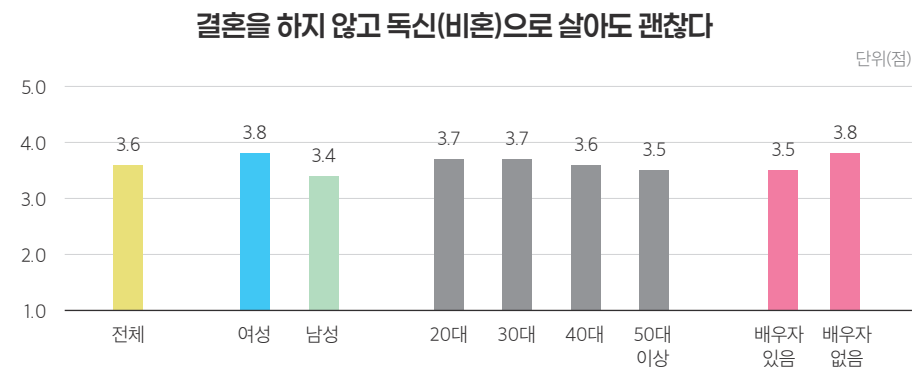


비혼 및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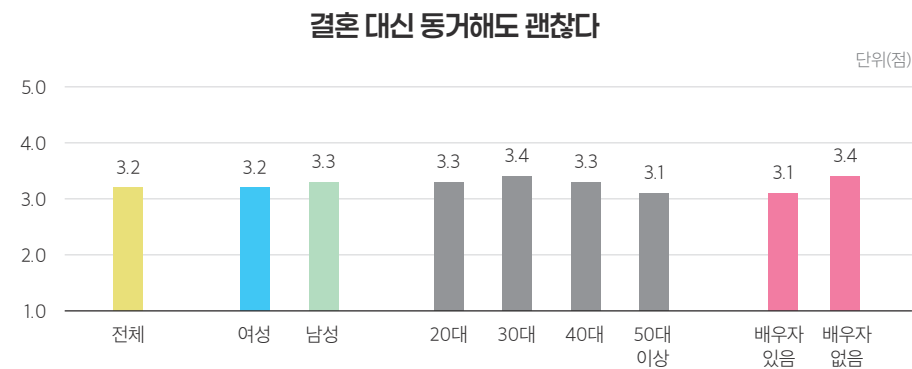
결혼보다 독신(비혼):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비혼)으로 살아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6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그렇다’(4점)의 중간이었음
- 성별로는 여성(3.8점)이 남성(3.4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20대(3.7점)와 30대(3.7점)가 50대 이상(3.5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집단(3.8점)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3.5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결혼 대신 동거: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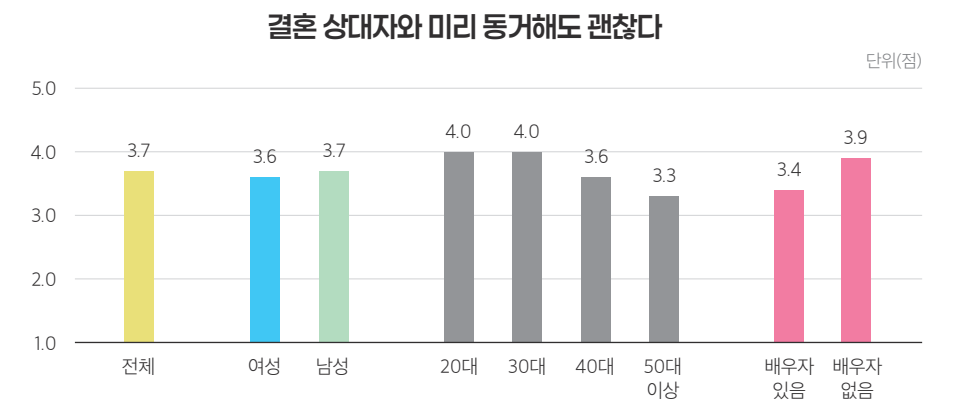
- ‘결혼 대신 동거해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2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음
- 성별로는 남성(3.3점)이 여성(3.2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20대(3.3점), 30대(3.4점), 40대(3.3점)가 50대 이상(3.1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30대(3.4점)가 40대(3.3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집단(3.4점)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3.1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신규 결혼상대자와 미리 동거: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 ‘결혼상대자와 미리 동거해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7점으로 대체로 동의하는 편에 가까웠음
- 성별로는 남성(3.7점)이 여성(3.6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20대(4점), 30대(4점), 40대(3.6점)가 50대 이상(3.3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20대(4점)와 30대(4점)가 40대(3.6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집단(3.9점)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3.4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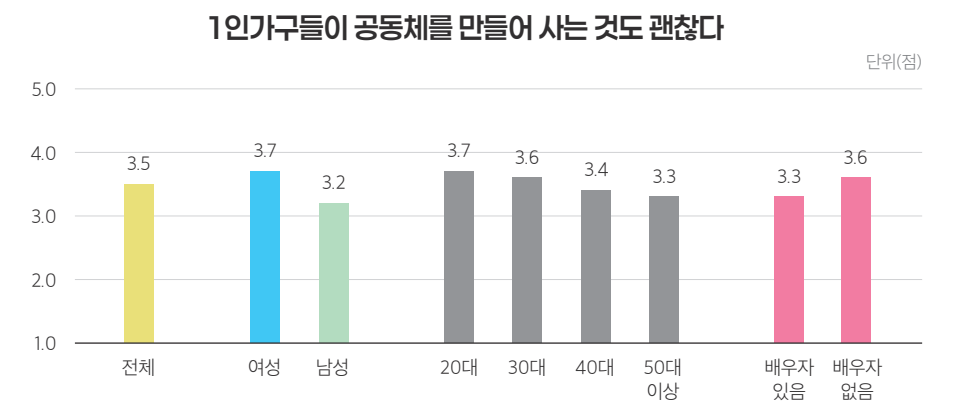


1인가구 공동체, 생활동반자 관계에 대한 태도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1인가구 공동체: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 ‘1인가구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사는 것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5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그렇다’(4점)의 중간이었음
- 성별로는 여성(3.7점)이 남성(3.2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20대(3.7점)와 30대(3.6점)가 40대(3.4점)와 50대 이상(3.3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집단(3.6점)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3.3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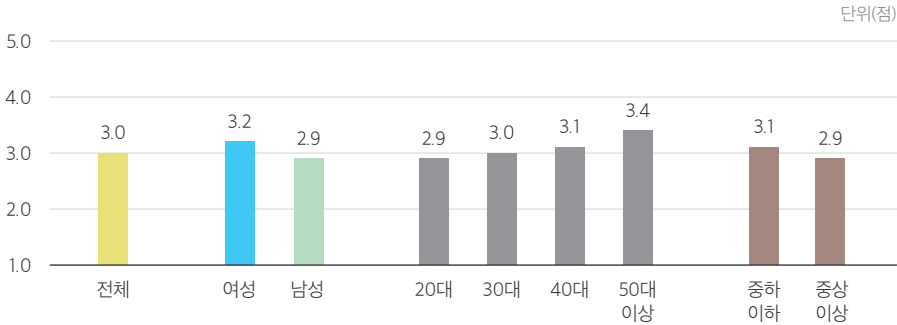


평생 비혼 의향

신규 평생 비혼 의향: 전체, 성별, 연령대별, 주관적 계층별

- 20~64세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평생 결혼하지 않을 의향**’(범위: 1~5점) **평균은 3점**으로 ‘보통’(3점) 수준이었음
- **성별**로는 **여성**(3.2점)이 남성(2.9점)보다 평생 비혼 의향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3.4점)이 20대(2.9점), 30대(3점), 40대(3.1점)보다 평생 비혼 의향이 높았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주관적 계층이 **중하 이하**인 집단(3.1점)이 중상 이상인 집단(2.9점)보다 평생 비혼 의향 높았음

(평생) 결혼하지 않을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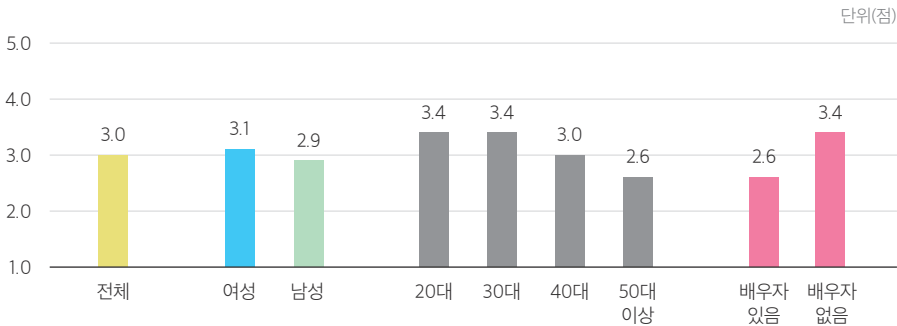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과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816명)

결혼 대신 생활동반자관계: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 ‘**결혼을 하지 않고 생활동반자관계 등과 같은 법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살아가도 괜찮다**’(범위: 1~5점)에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점**으로 보통이었음
- **성별**로는 **여성**(3.1점)이 남성(2.9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20대**(3.4점), **30대**(3.4점), **40대**(3점)가 50대 이상(2.6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20대**(3.4점)와 **30대**(3.4점)가 40대(3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집단**(3.4점)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2.6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배우자 유무별 차이가 두드러졌음**

결혼을 하지 않고 생활동반자관계 등과 같은 법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살아가도 괜찮다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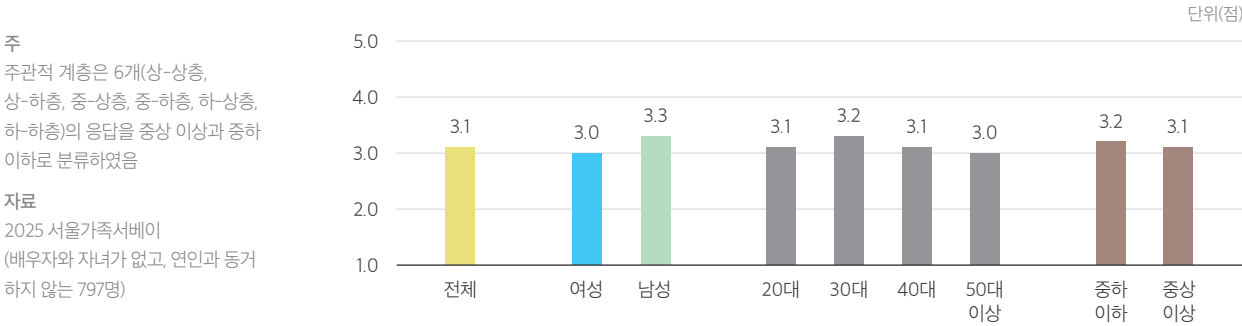


비혼 동거 의향

비혼 동거 의향: 전체, 성별, 연령대별, 주관적 계층별

- 20~64세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결혼하지 않고 언젠가 연인과 동거할 의향**’(범위: 1~5점) **평균은 3.1점**으로 ‘보통’(3점) 수준이었음
- **성별**로는 **남성**(3.3점)이 여성(3점)보다 비혼 동거 의향이 높았음
- 연령대별 및 주관적 계층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결혼하지 않고 언젠가) 연인과 동거할 의향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과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연인과 동거하지 않는 797명)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자발적 비혼 등 다양한 삶의 양식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필요

2025 서울가족서베이 분석 결과, 20~64세 비혼(미혼) 서울 시민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비혼)으로 살아가도 괜찮다’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3.6점이었으며, 평생 비혼에 대한 20대와 30대의 동의 수준은 3.7점이었다. 또한, 본인이 ‘평생 결혼하지 않을 의향’은 평균 3점으로 ‘보통’(3점) 수준이었다. 즉, 서울 시민의 평생 비혼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편이며, 본인의 비혼 의향 역시 낮지 않았다.

20~64세 비혼(미혼) 서울 시민이 결혼할 의향이 없는 이유 중 동의 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결혼이 중요하지 않아서’였다. 그 뒤를 이어 ‘자유로운 생활에 방해가 되어서’와 같이 자발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항목도 동의 수준이 높았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와 같이 경제적인 이유도 여타의 항목들보다는 동의 수준이 높은 편이었지만,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하는 경우보다는 동의 수준이 낮았다. 즉, 서울 시민이 언젠가 결혼할 의향이 낮거나 평생 결혼하지 않을 의향이 높은 이유로, 흔히 ‘N포’ 담론에서 논의되는 경제적이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더 핵심적인 이유일 수 있다(박선영, 이재림, 2022). 이는 서울시가 서울 시민의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결혼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서울 시민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이들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결혼의 대안으로서 비혼 동거를 의미한 ‘결혼 대신 동거해도 괜찮다’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3.2점으로 보통 수준이고, 결혼의 과정으로서 비혼 동거를 의미한 ‘결혼상대자와 미리 동거해도 괜찮다’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3.7점으로 대체로 동의하는 편에 가까웠다(Hoem & Hoem, 1988). 서울 시민의 비혼자의 동거의향도 평균 3.1점으로 낮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비혼 동거 커플을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십 및 주거 형태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1) 박선영, 이재림(2022). 한국 청년의 결혼 의향 영향요인 메타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7(1), 107-137. <https://doi.org/10.21321/jfr.27.1.107>
2) Hoem, B., & Hoem, J. M. (1988). The Swedish family: Aspects of contemporary developm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9, 397-424. <https://doi.org/10.1177/019251388009003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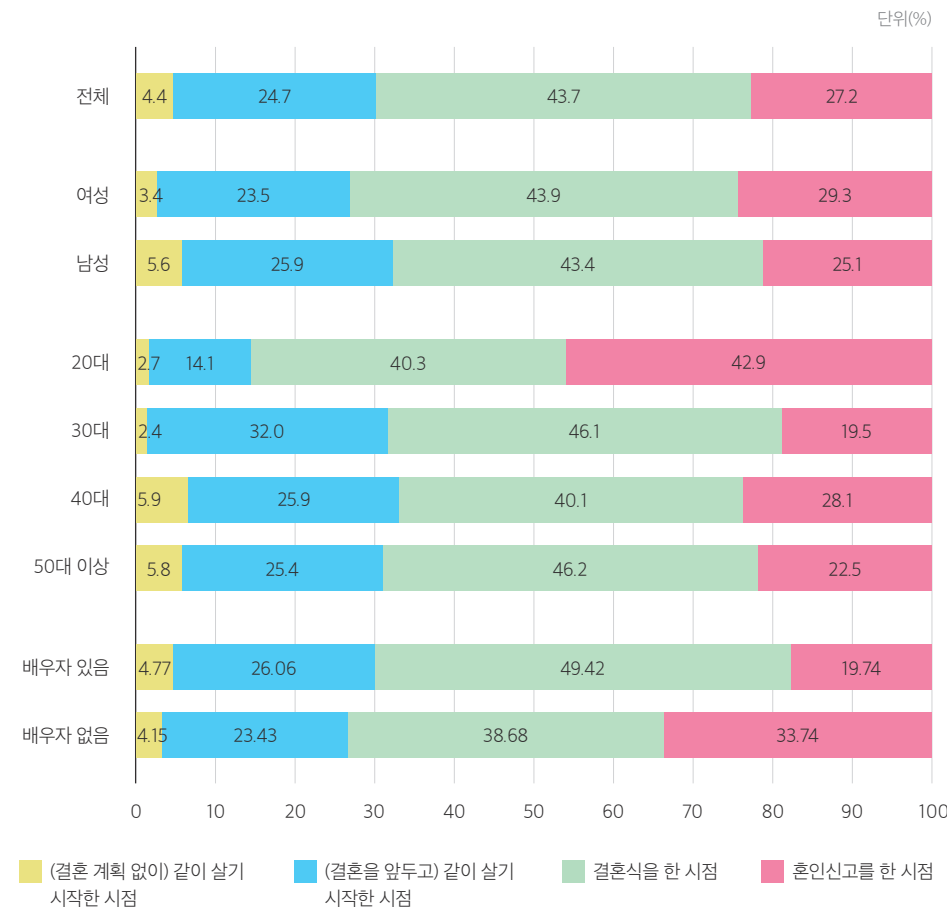


부부가 되는 시점

신규 부부가 되는 시점: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 20~64세 서울 시민에게 '귀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통념상 부부가 되는 시점이 다음 중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결혼식을 한 시점'이라는 응답이 43.7%로 가장 높았고, '혼인신고를 한 시점'(27.2%)과 '(결혼을 앞두고)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24.7%)이 그 뒤를 이었으며, '(결혼 계획 없이)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4.4%)이 가장 낮았음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혼인신고를 한 시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으로 응답한 비율이 낮았음
- 연령대별 차이가 커서 20대의 경우에만 '혼인신고를 한 시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결혼식을 한 시점'을 선택한 비율보다도 높아 이색적이었음
-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보다 '결혼식을 한 시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혼인신고를 한 시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통념상 부부가 되는 시점이
다음 중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한 부부도 (예비)신혼부부 지원 정책에 포함할 필요

2025 서울가족서베이 분석 결과, 한국 사회에서 부부가 되는 시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결혼식을 한 시점'(43.7%)이었다. 특히, 평균 초혼연령이 포함된 30대 서울 시민이 인식한 부부가 되는 시점은 '결혼식을 한 시점'이 46.1%, '(결혼을 앞두고)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이 32%로, 두 응답이 78.1%를 차지하였으며, '혼인신고를 한 시점'은 19.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추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현재 함께 사는 상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비혼 동거 커플을 대상으로 현재 함께 사는 상대와 부부(혼인) 관계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96.7%가 부부관계라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변수정, 2022). 즉, 비혼 동거 커플 당사자도 대부분 스스로를 부부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등 서울시에서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대상 자격을 설정하거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 제도가 실제 서울 시민의 인식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예비)신혼부부 대상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결혼식을 한 부부나 결혼 전 동거를 하는 부부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률혼 이외의 파트너십 관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송효진, 2021).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결혼식을 한 부부나 동거하는 부부에게 법률혼에 준하는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1) 변수정(2022).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주요 특징. 보건복지포럼, 21-34. <https://doi.org/10.23062/2022.06.3>
2) 송효진(2021). 가족다양성 보장을 위한 법제 대응에 있어 쟁점 고찰-다양한 파트너십과 공동체 관계의 제도화 이슈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3(3), 185-214. <http://doi.org/10.22791/ewhagl.2021.13.3.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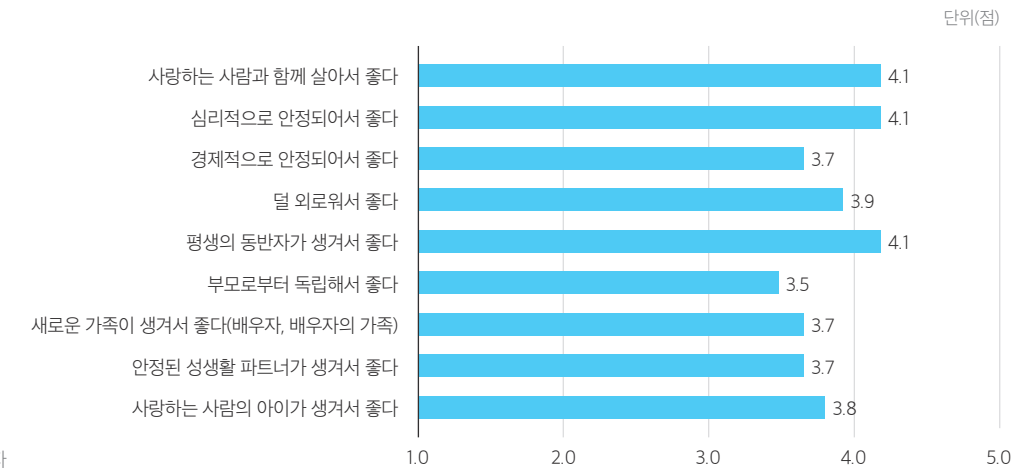


결혼에 따르는 이점

결혼에 따르는 이점: 전체

- 20~64세 서울 시민에게 결혼에 따르는 9가지 측면의 이점에 동의하는 정도(범위: 1-5점)를 질문한 결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서 좋다'(평균 4.1점),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서 좋다'(4.1점), '평생의 동반자가 생겨서 좋다'(4.1점)의 평균이 높은 편이었음
- 결혼에 따르는 이점 중에서도 정서적 만족감과 친밀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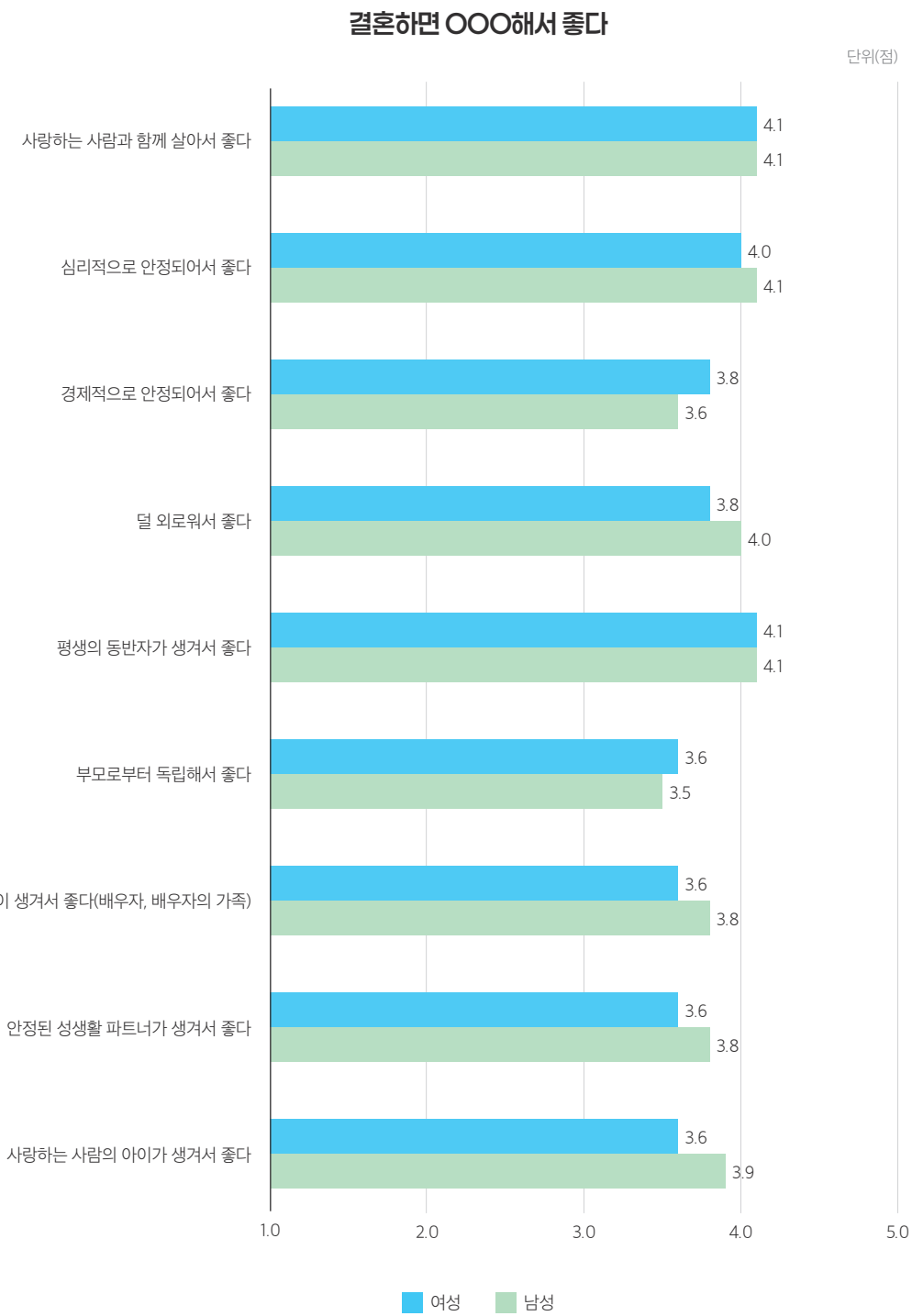
결혼하면 ○○○해서 좋다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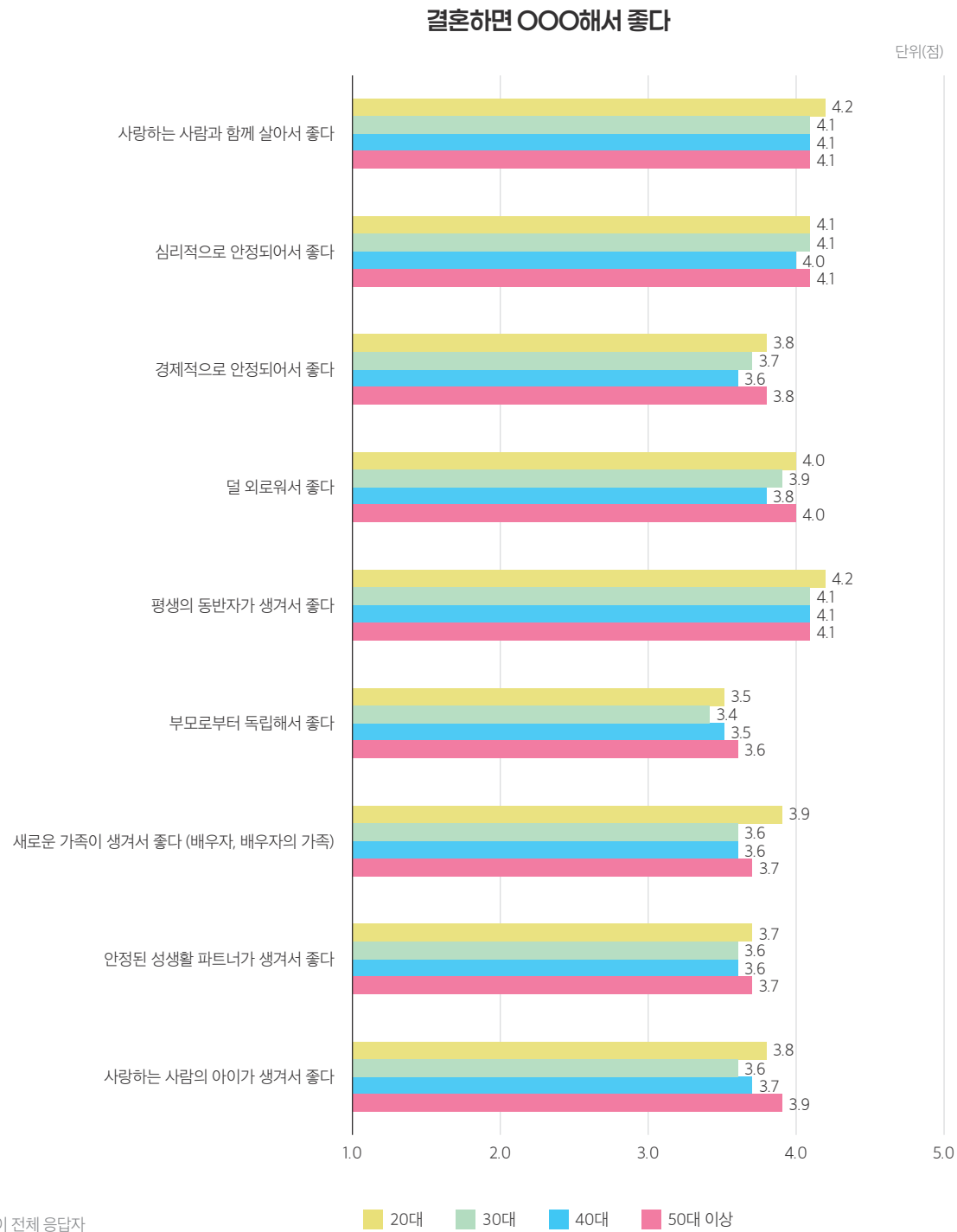
결혼에 따르는 이점: 성별

- 여성과 남성의 응답 경향이 비슷하였으나, **성별 차이가 컸던 항목**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가 생겨서 좋다**’(여성 3.6점, 남성 3.9점)였음
-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서 좋다’,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서 좋다’, ‘평생의 동반자가 생겨서 좋다’ 항목에 대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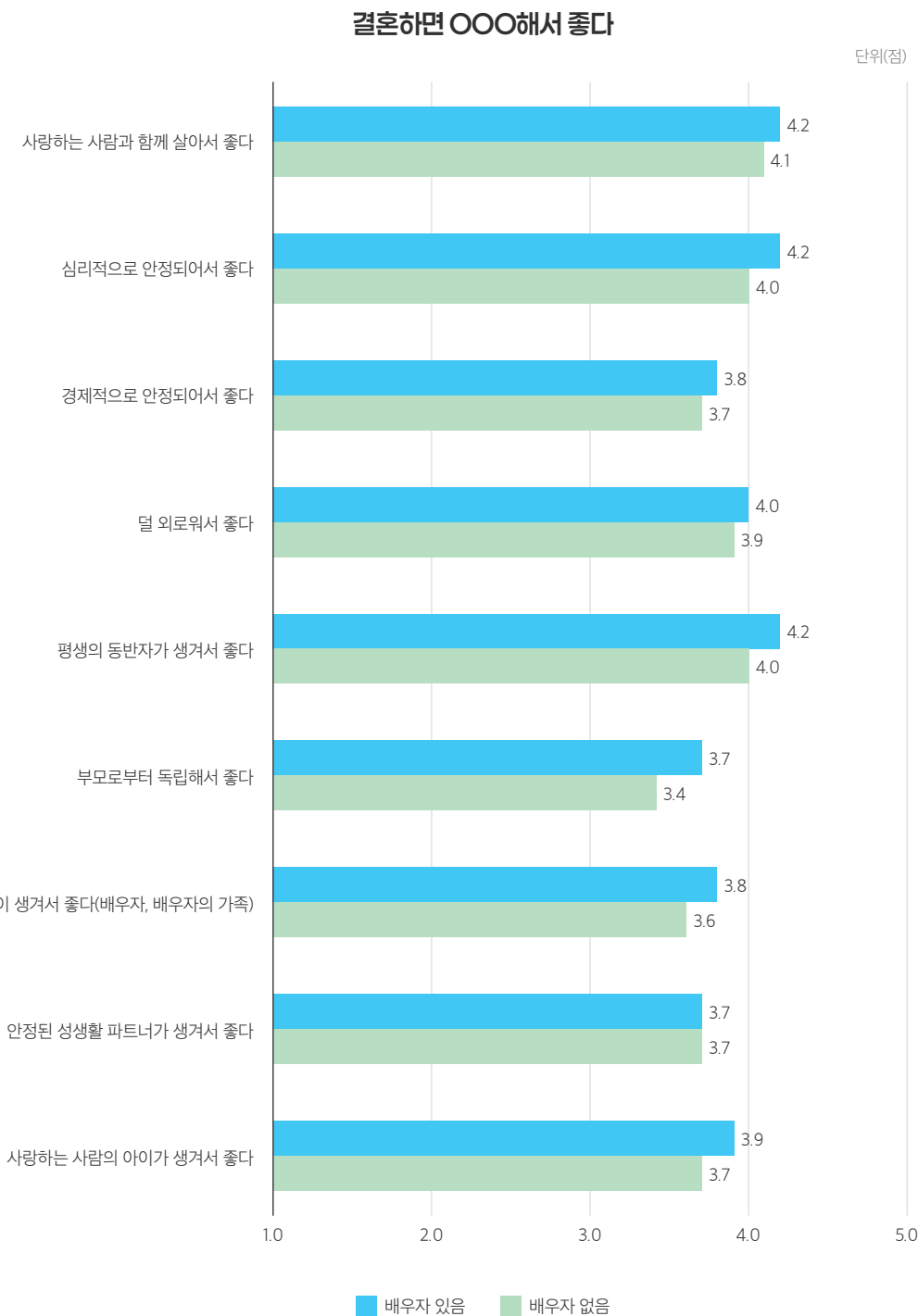
결혼에 따르는 이점: 연령대별

- 연령대별 응답 경향이 비슷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결혼에 따르는 이점에 대한 **20대와 50대 이상**의 동의 수준이 30대와 40대보다 약간 더 높았음. 즉, **20대와 50대 이상**의 서울 시민이 **결혼에 따르는 이점에 더 동의**하는 경향이었음
-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서 좋다’,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서 좋다’, ‘평생의 동반자가 생겨서 좋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좋다’ 항목에 대한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결혼에 따르는 이점: 배우자 유무별

- 배우자가 있는 집단과 배우자가 없는 집단의 응답 경향이 비슷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동의 수준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보다 약간 더 **높았음**. 즉, **결혼에 따르는 이점에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이 더 동의하는** 경향이었음
- ‘안정된 성생활 파트너가 생겨서 좋다’ 항목에 대한 배우자 유무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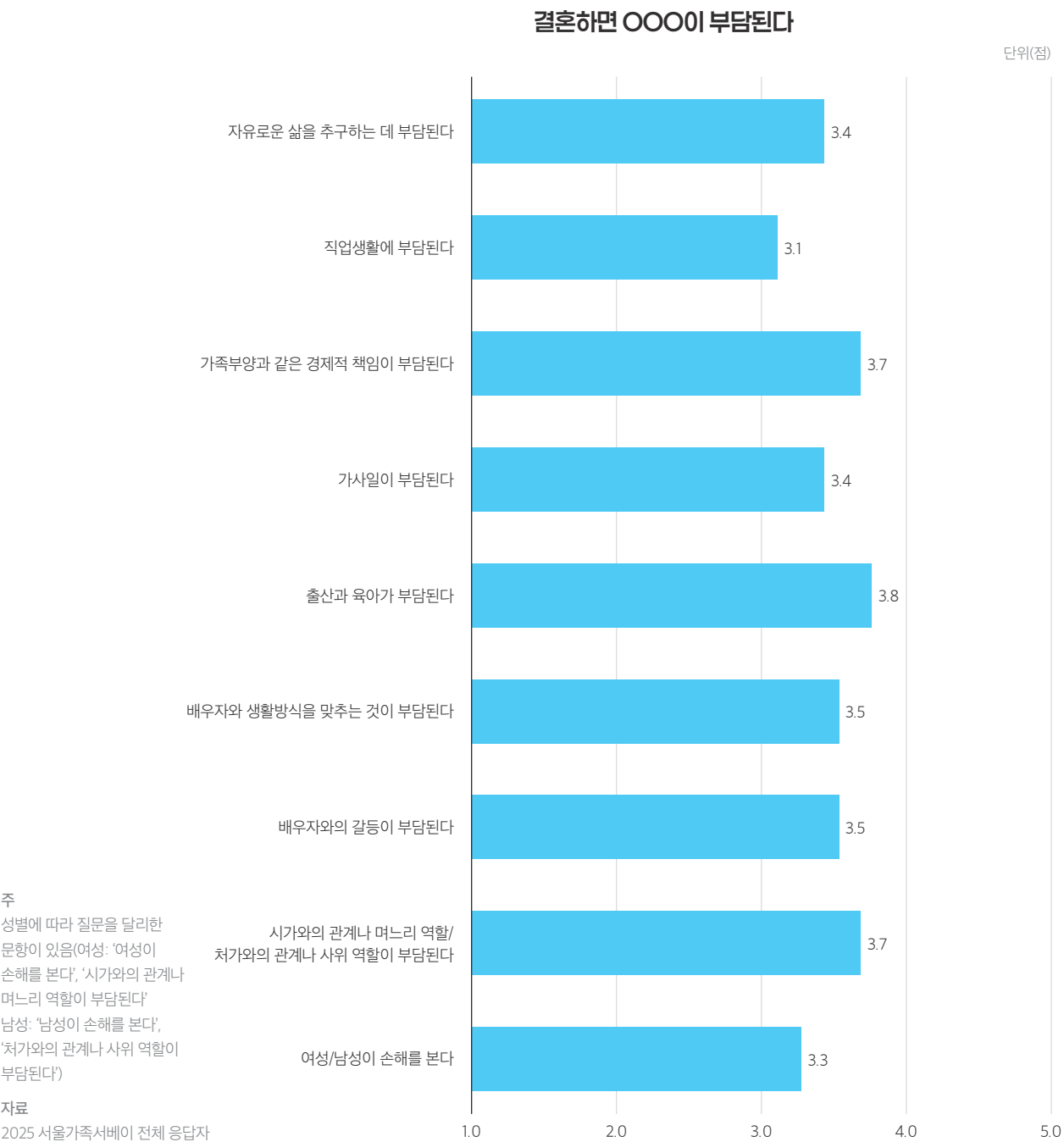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결혼에 따르는 부담

결혼에 따르는 부담: 전체

- 20-64세 서울 시민에게 결혼에 따르는 9가지 측면의 부담에 동의하는 정도(범위: 1-5점)를 질문한 결과, **‘출산과 육아가 부담된다’(3.8점), ‘가족부양과 같은 경제적 책임이 부담된다’(3.7점), ‘시가(처가)와의 관계나 며느리(사위) 역할이 부담된다’(3.7점)**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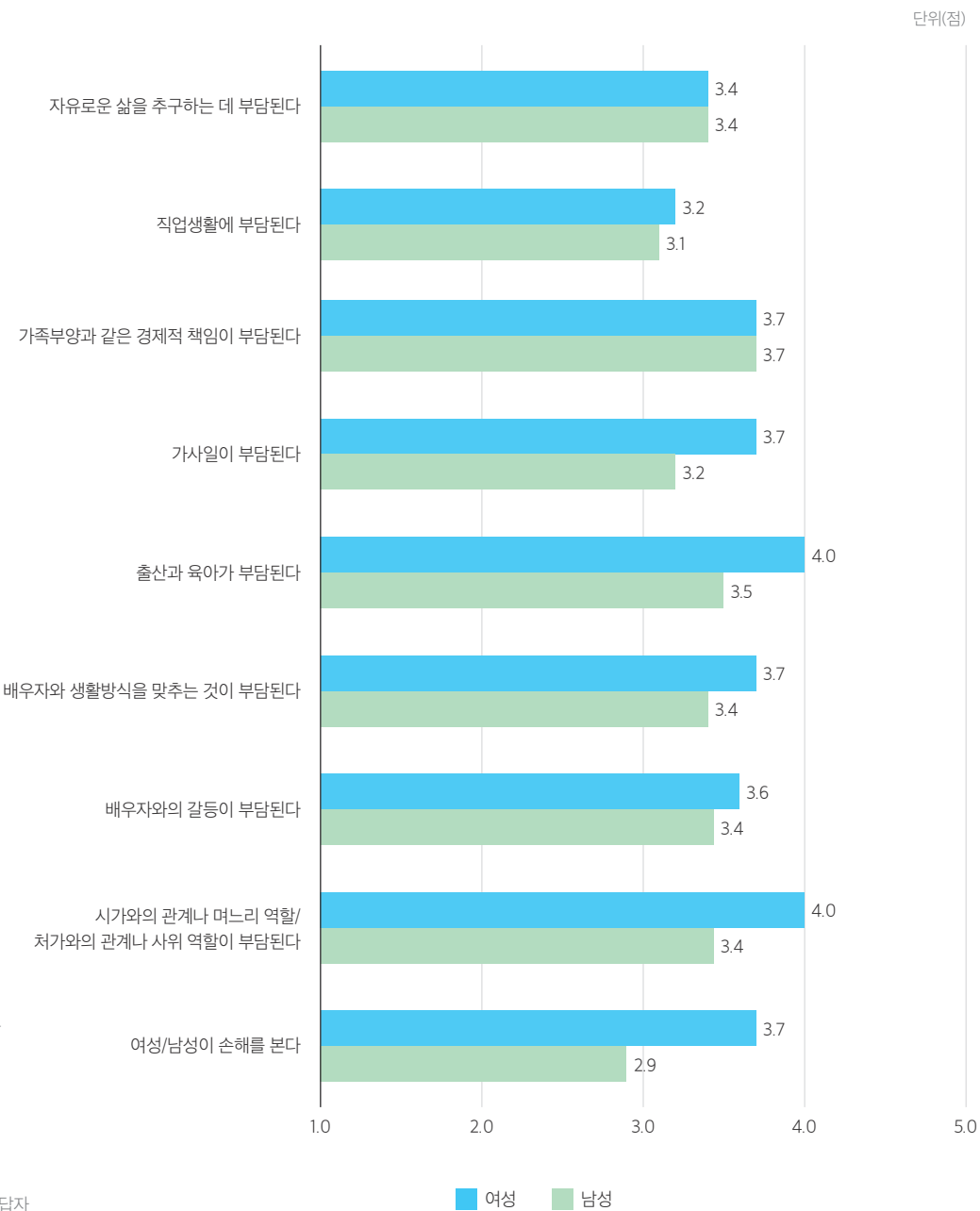
주
성별에 따라 질문을 달리한 문항이 있음(여성: '여성이 손해를 본다', '시가와의 관계나 며느리 역할이 부담된다'
남성: '남성이 손해를 본다', '처가와의 관계나 사위 역할이 부담된다')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결혼에 따르는 부담: 성별

- 결혼에 따르는 여러 측면의 부담에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경향이었음
- **배우자의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부담**(여성 4점, 남성 3.4점), **특정 젠더에게 결혼이 손해**라는 점(여성 3.7점, 남성 2.9점), **가사일 부담**(여성 3.7점, 남성 3.2점), **출산과 육아 부담**(여성 4점, 남성 3.5점)과 같은 **성역할 분담 및 결혼 관련 젠더 이슈**에 대해 **여성**이 더 **동의**하였고, **성별 점수 차이가 특히 컸음**
-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데 부담된다’, ‘가족부양과 같은 경제적 책임이 부담된다’ 항목에 대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결혼하면 OOO이 부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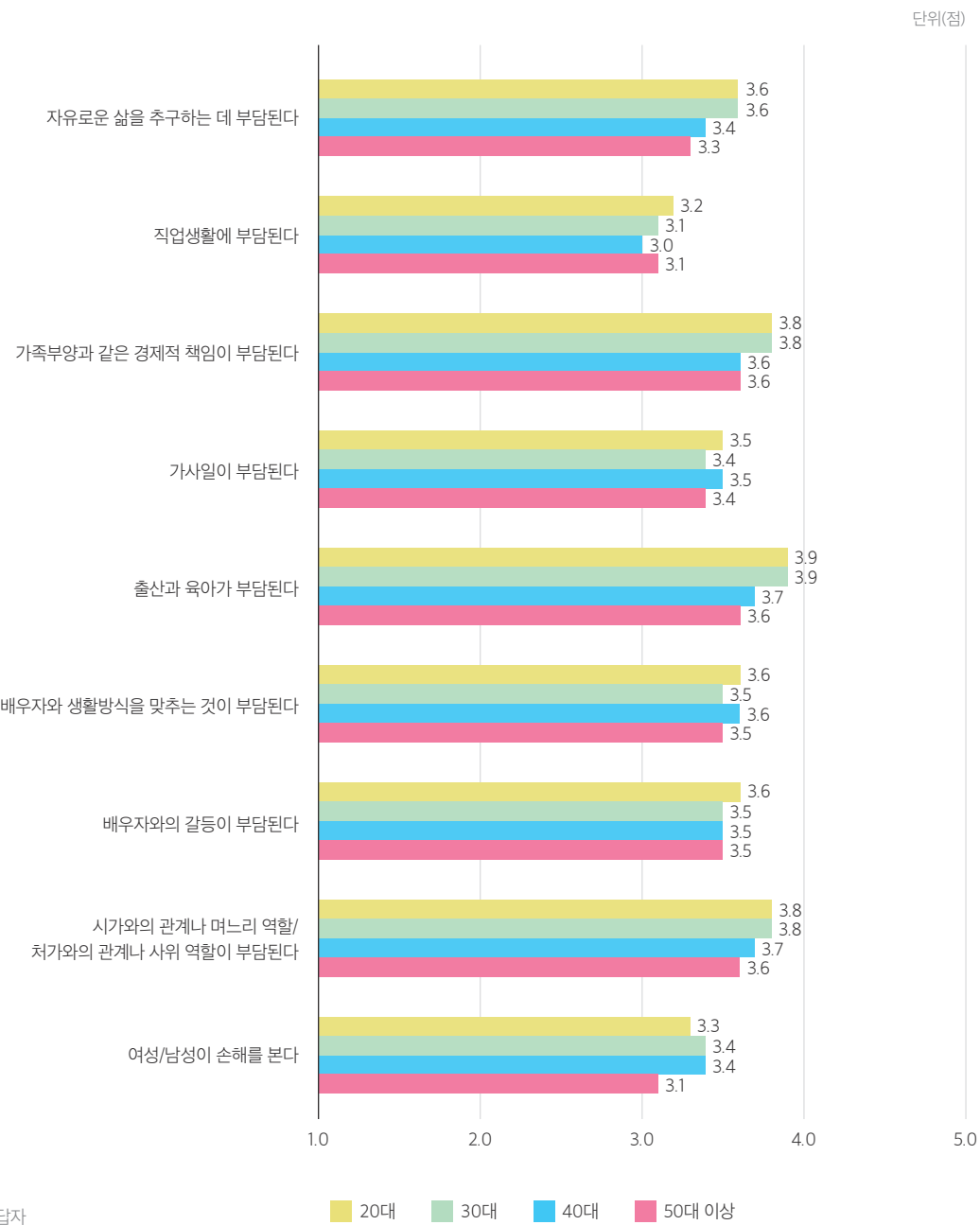
주
성별에 따라 다음 문항은
표현이 달랐음(여성: '여성
손해를 본다', '시가와외의
관계나 며느리 역할이 부
담된다'
남성: '남성이 손해를 본
다', '처가와외의 관계나
사위 역할이 부담된다')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결혼에 따르는 부담: 연령대별

- 연령대별 응답 경향이 비슷하였으나, 전체적으로 **20대**의 동의 수준이 다른 연령대보다 약간 더 높았음. 즉, **20대** 서울 시민이 **결혼에 따르는 부담에 더 동의**하는 경향이었음
- ‘여성/남성이 손해를 본다’, ‘시가와외의 관계나 며느리 역할/처가와외의 관계나 사위 역할이 부담된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부담된다’, ‘가사일이 부담된다’, ‘가족부양과 같은 경제적 책임이 부담된다’ 항목에 대한 연령대별 차이가 유의하였음. 나머지 항목에 대한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결혼하면 OOO이 부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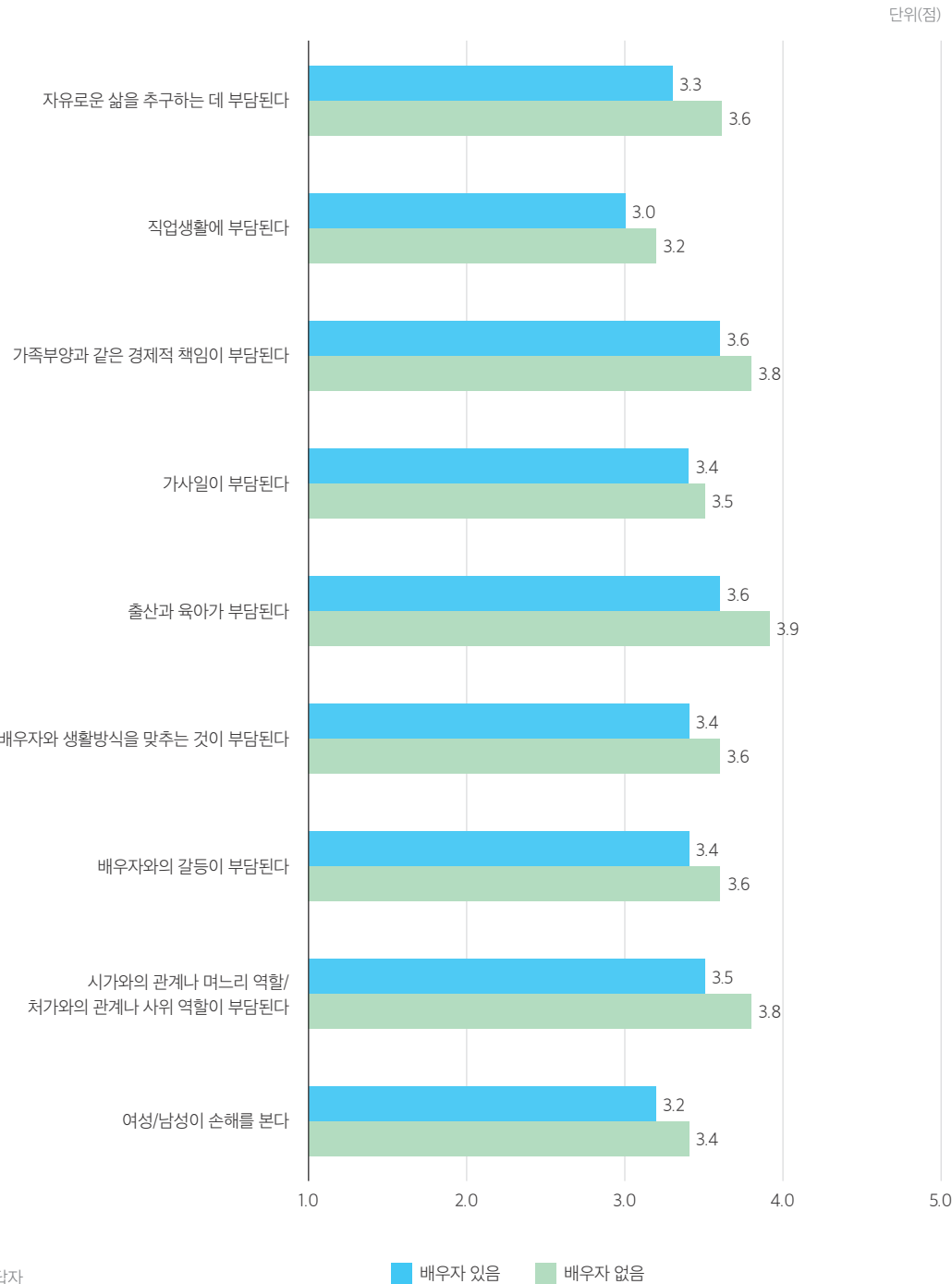
주
성별에 따라 다음 문항은
표현이 달랐음(여성: '여성
손해를 본다', '시가와외의
관계나 며느리 역할이 부
담된다'
남성: '남성이 손해를 본
다', '처가와외의 관계나
사위 역할이 부담된다')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결혼에 따르는 부담: 배우자 유무별

· 배우자가 있는 집단과 배우자가 없는 집단의 응답 경향이 비슷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결혼에 따르는 부담에 대한 **배우자가 없는** 집단의 동의 수준이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보다 약간 더 **높았음**

결혼하면 OOO이 부담된다



주
성별에 따라 다음 문항은
표현이 달랐음(여성: '여성
손해를 본다', '시가와 의
관계나 며느리 역할이
부담된다'
남성: '남성이 손해를
본다', '처가와 의
관계나 사위 역할이
부담된다')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결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모두 가진 20대를 고려한 접근 필요

2025 서울가족서베이 분석 결과, 20대 서울 시민은 결혼에 따르는 이점에 대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더 동의하고, 결혼에 따르는 부담에 대해서도 더 동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서울 시민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공존하는 양가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년 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유형화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에 대한 양가적 태도를 가진 유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박지수 외, 2025). 이러한 결과는 결혼에 대한 태도가 단순히 긍정-부정의 연속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차원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20대 서울 시민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각각 별개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결혼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부정적 태도의 배경이 되는 요인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결혼에 따르는 현실적인 부담을 줄여 주는 접근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평생 비혼을 추구하거나 결혼이 아닌 파트너십(예: 생활동반자) 관계를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20대의 평생 비혼 의향이나 비혼 동거 의향이 낮지 않은 점을 반영하여, 가족센터에서 결혼한 부부를 전제로 하지 않는 커플관계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거나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료 박지수, 박인숙, 이재림(2025). 결혼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에 대한 청년의 태도 성별 유형화. 가정과삶의질연구, 43(3), 89-108. <https://doi.org/10.7466/JFBL.2025.43.3.89>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결혼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 필요

2025 서울가족서베이 분석 결과, 배우자가 없는 집단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보다 결혼에 따르는 부담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제시된 9가지 부담 항목 중 배우자가 없는 집단의 동의 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은 '출산과 육아가 부담된다'(3.9점), '시가와 의 관계나 며느리 역할/처가와 의 관계나 사위 역할이 부담된다'(3.8점), '가족부양과 같은 경제적 책임이 부담된다'(3.8점) 등이었다. 특히 여성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과 시가와 의 관계나 며느리 역할에 대한 부담이 높았고, 남성은 경제적 책임에 대한 부담이 높았다. 서울시는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결혼이행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때 배우자가 없는 서울 시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

- 결혼에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저출생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장 「가족응원」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자 정책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양육자 대상 현금 지원보다 돌봄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아동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부모가 일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성 있는 양육 코칭 및 부모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을 직접적으로 보조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 시가/처가와와 관계나 며느리/사위 역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서울가족학교의 예비·신혼 부부교실이나 가족센터의 중고령자 대상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세대 간 소통 방법 및 갈등 관리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건강한 시가/처가 관계 형성과 며느리/사위 역할에서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 가족부양 등 경제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 인상, 가족돌봄 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 활성화,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의 저출생 대책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2025 서울가족정책



‘결혼준비교실’: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식 준비 교육

서울시가 예비부부의 합리적인 결혼식 준비를 돕는 ‘결혼준비교실’을 2025년에 시범 운영한다. 결혼준비교실에서는 예비부부 또는 결혼에 관심이 있는 커플을 대상으로, 결혼식 준비를 위한 예산 수립, 다양한 결혼식 유형 비교, 결혼 준비 일정표 작성, 결혼 준비 과정 역할 분담, 혼주 간 소통 방법 등을 교육한다. 2025년 하반기에 6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한 후, 2026년 전 자치구 가족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결혼준비교실’은 서울가족학교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과 달리 결혼식 준비에 초점을 맞춘다.



자료 내 손안에 서울(2025. 9. 1.). 뭐부터 준비하지? 예비부부 위한 ‘결혼준비교실’ 운영.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5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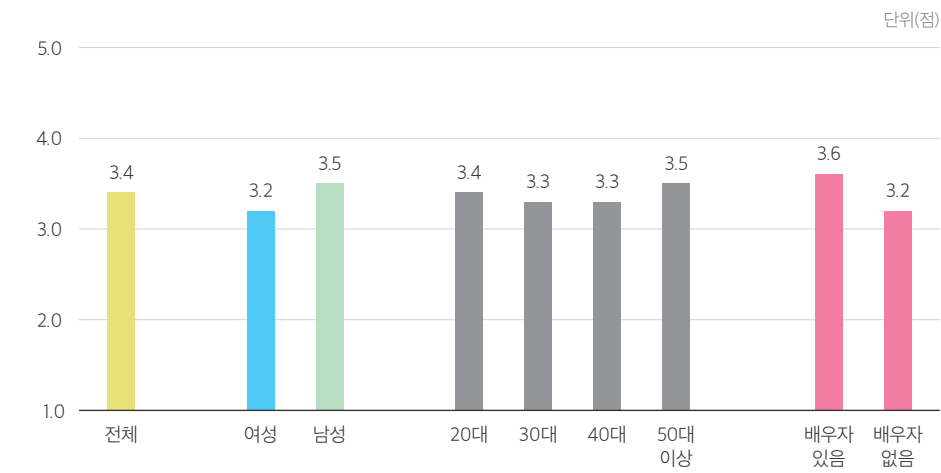


결혼에 대한 태도

독신(비혼)보다 결혼: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 ‘독신(비혼)으로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4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그렇다’(4점)의 중간이었음
- **성별**로는 **남성**(3.5점)이 여성(3.2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3.5점)이 30대(3.3점)와 40대(3.3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3.6점)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3.2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독신(비혼)으로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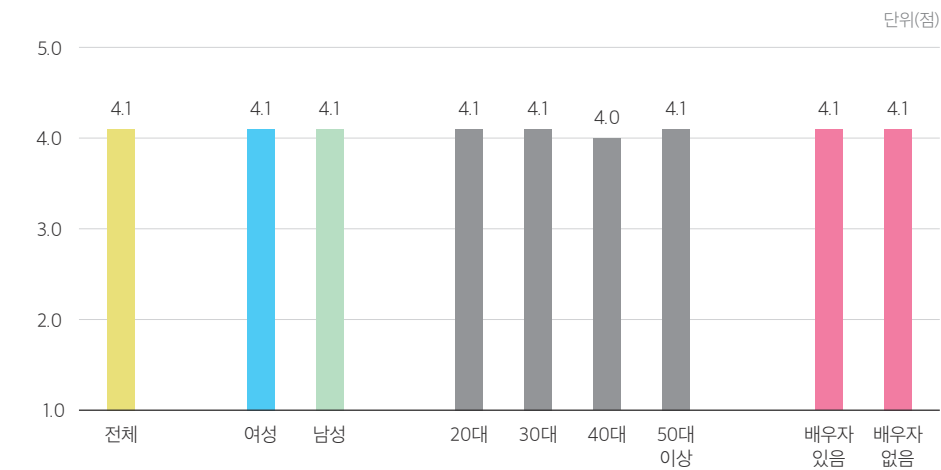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3. 결혼이라는 선택

결혼하려면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 ‘결혼을 하려면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한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4.1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였음
-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결혼을 하려면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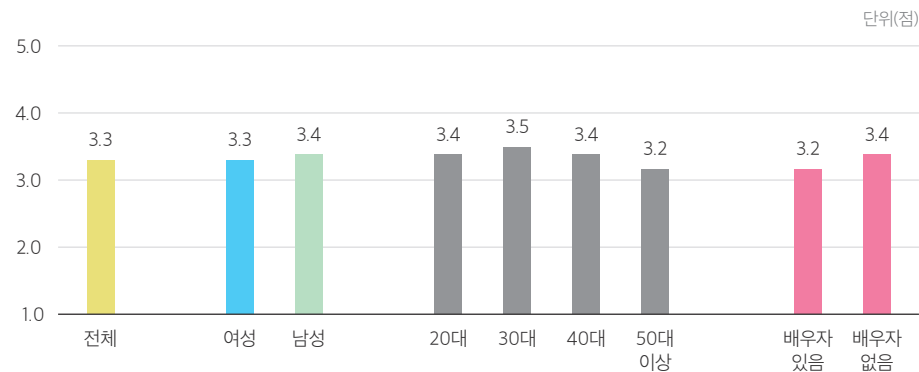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결혼하면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게 돼: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 ‘결혼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게 된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3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더 동의하였음
- 성별로는 **남성**(3.4점)이 여성(3.3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20대**(3.4점), **30대**(3.5점), **40대**(3.4점)가 50대 이상(3.2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집단**(3.4점)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3.2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결혼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게 된다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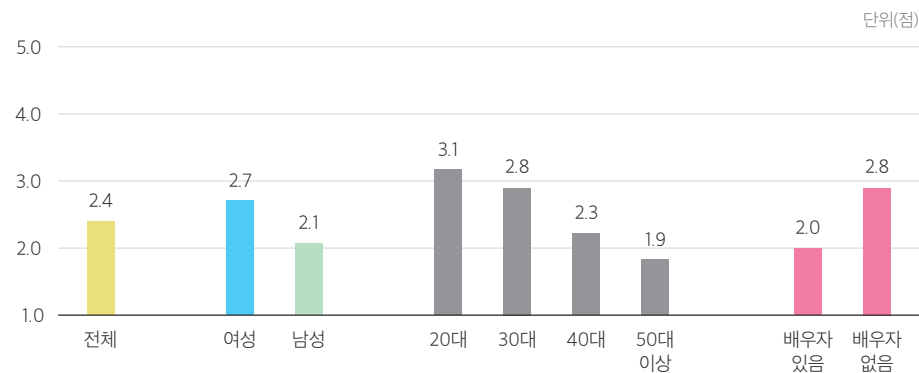


동성연애 및 동성결혼에 대한 태도

신규 동성연애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 ‘동성(같은 성별)끼리 연애해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2.4점**으로 ‘그렇지 않다’(2점)와 ‘보통’(3점) 사이였음
- 성별로는 **여성**(2.7점)이 남성(2.1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남녀 차이가 두드러졌음
- 연령대별로는 **20대**(3.1점), **30대**(2.8점), **40대**(2.3점)가 50대 이상(1.9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20대**(3.1점)와 **30대**(2.8점)가 40대(2.3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고, **20대**(3.1점)가 30대(2.8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집단**(2.8점)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2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배우자 유무별 차이가 두드러졌음

동성(같은 성별)끼리 연애해도 괜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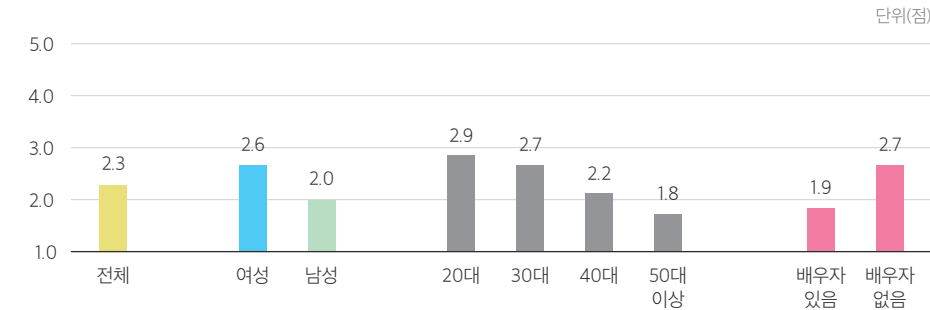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동성결혼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 ‘동성(같은 성별)끼리 결혼해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2.3점**으로 별로 동의하지 않았음
- 성별로는 **여성**(2.6점)이 남성(2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남녀 차이가 두드러졌음
- 연령대별로는 **20대**(2.9점), **30대**(2.7점), **40대**(2.2점)가 50대 이상(1.8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20대**(2.9점)와 **30대**(2.7점)가 40대(2.2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집단**(2.7점)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1.9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배우자 유무별 차이가 두드러졌음

동성(같은 성별)끼리 결혼해도 괜찮다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2025 서울 가족 클로즈업



전통적 결혼이행의 대안에 대한 서울 시민의 태도, 어떻게 유형화될까?

전통적 결혼을 통한 가족형성의 대안으로 다양한 파트너십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서울 시민의 태도 역시 다양해졌다. 2023년도 서울가족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통적 결혼 이행의 대안(alternatives to traditional marital formation)에 대한 서울 시민의 태도를 유형화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인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에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자발적 비혼, 동성 결혼, 비혼 성관계, 비혼 출산, 비혼 동거, 생활동반자관계라는 대안을 서울 시민이 각기 얼마나 수용하는지를 토대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여 네 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중도층(38.0%)**: 자발적 비혼, 비혼 성관계, 비혼 동거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이었고, 비혼 출산과 생활동반자에 대해서는 중립적이었으나,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 **보수층(27.3%)**: 모든 항목에서 전통적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동성 결혼에 반대하였다.
- **중도층(20.9%)**: 동성 결혼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 중립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 **진보층(13.8%)**: 모든 대안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었으나, 비혼 출산 항목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료 1) 2023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1,584명
2) Lee, J., Park, J., & Son, S. (2025). Latent profiles of Koreans' attitudes toward alternatives to traditional marital form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7(4), 1387-1406. <https://doi.org/10.1111/jomf.13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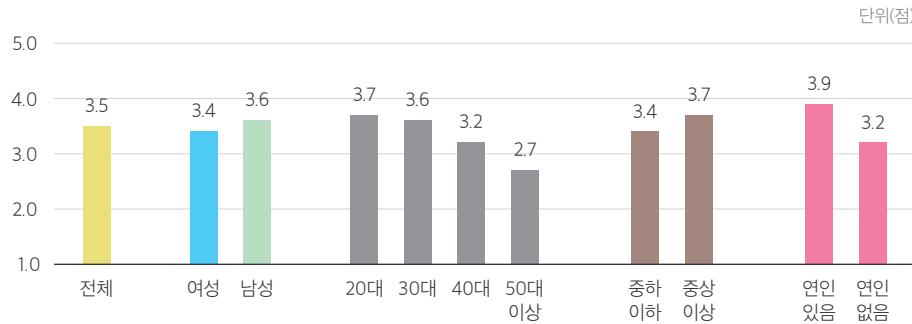


결혼 의향

(언젠가) 결혼할 의향: 전체, 성별, 연령대별, 주관적 계층별, 현재 연인 유무별

- 20~64세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언젠가 결혼할 의향’(범위: 1~5점) **평균은 3.5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그렇다’(4점)의 중간이었음
- **성별**로는 **남성**(3.6점)이 여성(3.4점)보다 결혼 의향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20대**(3.7점)가 40대(3.2점)와 50대 이상(2.7점)보다, **30대**(3.6점)가 40대(3.2점)와 50대 이상(2.7점)보다 결혼 의향이 높았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주관적 계층이 **중상 이상**인 집단(3.7점)이 중하 이하인 집단(3.4점)보다 결혼 의향이 높았음
- **현재 연인 유무별**로는 **연인이 있는 집단**(3.9점)이 연인이 없는 집단(3.2점)보다 결혼 의향이 높았음

(언젠가) 결혼할 의향 (재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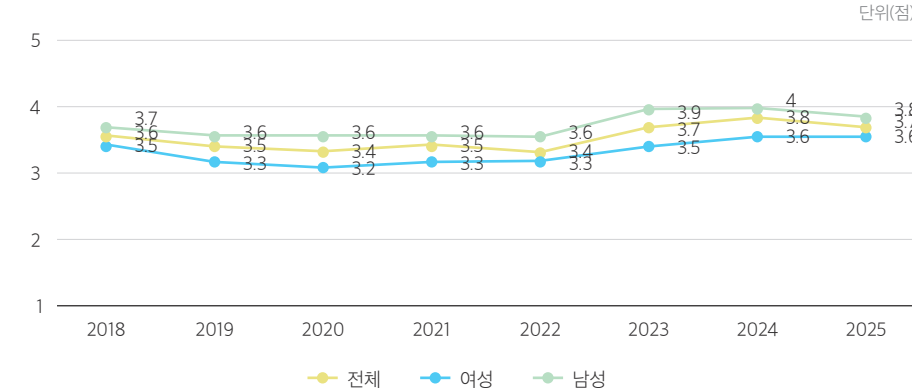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816명)

결혼할 의향(2018-2025년): 20-39세 전체 및 성별

- 20~39세 비혼(미혼) 서울 시민에게 ‘언젠가 결혼할 의향’(범위: 1~5점)을 질문한 결과, 2025년 **평균은 3.7점**으로 ‘대체로 그렇다’(4점)에 가까웠으며, **성별**로는 **남성**(3.8점)이 여성(3.6점)보다 결혼 의향이 높았음
- 2018년부터 2025년까지 20~39세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결혼 의향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결혼 의향이 2023년부터 상승하여 2024년 평균 3.8점으로 가장 높았다가 2025년 평균 3.7점으로 **다시 소폭 하락**하는 양상이 있었음. 2023년과 2024년에는 남녀의 평균 차이가 좀 더 벌어졌음

결혼할 의향: 전체 및 성별 (2018-2025년)



주
2018~2020년은 ‘귀하는 앞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2021~2022년은 ‘내가 결혼할 의향’, 2023~2025년은 ‘(언젠가) 결혼할 의향(재혼 포함)’에 대해 1~5점으로 응답하였음

자료
서울가족서비스, 각 연도(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2018년 226명, 2019년 510명, 2020년 664명, 2021년 607명, 2022년 603명, 2023년 555명, 2024년 554명, 2025년 56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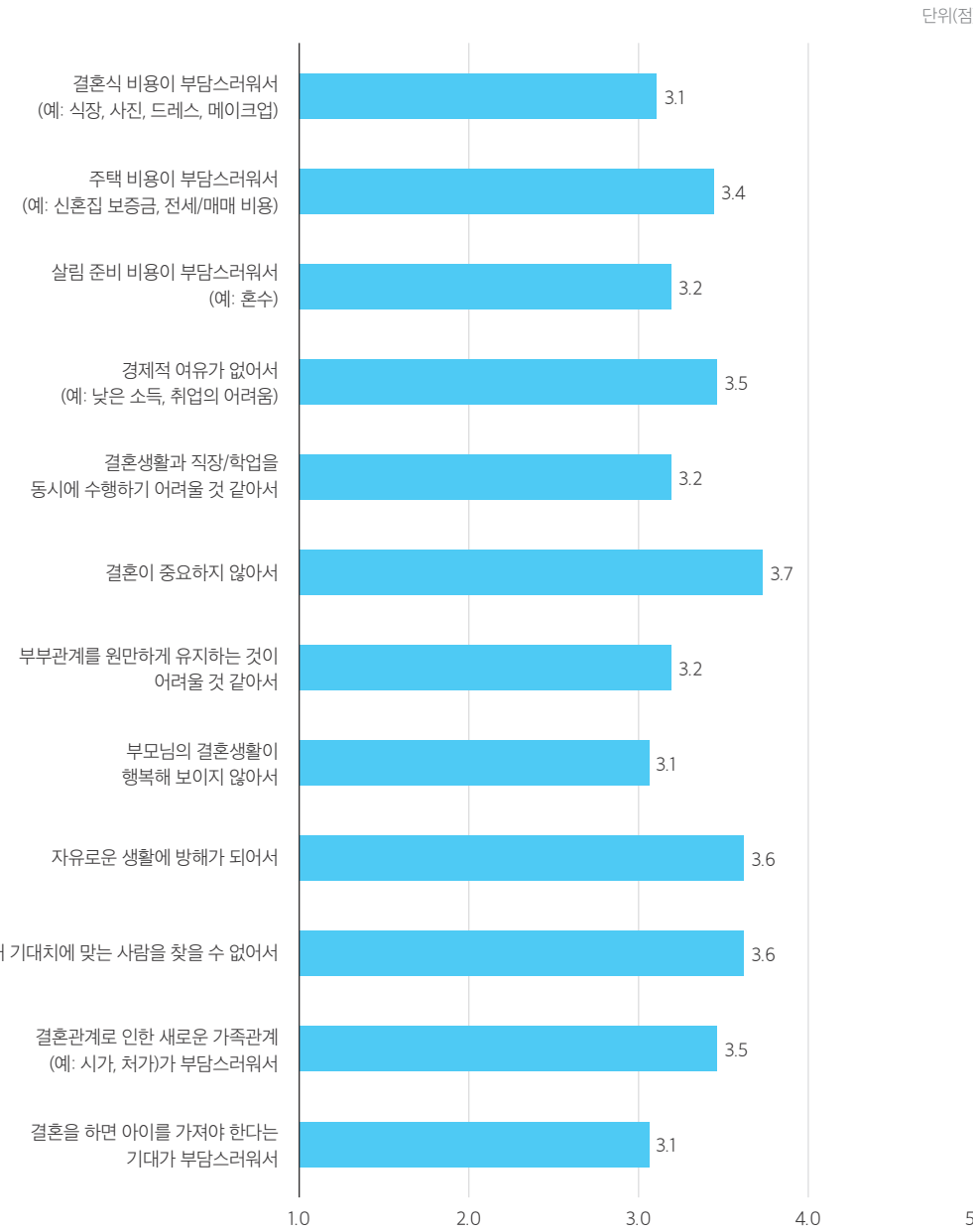


결혼할 의향이 없는 이유

신규 결혼할 의향이 없는 이유: 전체

- 언젠가 결혼할 의향이 보통 이하이거나, 평생 결혼하지 않을 의향이 보통 이상인 비혼(미혼) 서울 시민에게 ‘결혼할 의향이 없는 이유’(범위: 1~5점)를 질문한 결과, ‘**결혼이 중요하지 않아서**’(3.7점)의 평균이 가장 높았음. 즉,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결혼할 의향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이어서 ‘**자유로운 생활에 방해가 되어서**’(3.6점)와 ‘**내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3.6점), ‘**결혼관계로 인한 새로운 가족관계(예: 시가, 처가)가 부담스러워서**’(3.5점)의 순이었음
- 이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예: 낮은 소득, 취업의 어려움)**’(3.5점), ‘**주택 비용이 부담스러워서(예: 신혼집 보증금, 전세/매매 비용)**’(3.4점)와 같은 경제적 이유의 평균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결혼할 의향이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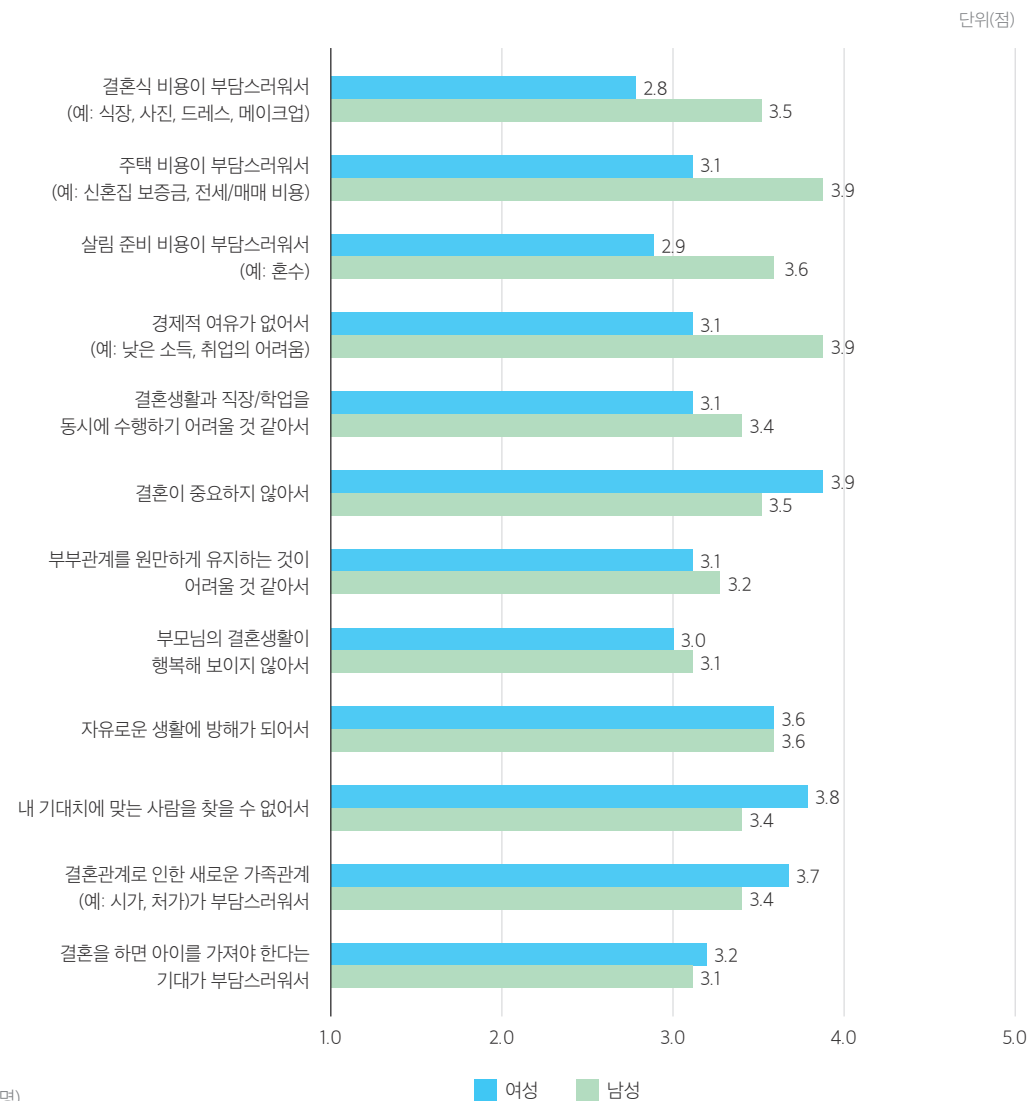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 (언젠가 결혼할 의향이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이거나 평생 결혼하지 않을 의향이 ‘많이 있다’, ‘대체로 있다’, ‘보통이다’인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없는 570명)

신규 **결혼할 의향이 없는 이유: 성별**

- 결혼할 의향이 없는 이유 중 **성별 차이가 큰 항목**은 ‘**주택 비용이 부담스러워서**’(예: 신혼집 보증금, 전세/매매 비용)(여성 3.1점, 남성 3.9점),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예: 낮은 소득, 취업의 어려움)(여성 3.1점, 남성 3.9점), ‘**결혼식 비용이 부담스러워서**’(예: 식장, 사진, 드레스, 메이크업)(여성 2.8점, 남성 3.5점), ‘**살림 준비 비용이 부담스러워서**’(예: 혼수)(여성 2.9점, 남성 3.6점)와 같은 **경제적 이유**였으며, **남성**의 평균이 여성보다 높았음
- **여성**이 결혼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결혼이 중요하지 않아서’(여성 3.9점, 남성 3.5점), ‘내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여성 3.8점, 남성 3.4점), ‘결혼관계로 인한 새로운 가족관계(예: 시가, 처가)가 부담스러워서’(여성 3.7점, 남성 3.4점) 등으로 나타남
-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부모님의 결혼생활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자유로운 생활에 방해가 되어서’,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기대가 부담스러워서’ 항목은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결혼할 의향이 없는 이유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언젠가 결혼할 의향이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이거나 평생 결혼하지
않을 의향이 '많이 있다',
'대체로 있다', '보통이다'인,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없는 570명)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결혼할 의향이 없는 이유 성별에 따라 다름을 고려한 정책 필요

2025 서울가족서베이 분석 결과, 결혼할 의향이 보통 이하이고 비혼 의향이 보통 이상인 20-64 세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결혼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 차이가 큰 항목은 ‘주택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결혼식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살림 준비 비용이 부담스러워서’와 같은 경제적 이유였다. 남성은 경제적인 부담이 결혼할 의향이 없는 가장 주요한 이유였다면, 여성은 경제적 이유에 대한 동의 수준은 ‘보통’ 수준이었다. 반면 여성은 결혼의 중요성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이 없거나, 결혼으로 인한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결혼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결혼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결혼에 따르는 비용과 경제적 효용 극대화로 결혼 의향을 설명하는 신가족경제 이론(new home economics theory)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Becker, 1974), 여성이 결혼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결혼과 가족 형성에 대한 태도 변화로 결혼 의향을 설명하는 제2의 인구변천 이론(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로 해석될 수 있다(Lesthaegh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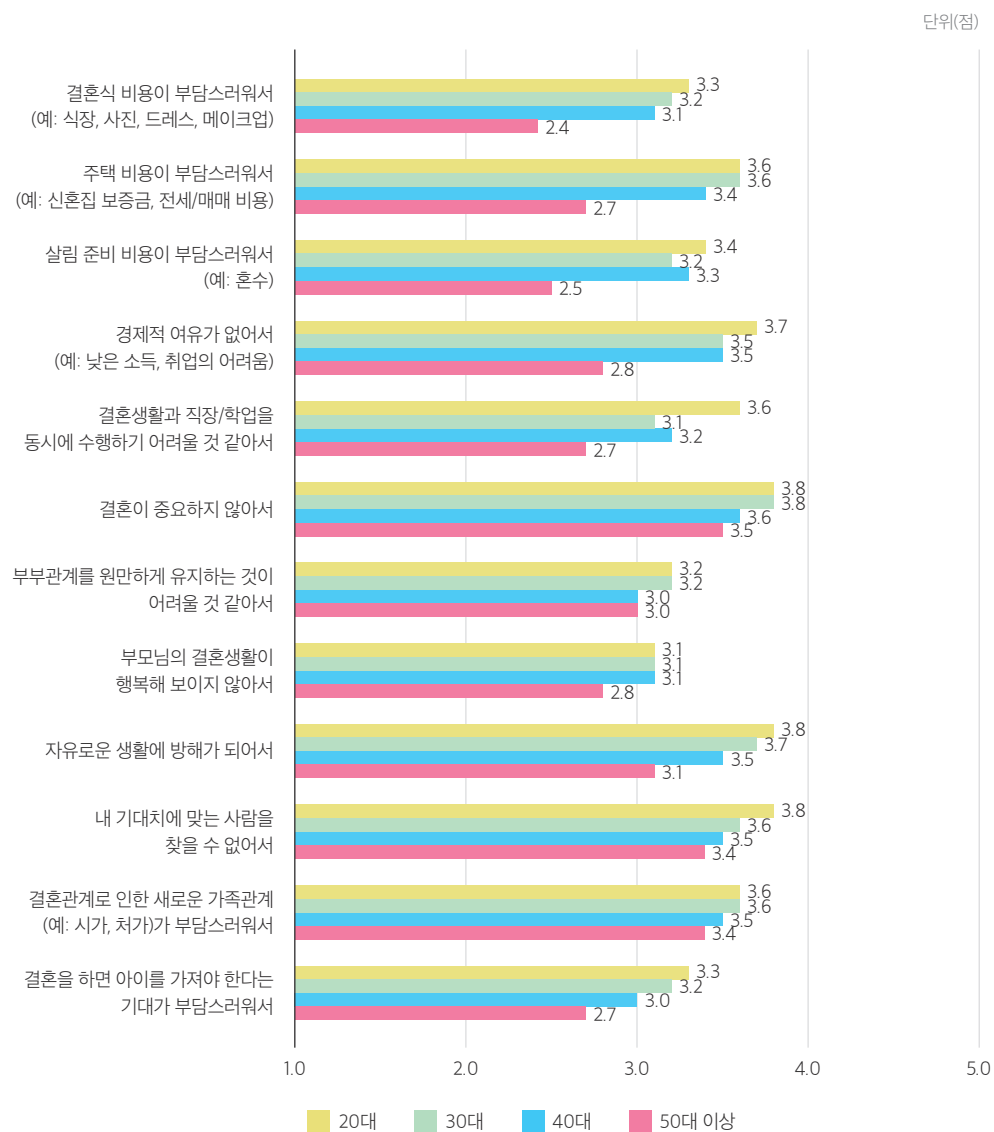
이러한 성별 차이는 서울 시민의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 또한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구성과 강조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2025년 10월부터 실시하는 결혼 준비 및 혼인 살림 비용 지원 정책은 결혼 의향이 많은 남녀나 결혼 의향이 적은 남성의 결혼에 따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차원의 결혼 지원 정책은 결혼 의향이 적은 남성이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당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홍보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결혼 의향이 적은 여성의 결혼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혼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고 가족 내 다양한 역할의 공평성을 증진하는 정서적, 문화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1) Becker, G. S. (1974). A theory of marriage: Part I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2), 11-26. <https://doi.org/10.1086/260287>
2) Lesthaeghe, R. (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2), 211-251. <https://doi.org/10.2307/25699059>

신규 **결혼할 의향이 없는 이유: 연령대별**

- 연령대별로 20대는 ‘결혼이 중요하지 않아서’(3.8점), ‘자유로운 생활에 방해가 되어서’(3.8점), ‘내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3.8점),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예: 낮은 소득, 취업의 어려움)’(3.7점)의 평균이 높았음
- 30대는 ‘결혼이 중요하지 않아서’(3.8점)와 ‘자유로운 생활에 방해가 되어서’(3.7점)의 평균이 높았음. 40대와 50대 이상은 20대와 30대보다 전체적으로 동의 수준이 낮았음
- 모든 연령대에서 동의 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결혼이 중요하지 않아서’(20대 3.8점, 30대 3.8점, 40대 3.6점, 50대 이상 3.5점)이었음
-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부모님의 결혼생활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내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결혼관계로 인한 새로운 가족관계(예: 시가, 처가)가 부담스러워서’ 항목은 연령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결혼할 의향이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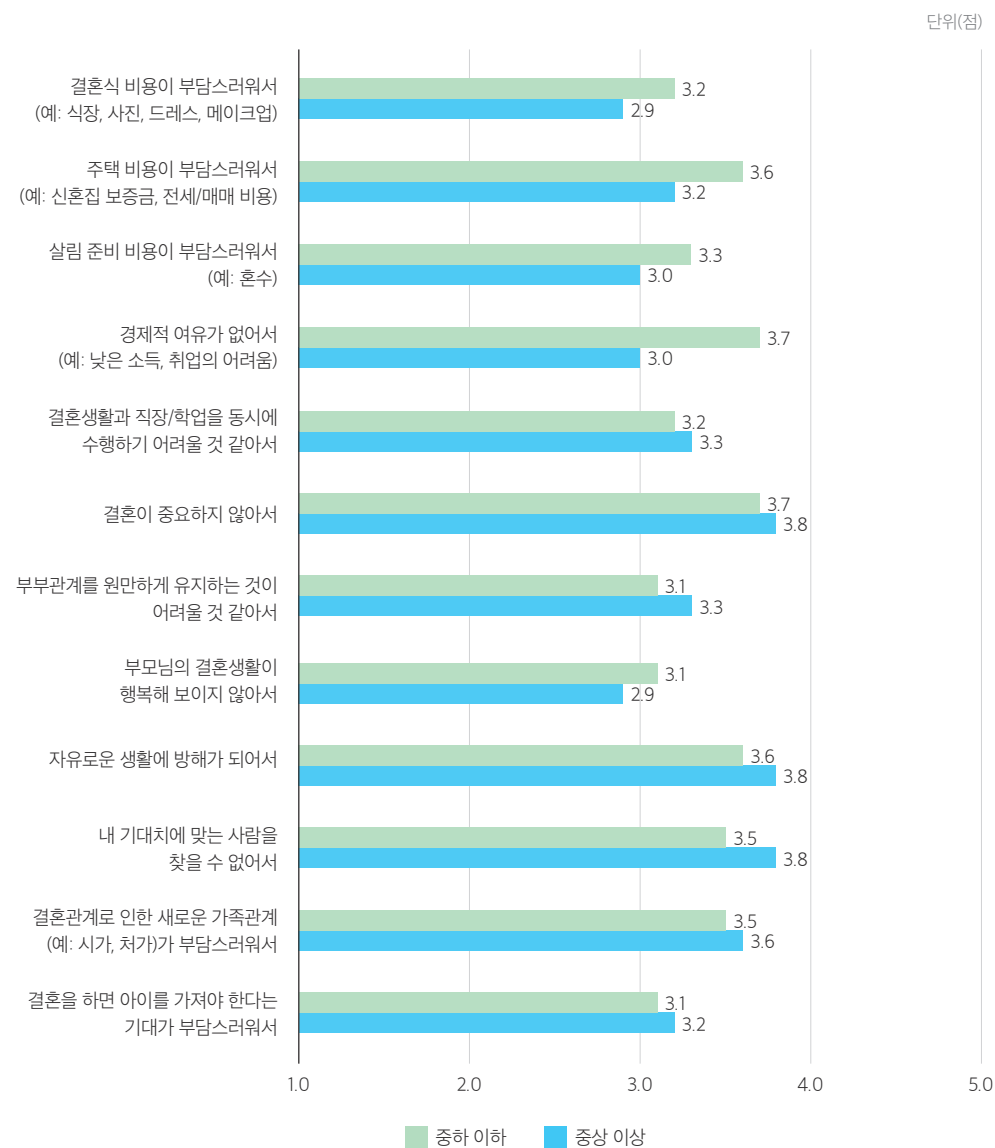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언젠가 결혼할 의향이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이거나 평생 결혼하지 않을 의향이 '많이 있다', '대체로 있다', '보통이다'인,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없는 570명)

신규 **결혼할 의향이 없는 이유: 주관적 계층별**

- 결혼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 주관적 계층이 중하 이하인 집단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예: 낮은 소득, 취업의 어려움)’(3.7점)와 ‘결혼이 중요하지 않아서’(3.7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중상 이상인 집단에서는 ‘결혼이 중요하지 않아서’(3.8점), ‘자유로운 생활에 방해가 되어서’(3.8점), ‘내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3.8점)의 평균이 가장 높았음
- 결혼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 주관적 계층별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예: 낮은 소득, 취업의 어려움)’(중하 이하 3.7점, 중상 이상 3점)였음
- ‘결혼생활과 직장/학업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결혼이 중요하지 않아서’,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결혼관계로 인한 새로운 가족관계 (예: 시가, 처가)가 부담스러워서’,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기대가 부담스러워서’ 항목은 주관적 계층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결혼할 의향이 없는 이유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언젠가 결혼할 의향이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이거나 평생 결혼하지 않을 의향이 '많이 있다', '대체로 있다', '보통이다'인,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없는 570명)

3. 결혼이라는 선택



청년이 결혼하기 좋은 도시 서울,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

서울시는 '청년이 결혼하기 좋은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실내외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조성하고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에게 대관하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수요를 반영해 한옥뷰, 공원뷰, 남산뷰, 한강뷰 등 다양한 테마를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공공예식장은 2030년 65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예비부부가 서울시 거주자이거나 생활권자일 경우, 예비부부의 부모 중 한명이라도 서울시 거주자일 경우 대관료가 무료이며, 예비부부 중 한명이라도 서울시민일 경우 결혼장려금(비품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7월부터는 서울여성플라자 피음서울(구 국제회의장), 남산 한남 웨딩가든을 예식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예식장으로 개방하여 예약을 받고 있다.



자료 1) 내 손안에 서울(2025. 6. 19.) 남산 카페, 한강 루프톱... 공공예식장 40곳 더 만든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4854>
 2)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홈페이지
<https://wedding.seoulwome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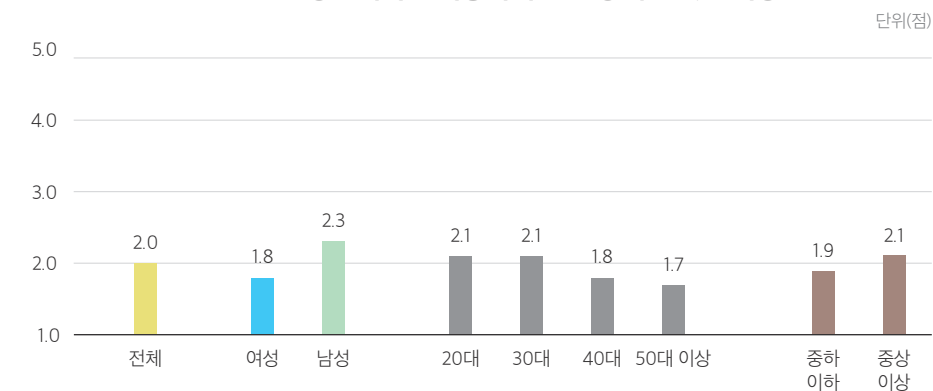


결혼정보회사 이용 의향

신규 결혼정보회사 이용 의향: 전체, 성별, 연령대별, 주관적 계층별

- 20~64세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여 결혼 상대를 찾을 의향'(범위: 1~5점) 평균은 2점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할 의향이 별로 없었음
- 성별로는 남성(2.3점)이 여성(1.8점)보다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할 의향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20대(2.1점)가 40대(1.8점)와 50대 이상(1.7점)보다, 30대(2.1점)가 40대(1.8점), 50대 이상(1.7점)보다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할 의향이 높았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주관적 계층이 중상 이상인 집단(2.1점)이 중하 이하인 집단(1.9점)보다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할 의향이 높았음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여 결혼 상대를 찾을 의향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8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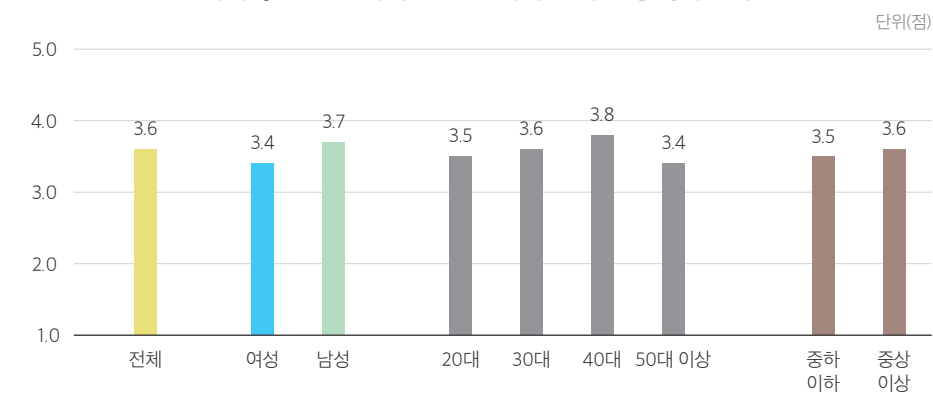


결혼에 대한 부모 기대

결혼에 대한 부모의 기대: 전체, 성별, 연령대별, 주관적 계층별

- '나의 부모님은 내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범위: 1~5점)에 대한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6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그렇다'(4점)의 사이였음
- 성별로는 남성(3.7점)이 여성(3.4점)보다 부모의 결혼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게 인식하였음
- 연령대별로는 40대(3.8점)가 20대(3.5점)보다 부모의 결혼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게 인식하였음
- 주관적 계층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나의 부모님은 내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주
 '나의 부모님'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여성 395명과 남성 362명의 응답임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으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75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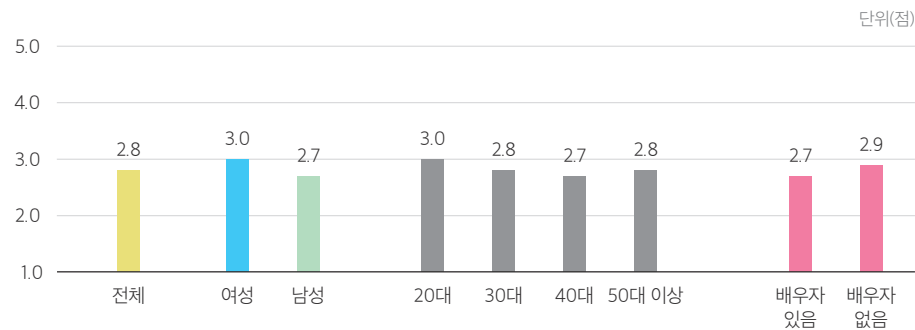


부부 개별화에 대한 태도

따로 사는 부부: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 ‘부부가 따로 살아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2.8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낮았음
- **성별**로는 여성(3점)이 남성(2.7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20대(3점)가 30대(2.8점), 40대(2.7점), 50대 이상(2.8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50대 이상(2.8점)이 40대(2.7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집단(2.9점)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2.7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부부가 따로 살아도 괜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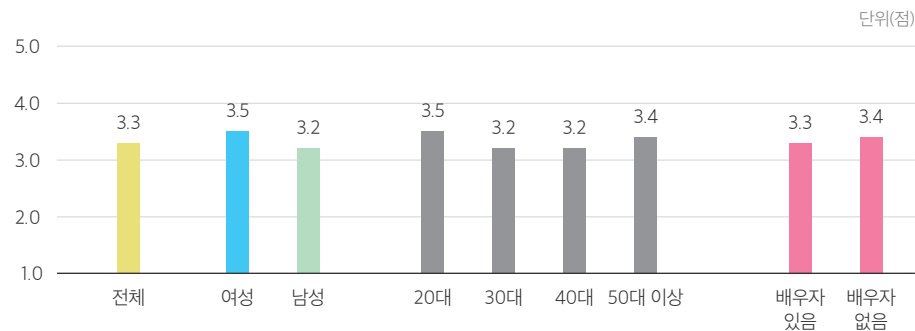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신규 각방을 쓰는 부부: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 ‘부부가 각방을 사용해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3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높았음
- **성별**로는 여성(3.5점)이 남성(3.2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20대(3.5점)와 50대 이상(3.4점)이 30대(3.2점)와 40대(3.2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배우자 유무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부부가 각방을 사용해도 괜찮다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따로 사는 부부, Living Apart Together (LAT)

부부가 반드시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관념은 점차 열어지고 있다. 서로 사랑하지만 함께 살지 않기로 선택하는 living apart together (LAT) 커플이 서구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LAT를 ‘이중주거 커플관계’라고 번역하여 이혼 후 파트너십 형태로 논의하거나, ‘줄혼’ 등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부가 따로 사는 파트너십과 연결하여 논의된 바 있다(임춘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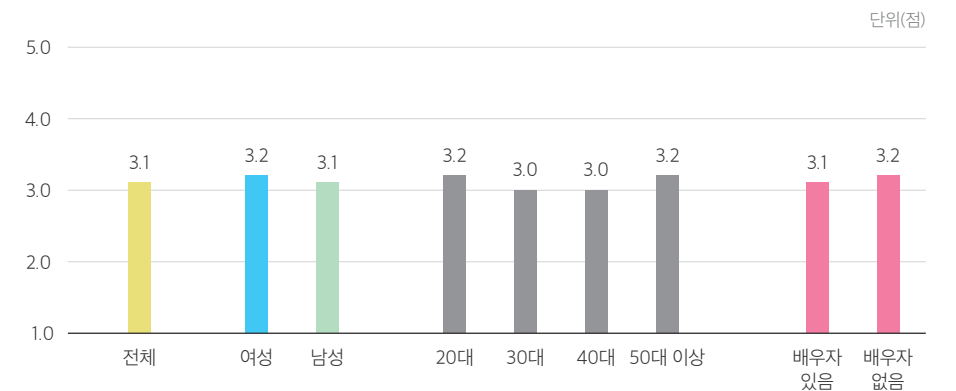
2025년 서울가족서베이 조사 결과, 부부가 따로 사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보통에 가깝게 나타났다. 특히 20대는 부부가 따로 사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5점 만점에 3점으로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는 부부의 생활 양식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자료 1) 임춘희(2018). 이혼 후 파트너십으로서의 동거와 이중주거 커플관계 (LAT).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3), 51-76.
<http://dx.doi.org/10.21321/jfr.23.3.51>
 2) Battle, M. (2025. 2. 27.). How living apart together is changing long-term relationships. TIME.
<https://time.com/7261972/living-apart-together-relationships-essay/>

신규 부부 공동의 삶보다 각자의 삶을 우선시해도 괜찮다

- ‘부부가 공동의 삶보다 각자의 삶을 우선시해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1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음
- **연령대별**로는 20대(3.2점)와 50대 이상(3.2점)이 30대(3점)와 40대(3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성별과 배우자 유무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부부가 공동의 삶보다 각자의 삶을 우선시해도 괜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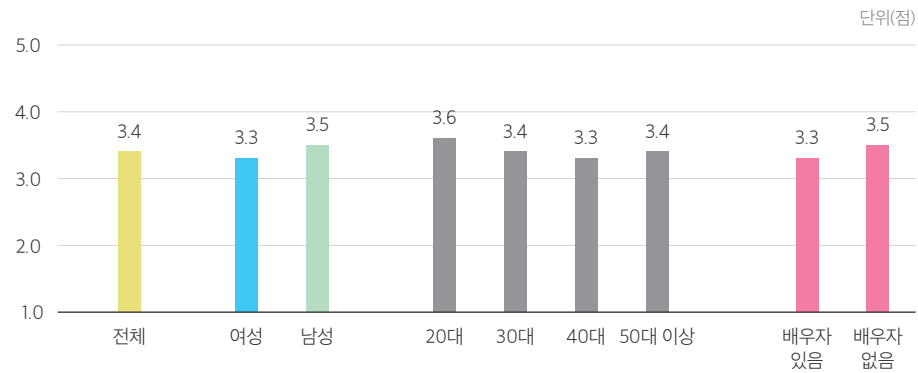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신규 **각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부: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따로 관리해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4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음
- **성별**로는 **남성**(3.5)이 여성(3.3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20대**(3.6점)가 30대(3.4점), 40대(3.3점), 50대 이상(3.4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집단**(3.5점)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3.3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따로 관리해도 괜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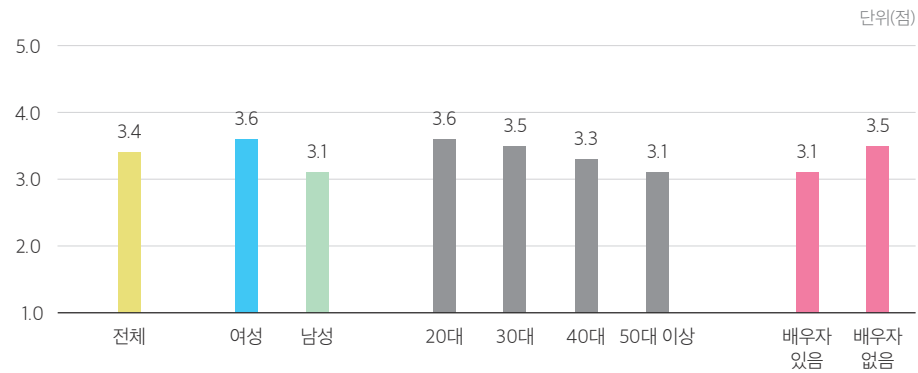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신규 **각자 자신의 부모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부부: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 ‘부부가 명절에 각자 자신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4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그렇다’(4점)의 중간이었음
- **성별**로는 **여성**(3.6)이 남성(3.1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20대**(3.6점)가 30대(3.5점), 40대(3.3점), 50대 이상(3.1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30대**(3.5점)가 40대(3.3점), 50대 이상(3.1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집단**(3.5점)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3.1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부부가 명절에 각자 자신의 부모집에서 시간을 보내도 괜찮다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부부간 개별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중장년층을 위한 부부 교육 필요

2025 서울가족서베이 분석 결과, 부부가 따로 살거나, 각방을 사용하거나, 부부 공동의 삶보다 각자의 삶을 우선시하는 등 부부 개별화에 대한 50대 이상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은 전체 평균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편이었다. 이는 50대 이상 서울 시민이 비혼 동거, 1인가구 공동체, 생활동반자 관계 등 결혼 제도의 대안에 대한 동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결혼에 대한 신념은 결혼이행(getting married)에 대한 태도와 결혼생활(being married)에 대한 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Willoughby et al., 2015), 이와 유사하게 결혼 관련 다양성도 결혼제도에 대한 대안(alternatives to marriage)과 결혼생활에서의 대안(change within marriage)으로 구분할 수 있다(Cherlin, 2020). 이를 고려할 때,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결혼제도 자체를 대신하는 라이프스타일에는 수용도가 낮은 편이나, 결혼생활 안에서의 대안적 라이프스타일에는 수용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개별화된 부부관계에 대해 더 수용적이라는 결과는, 중장년층을 전통적이라고 선불리 규정하는 것은 부적합할 수 있으며, 중장년층도 비전통적인 결혼생활의 양식을 수용하고 실천하고 있을 가능성을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권순범, 2020). 따라서 부부간 개별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부부가 ‘따로 또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중노년기 부부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2장 ‘일상응원’에서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인 집단과 첫째 자녀 발달단계별로는 첫째 자녀가 성인인 집단의 부부 공유 시간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중장년층 부부가 함께 양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중장년 부부 대상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부부관계의 질이 자녀세대의 가족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 부부 대상 교육,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여 중장년층의 부부관계 증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료 1) 권순범(2020). 개인화 관점에서 본 중년여성의 주거공간과 자녀의 주거독립.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Cherlin, A. J. (2020). Degrees of change: An assessment of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marriage the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2(1), 62-80.
<https://doi.org/10.1111/jomf.12605>
3) Willoughby, B. J., Hall, S. S., & Luczak, H. P. (2015). Marital paradigms: A conceptual framework for marital attitudes, values, and beliefs. Journal of Family Issues, 36(2), 188-211.
<https://doi.org/10.1177/0192513X13487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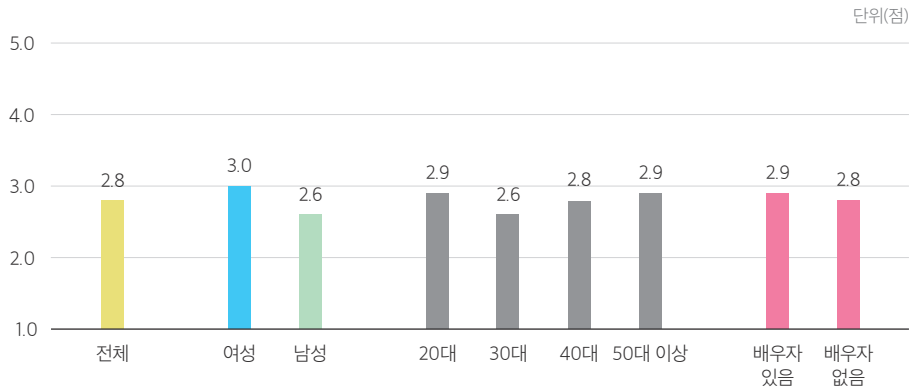


신규 섹스리스 부부: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섹스리스 부부에 대한 태도

- ‘부부가 섹스리스로 지내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2.8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음
- **성별**로는 여성(3점)이 남성(2.6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20대(2.9점), 40대(2.8점), 50대 이상(2.9점)이 30대(2.6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배우자 유무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부부가 섹스리스로 지내도 괜찮다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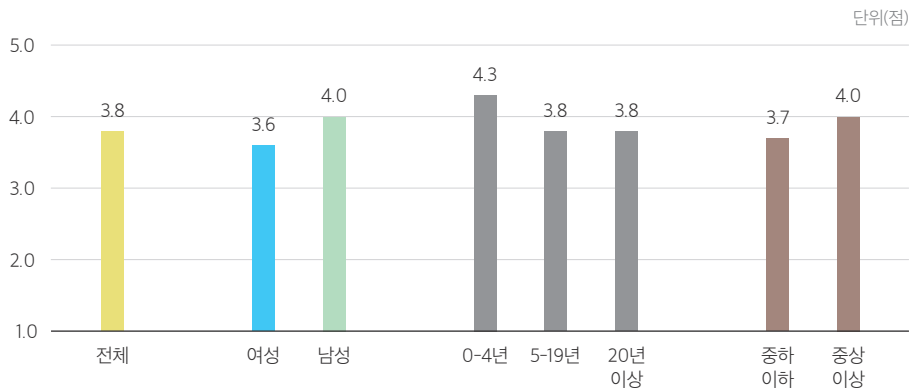


신규 ‘결혼하기를 잘 했다’: 전체, 성별, 결혼지속연수별, 주관적 계층별

결혼에 대한 만족 및 후회

- ‘나는 ‘결혼하기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범위: 1-5점)에 대한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8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였음
- **성별**로는 남성(4점)이 여성(3.6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결혼지속연수별**로는 **결혼지속연수 0-4년**인 집단(4.3점)이 5-19년인 집단(3.8점)과 20년 이상인 집단(3.8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주관적 계층이 **중상 이상**인 집단(4점)이 중하 이하인 집단(3.7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나는 ‘결혼하기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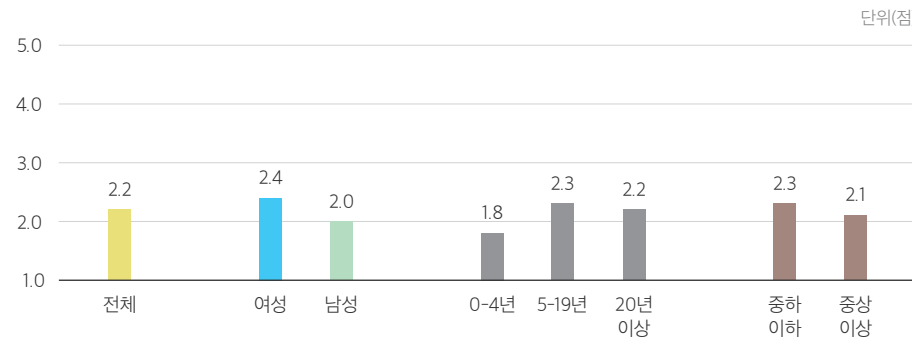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는 775명)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전체, 성별, 결혼지속연수별, 주관적 계층별

-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범위: 1-5점)에 대한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2.2점**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2점)에 가까웠음
- **성별**로는 여성(2.4점)이 남성(2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결혼지속연수별**로는 **결혼지속연수 5-19년**인 집단(2.3점)과 20년 이상인 집단(2.2점)이 0-4년인 집단(1.8점)이 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주관적 계층이 **중하 이하**인 집단(2.3점)이 중상 이상인 집단(2.1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나는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77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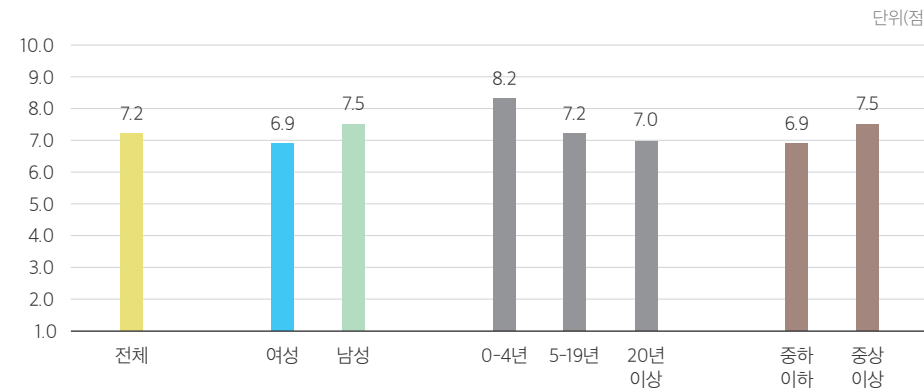


부부관계 행복도 및 친밀감

배우자와의 관계 행복도: 전체, 성별, 결혼지속연수별, 주관적 계층별

- ‘귀하와 배우자와의 관계는 최근 1개월 동안 얼마나 행복했습니까?’(범위: 1-10점)라고 질문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의 **평균은 7.2점**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대체로 행복했다고** 인식하였음
- **성별**로는 남성(7.5점)이 여성(6.9점)보다 행복했다고 인식하였음
- **결혼지속연수별**로는 **결혼지속연수 0-4년**인 집단(8.2점)이 5-19년인 집단(7.2점)과 20년 이상인 집단(7점)보다 행복했다고 인식하였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주관적 계층이 **중상 이상**인 집단(7.5점)이 중하 이하인 집단(6.9점)보다 행복했다고 인식하였음

배우자와 최근 1개월 동안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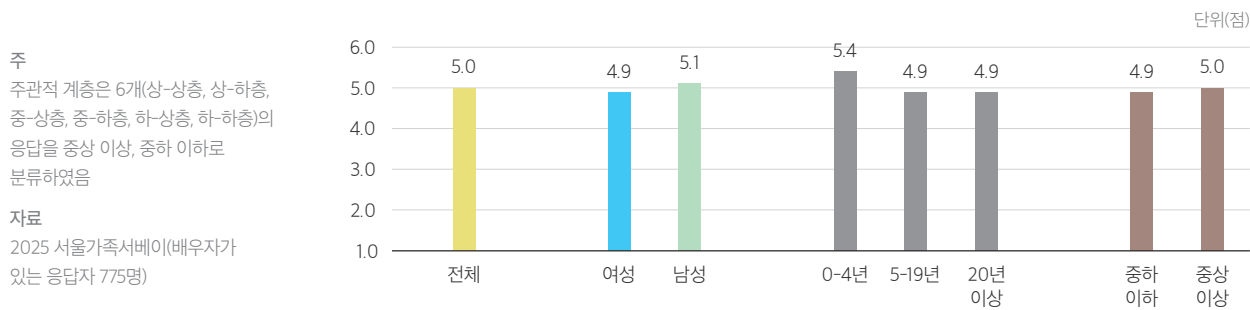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775명)

배우자와의 친밀감: 전체, 성별, 결혼지속연수별, 주관적 계층별

-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인생의 현 시점에서 귀하는 귀하가 배우자와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위: 1-6점)라고 질문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의 **평균은 5점**으로 배우자와의 친밀감 수준이 높았음
- **성별**로는 **남성**(5.1점)이 여성(4.9점)보다 배우자와의 친밀감 수준이 높았음
- **결혼지속연수**별로는 **결혼지속연수 0-4년**인 집단(5.4점)이 5-19년인 집단(4.9점)과 20년 이상인 집단(4.9점)보다 배우자와의 친밀감 수준이 높았음
- **주관적 계층**이 **중상 이상**인 집단(5점)이 중하 이하인 집단(4.9점)보다 배우자와의 친밀감 수준이 높았음

배우자와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십니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연인과의 관계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역전되는 성별 차이

2025 서울가족서베이 분석 결과, 연애 중인 서울 시민의 연인관계 행복도(범위: 1-10점)는 성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의 부부관계 행복도(범위: 1-10점)는 남성(7.5점)이 여성(6.9점)보다 더 행복하다고 인식해 성별 차이가 뚜렷했다. 또한, 연인과의 친밀감(범위: 1-6점)은 여성(5.2점)이 남성(5점)보다 높았지만, 배우자와의 친밀감(범위: 1-6점)은 남성(5.1점)이 여성(4.9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인관계와 부부관계에서 남녀가 경험하는 행복도와 친밀감이 다른 양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사와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배우자와의 갈등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부부관계 만족도를 낮추었기 때문으로 보인다(Suitor, 1991). 따라서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과 함께 아내와 남편이 함께 참여하는 부부 단위 교육 및 문화활동을 통해 부부간 친밀감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생활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의 강점과 성장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고, 갈등 해결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부부관계 행복도와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인식하는 행복도와 친밀감이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자기돌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결혼생활에서 파생되는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료 Suitor, J. J. (1991). Marital quality and satisfaction with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1), 221-230. <https://doi.org/10.2307/353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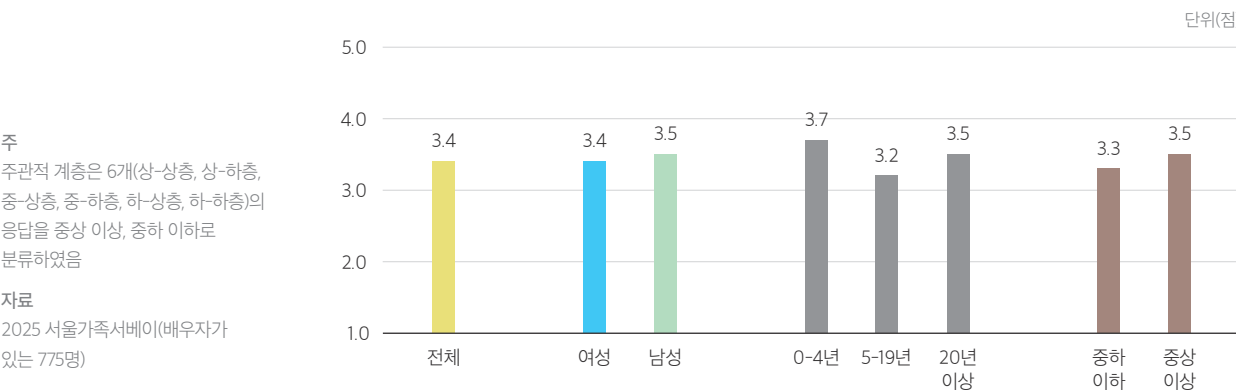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 충분성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 충분성: 전체, 성별, 결혼지속연수별, 주관적 계층별

- ‘나와 배우자가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의 **평균은 3.4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충분’(4점) 사이였음
- **결혼지속연수**별로는 **결혼지속연수 0-4년**인 집단(3.7점)과 **20년 이상**인 집단(3.5점)이 5-19년인 집단(3.2점)보다 배우자와의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주관적 계층이 **중상 이상**인 집단(3.5점)이 중하 이하인 집단(3.3점)보다 배우자와의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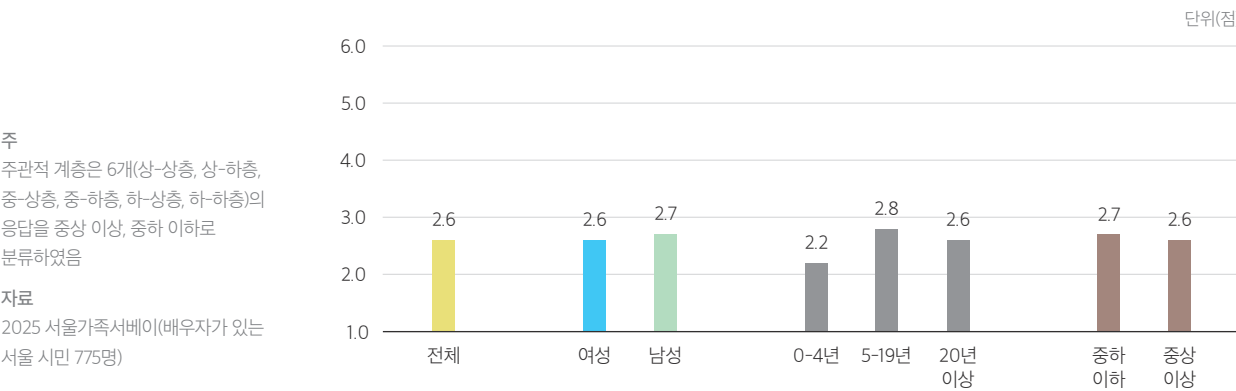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이혼 생각

배우자와의 갈등: 전체, 성별, 결혼지속연수별, 주관적 계층별

- ‘귀하와 배우자와의 갈등(관계상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범위: 1-6점)라고 질문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의 **평균은 2.6점**으로 ‘심각하지 않다’(2점)와 ‘별로 심각하지 않다’(3점) 사이였음
- **결혼지속연수**별로는 **결혼지속연수 0-4년**인 집단(2.2점)이 5-19년인 집단(2.8점)과 20년 이상인 집단(2.6점)보다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음
- 성별 및 주관적 계층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배우자와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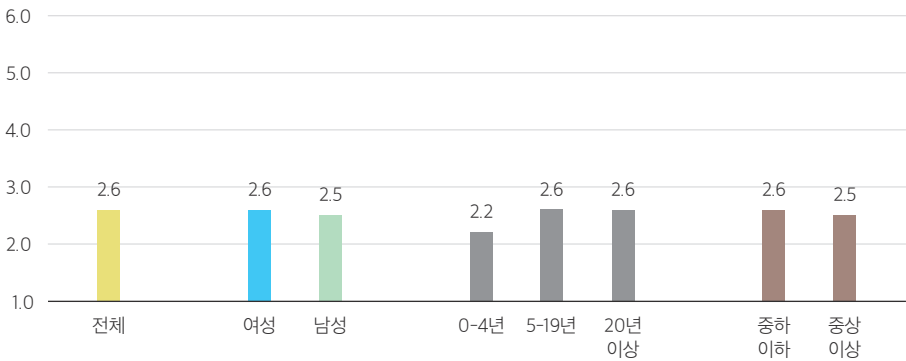


배우자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전체, 성별, 결혼지속연수별, 주관적 계층별

-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의 배우자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범위: 1-6점) 평균은 2.6점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2점)와 ‘보통’(3점) 사이였음
- 결혼지속연수별로는 결혼지속연수 0-4년인 집단(2.2점)이 5-19년인 집단(2.6점)과 20년 이상인 집단(2.6점)보다 배우자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을 낮게 인식하였음
- 성별 및 주관적 계층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배우자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단위(점)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연인 및 배우자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을 측정하는 Stanley 외(2004)의 척도 중 5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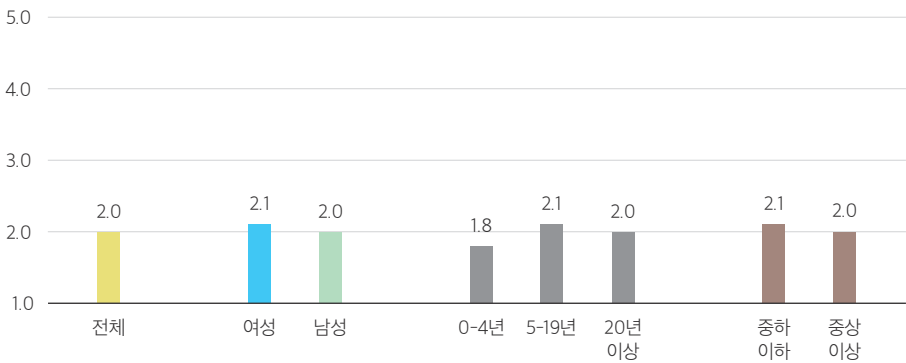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는 775명)

이혼 고민 경험: 전체, 성별, 결혼지속연수별, 주관적 계층별

- ‘귀하는 지난 1년간 부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의 평균은 2점으로 이혼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음
- 결혼지속연수별로는 결혼지속연수 0-4년인 집단(1.8점)이 5-19년인 집단(2.1점)과 20년 이상인 집단(2점)보다 이혼 생각을 적게 하였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주관적 계층이 중하 이하인 집단(2.1점)이 중상 이상인 집단(2점)보다 이혼 생각을 더 많이 하였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지난 1년간 부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단위(점)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는 775명)

해외 사례



영국 은퇴 후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부부가 은퇴 후 중노년기를 함께 보내는 시간 역시 길어지고 있다. 이에 영국의 한 비영리 기관은 중노년기 부부의 은퇴 후 관계를 강화하는 부부상담 프로그램 Couple 50+ MOT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50세 이상의 중노년기 부부가 은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다루도록 돕고, 부부의 강점을 개발함으로써 은퇴 후 미래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MOT’은 자동차 검사(MOT test) 개념에서 빌려온 은유로 점검의 의미를 담고 있어, 부부관계를 정비해 미리 문제를 예방하고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이다.



자료 Marriage Care. (n.d.). Couple 50+ MOT. <https://www.marriagecare.org.uk/how-we-help/thinking-of-retirement/>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부부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2025 서울가족서베이 분석 결과,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의 부부관계 행복도(범위: 1-10점)와 배우자와의 친밀감(범위: 1-6점)은 각각 평균 7.2점, 5점으로, 대체로 부부관계가 행복하며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응

답하였다. 배우자와의 갈등(범위: 1-6점)과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범위: 1-5점)은 모두 평균 2.6점으로, 대체로 갈등이 심각하지 않고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였다. 즉,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의 결혼생활은 대체로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는 가족의 중심이 되는 하위 체계로서, 부부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에도 매우 중요하다. 부부의 행복한 관계를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시의성이 크다. 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결혼식 비용 지원이나 주택 비용 지원 등 주로 경제적 차원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결혼 의향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설명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태도 및 가치관, 원가족 경험, 연인관계 경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설명된다는 점에서(박선영, 이재림, 2022),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에 국한된 혼인 지원 정책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한국 청년의 결혼 의향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부모의 행복한 부부관계를 보고 자라는 것이 자녀세대의 추후 결혼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박선영, 이재림, 2022), 부부관계를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의 결혼 의향 및 혼인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 서울시의 정책은 주로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가 함께 살아야 하는 기간 역시 증가했고, 결혼한 지 오래된 중노년기 부부가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실제로 2025 서울가족서베이 분석 결과, 결혼지속연수가 0-4년인 신혼부부 집단에서는 부부관계 행복도, 배우자와의 친밀감, 갈등,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 이혼 생각 등 모든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양상이 나타난 반면 결혼지속연수가 5년 이상인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 및 신혼부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의 관계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가족학교’라는 가족생활교육 브랜드를 구축하여 표준화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부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현재 ‘예비·신혼부부교실’만 존재한다. 중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부교실 신설을 제안한다.

자료 박선영, 이재림(2022). 한국 청년의 결혼 의향 영향요인 메타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7(1), 107-137. <https://doi.org/10.21321/jfr.27.1.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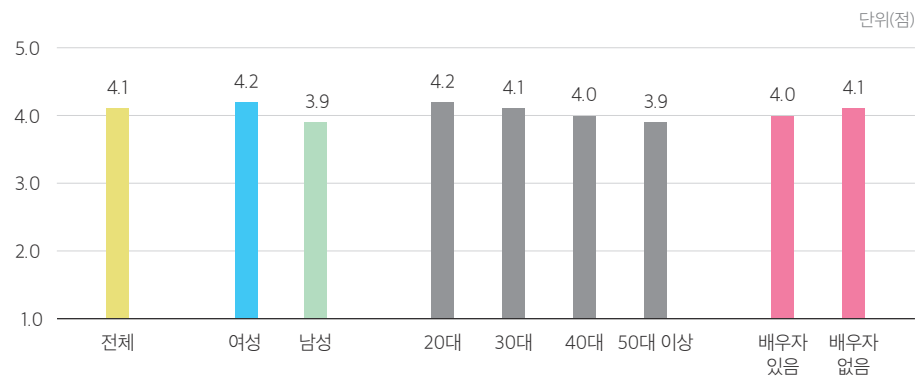


부부의 성역할 분담

부부는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4.1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였음
- **성별**로는 **여성**(4.2점)이 남성(3.9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20대**(4.2점)와 **30대**(4.1점)가 50대 이상(3.9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20대**(4.2점)가 40대(4점)와 50대 이상(3.9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집단**(4.1점)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4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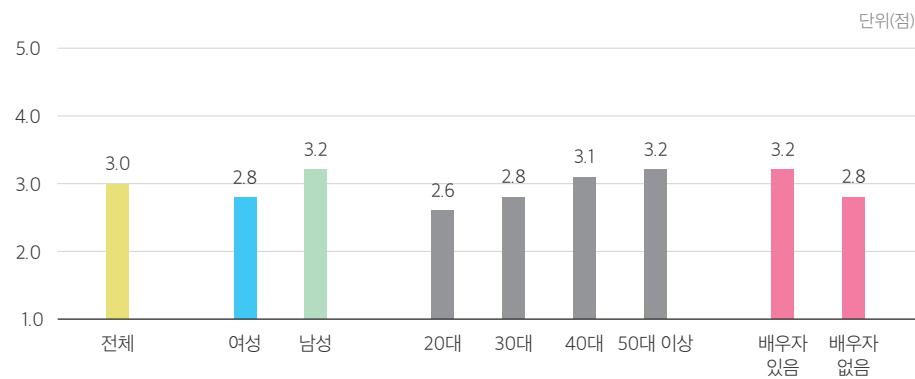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가족의 생계는 남편의 책임: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 ‘맞벌이를 해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일차적으로 남편의 책임이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음
- **성별**로는 **남성**(3.2점)이 여성(2.8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3.2점), **40대**(3.1점), **30대**(2.8점), **20대**(2.6점) 순으로 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모든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3.2점)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2.8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맞벌이를 해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일차적으로 남편의 책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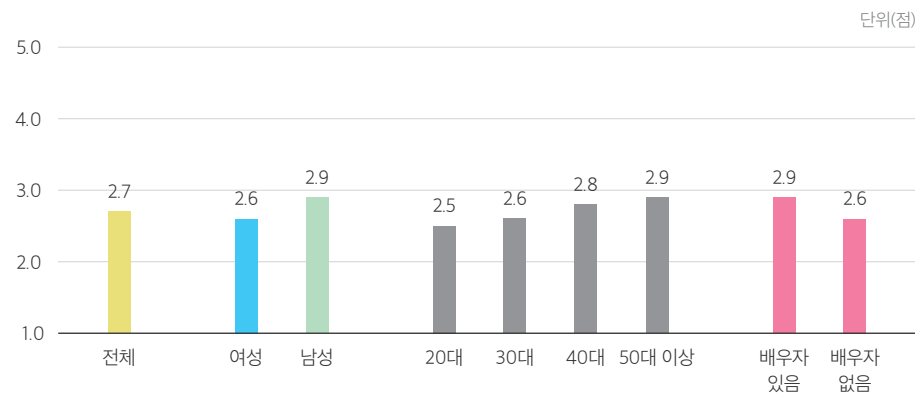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가사와 자녀 양육은 아내의 책임: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 ‘맞벌이를 해도 가사와 자녀 양육은 일차적으로 아내의 책임이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2.7점**으로 ‘보통’(3점)보다 조금 낮았음
- **성별**로는 **남성**(2.9점)이 여성(2.6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2.9점)이 20대(2.5점)와 30대(2.6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40대**(2.8점)가 20대(2.5점)와 30대(2.6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2.9점)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2.6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맞벌이를 해도 가사와 자녀 양육은 일차적으로 아내의 책임이다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4. 부부의 삶이길



부부의 결혼생활 영역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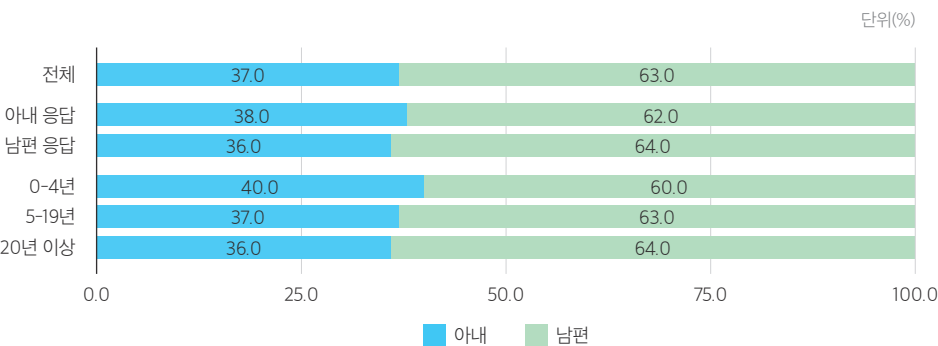
신규 가구 소득 기여도: 전체, 성별, 결혼지속연수별

-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에게 가구 소득 전체를 100%로 하고 ‘귀하와 배우자가 ‘**가구 소득 (예: 근로, 재테크)**’에 기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평균적으로 **아내**의 기여 비율이 **37%**, **남편**의 기여 비율이 **63%**라고 응답하였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결혼지속연수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모든 집단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가구 소득에 더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하였음

주
가구 소득(예: 근로, 재테크)에 대한 아내의 기여 비율은 여성이 응답한 본인의 기여 비율과 남성이 응답한 배우자의 기여 비율의 평균임. 남편의 기여 비율은 여성이 응답한 배우자의 기여 비율과 남성이 응답한 본인의 분담 비율의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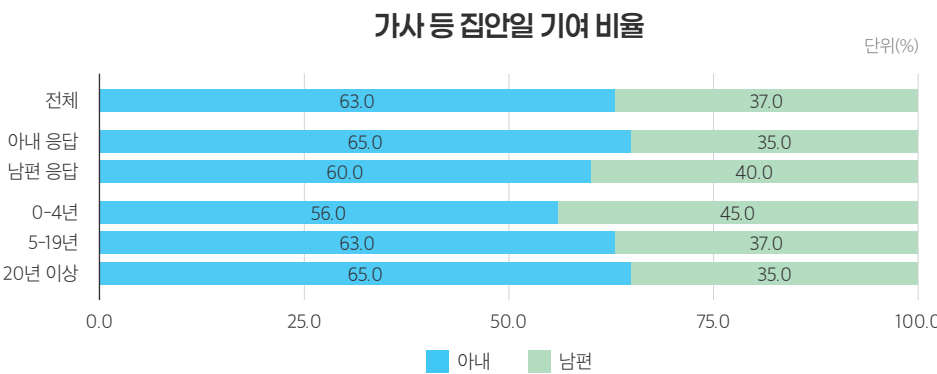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는 775명)

가구 소득 기여 비율



집안일 기여도: 전체, 성별, 결혼지속연수별

-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에게 집안일 전체를 100%로 하고 ‘귀하와 배우자가 **‘가사 등 집안일’**에 기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평균적으로 **아내**의 기여 비율이 **63%**, **남편**의 기여 비율이 **37%**라고 생각하였음
- 여성은 **아내:남편 = 65:35**라고 생각하였고, 남성은 **아내:남편 = 60:40**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즉, 남성이 남편의 집안일 기여도를 아내보다 높게 평가하였음
- 결혼지속연수 0-4년인 집단에서는 **아내:남편 = 56:45**이라고 생각하였고, 5-19년인 집단에서는 **아내:남편 = 63:37**이라고 생각하였고, 20년 이상인 집단에서는 **아내:남편 = 65:35**라고 생각하였으며, 결혼지속연수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즉, 결혼지속연수가 적을수록 남편의 집안일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였음
- 모든 집단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집안일에 더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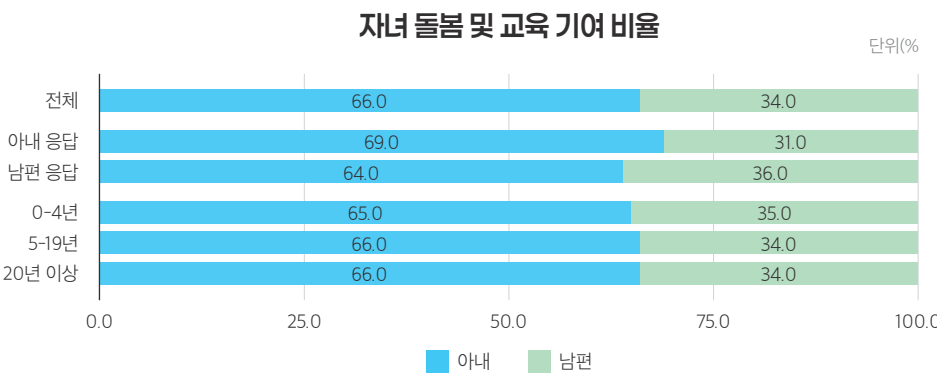


주
가사 등 집안일에 대한 아내의 기여 비율은 여성이 응답한 본인의 기여 비율과 남성이 응답한 배우자의 기여 비율의 평균임. 남편의 기여 비율은 여성이 응답한 배우자의 기여 비율과 남성이 응답한 본인의 기여 비율의 평균임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는 775명)

자녀 돌봄 및 교육 기여도: 전체, 성별, 결혼지속연수별

- 배우자가 있고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서울 시민에게 자녀 돌봄 및 교육 전체를 100%로 하고 ‘귀하와 배우자가 **‘자녀 돌봄 및 교육’**에 기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평균적으로 **아내**의 기여 비율이 **66%**, **남편**의 기여 비율이 **34%**라고 생각하였음
- 여성은 **아내:남편 = 69:31**이라고 생각하였고, 남성은 **아내:남편 = 64:36**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즉, 남성이 아내보다 자신의 자녀 돌봄 및 교육에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였음
- 결혼지속연수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모든 집단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자녀 돌봄 및 교육에 더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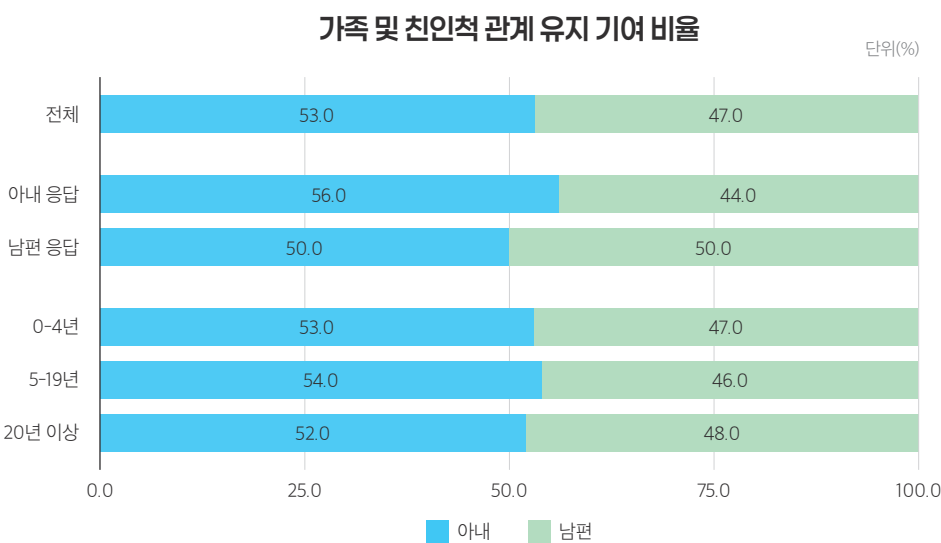


주
가사 등 집안일에 대한 아내의 기여 비율은 여성이 응답한 본인의 기여 비율과 남성이 응답한 배우자의 기여 비율의 평균임. 남편의 기여 비율은 여성이 응답한 배우자의 기여 비율과 남성이 응답한 본인의 기여 비율의 평균임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와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329명)

신규 가족 및 친인척 관계 유지 기여도: 전체, 성별, 결혼지속연수별

-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에게 자녀 돌봄 및 교육 전체를 100%로 하고 ‘귀하와 배우자가 **‘가족 및 친인척 관계 유지(예: 연락, 경조사 관리)’**에 기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평균적으로 **아내**의 기여 비율이 **53%**, **남편**의 기여 비율이 **47%**라고 생각하였음
- 여성은 **아내:남편 = 56:44**라고 생각하였고, 남성은 **아내:남편 = 50:50**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즉, 남성은 아내와 달리 남편의 가족 및 친인척 관계 유지에의 기여 비율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였음
- 결혼지속연수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대부분의 집단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가족 및 친인척 관계 유지에 더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하였으나 가구소득, 집안일, 자녀 돌봄 및 교육보다는 간격이 좁았음



4. 부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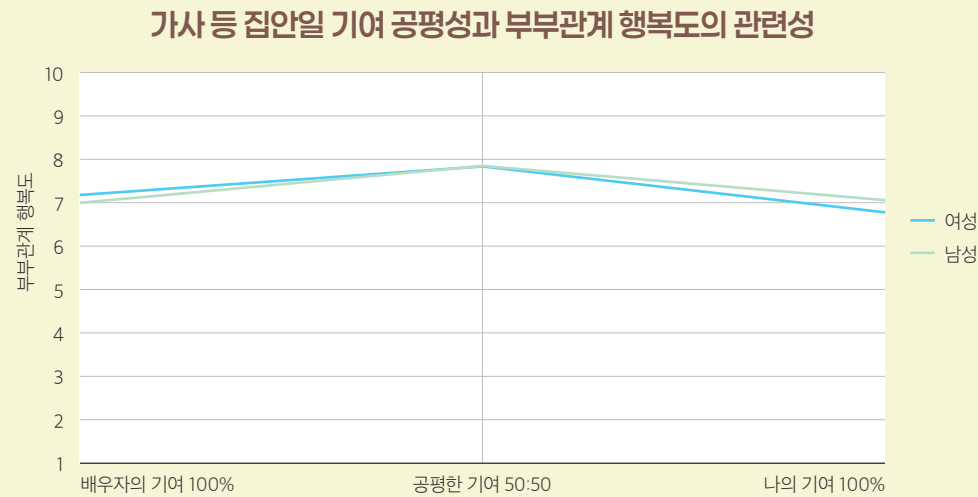
2025 서울 가족 클로즈업



부부가 집안일과 가구소득에 공정하게 기여할 때 부부관계도 행복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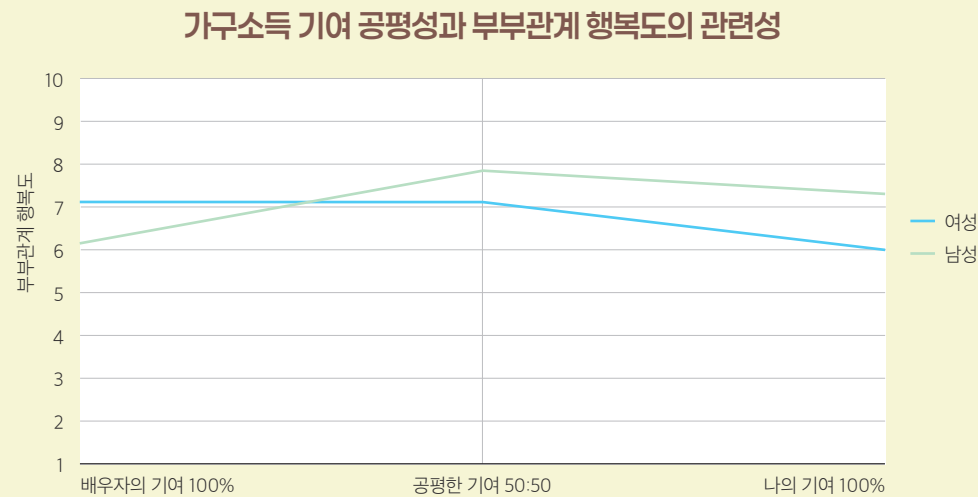
공평성 이론(equity theory)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이 상대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과소혜택일 경우 불합리함을 느껴서 관계만족도가 낮고, 자신이 상대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과대혜택일 경우 죄책감을 느껴 관계만족도가 낮다고 한다. 반대로, 서로 공평하다고 생각할 때 부부간 관계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본다.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거나 현재 연인과 동거 중인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가사 등 집안일과 가구소득이라는 결혼생활 영역에 대한 부부의 기여 비율과 부부관계 행복도 간의 관련성을 성별로 살펴보았다.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거나 비혼 동거하는 연인이 있는 795명)

가사 등 집안일 기여 비율에 따른 부부관계 행복도를 분석한 결과, 자신과 배우자가 집안일에 공평하게 기여하고 있을 때 부부관계 행복도가 가장 높았다. 즉, 자신이 배우자에 비해 더 많이 기여하는 과소혜택 구간이나 배우자가 자신에 비해 더 많이 기여하는 과대혜택 구간에는 부부관계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기여 비율이 동등할 때 행복도 점수가 높았다. 성별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해당 양상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일관되게 나타났다.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거나 비혼 동거하는 연인이 있는 795명)

가구소득 기여 비율에 따른 부부관계 행복도를 분석한 결과, 과대혜택 구간에서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남성은 배우자가 자신에 비해 가구소득에 더 많이 기여할 때 부부관계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여성은 배우자가 자신에 비해 가구소득에 더 많이 기여할 때와 공평하게 기여할 때 부부관계 행복도가 유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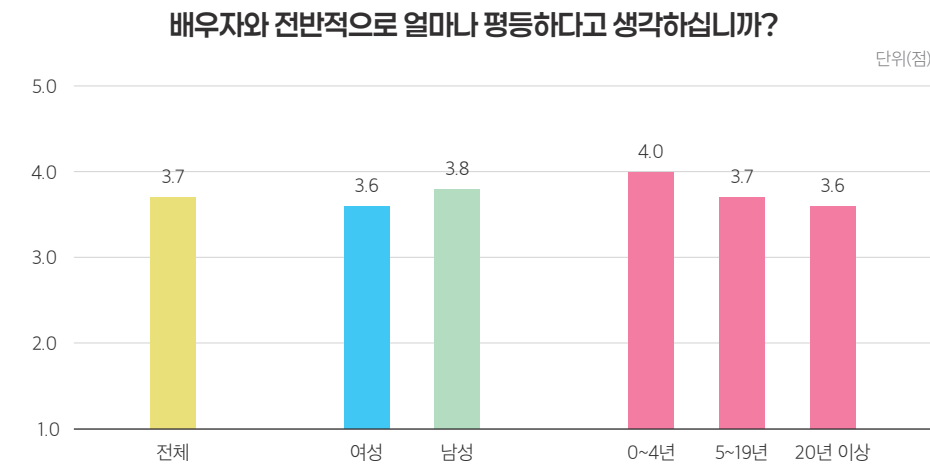


부부관계 평등성 및 분담 공정성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배우자가 있는 77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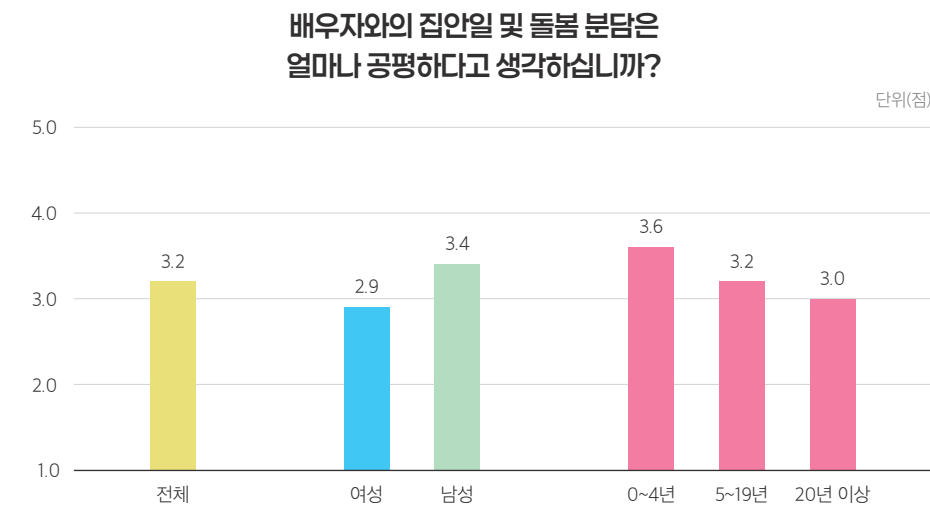
부부관계 평등성: 전체, 성별, 결혼지속연수별

- ‘귀하와 배우자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의 **평균은 3.7점**으로 **‘대체로 평등하다’**(4점)에 가까웠음
- **성별**로는 **남성**(3.8점)이 여성(3.6점)보다 평등하다고 인식하였음
- **결혼지속연수**별로는 **결혼지속연수 0~4년**인 집단(4점)이 5~19년인 집단(3.7점), 20년 이상인 집단(3.6점)보다 평등하다고 인식하였음



가사 및 돌봄 분담 공정성: 전체, 성별, 결혼지속연수별

- ‘귀하와 배우자의 가사 등 집안일 및 돌봄 분담은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의 **평균은 3.2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음
- **성별**로는 **남성**(3.4점)이 여성(2.9점)보다 공평하다고 인식하였음
- **결혼지속연수**별로는 **결혼지속연수 0~4년**인 집단(3.6점)이 5~19년인 집단(3.2점), 20년 이상인 집단(3점)보다 공평하다고 인식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배우자가 있는 775명)



부모 응원



1. 부모라는 선택

2. 부모됨과 부모역할에 대한 생각들

3. 부모로 살아감

4. 다자녀 부모라는 선택

2025 서울가족서베이 하이라이트

“완벽한 부모” 환상, 부모됨의 숨은 장벽

- 무자녀 시민 “좋은 부모 되기 위해 노력할 것, 부모 되면 행복할 것” 기대
- 그러나 “좋은 부모 될 능력 없음, 기대만큼 잘 키울 자신 없음” 우려 커

저출생 정책 선호와 요구, 성별·자녀 유무·부모됨 의향 따라 달라

-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 부모됨에 필요한 이상적 여건에서 성별, 자녀 유무, 부모됨 의향에 따른 차이 뚜렷

자녀 성장에 따라 달라지는 부모 부담 양상

- 미취학 자녀 부모는 신체적 어려움, 초등·청소년 자녀 부모는 경제적 어려움 더 겪어
- 청소년 자녀 부모는 자녀 실패 두려워하며, 때로 자녀를 인생의 목표처럼 느껴

엄마, 아빠 공동양육, 청소년기 부모에서 약화

- ‘부모는 한 팀’ 인식, 배우자와 부모역할 분담, 자녀 정보 공유 모두 청소년기 부모가 미취학·초등 부모보다 낮아

1

부모라는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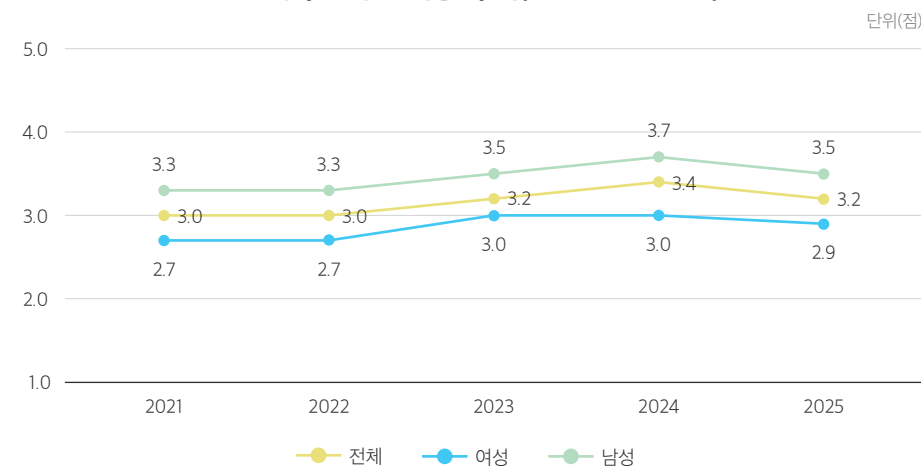


부모가 될 의향

(언젠가) 부모가 될 의향: 전체(2021-2025년)

- ‘(언젠가) 부모가 될 의향은 어느 정도입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자녀가 없는 20-40대 서울 시민의 **평균은 3.2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음. 최근 5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3점에서 2024년 3.4점으로 상승하다가, 2025년에 3.2점으로 **소폭 하락**하였음

‘언젠가 부모가 될 의향’ 추이(2021-2025년)



주

2021년은 '자녀를 낳을 의향',
2022년은 '내가 부모가 될 의향',
2023-2025년은 '(언젠가) 부모가 될 의향'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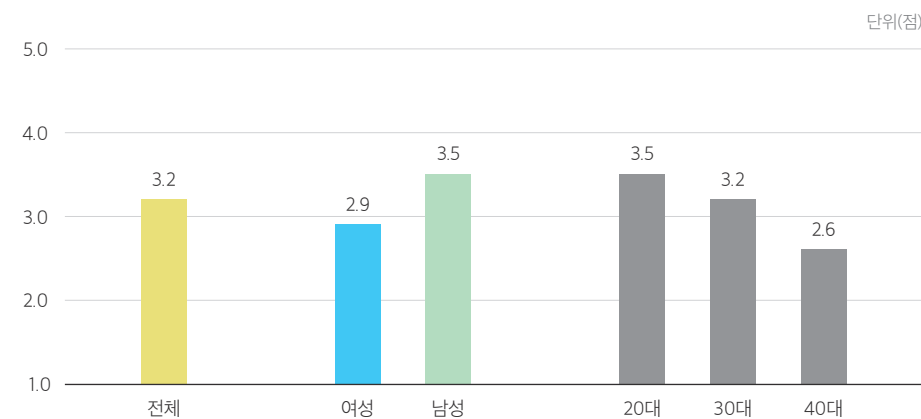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자녀가 없는 20-49세 응답자; 2021년 여성 413명, 남성 381명; 2022년 여성 440명, 남성 402명; 2023년 여성 412명, 남성 381명; 2024년 여성 402명, 남성 374명; 2025년 여성 437명, 남성 386명)

(언젠가) 부모가 될 의향: 전체, 성별, 연령대별

- 성별로는 **남성**(3.5점)이 여성(2.9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모가 될 의향이 더 있었음
- 연령대별로는 **20대**(3.5점), 30대(3.2점), 40대(2.6점) 순으로 ‘부모가 될 의향’이 더 있었고,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음

(언젠가) 부모가 될 의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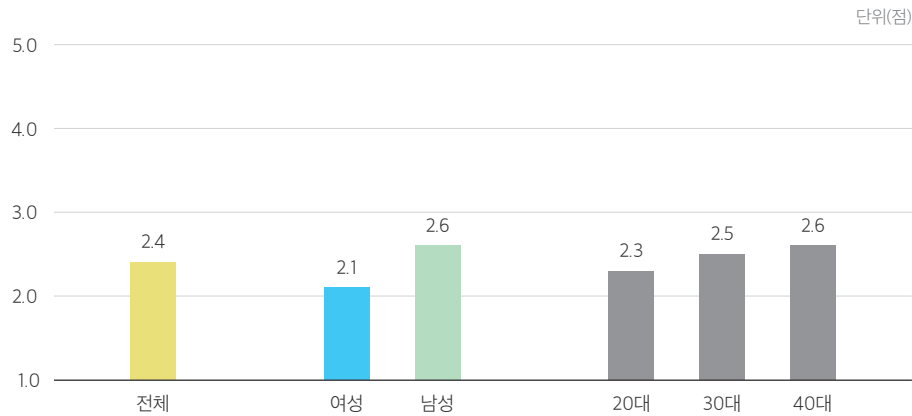
2025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없는 20-49세 응답자 823명)

신규 (결혼하지 않은 채로) 연인과 자녀를 가질 의향:

부모가 될 의향이 있는 전체, 성별, 연령대별

- ‘(결혼하지 않은 채로) 연인과 자녀를 가질 의향은 어느 정도입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현재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없는 20-40대이면서 부모가 될 의향이 ‘보통 이상’인 서울 시민의 평균은 2.4점으로 ‘별로 없다’(2점)와 ‘보통’(3점) 사이였음
- 성별로는 남성(2.6점)이 여성(2.1점)보다, 연령대별로는 40대(2.6점)가 20대(2.3점)보다 연인과 자녀를 가질 의향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

(결혼하지 않은 채로) 연인과 자녀를 가질 의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없는 20-49세이면서 부모가 될 의향이 보통 이상인 응답자 50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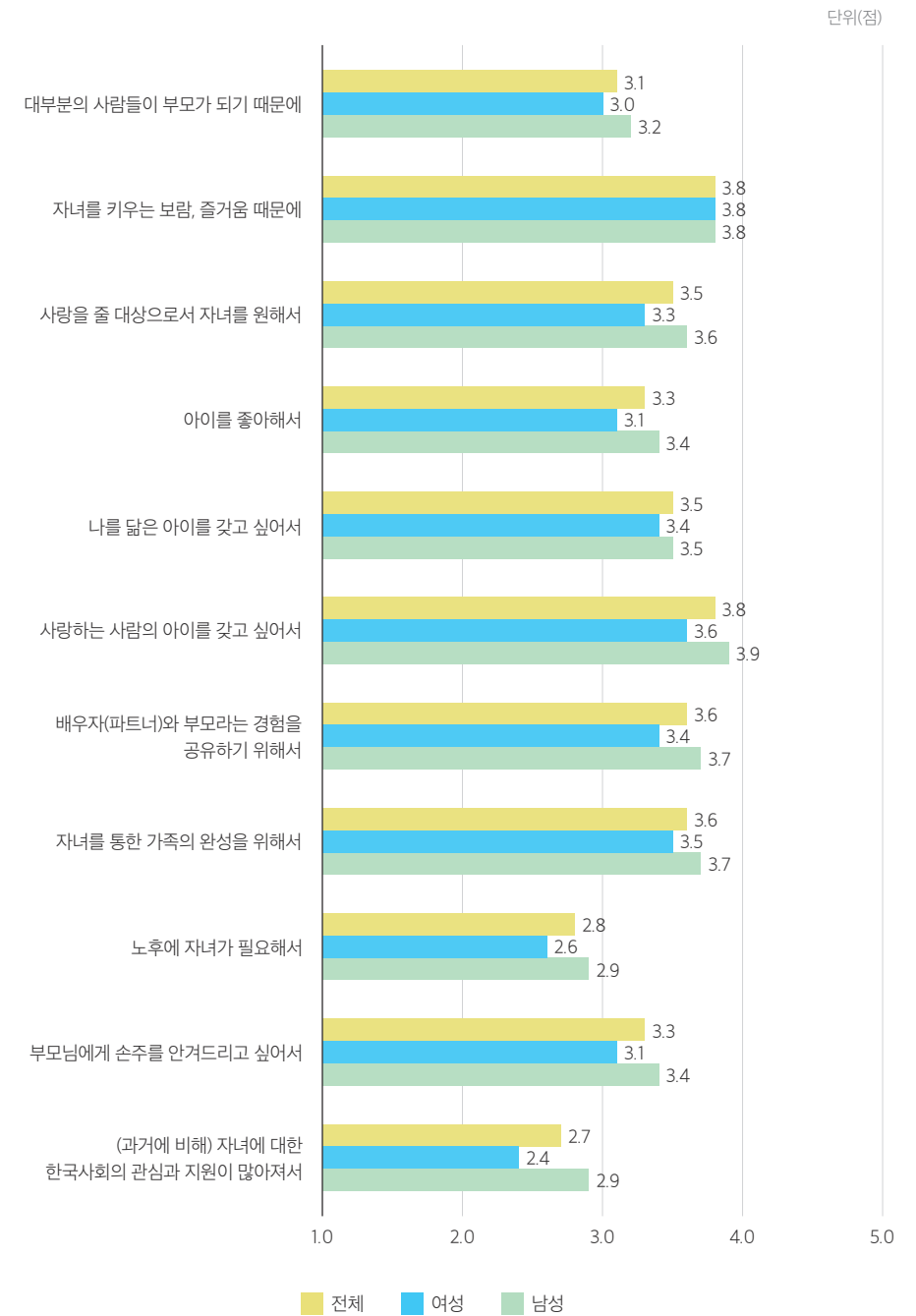


부모가 될 의향이 ‘있는’ 이유

부모가 될 의향이 ‘있는’ 이유: 전체 및 성별

- 부모가 될 의향이 보통 이상인 자녀가 없는 20-40대 응답자에게 ‘언젠가 부모가 될 의향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자녀를 키우는 보람, 즐거움 때문에’ (평균 3.8점),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갖고 싶어서’(3.8점) 문항의 동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성의 동의 수준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자녀를 키우는 보람, 즐거움 때문에’, ‘나를 닮은 아이를 갖고 싶어서’, ‘자녀를 통한 가족의 완성을 위해서’ 문항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언젠가 부모가 될 의향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없는 20-49세 응답자 중 부모가 될 의향에 대해 ‘보통이다’, ‘대체로 있다’, ‘많이 있다’를 선택한 여성 263명, 남성 325명)

1. 부모가 될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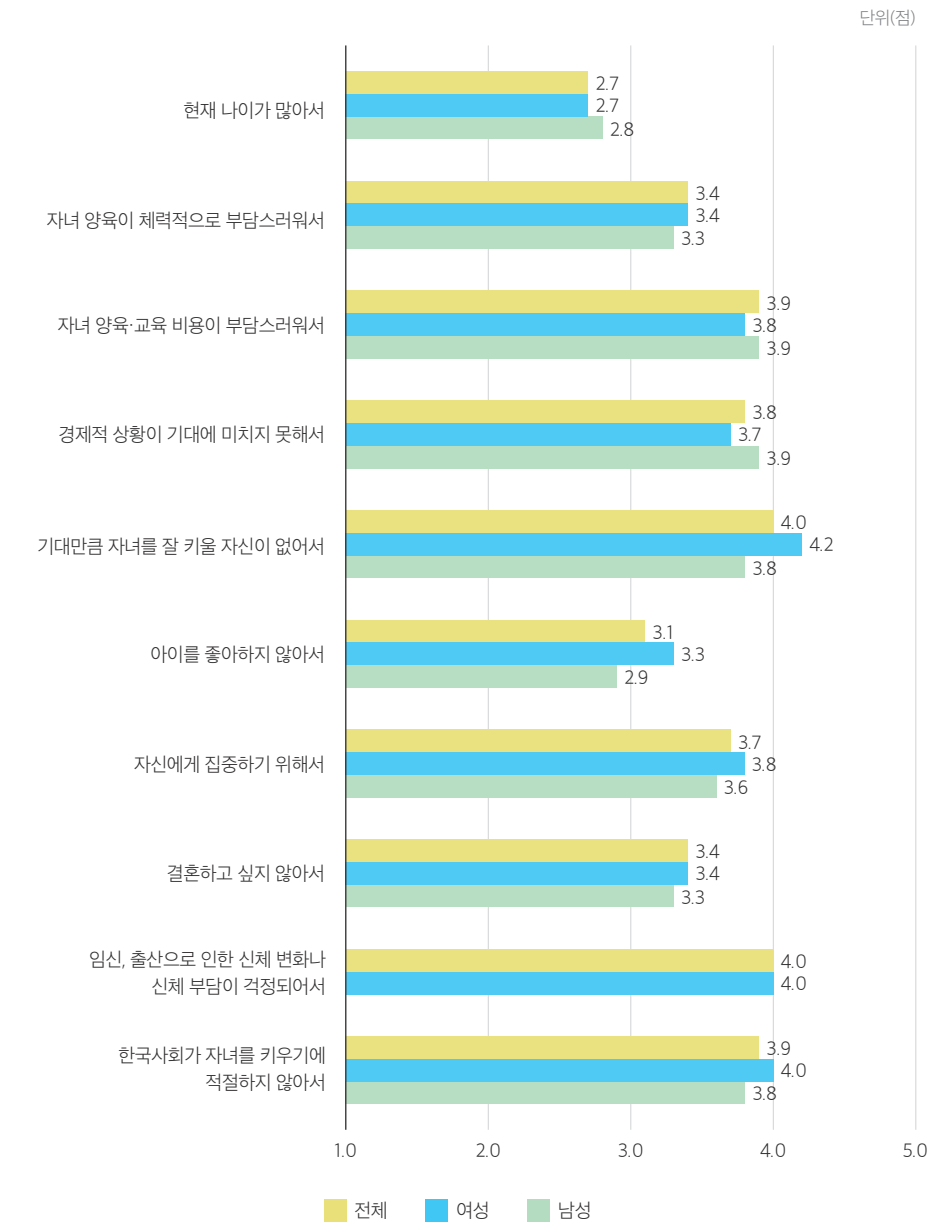


부모가 될 의향이 ‘없는’ 이유

부모가 될 의향이 ‘없는’ 이유: 전체 및 성별

- 부모가 될 의향이 보통 이하인 자녀가 없는 20~40대 응답자에게 ‘**부모가 될 의향이 없거나 보통인 이유는 무엇입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기대만큼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평균 4점)의 동의 수준이 가장 높았음
- 이어서 ‘**한국사회가 자녀를 키우기에 적절하지 않아서**’(3.9점), ‘**자녀 양육·교육비용이 부담스러워서**(예: 사교육)’(3.9점), ‘**경제적 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예: 소득, 주거)’(3.8점)와 같은 사회경제적 이유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부모가 될 의향이 없는 이유 중 **성별 차이가 큰 항목은 ‘기대만큼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여성 4.2점, 남성 3.8점),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여성 3.3점, 남성 2.9점)였음

부모가 될 의향이 없거나 보통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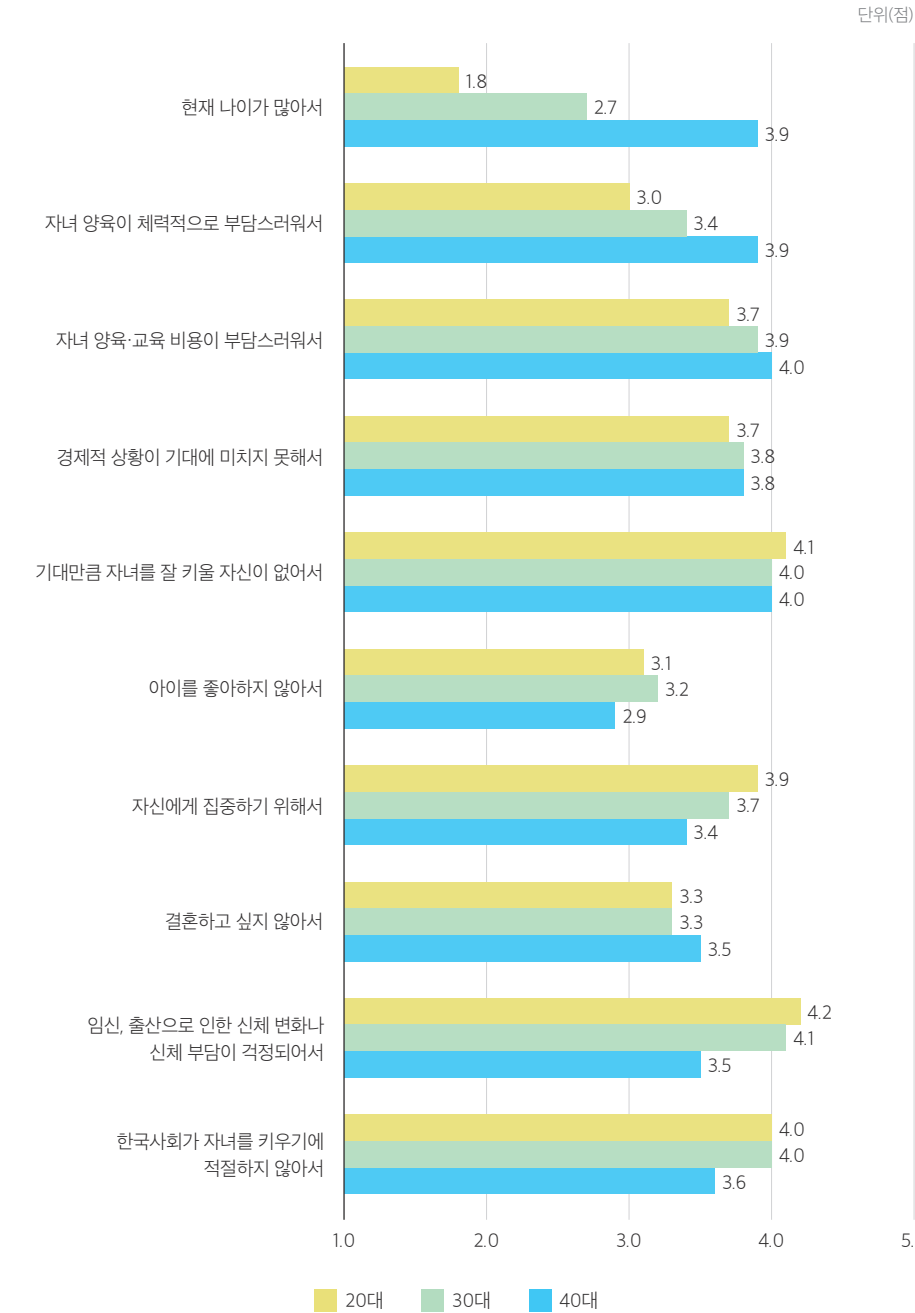
주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는 결혼한 적 없는 여성 231명, 남성 155명, '임신, 출산으로 인한 신체 변화나 신체 부담이 걱정되어서'는 여성 231명의 응답임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없는 20~49세 응답자 중 부모가 될 의향에 대해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를 선택한 여성 240명, 남성 159명)

부모가 될 의향이 ‘없는’ 이유: 연령대별

- **연령대별** 평균을 보면 **20대는 ‘임신, 출산으로 인한 신체 변화나 신체 부담이 걱정되어서’**(평균 4.2점)가 가장 높았고, **30대는 ‘임신, 출산으로 인한 신체 변화나 신체 부담이 걱정되어서’**(평균 4.1점)가 가장 높았고, **40대는 ‘자녀 양육·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워서**(예: 사교육)’(4점)와 ‘**기대만큼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4점)의 평균이 가장 높았음
- 여성만 응답한 ‘**임신, 출산으로 인한 신체 변화나 신체 부담이 걱정되어서**’ 항목의 평균은 20대(4.2점)가 가장 높았고 30대(4.1점), 40대(3.5점) 순이었음

부모가 될 의향이 없거나 보통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는 결혼한 적 없는 20대 144명, 30대 140명, 40대 102명의 응답임. '임신, 출산으로 인한 신체 변화나 신체 부담이 걱정되어서'는 여성 중 20대 91명, 30대 80명, 40대 69명의 응답임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없는 20~49세 응답자 중 부모가 될 의향에 대해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를 선택한 20대 145명, 30대 143명, 40대 111명)

1. 부모가 될 의향



서울맘케어시스템

서울시는 ‘서울맘케어시스템’을 통해 임산부 및 산모에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서울시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한다.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하고,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가 지급된다.

엄마 북(Book)돌음 사업

서울시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엄마아빠책(영아 육아정보서) 1권, 우리아이 첫 책 2권(그림책), 서울시 육아정책정보 안내책자를 제공하며,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다.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산모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급한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 원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다.

서울형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중에서 12세 이하(2012.7.1.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한 가정당 가사서비스 포인트 70만 원을 신청자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다.

자료 <https://www.seoulmomcar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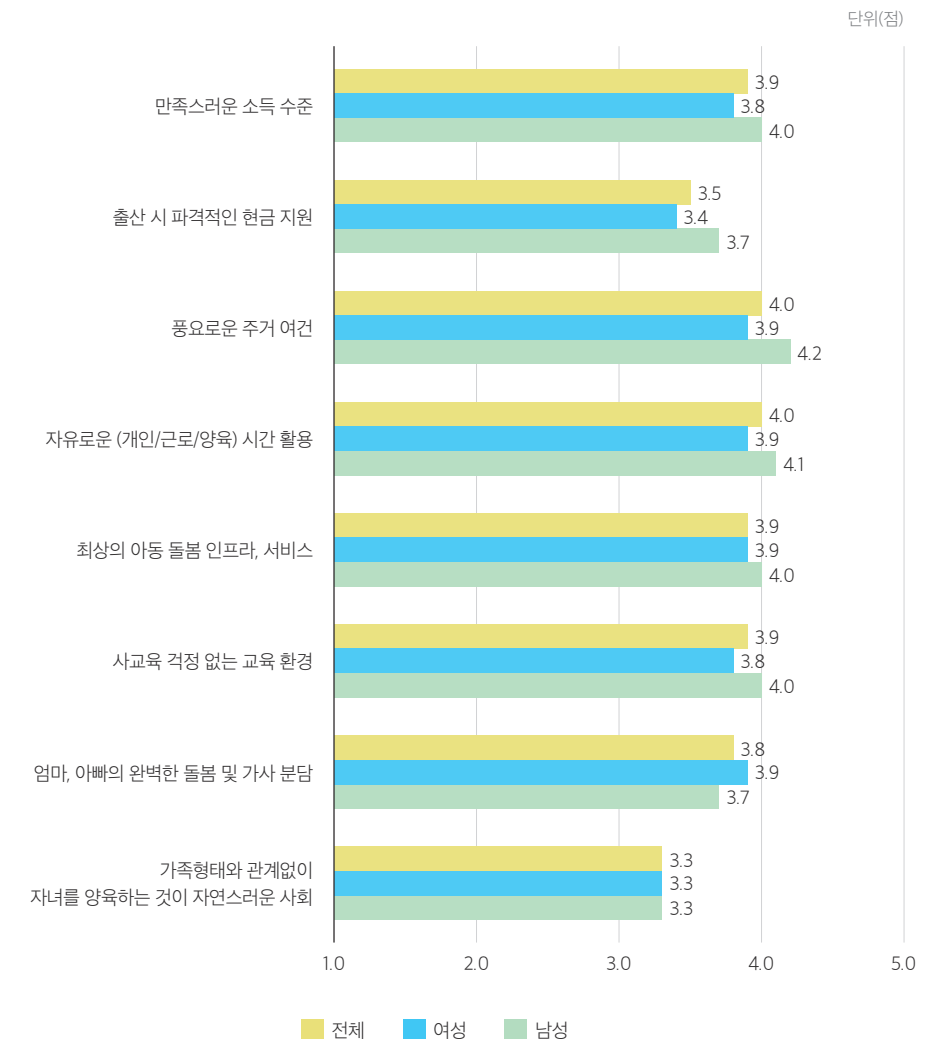


어떤 여건이 마련되면 부모가 될까?

이상적인 여건과 부모가 될 의향: 전체 및 성별

- 다음과 같은 **이상적인 여건**이 마련된다면,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의향**이 얼마나 생길 것 같습니까? (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자녀가 없는 20~40대 서울 시민은 **‘풍요로운 주거 여건’**(평균 4점), **‘자유로운 (개인/근로/양육) 시간 활용’**(4점), **‘최상의 아동 돌봄 인프라, 서비스’**(3.9점), **‘만족스러운 소득 수준’**(3.9점)이 확보된다면 부모가 될 의향이 약간 더 생길 것 같다고 하였음
- 성별로 보면 **여성은 ‘자유로운 (개인/근로/양육) 시간 활용’**(3.9점)과 엄마, 아빠의 완벽한 돌봄 및 가사 분담(3.9점) 등이, **남성은 ‘풍요로운 주거 여건’**(4.2점)의 평균이 가장 높았음
- **여성의** 평균이 남성보다 높은 항목은 **‘엄마, 아빠의 완벽한 돌봄 및 가사 분담’**(여성 3.9점, 남성 3.7점)이었음
- **남성의** 평균이 여성보다 높은 항목은 **‘풍요로운 주거 여건’**(여성 3.9점, 남성 4.2점), **‘만족스러운 소득 수준’**(여성 3.8점, 남성 4점), **‘사교육 걱정 없는 교육 환경’**(여성 3.8점, 남성 4점), **‘출산 시 파격적인 현금 지원’**(예: 1억 원 이상)(여성 3.4점, 남성 3.7점)과 같은 경제적 여건이었음

이상적인 여건이 마련된다면,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의향이 얼마나 생길 것 같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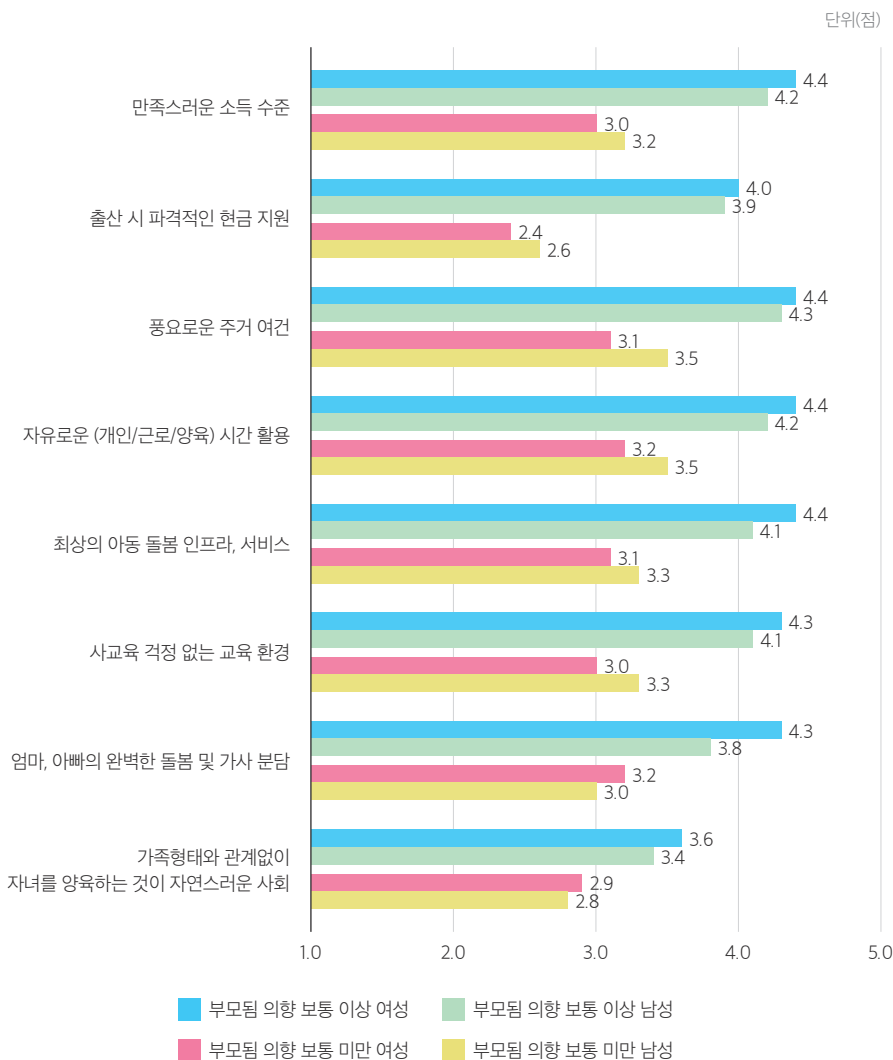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없는
20~49세 여성 437명, 남성 386명)

이상적인 여건과 부모가 될 의향: 부모가 될 의향 및 성별

- 부모가 될 의향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상적인 여건이 마련된다면,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의향이 얼마나 생길 것 같습니다?' (범위: 1-5점)에 대한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출산 시 파격적인 현금 지원'(예: 1억 원 이상)에서 차이가 두드러졌음. 부모가 될 의향이 '보통 이상' 집단(평균 4점)은 의향이 약간 생길 것 같다고 하였으나, 부모가 될 의향이 '보통 미만' 집단(2.4점)은 별로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하였음
- 부모가 될 의향 '보통 이상' 집단에서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엄마, 아빠의 완벽한 돌봄 및 가사 분담'(여성 4.3점, 남성 3.8점)에서 남녀 차이가 가장 컸음. 이외에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은 '자유로운 (개인/근로/양육) 시간 활용'(여성 4.4점, 남성 4.2점), '최상의 아동 돌봄 인프라, 서비스'(여성 4.4점, 남성 4.1점), '만족스러운 소득 수준'(여성 4.4점, 남성 4.2점)이었음
- 이와 달리 부모가 될 의향 '보통 미만' 집단에서의 성별 차이는 '풍요로운 주거 여건'(여성 3.1점, 남성 3.5점) 항목에서만 나타났음

이상적인 여건이 마련된다면,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의향이 얼마나 생길 것 같습니다?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없는 20-49세 중 부모가 될 의향이 '보통' 이상인 여성 263명, 남성 325명; '보통' 미만인 여성 174명, 남성 61명)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부모가 될 의향과 성별에 따라 저출생 정책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

2025년 서울가족서베이에서 '다음과 같은 이상적인 여건이 마련된다면,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의향이 얼마나 생길 것 같습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부모가 될 의향과 성별을 교차해서 살펴보았다. 부모가 될 의향이 보통 이상인 집단에서는 '이상적인 여건이 마련된다면' 여성의 부모가 될 의향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모가 될 의향이 보통 미만인 집단에서는 '이상적인 여건이 마련된다면' 남성의 부모가 될 의향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경향이였다.

전반적으로 부모가 될 의향이 보통 이상인 여성은 이상적인 여건이 충족될 경우 부모가 될 의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부모가 될 의향이 보통 미만인 여성은 이상적인 여건이 마련되더라도 부모가 될 의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였다.

부모가 될 의향에 따라 평균 차이가 크게 나타난 항목은 '출산 시 파격적인 현금 지원'(예: 1억 원 이상)이었다. 부모가 될 의향이 보통 이상인 집단에서는 '대체로 그렇다'(4점) 수준이었으나, 부모가 될 의향이 보통 미만인 집단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와 '보통'(3점)의 중간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금 지원 정책이 경제적 이유로 부모가 되는 것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부모가 될 의향이 낮은 집단에게는 유인 요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5 서울가족정책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내 출생신고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월 30만 원(2년간 총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거나 월 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서울시 소재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이다. 주거비는 선지출, 후지급 방식으로 지급되며, 서울시에서 매 회차(6개월 단위)마다 대상자에게 최대 180만 원을 직접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가구 대상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는 제외된다.

자료 몽땅정보만능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https://umppa.seoul.go.kr/hmpg/sprt/cnls/bzin/bzmgPageDetail.do?biz_mng_no=197DA8F773AAE8DCE063A6022162FF67



온라인 육아용품 할인몰 ‘탄생 응원몰’

서울시는 2025년 2월부터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저귀, 분유 등 출산·육아에 필요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육아용품 할인몰 ‘탄생 응원몰’을 운영하고 있다. 탄생 응원몰에서 판매되는 기저귀나 분유는 시중 온라인몰 대비 평균 17% 저렴하며, 일부 상품은 최대 44%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양육비용 부담 절감이라는 기획 목표에 맞춰, 입점 브랜드 수와 판매 물품 수, 결제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탄생 응원몰은 다자녀 가정에게 20% 할인쿠폰 및 최저가 보상제 도입 등 추가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자료 1) 이민재(2025.04.03). ‘출범’ 1개월 연착륙 중인 탄생 응원몰… 공공성 강화는 아직 ‘숙제’.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458715>

2) 마성배(2025.03.19). 서울시 ‘탄생 응원몰’ 혜택 확대… 다자녀 20% 할인쿠폰, 최저가 보상제 도입. 피앤피뉴스.

<https://www.gosiweek.com/article/1065603346810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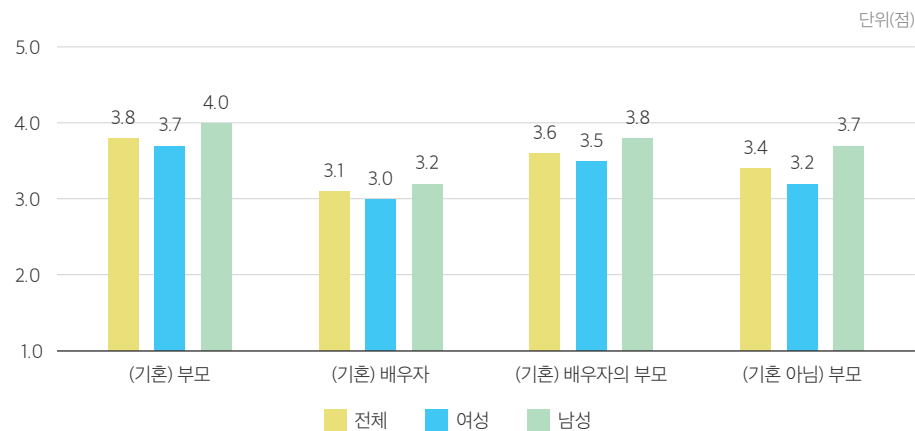


부모됨에 대한 주변의 기대

부모됨에 대한 주변의 기대: 전체, 배우자 유무별, 성별

- ‘나의 ○○○은/는 내게 자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생각한다’(범위: 1-5점)에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무자녀 유배우자**는 자신의 **부모**(평균 3.8점), **배우자의 부모**(3.6점), **배우자**(3.1점) 순으로 ‘자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음
- **무자녀 비혼(미혼)** 응답자가 인식한 자신의 부모의 기대(3.4점)는 무자녀 유배우자보다 다소 낮았음
- 성별로는 무자녀 비혼(미혼)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됨에 대한 자신의 부모의 기대를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였음. 무자녀 유배우자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나의 ○○○은/는 내게 자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생각한다



주

‘(기혼) 부모’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해 있으면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없는 123명(여성 70명, 남성 53명), ‘(기혼) 배우자’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없는 130명(여성 75명, 남성 55명), ‘(기혼) 배우자의 부모’는 배우자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해 있고 자녀가 없는 122명(여성 71명, 남성 51명), ‘(기혼 아님) 부모’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해 있으면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772명(여성 404명, 남성 368명)의 응답임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없는 130명,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없는 77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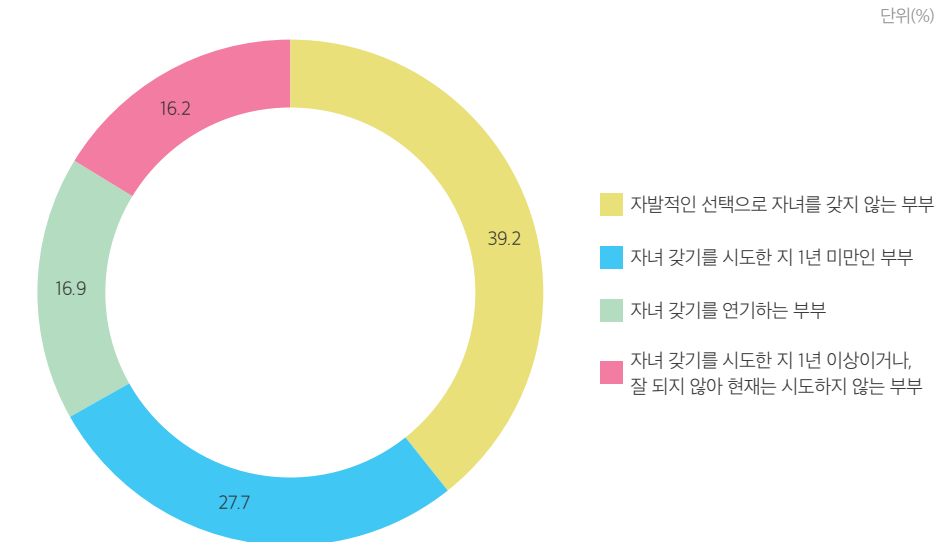


무자녀 부부 유형

무자녀 부부 유형: 전체

-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없는 20~64세 서울 시민에게 무자녀 부부의 유형을 제시하고 ‘**현재 귀하 부부는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자발적 무자녀 부부**는 **39.2%**, 자녀 갖기를 시도한 지 1년 미만인 무자녀 부부는 27.7%, 자녀 갖기를 연기하는 무자녀 부부는 16.9%, 자녀 갖기를 시도한 지 1년 이상이거나, 자녀 갖기가 잘되지 않아(예: 난임) 현재는 시도하지 않는 무자녀 부부는 16.2%였음

현재 귀하 부부는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으나 자녀가 없는 응답자 130명)



난임부부 관련 서울시 지원 정책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통해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난임부부(자연임신을 희망하나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을 받음, 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한의약 난임 치료 협약 비용의 90%를 지원한다(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 지원). 1인당 최대 2회(1년에 1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원상한액은 120만 원이다. 국가 및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서울시 거주, 사실혼 포함)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원횟수는 출산당 25회이며, 1회당 지원금액은 시술별로 상이하나, 인공수정 시술은 최대 30만 원, 신선배아 시술은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난자·정자 냉동 보관 의향

서울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난임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도가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한 금액을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한다.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

20-49세 여성(비혼(미혼) 포함,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을 대상으로 생애 1회,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지원한다.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의 50%(최대 2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관료, 입원비, 시술 후 진료비 등은 제외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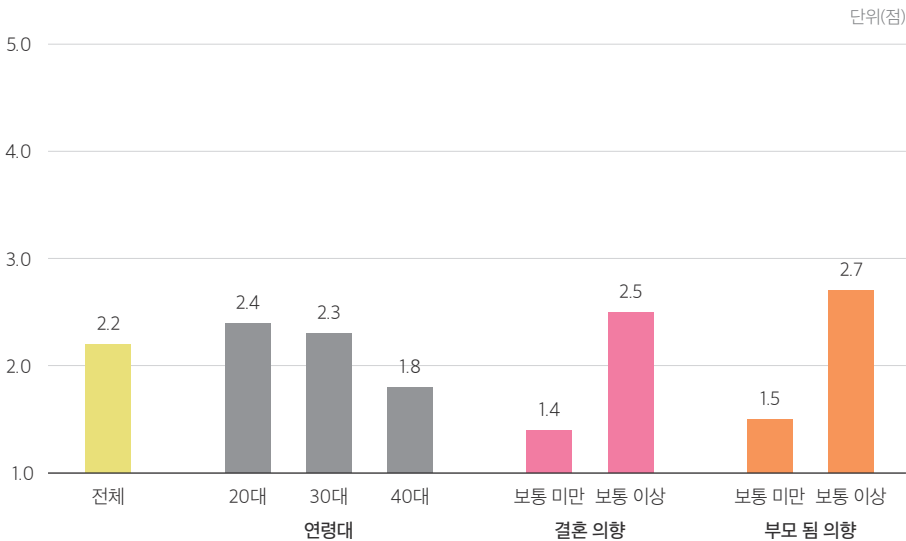
난임부부, 임신부,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비혼(미혼)모는 출산 후 7년 이내)를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리검사, 심리상담,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집단치료 프로그램, 산부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지원사업 정보. <https://seoul-agi.seoul.go.kr>

난자 냉동 보관 의향: 전체, 연령대별, 결혼 의향 및 부모가 될 의향 수준별

- ‘향후 임신을 위해 난자를 냉동 보관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20-40대 여성의 **평균은 2.2점**으로 ‘별로 없다(2점)’에 가까웠음. **부모가 될 의향이 보통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이 **2.7점**이었고, **결혼 의향이 보통 이상인** 경우의 평균은 2.5점으로 상대적으로 별로 없다(2점)와 보통(3점)의 중간 정도였음
- 연령대별로 **20대(2.4점)**와 **30대(2.3점)**가 40대(1.8점)보다 난자를 냉동 보관할 의향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

향후 임신을 위해 난자를 냉동 보관할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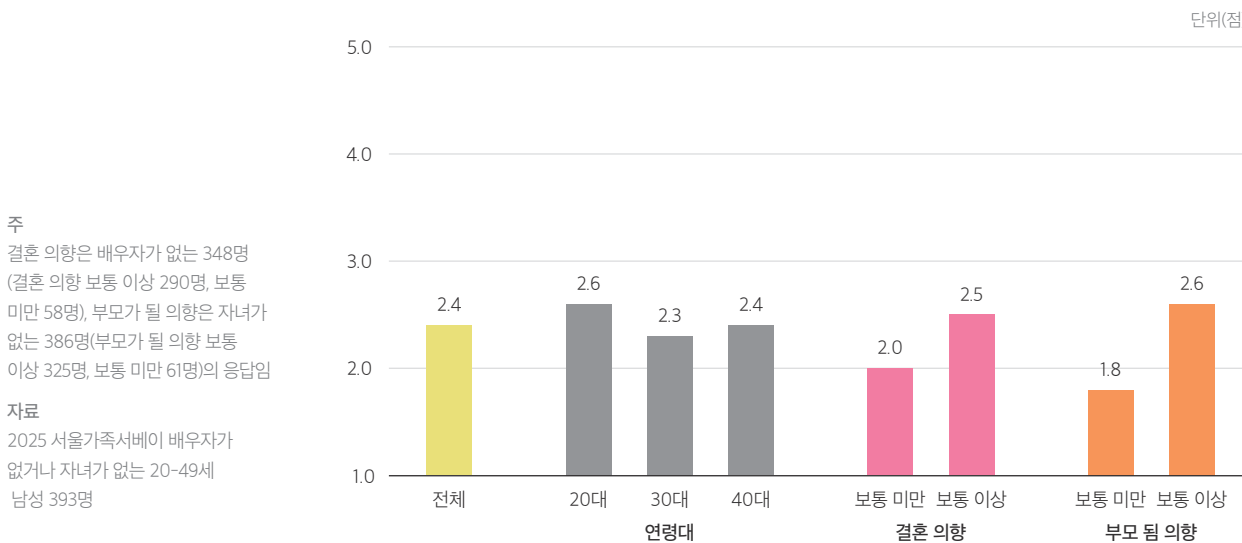
주
결혼 의향은 배우자가 없는 379명 (결혼 의향 보통 이상 289명, 보통 미만 90명), 부모가 될 의향은 자녀가 없는 437명(부모가 될 의향 보통 이상 263명, 보통 미만 174명)의 응답임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가 없는 20-49세 여성 442명

신규 정자 냉동 보관 의향: 전체, 연령대별, 결혼 의향 및 부모가 될 의향 수준별

- ‘향후 임신을 위해 정자를 냉동 보관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20-40대 남성의 **평균은 2.4점**으로 ‘별로 없다’(2점)와 ‘보통’(3점)의 중간이었음. **부모가 될 의향이 보통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이 **2.6점**이었고, **결혼 의향이 보통 이상인** 경우의 평균은 **2.5점**으로 상대적으로 별로 없다(2점)와 보통(3점)의 중간 정도였음
-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향후 임신을 위해 정자를 냉동 보관할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주
결혼 의향은 배우자가 없는 348명 (결혼 의향 보통 이상 290명, 보통 미만 58명), 부모가 될 의향은 자녀가 없는 386명(부모가 될 의향 보통 이상 325명, 보통 미만 61명)의 응답임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가 없는 20-49세 남성 393명

부모됨과 부모역할에 대한 생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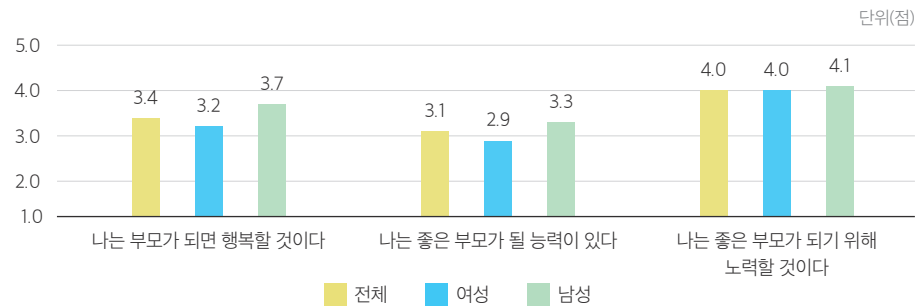


내가 부모가 된다면

부모됨에 대한 기대: 전체 및 성별

- ‘나는 부모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범위: 1-5점)에 대한 동의 수준을 질문한 결과, 자녀가 없는 20-40대 서울 시민의 평균은 **3.4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그렇다’(4점)의 중간이었음
- ‘나는 좋은 부모가 될 능력이 있다’(범위: 1-5점)에 대한 동의 수준 평균은 **3.1점**으로, ‘보통’(3점) 수준이었음
-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범위: 1-5점)에 대한 동의 수준 평균은 **4점**으로 ‘대체로 그렇다’(4점)에 가까웠음
- 모든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됨에 대한 기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

부모가 되면 어떨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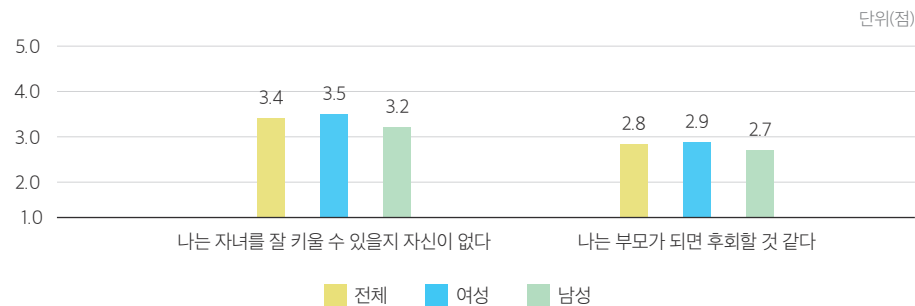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없는
20-49세 여성 437명, 남성 386명)

부모됨에 대한 불안: 전체 및 성별

- ‘나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범위: 1-5점)에 대한 동의 수준을 질문한 결과, 자녀가 없는 20-40대 서울 시민의 평균은 **3.4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그렇다’(4점)의 중간이었음
- ‘나는 부모가 되면 후회할 것 같다’(범위: 1-5점)에 대한 동의 수준 평균은 **2.8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음
-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됨에 대한 불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

부모가 되면 어떨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불안)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없는
20-49세 여성 437명, 남성 38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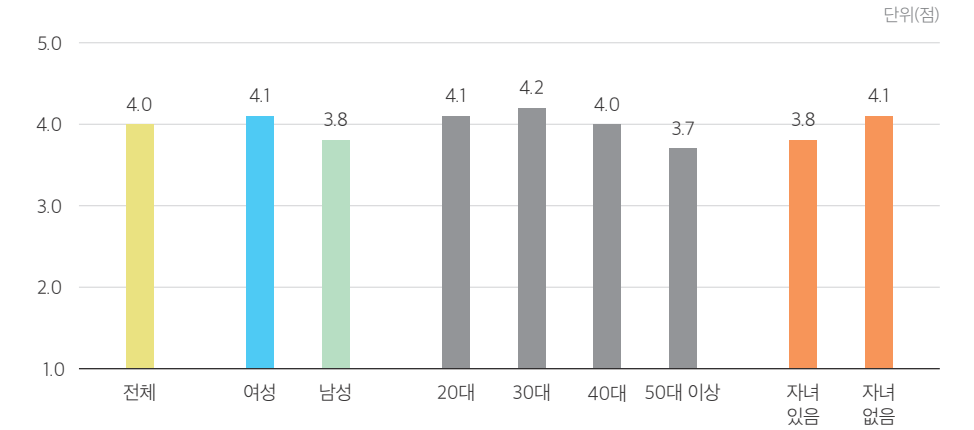


부모역할에 대한 태도

돌봄 부담: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자녀를 돌보는 것은 힘든 일이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4점**으로 ‘대체로 그렇다’(4점)에 가까웠음
- 성별로 여성(평균 4.1점)이 남성(3.8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연령대별로 **30대**(4.2점)와 **20대**(4.1점)는 40대(4점), 50대(3.7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녀 돌봄을 힘들다고** 생각하였음
- 자녀 유무별로 자녀가 없는 집단(4.1점)이 자녀가 있는 집단(3.8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자녀를 돌보는 것은 힘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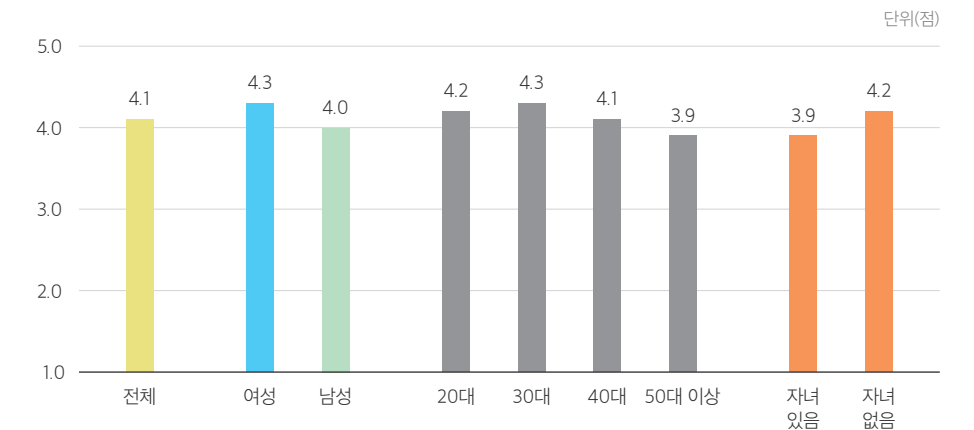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경제적 부담: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4.1점**으로 ‘대체로 그렇다’(4점)에 가까웠음
- 성별로 여성(평균 4.3점)이 남성(4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연령대별로 **30대**(4.3점)와 **20대**(4.2점)는 40대(4.1점), 50대(3.9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였음
- 자녀 유무별로 자녀가 없는 집단(4.2점)이 자녀가 있는 집단(3.9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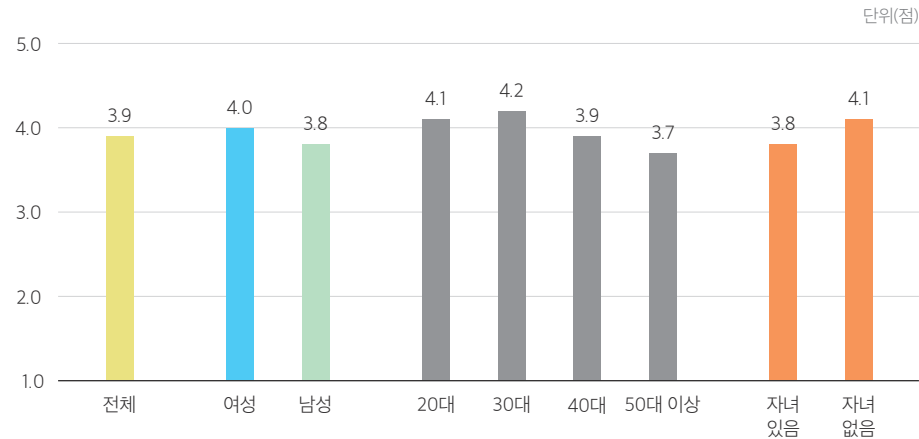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자율성 제약으로 인한 부담: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수 있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9점**으로 ‘대체로 그렇다’(4점)에 가까웠음
- 성별로 **여성**(평균 4점)이 남성(3.8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연령대별로 **30대**(4.2점)와 **20대**(4.1점)는 40대(3.9점), 50대(3.7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 자녀 유무별로 자녀가 없는 집단(4.1점)이 자녀가 있는 집단(3.8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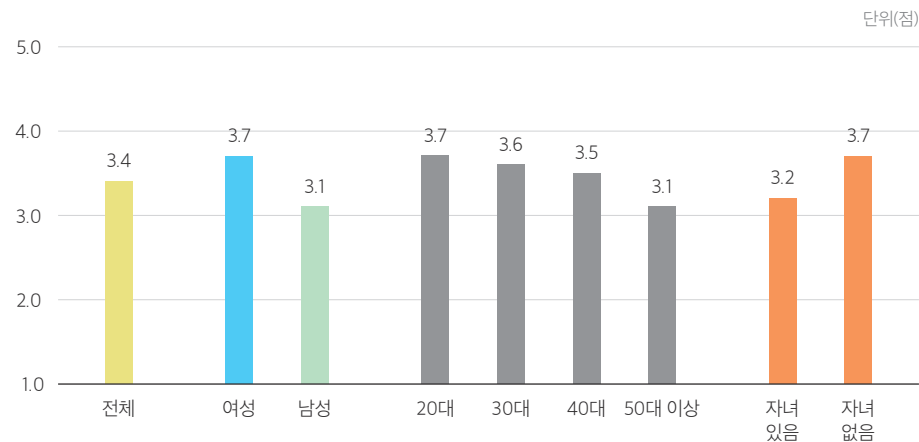


다양한 방식의 부모됨에 대한 태도

무자녀 부부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결혼 후 아이를 갖지 않기로 선택해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4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그렇다’(4점)의 사이였음
- 성별로는 **여성**(3.7점)이 남성(3.1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3.7점), **30대**(3.6점), **40대**(3.5점)가 50대 이상(3.1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없는 집단**(3.7점)이 자녀가 있는 집단(3.2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결혼 후 아이를 갖지 않기로 선택해도 괜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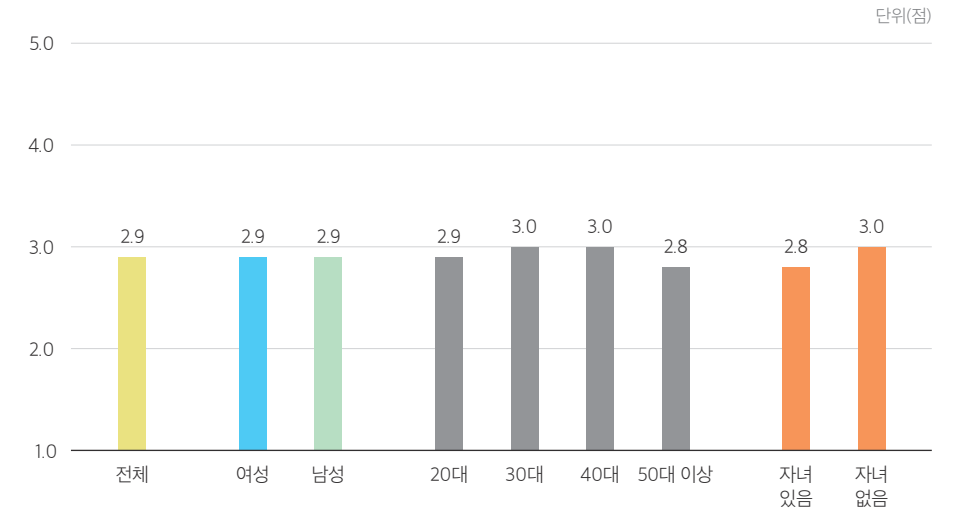


주
2025년 서베이 문항은 2024년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과 표현이 일부
다름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비혼 출산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져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2.9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음
-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없는 집단**(3점)이 자녀가 있는 집단(2.8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성별이나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져도 괜찮다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비혼 출산, 의향은 대체로 없지만 태도는 부정적이지 않아

2025 서울가족서베이에서 ‘결혼하지 않은 채로’ 연인과 자녀를 가질 **의향**(범위: 1-5점)의 평균 은 2.1점으로 ‘대체로 없음’에 해당하였다. 이 중 부모가 될 의향이 ‘보통 이상’으로 부모가 될 의향 이 있는 응답자의 평균도 2.4점으로, ‘대체로 없음’(2점)과 ‘보통’(3점) 사이로 낮은 수준이었다. 한 편, 비혼 출산에 대한 **태도**를 질문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져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대 한 전체 응답자의 동의 수준은 평균 2.9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되려는 의향은 별로 없지만,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은 상대적 으로 수용적임을 보여 준다.

특히 여성의 경우 비혼 출산에 대한 태도(평균 2.9점)와 비혼 출산 의향(평균 2.1점)의 차이가 큰 편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태도(평균 2.9점)와 비혼 출산 의향(평균 2.3 점)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나 20대가 비혼 출산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 방적이지만 실제 자신의 삶에서는 비혼 출산에 따르는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양육 부담 등 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논의 심화 필요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혼외(비혼) 출산 비율은 2015년 1.9%에서 2020년 2.5%, 2024년 5.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각 연도). 최근 유명인이 정자 기증을 통해 비혼 출산한 사례나 비혼 파트너가 출산한 사례가 보도되면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비혼 출산에는 정자 기증 등을 통한 비혼여성의 단독 출산과 비혼 동거 커플의 출산이 모두 포함된다. 두 유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적, 정책적 측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혼여성 단독 출산	비혼 동거 커플 출산
법적 부모	여성 개인	여성 개인 파트너의 '인지(認知)' 필요
시험관 시술비 지원	X	X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O (여성 개인)	O (여성 개인), 파트너 X
한부모 관련 지원	O (단독양육)	X (공동양육)

2025 서울가족서베이에 따르면,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가져도 괜찮다'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은 평균 3점으로 지난해(2.8점)보다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 시민의 태도가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적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인공수정 시술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나, 개인 삶의 다양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입장과, 시험관 시술을 통한 비혼 출산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좀 더 심화된 사회적,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1) 김민주(2022.09.30.). 산부인과학회 "비혼여성 시험관 시술 안돼" 인권위 권고 거부.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460>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 제19조,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 <https://www.law.go.kr/>

해외 사례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미국, 일본 비혼 출산 관련 정책

해외 주요 국가에서 비혼여성 및 비혼 동거 커플을 대상으로 체외 수정 시술(in vitro fertilization, 이하 시험관 시술)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프랑스**: 2021년 법률 개정으로 비혼여성과 동성 커플도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시험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성은 만 43세 이하여야 하며, 비용은 프랑스 공공의료 시스템에서 지원된다.
- **덴마크**: 2007년 '보조생식법'이 개정되면서 혼인 여부 및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18-40세의 모든 여성이 공공의료 영역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덴마크는 임신·출산이 무상의료 범위에 포함되며, 비혼여성도 부부나 커플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스웨덴**: 2016년부터 비혼여성도 국가 지원을 받아 시험관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 서부 지역에서는 37세 미만 여성으로 대상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비혼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지원하는 지역 예산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민간 보험에 따라 시험관 시술 보장 여부가 상이하다. 일부 주는 민간 보험에서 생식 보조 지원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시험관 시술의 개인 부담금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 **일본**: 2022년부터 시험관 시술을 불임 치료의 일환으로 지정하여 공공의료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43세 여성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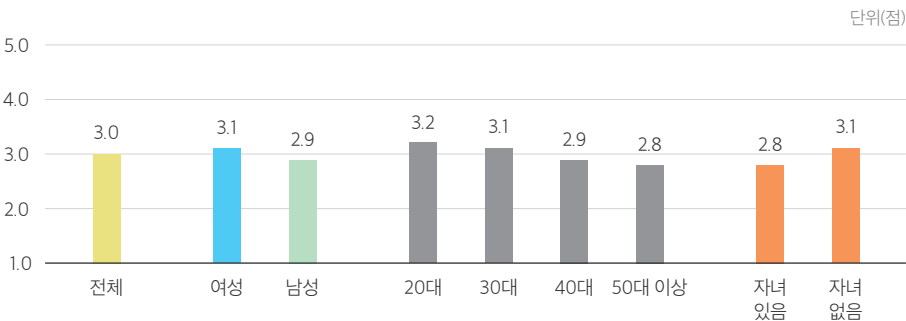
시험관 시술비 국가 지원 여부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미국	일본
비혼여성	O	O	O	X	X
비혼 동거 커플	O	O	O	X	X

자료 1) RFI. (2021, June 29). Lesbians, single women get access to under new French law. <https://www.rfi.fr/en/france/20210629-lesbians-single-women-to-get-access-to-ivf-under-new-french-law-pma-fertility>
 2) Kozłowska, G. (2025, March 1). Don't give up hope for a biological baby: How to get fertility support in Denmark. Last Week IN Denmark. <https://lwid.dk/dont-give-up-hope-for-a-biological-baby-how-to-get-fertility-support-in-denmark/>
 3) BBC. (2021, May 2). Sweden's 'broken' IVF promise to single women. <https://bbc.com/news/world-europe-56859426>
 4) Weigel, G., Ranji, U., Long, M., & Salganicoff, A. (2020, September 15). Coverage and use of fertility services in the U.S. KFF. <https://www.kff.org/womens-health-policy/coverage-and-use-of-fertility-services-in-the-u-s>
 5) 共同通信社. (2021, December 15). 体外受精、女性 4 3 歳未満 不妊治療の保険適用 事実婚も、政府 22 年度実施. <https://www.rosei.jp/readers/article/81283>

정자 기증 출산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가져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점**으로 ‘보통’(3점) 수준이었음
- 성별로는 **여성**(3.1점)이 남성(2.9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고, 연령대별 동의 수준은 **20대**(3.2점), 30대(3.1점), 40대(2.9점), 50대 이상(2.8점) 순이었음
-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없는 집단**(3.1점)이 자녀가 있는 집단(2.8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가져도 괜찮다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해외 사례



미국, 영국 정자은행

전 세계적으로 정자은행(Sperm Bank)을 통해 임신하고 부모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자은행은 정자를 보관하고 제공하는 기관으로, 비혼여성, 동성 커플, 난임부부 등 임신이 어려운 다양한 이들에게 출산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해외에서는 정자은행이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윤리적 기준과 첨단 생식 보조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다음은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자은행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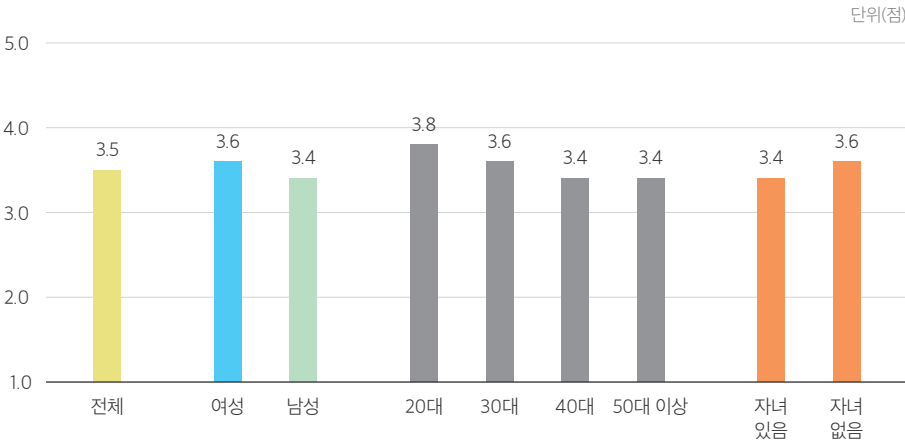
- **미국:** 민간 정자은행 California Cryobank가 전 세계 40개국으로부터 정자를 주문받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기증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자녀 또한 18세 이후 기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증자는 정자 제공 전 법적 부모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 **영국:** 공공 보건 의료 시스템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정자기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증 자격은 18-45세의 건강한 남성으로, 기증은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정자 기증 시, 생식 및 배아학 법적 규제 기관(HFEA,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의 라이선스를 받은 클리닉을 통해야 생부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가 18세가 되면 기증자의 신원(이름, 출생지, 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한국:** 현재 공식적인 정자은행은 없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의 동의하에 인공수정이 가능하다. 이때 배우자란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에서 비혼여성이나 동성 커플, 비혼 동거 커플 등이 정자를 제공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료 1) California Cryobank. <https://www.cryobank.com/> / 2) NHS Whittington Health. <https://www.spermdonation.nhs.uk/>
3) Human Fertilisation & Embryology Authority. <https://www.hfea.gov.uk/>
4) Ellwood, M. (2025, March 3). Who broke the sperm bank?.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350c3ebe-5afe-41c0-a90a-adc70e3ab771>

입양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입양한 자녀도 직접 낳은 자녀만큼 잘 키울 수 있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5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그렇다’(4점)의 사이였음
- 성별로는 **여성**(3.6점)이 남성(3.4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3.8점), 30대(3.6점), 40대(3.4점), 50대 이상(3.4점) 순으로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없는 집단**(3.6점)이 자녀가 있는 집단(3.4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입양한 자녀도 직접 낳은 자녀만큼 잘 키울 수 있다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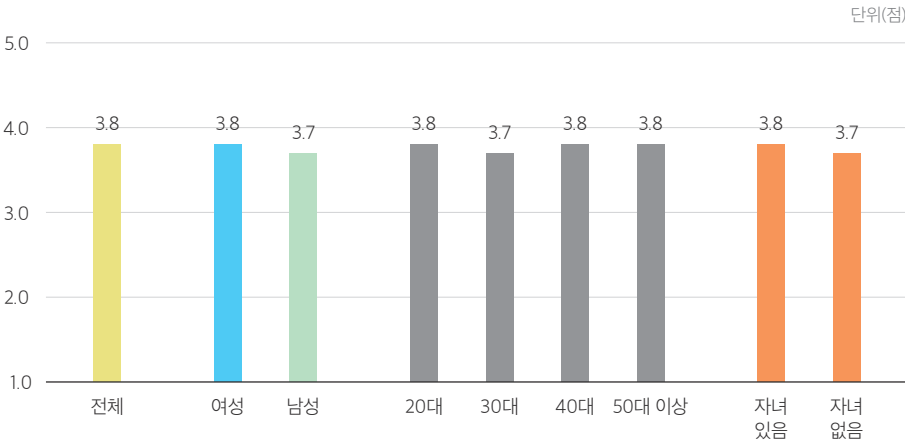


집중적
부모역할에
대한 태도

최고의 양육(교육) 환경 제공: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부모는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최고의 양육(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3.8점**으로 ‘대체로 그렇다’(4점)에 가까웠음
-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있는 집단**(3.8점)이 자녀가 없는 집단(3.7점)보다 동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음
- 성별,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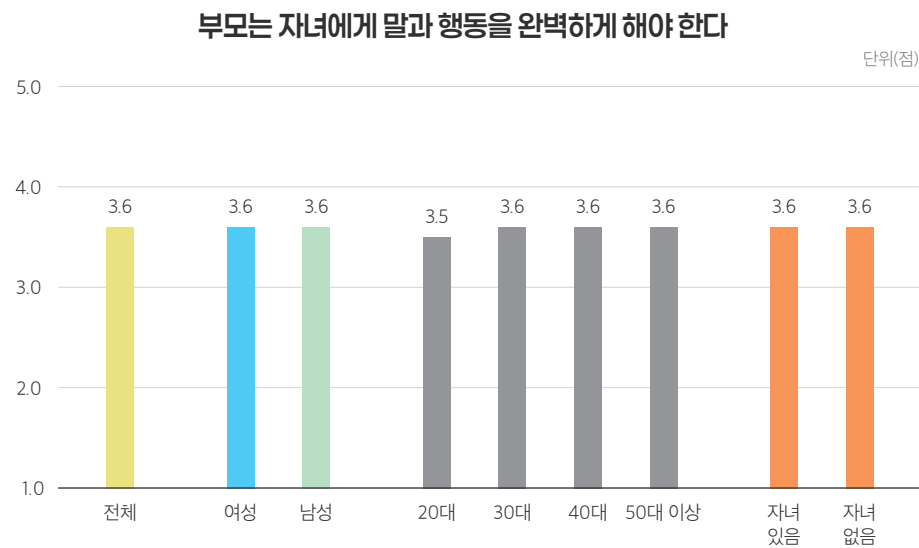
부모는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최고의 양육(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완벽한 말과 행동: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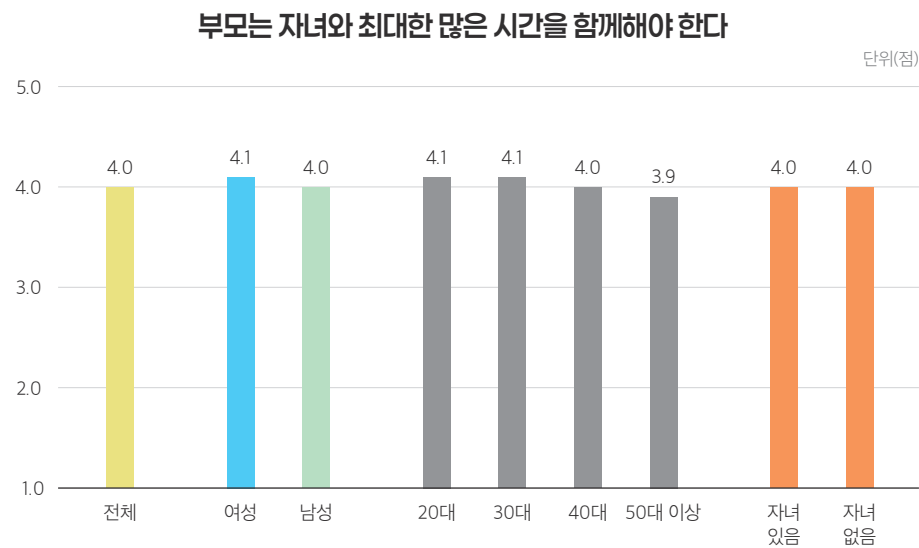
- ‘부모는 자녀에게 말과 행동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은 **평균 3.6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그렇다’(4점)의 중간이었음
-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최대한 많은 시간 공유: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부모는 자녀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해야 한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은 **평균 4점**으로 ‘대체로 그렇다’(4점) 수준이었음
- 성별로는 **여성**(4.1점)이 남성(4점)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 및 30대**(4.1점)가 50대 이상(3.9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음
- 자녀 유무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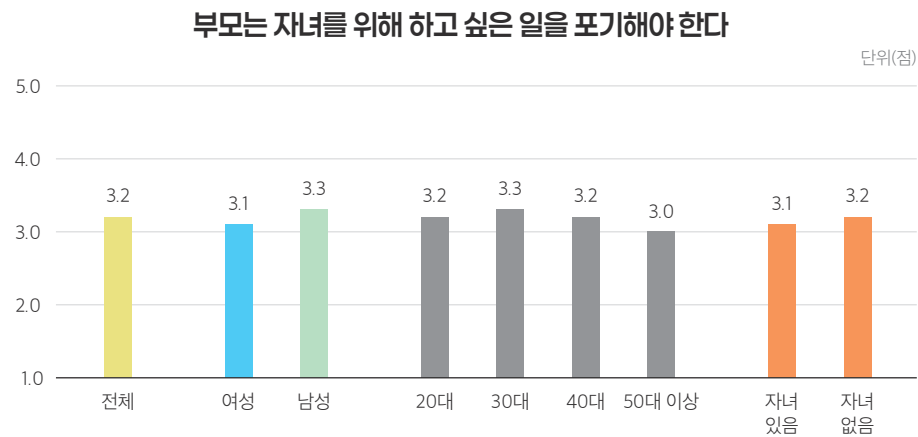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아이에게 잘못?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응답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하고 싶은 일 포기: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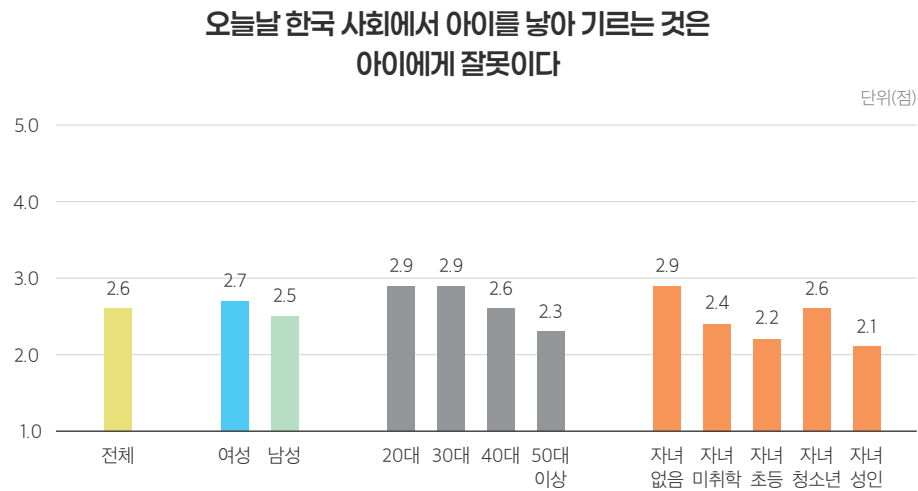
- ‘부모는 자녀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한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은 **평균 3.2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음
- 성별로는 **남성**(3.3점)이 여성(3.1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3.3점)와 **40대 및 20대**(3.2점)의 동의 수준이 50대 이상(3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
- 자녀 유무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아이에게 잘못?: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아이에게 잘못이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 평균은 **2.6점**으로, ‘보통’(3점)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 성별로는 **여성**(2.7점)이 남성(2.5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 및 30대**(2.9점)의 동의 수준이 40대(2.6점), 50대 이상(2.3점)보다 높았음
- 자녀가 없는 집단의 동의 수준이 2.9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녀 청소년’(2.6점), ‘자녀 미취학’(2.4점), ‘자녀 초등’(2.2점), ‘자녀 성인’(2.1점) 집단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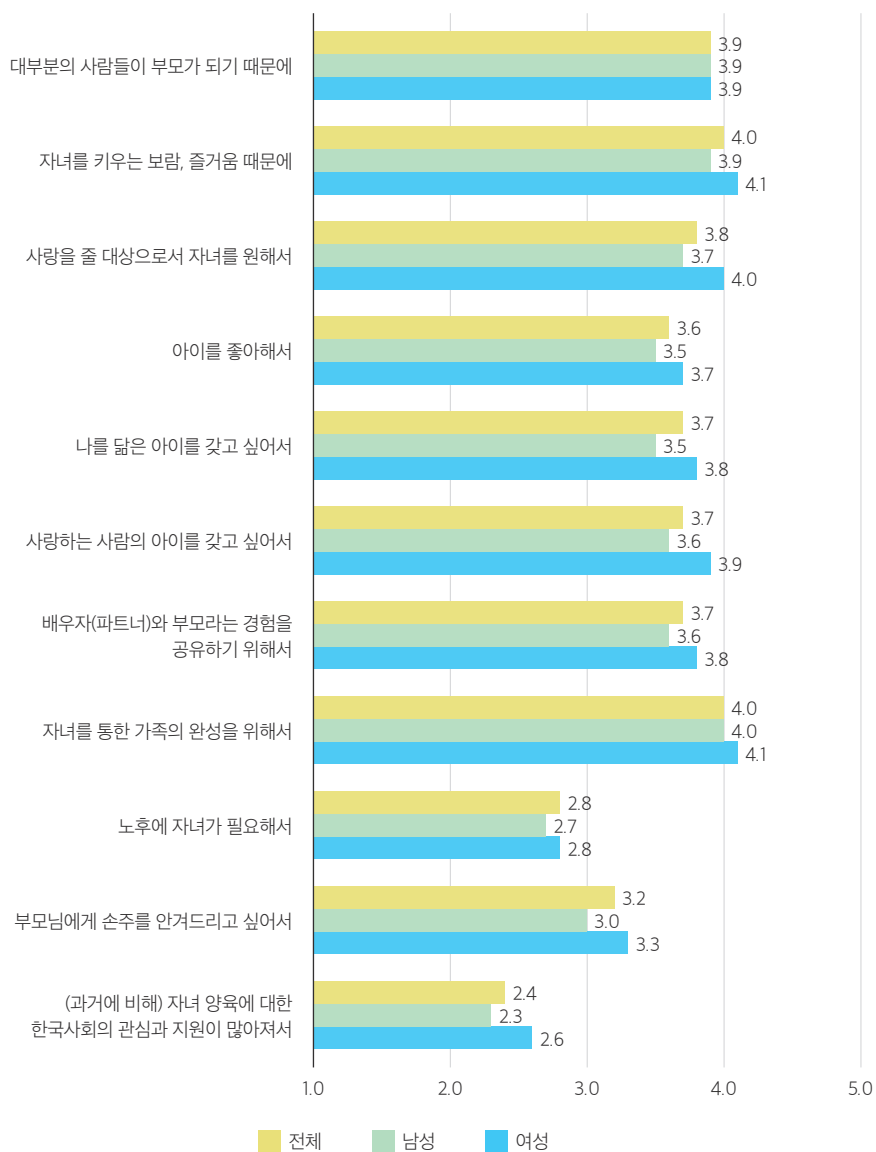
부모가 된 이유

부모가 된 이유: 전체, 성별

- ‘자녀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서울시 부모의 응답은 ‘자녀를 통한 가족의 완성을 위해서’(평균 4점), ‘자녀를 키우는 보람, 즐거움 때문에’(4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가 되기 때문에’(3.9점)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자녀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많아져서’에 대한 동의 수준은 2024년 2.1점에서 2025년에 2.4점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자녀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점)



주
(‘과거에 비해’) 자녀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많아져서’ 항목은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생 자녀가 있는
227명의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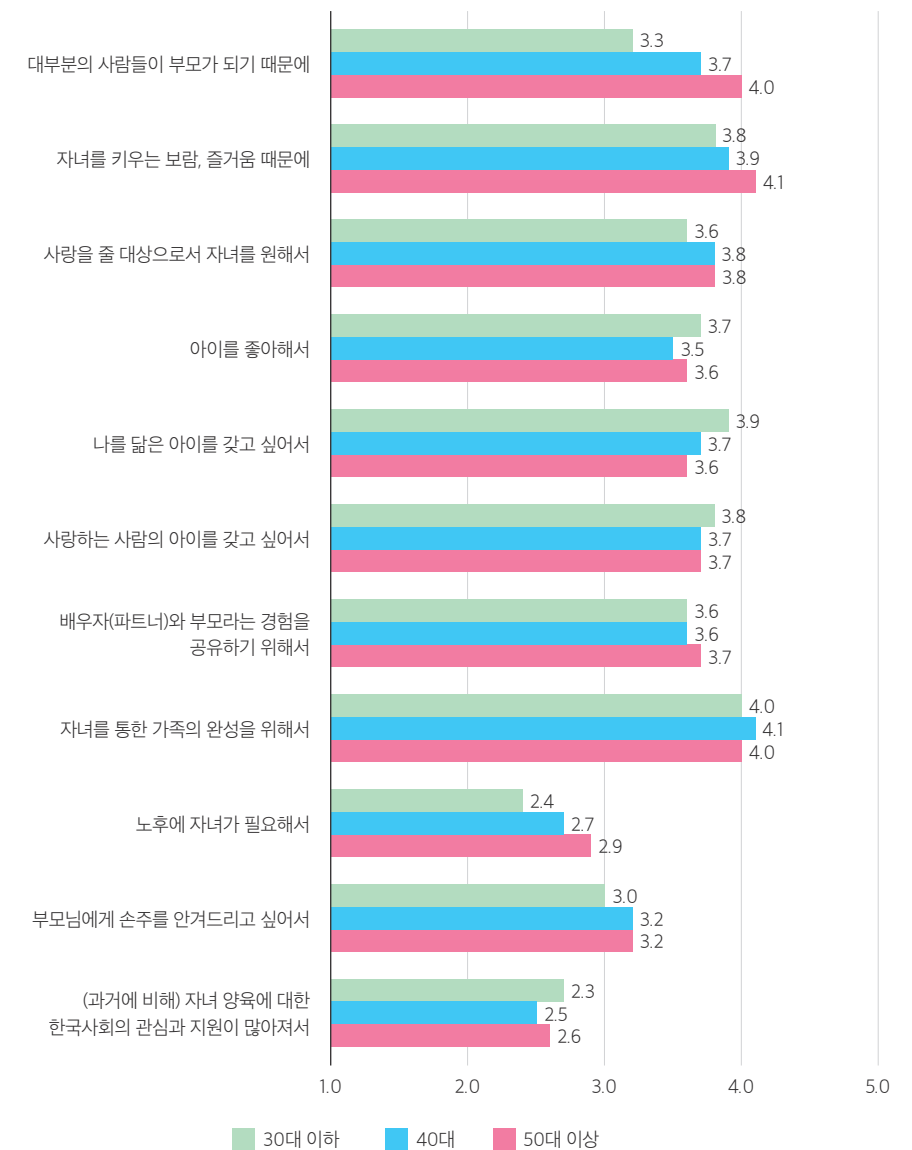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자녀가 있는 응답자 721명)

부모가 된 이유: 연령대별

-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가 되기 때문에’**(50대 이상 4점, 40대 3.7점, 30대 이하 3.3점)에 더 동의하였고, **‘자녀를 키우는 보람, 즐거움 때문에’**서도 50대 이상(4.1점)은 40대(3.9점)와 30대 이하(3.8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이외에도 ‘노후에 자녀가 필요해서’(예: 부양, 돌봄, 정서적 의지)’에서도 연령대별 차이가 유의했음

자녀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점)



주
(‘과거에 비해’) 자녀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많아져서’ 항목은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생 자녀가 있는
30대 이하 65명, 40대 133명,
50대 이상 29명의 응답임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자녀가 있는 응답자 721명)



부모로서의 행복과 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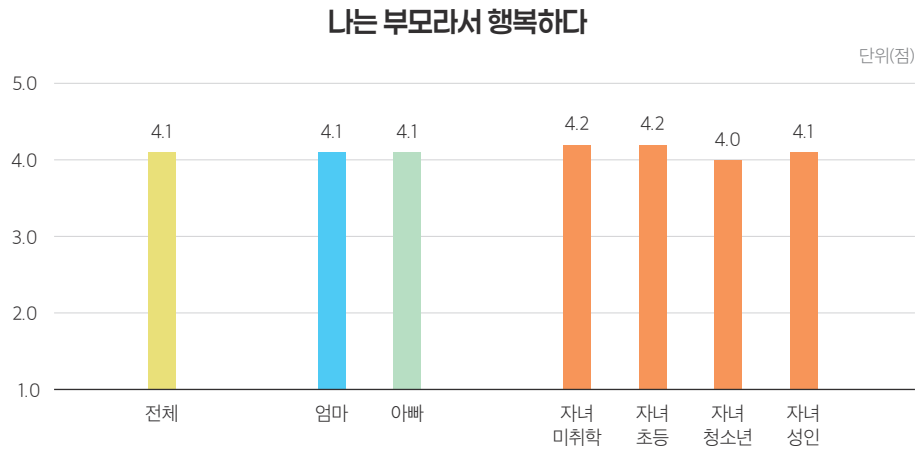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
(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녀 성인'
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응답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자녀가 있는 응답자 721명)

부모로서의 행복: 부모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나는 부모라서 행복하다'(범위: 1-5점)에 대한 서울시 부모의 동의 수준 평균은 **4.1점**으로 '대체로 그렇다'(4점)에 가까웠음

· 엄마와 아빠의 차이, 자녀 발달단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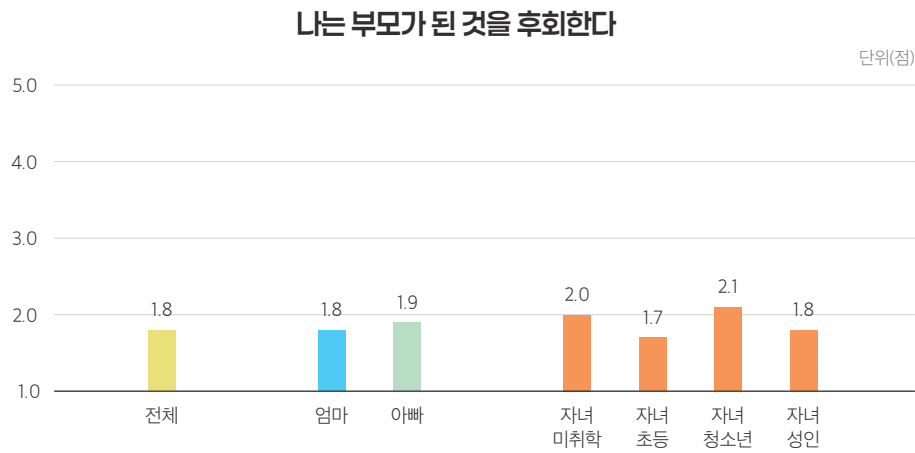


부모로서의 후회: 부모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나는 부모가 된 것을 후회한다'(범위: 1-5점)에 대한 서울시 부모의 동의 수준 평균은 **1.8점**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2점)에 가까웠음

· 자녀 발달단계별로 **청소년 자녀 부모**(2.1점)의 평균이 초등 자녀 부모(1.7점) 또는 성인자녀 부모(1.8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음

· 엄마와 아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
(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응답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자녀가 있는 응답자 721명)



부모효능감: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효능감: 부모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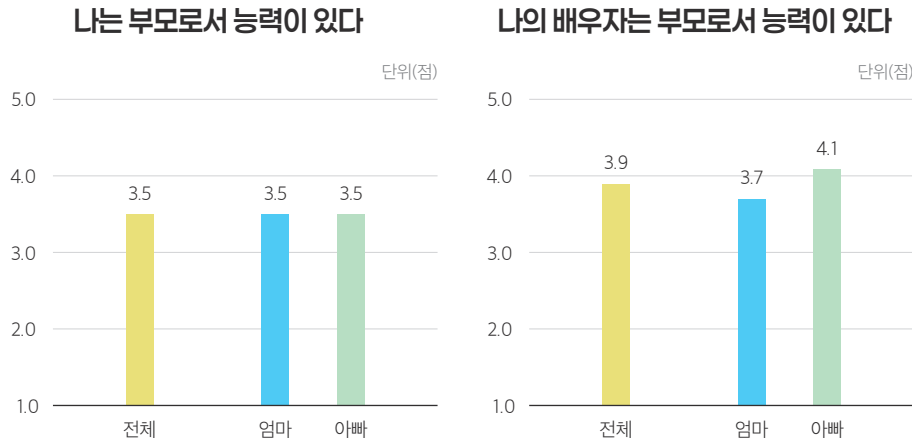
· '나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범위: 1-5점)에 대한 서울시 부모의 동의 수준 평균은 **3.5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그렇다'(4점)의 사이였음

· 엄마와 아빠의 차이 및 자녀 발달단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나의 배우자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범위: 1-5점)에 대한 배우자가 있는 서울시 부모의 동의 수준 평균은 **3.9점**으로 '대체로 그렇다'(4점)에 가까웠음. 즉, 본인의 부모로서의 능력보다 **배우자의 부모로서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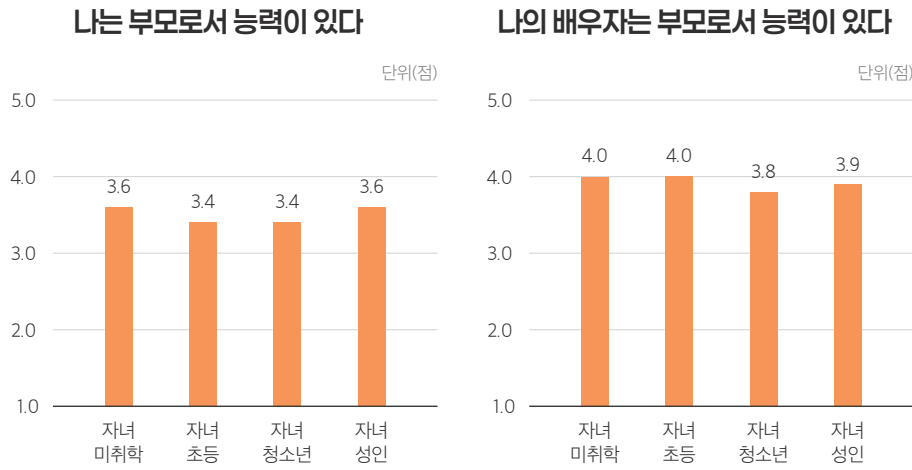
· 성별로는 아빠(4.1점)가 엄마(3.7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아, **아빠가 배우자(엄마)의 부모로서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였음**

· 자녀 발달단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주
1)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
세 이하(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녀 성인'은 첫째 자녀가 19세
이상인 응답자
2) '나의 배우자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엄마 318명, 아빠 328명, 미취학
89명, 초등 75명, 청소년 124명,
성인 358명의 응답임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자녀가 있는 응답자 721명,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응답자 64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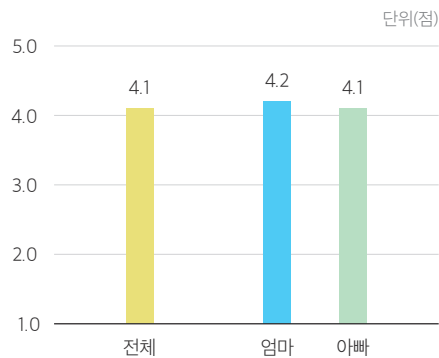


좋은 부모가 되려는 노력: 본인 및 배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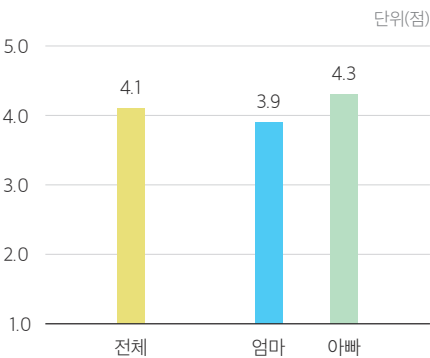
본인 및 배우자의 좋은 부모가 되려는 노력: 부모 전체, 성별

-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범위: 1-5점)에 대한 서울시 부모의 동의 수준 **평균은 4.1점**으로 ‘대체로 그렇다’(4점)에 가까웠음
- 엄마와 아빠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나의 배우자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범위: 1-5점)에 대한 배우자가 있는 서울시 부모의 동의 수준 **평균은 4.1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였음
- 성별로는 아빠(4.3점)가 엄마(3.9점)보다 ‘나의 배우자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동의하는 수준이 높아, **아빠가 배우자(엄마)의 노력을 더 높게 평가하였음**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나의 배우자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주

- 1) ‘나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는 자녀가 있는 엄마 360명, 아빠 361명의 응답임
- 2) ‘나의 배우자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엄마 318명, 아빠 328명의 응답임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
(자녀가 있는 응답자 721명,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응답자 64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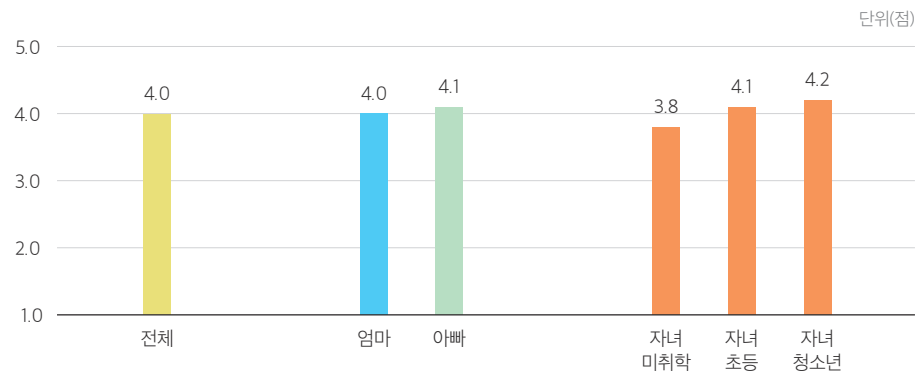


자녀가 실패하지 않는 것은 중요?

신규 자녀가 실패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문제: 18세 이하의 부모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자녀가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문제이다’(범위: 1-5점)에 대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서울시 부모의 동의 수준 **평균은 4점**으로 ‘대체로 그렇다’(4점)에 해당하였음
-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청소년 자녀 부모(4.2점)**와 **초등 자녀 부모(4.1점)**가 미취학 자녀 부모(3.8점)보다 동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음
- 엄마와 아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자녀가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엄마 129명, 아빠 171명,미취학 93명, 초등 77명, 청소년 1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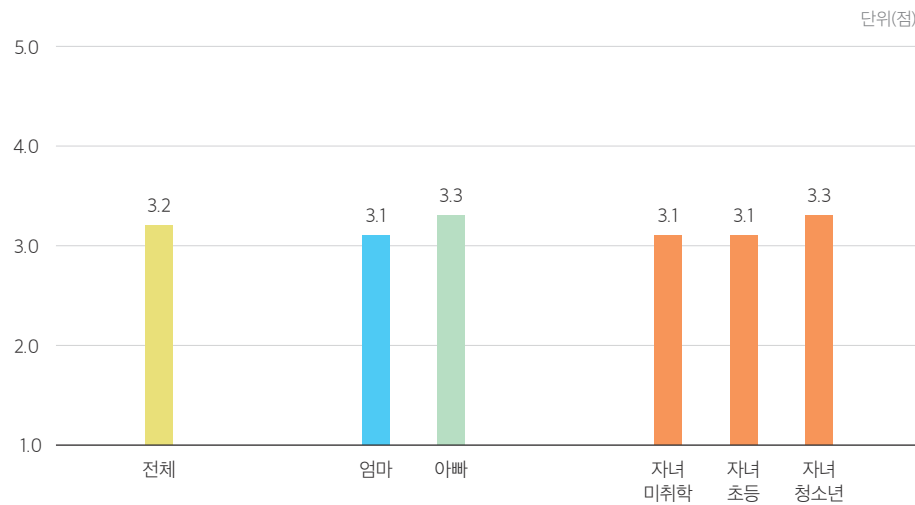


자녀는 인생의 목표?

신규 자녀는 내 인생의 목표: 18세 이하의 부모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자녀는 내 인생의 목표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범위: 1-5점)에 대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서울시 부모의 동의 수준 **평균은 3.2점**으로 ‘보통’(3점) 수준이었음
- 엄마, 아빠의 차이와 자녀 발달단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자녀는 내 인생의 목표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엄마 129명, 아빠 171명,미취학 93명, 초등 77명, 청소년 1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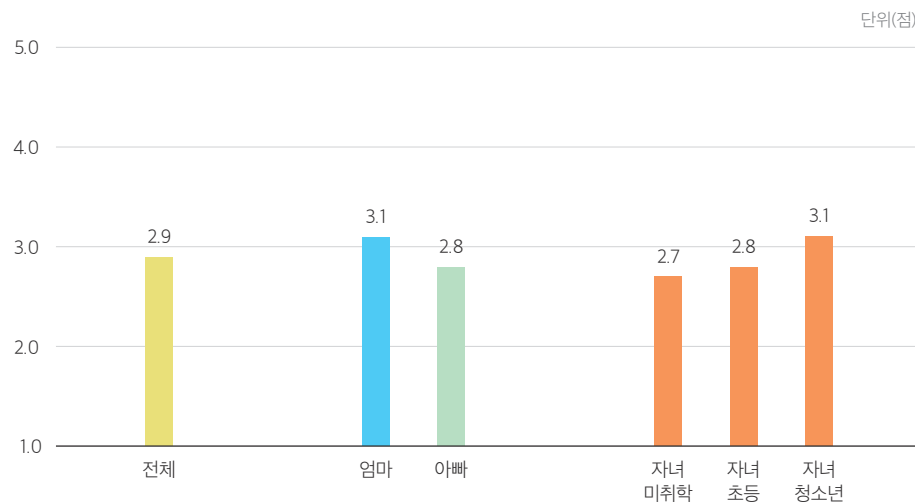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18세 이하의 부모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서울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범위: 1-5점) 수준 **평균은 2.9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음
- 부모의 성별로는 **엄마(3.1점)**가 **아빠(2.8점)**보다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았고, 자녀 발달단계별로는 **청소년 자녀 부모(3.1점)**가 초등학생 자녀 부모(2.8점)와 미취학 자녀 부모(2.7점)보다 동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주

김기현,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영역의 7문항 평균을 사용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엄마 129명, 아빠 171명,미취학 93명, 초등 77명, 청소년 130명)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요인은?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응답자 중 18세 이하 자녀의 부모이면서 배우자가 있고, 본인 부모 및 배우자 부모가 각각 1명 이상 생존한 응답자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육스트레스(범위: 1-5점)는 7문항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 어머니일 때
- 자녀를 선택이라고 생각할수록
- 본인 부모가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했다고 생각할수록
- 집중적 부모역할에 동의할수록
- 자녀 발달단계 및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수록
- 부부관계 행복도가 낮을수록
- 부모의 돌봄 및 가사 도움을 받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 경험하였음

※ 헬리콥터 부모역할(helicopter parenting): 자녀의 발달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수준으로 부모가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자녀를 통제하는 태도(이재림, 2022)

※ 집중적 부모역할(intensive parenting): 부모가 자녀를 중심에 두고 감정, 시간, 에너지, 경제적 자원을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믿는 양육 이데올로기(Hays, 1996)

자료 1) 이재림(2022). 무한경쟁 시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진미정 외, 가족과 돌봄(pp. 92-119). 하우.
2) Hays, S. (1996).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Yale University Press.



부모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설정 지원 필요

2025 서울가족서베이에서 집중적 부모역할(주: 자녀를 중심에 두고 감정, 시간, 에너지, 경제적 자원을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믿는 양육 이데올로기)에 해당하는 진술을 제시하고 얼마나 동의하는지 질문한 결과(범위: 1-5점), 자녀가 있는 서울 시민의 평균은 ‘부모는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최고의 양육(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3.8점, ‘부모는 자녀에게 말과 행동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 3.6점, ‘부모는 자녀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해야 한다’ 4점이었다. 즉, 집중적 부모역할에 대한 동의 수준이 ‘대체로 그렇다’(4점)에 가까워서 자녀에게 ‘집중적 부모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2025 서울가족서베이 심층 분석 결과, 본인의 부모가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했다고 인식할수록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과거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부모의 과도한 개입이나 통제가 자신이 부모가 되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또한, 집중적 부모역할에 동의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 집중적 부모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부모역할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내면화하고 있을 경우, 본인의 부모역할에도 이러한 기대를 현실화하고자 하면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우선시하는 양육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부모역할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보다 ‘충분히 좋은 부모(good enough parent; Bettelheim, 1987)’가 되어도 괜찮다는 태도가 오히려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건강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인생에서 자녀를 과도하게 우선시해야 한다는 관점 대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한다는 건강한 관점을 확산하는 부모 교육, 부모 코칭, 캠페인 등을 제안한다. 부모들이 서로의 현실적인 양육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선배 부모의 멘토링 등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료 Bettelheim, B. (1987). A good enough parent: A book on child-rearing. Alfred A. Kno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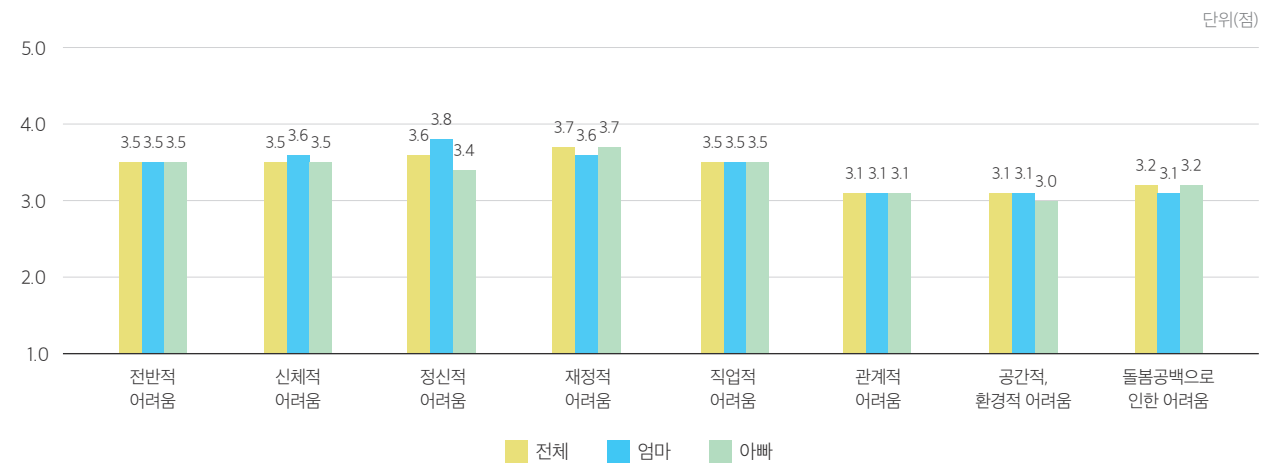


부모역할의 어려움

부모역할의 영역별 어려움: 18세 이하의 부모 전체 및 성별

- ‘부모역할의 전반적 어려움’(범위: 1-5점)에 대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서울시 부모의 동의 수준 평균은 3.5점으로 ‘보통이다’(3점)와 ‘대체로 어렵다’(4점) 사이였음
- 영역별로는 ‘재정적 어려움’(예: 양육비, 사교육비 부담)의 평균이 3.7점으로 가장 높았음
- 엄마(3.8점)가 아빠(3.4점)보다 ‘정신적 어려움’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

부모역할의 영역별 어려움을 얼마나 겪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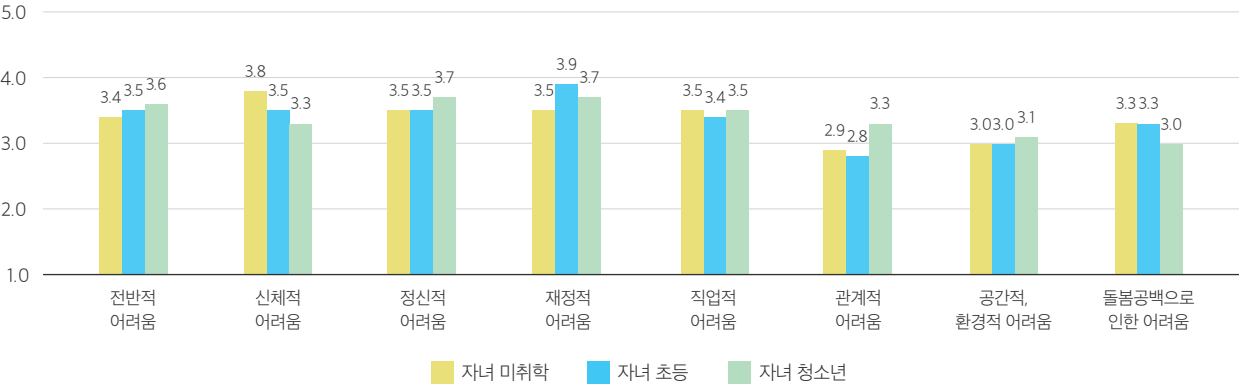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엄마 129명, 아빠 171명)

부모역할의 영역별 어려움: 자녀 발달단계별

- 자녀 발달단계별로 미취학 자녀 부모는 '신체적 어려움'(예: 피로감, 휴식/수면 부족)(평균 3.8점)이 초등학생 자녀 부모(3.5점)와 청소년 자녀 부모(3.3점)보다 높았음. 또한 미취학 자녀 부모는 '돌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예: 자녀가 질병 등으로 등원/등교하지 못할 때의 돌봄공백, 근로 시간과 하원/하교 시간의 충돌, 방학기간의 돌봄공백)(평균 3.3점)이 청소년 자녀 부모(3점)보다 높았음
- 초등 자녀 부모는 '재정적 어려움'(예: 양육비, 사교육비 부담)(3.9점)이 미취학 자녀 부모(3.5점)보다 높았음
- 청소년 자녀 부모는 '재정적 어려움'(3.7점)이 미취학 자녀 부모(3.5점)보다 높았고 '관계적 어려움'(예: 자녀와의 갈등, 자녀문제로 인한 부부갈등)(3.3점)이 미취학 자녀 부모(2.9점)와 초등 자녀 부모(2.8점)보다 높았음
- 전반적으로 자녀 발달단계가 높을수록 부모의 '신체적 어려움'은 낮고, '관계적 어려움'은 높은 경향이 나타남

부모역할의 영역별 어려움을 얼마나 겪고 계십니까?

단위(점)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첫째 자녀 기준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양육자 300명)

2025 서울가족정책



서울시가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모음

서울시는 영유아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16시 이후 보육교사 또는 보육도우미의 인솔하에 주간 이용 어린이집에서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자가 올 때까지 아동에게 건강한 저녁 식사와 안전한 보육을 제공하며, 이용금액은 월 60시간 한도 내에서 무료이다. 2025년 8월 기준 총 350곳에서 운영 중이다.

365 열린 어린이집

6개월부터 7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다. 사전 예약과 당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고, 1회 최소 3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24시간 연속 이용 시 최대 5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금액은 1시간당 3,000원, 1일 최대 5만 원이다. 2025년 8월 기준 총 13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6개월부터 7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양육 또는 타 기관 이용 보호자 등 누구나 필요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이다. 사전 예약과 당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고, 평일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이용금액은 월 60시간 한도 내에서 1시간당 2,000원이다. 2025년 8월 기준 총 18곳에서 운영 중이다.



자료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보육서비스 예약: <https://iseoul.seoul.go.kr/portal/reservation/guide2.do>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시는 2025년 4월 기준 137곳에서의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실내 놀이공간뿐만 아니라 놀이돌봄서비스, 다양한 프로그램(문화 예술 교육, 인공 지능(AI) 코딩로봇 교육 등)도 제공하며, 보호자에게도 커뮤니티 공간 및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0-9세 아동과 보호자로, 2025년 4월부터는 서울시 거주자 이외에 서울 생활권자(서울시 소재 직장, 사업장 또는 학교 소속)도 이용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용 요금은 아동 1인과 보호자를 합쳐 최대 5천 원 이하이다.



자료 1) 내 손안에 서울(2025.04.14). 아이 키울 때 필수!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시간·대상 확대.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4082>
 2) 우리동네키움포털. 서울형키즈카페.
<https://icare.seoul.go.kr/icare/indexP.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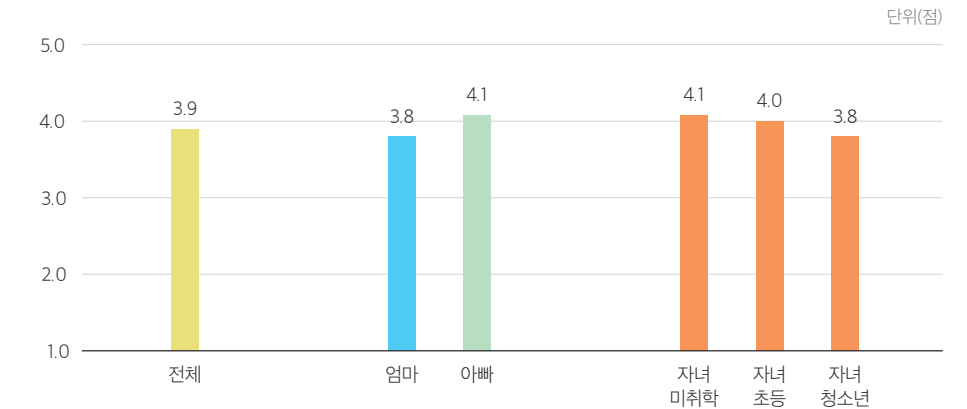


엄마와 아빠의 공동양육

배우자와의 역할 분담: 18세 이하의 부모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배우자와 나는 자녀와 관련된 일을 상황에 맞게 분담한다’(범위: 1-5점)에 대해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서울시 부모의 동의 수준 평균은 **3.9점**으로 ‘**대체로 그렇다**’(4점)에 가까웠음
- 성별로는 아빠(4.1점)가 엄마(3.8점)보다 더 동의하였음. 즉, **아빠가 배우자와의 분담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자녀 발달단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배우자와 나는 자녀와 관련된 일을 상황에 맞게 분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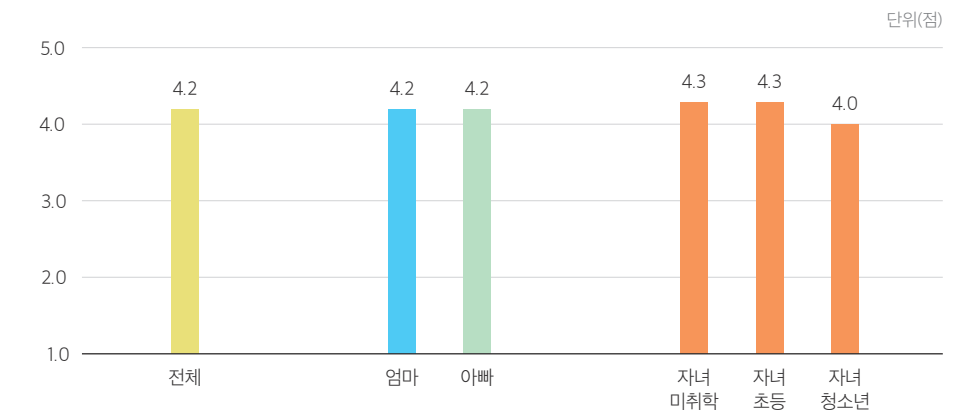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와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엄마 123명, 아빠 164명; 미취학 89명, 초등 75명, 청소년 123명)

신규 배우자와의 자녀 정보 공유: 18세 이하의 부모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배우자와 나는 자녀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범위: 1-5점)에 대해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서울시 부모의 동의 수준 평균은 **4.2점**으로 ‘**대체로 그렇다**’(4점)에 가까웠음
- 자녀 발달단계별로는 미취학 자녀 부모 및 초등 자녀 부모(4.3점)가 청소년 자녀 부모(4점)보다 배우자와의 자녀 정보 공유에 대해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엄마와 아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배우자와 나는 자녀와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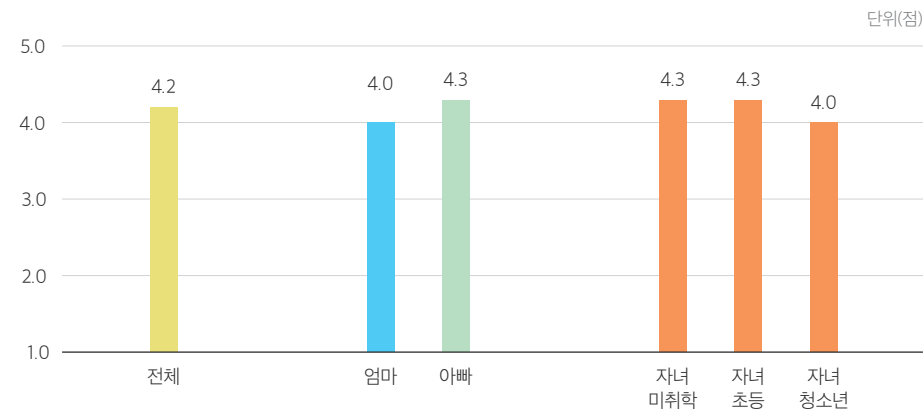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와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엄마 123명, 아빠 164명; 미취학 89명, 초등 75명, 청소년 123명)

신규 부모로서 한 팀이라는 인식:

18세 이하의 부모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배우자와 나는 부모로서 한 팀이다’(범위: 1-5점)에 대해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서울시 부모의 동의 수준 평균은 **4.2점**으로 ‘대체로 그렇다’(4점)에 가까웠음
- 성별로는 **아빠**(4.3점)가 엄마(4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였음
- 자녀 발달단계별로는 미취학 자녀 부모 및 초등 자녀 부모(4.3점)의 평균이 청소년 자녀 부모(4점)의 평균보다 높았음

배우자와 나는 부모로서 한 팀이다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 (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와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엄마 123명, 아빠 164명; 미취학 89명, 초등 75명, 청소년 12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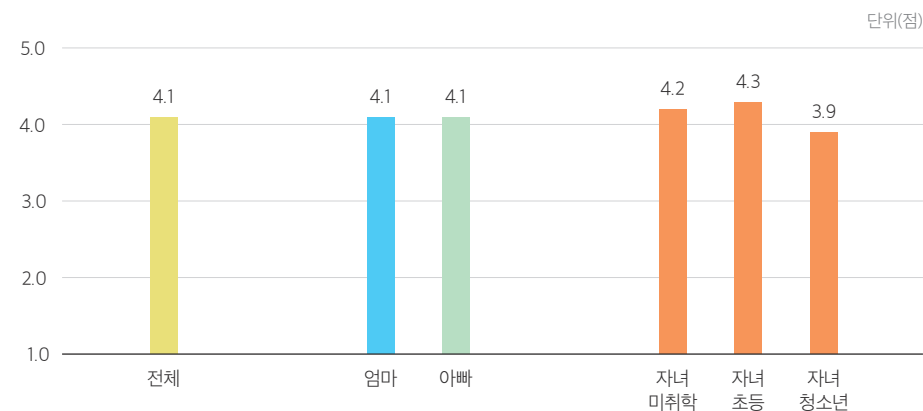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응원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응원:

18세 이하의 부모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나의 배우자는 나의 부모역할을 응원해 준다’(범위: 1-5점)에 대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서울시 부모의 동의 수준 평균은 **4.1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였음
- 자녀 발달단계별로 **초등 자녀 부모**(4.3점) 및 **미취학 자녀 부모**(4.2점)가 청소년 자녀 부모(3.9점)보다 배우자의 응원 수준을 높게 인식하였음
- 엄마와 아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나의 배우자는 나의 부모역할을 응원해준다



주
'자녀 미취학'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응답자, '자녀 초등'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응답자, '자녀 청소년'은 첫째 자녀가 12-18세 이하 (초등학생 제외)인 응답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와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엄마 123명, 아빠 164명; 미취학 89명, 초등 75명, 청소년 123명)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부모의 공동양육 지원, 청소년기에도 꾸준한 노력 필요

2025 서울가족서베이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부모에게 ‘배우자와의 공동양육’에 대해 질문한 결과(범위: 1-5점), ‘배우자와 나는 자녀와 관련된 일을 상황에 맞게 분담한다’의 평균은 3.9 점, ‘배우자와 나는 자녀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는 4.2점, ‘배우자와 나는 부모로서 한 팀이다’는 4.2점으로, ‘대체로 그렇다’(4점)에 가까웠다.

그러나 자녀 발달단계별로 살펴보면 ‘배우자와의 공동양육’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미취학 자녀 부모나 초등 자녀를 둔 부모에 비해 거의 모든 영역에서 평균이 낮았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나는 자녀와 관련된 일을 상황에 맞게 분담한다’에 대한 청소년 자녀 부모의 응답은 평균 3.8점으로 미취학 자녀 부모(4.1점)와 초등 자녀 부모(4점)보다 낮았다. ‘배우자와 나는 자녀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와 ‘배우자와 나는 부모로서 한 팀이다’는 각각 평균 4점으로, 미취학 자녀 부모와 초등 자녀 부모(각각 4.3점)보다 낮았다. ‘나의 배우자는 나의 부모역할을 응원해 준다’의 평균 역시 3.9점으로 초등 자녀 부모(4.3점)와 미취학 자녀 부모(4.2 점)보다 낮았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추가 분석한 결과, 엄마와 아빠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배우자와 나는 자녀와 관련된 일을 상황에 맞게 분담한다’는 엄마 3.8점, 아빠 4.1점, ‘배우자와 나는 부모로서 한 팀이다’는 엄마 4.0점, 아빠 4.3점으로 ‘배우자와 나는 부모로서 한 팀이다’는 엄마 3.8점, 아빠 4.1점으로, 엄마가 배우자(아빠)에 대해 인식하는 공동양육 수준이 아빠가 배우자(엄마)에 대해 인식하는 공동양육 수준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영유아기와 아동기에는 아빠의 양육 참여와 공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비교적 높지만,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줄고 부모 간 협력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여 준다. 공동양육의 약화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나 역할 과중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와 부부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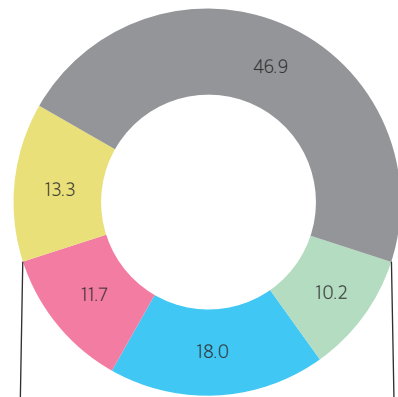
이에 따라 부모 교육 및 양육자 지원 정책은 영유아기와 아동기에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기를 포함하여 자녀 발달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공동양육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강조하는 부모 교육 및 부부 교육, 아버지 자조모임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

언젠가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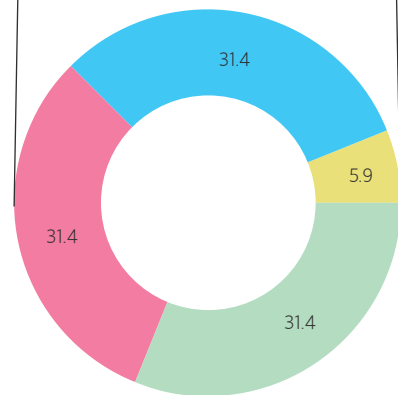
단위(%)



3년 이내에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언젠가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보통' 이상인 경우)

단위(%)



주 1) '언젠가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은 자녀가 한 명인 20~49세 여성 55명, 남성 73명, 30대 이하 47명, 40대 81명의 응답임
2) '3년 이내에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은 자녀가 한 명인 20~49세 중 언젠가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보통 이상인 여성 16명, 남성 35명, 30대 이하 31명, 40대 20명의 응답임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자녀가 한 명인 20~49세 응답자 128명; 자녀가 한 명이고 언젠가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보통이다', '대체로 있다', '많이 있다'인 응답자 51명)

언젠가 또는 3년 이내에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 성별

· 자녀가 한 명인 20~40대 남성의 52.0%는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는** 편이었고('전혀 없다', '별로 없다'), 47.9%는 **의향이 있는** 편이었음('보통이다', '대체로 있다', '많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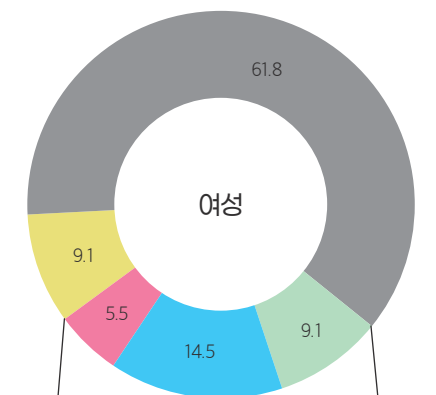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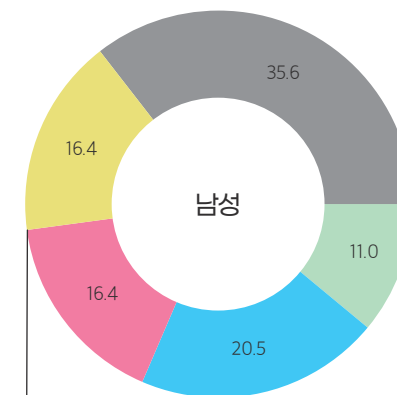
·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보통 이상인 남성 중에서 91.4%는 3년 이내에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었음('보통이다', '대체로 있다', '많이 있다')

· 자녀가 한 명인 20~40대 여성의 70.9%는 **의향이 없는** 편이었고('전혀 없다', '별로 없다'), 29.1%는 **의향이 있는** 편이었음('보통이다', '대체로 있다', '많이 있다')

·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보통 이상인 여성 응답자는 대부분 3년 이내에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었음('보통이다', '대체로 있다', '많이 있다')

언젠가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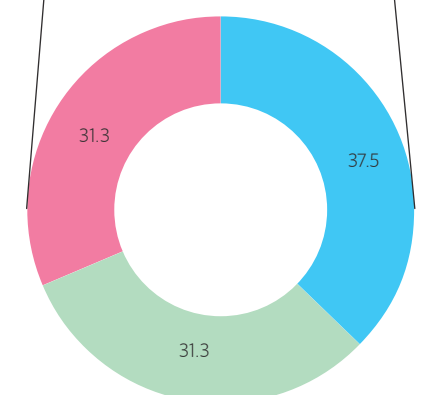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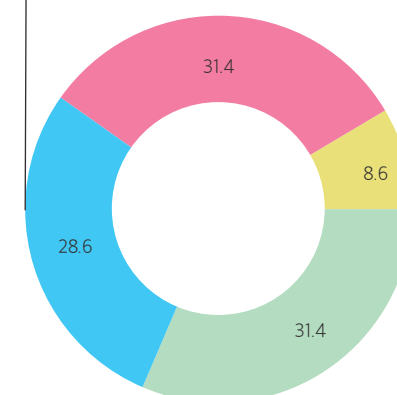
단위(%)



3년 이내에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언젠가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보통' 이상인 경우)

단위(%)



주 1) '언젠가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은 자녀가 한 명인 20~49세 여성 55명, 남성 73명의 응답임
2) '3년 이내에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은 자녀가 한 명인 20~49세 중 언젠가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보통 이상인 여성 16명, 남성 35명의 응답임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자녀가 한 명인 20~49세 응답자 128명; 자녀가 한 명이고 언젠가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보통이다', '대체로 있다', '많이 있다'인 응답자 5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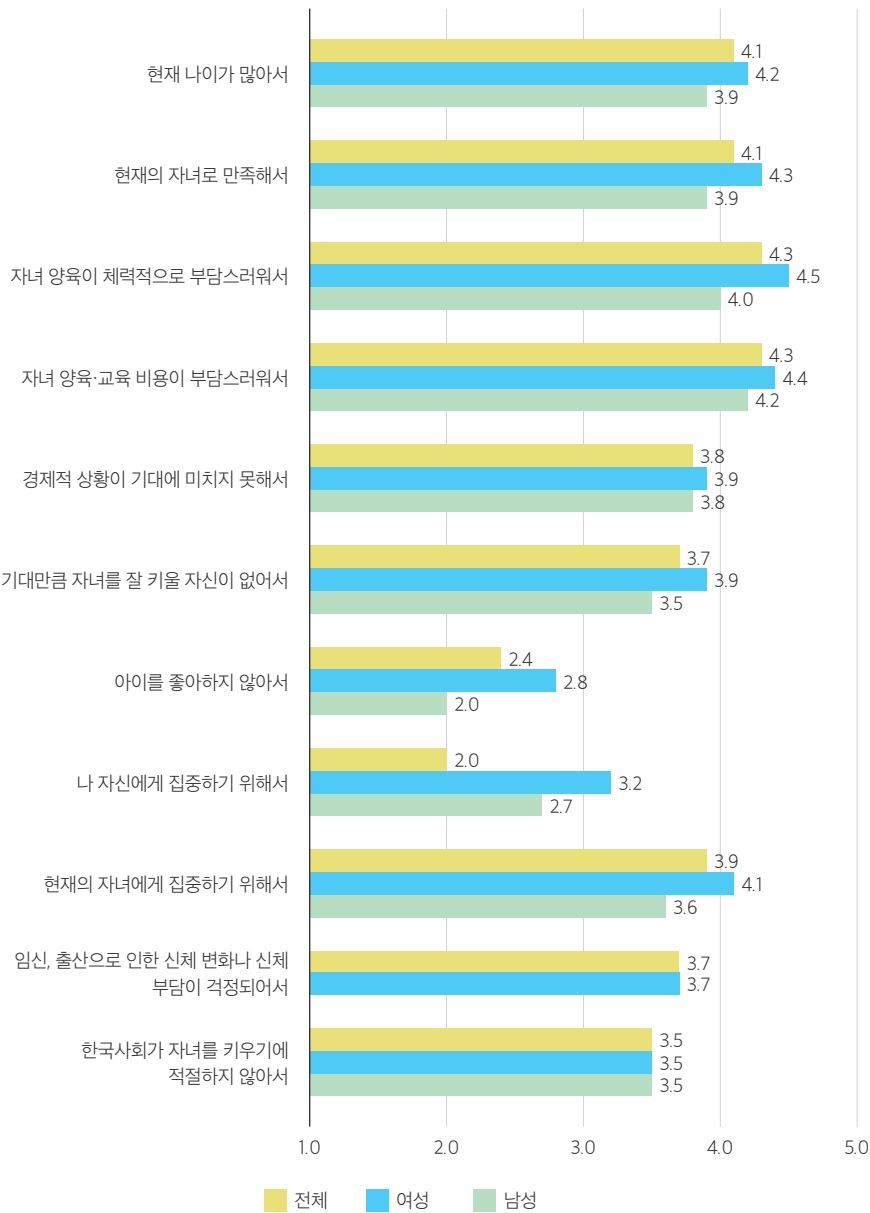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 전체, 성별

-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보통 이하인 20~40대 서울시 부모에게 ‘앞으로 자녀를 더 가질 의향이 없거나 보통인 이유는 무엇입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자녀 양육·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워서**(예: 사교육)’(평균 4.3점), ‘**자녀 양육이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워서**’(4.3점), ‘**현재 나이가 많아서**’(4.1점), ‘**현재의 자녀로 만족해서**’(4.1점)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성의 동의 수준이 남성보다 높았는데, 동의 수준의 차이가 큰 문항은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0.8점 차이), ‘**자녀 양육이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워서**’(0.5점 차이), ‘**현재의 자녀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예: 시간, 돈, 에너지)’(0.5점 차이), ‘**현재의 자녀로 만족해서**’(0.4점 차이)였음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점)



주
‘임신, 출산으로 인한 신체 변화나 신체 부담이 걱정되어서’ 항목은 여성 46명의 응답임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한 명 이고 언젠가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인 20~49세 여성 42명, 남성 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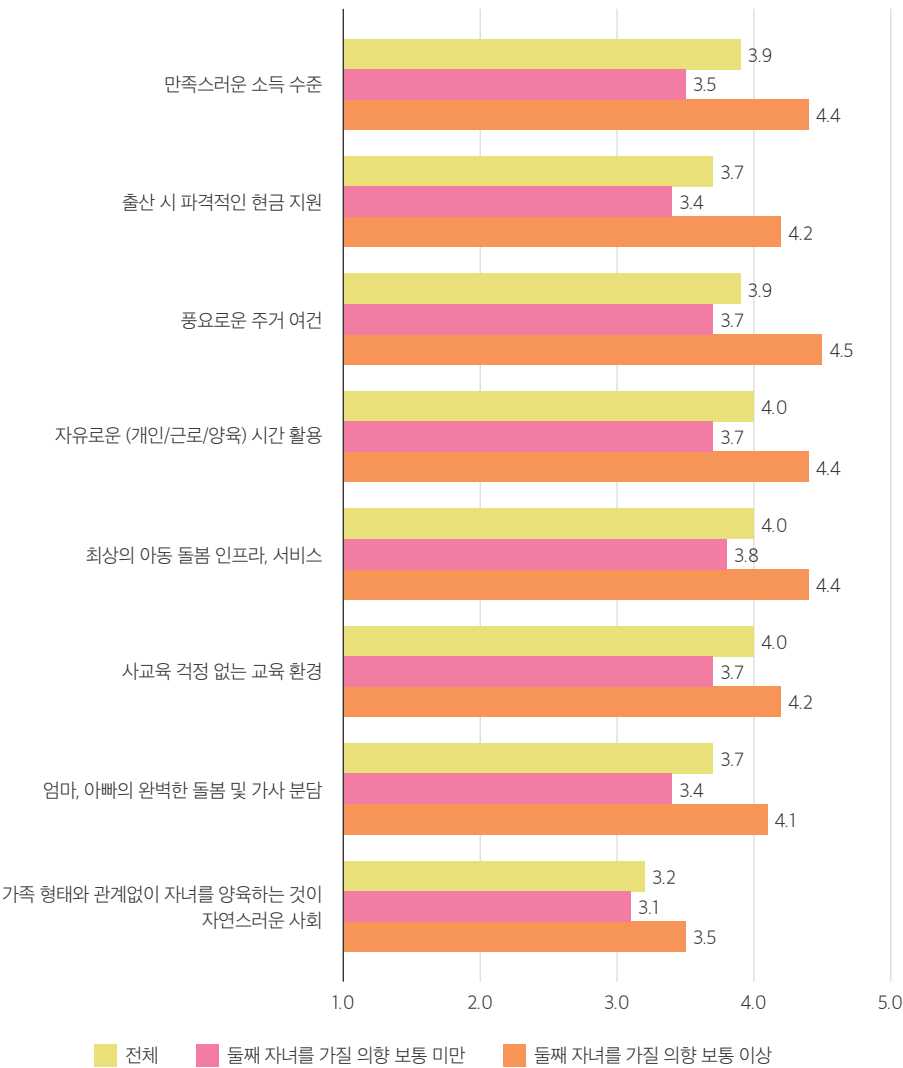
어떤 여건이 마련되면 둘째 자녀를 가질까?

이상적인 여건과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 전체,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별

- ‘다음과 같은 여건이 마련된다면, 자녀를 더 갖고자 하는 의향이 얼마나 생길 것 같습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자녀가 한 명인 20~40대 서울시 부모는 ‘**자유로운 (개인/근로/양육) 시간 활용**’(평균 4점), ‘**사교육 걱정 없는 교육 환경**’(4점), ‘**최상의 아동 돌봄 인프라, 서비스**’(4점), ‘**풍요로운 주거 여건**’(3.9점)이 확보된다면 둘째를 갖고자 하는 의향이 약간 더 생길 것 같다고 하였음
-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별로는 의향이 **보통 이상**인 집단은 ‘**풍요로운 주거 여건**’(4.5점)에 대한 동의 수준이 가장 높았고, 의향이 **보통 미만**인 집단은 ‘**최상의 아동 돌봄 인프라, 서비스**’(3.8점)의 평균이 가장 높았음
-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보통 이상인 집단**과 **보통 미만인 집단**의 평균 차이가 큰 항목은 ‘**만족스러운 소득 수준**’(0.9점 차이), ‘**출산 시 파격적인 현금 지원**(예: 1억 원 이상)’(0.8점 차이), ‘**풍요로운 주거 여건**’(0.8점 차이)과 같은 경제적 여건이었음

이상적인 여건이 마련된다면, 둘째 자녀를 갖고자 하는 의향이
얼마나 생길 것 같습니까?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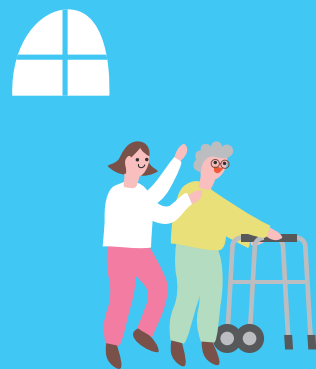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한 명 이고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보통 이상인 51명, 보통 미만인 77명)

4. 다자녀 부모라는 선택

5

서로 돌봄 응원



1. 성인 자녀와 부모, 형제자매 관계

2. 성인 자녀 지원 및 상속

3. 부모 돌봄

2025 서울가족서베이 하이라이트

부모와의 관계, 무자녀 시민이 부모가 될 의향에 영향

· 부모와 친밀할수록, 부모가 ‘자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부모됨 의향↑

노부모 부양, 젊은 세대가 책임 더 강하게 인식

· 노부모 동거, 경제적 부양, 아들·딸 구분 없이 부모 돌봄에 대해 20대가 50대 이상보다 동의

돌봄 기대, 상속 의향, “배우자 우선…아들·딸 비슷”

· 본인 돌봄 필요 시 배우자 > 아들·딸 > 며느리·사위 순

· 사망 후 재산 상속…배우자 절반, 아들과 딸은 비슷하게 계획

1

성인 자녀와 부모, 형제자매 관계



친밀감: 부모 관점

성인 자녀와의 친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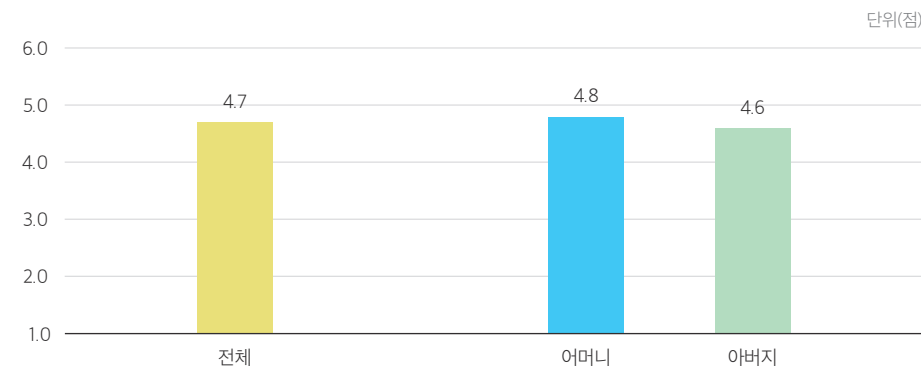
전체, 성별, 자녀와 동거 여부, 자녀 배우자 유무, 주관적 계층별

· ‘나의 첫째 자녀와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니까?’(범위: 1-6점)라고 질문한 결과,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서울 시민의 평균은 **4.7점**으로 ‘많이 가깝다’(5점)에 근접하였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상 이상인 집단(4.8점)**이 중하 이하인 집단(4.6점)보다 성인 자녀와 느끼는 친밀감 수준이 높았음

· 성별, 첫째 자녀의 배우자 유무, 첫째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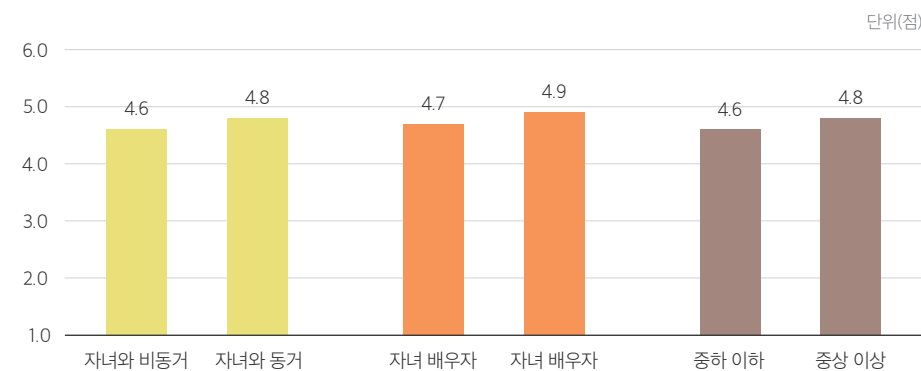
나의 첫째 자녀와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니까?



1. 성인 자녀와 부모, 형제자매 관계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42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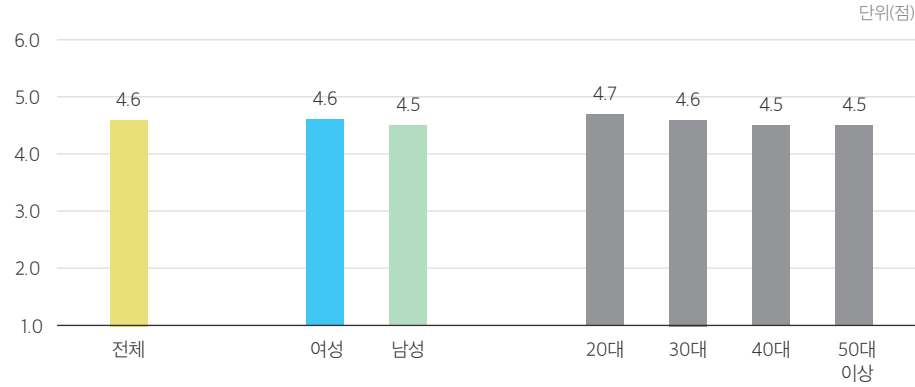


친밀감:
자녀 및
며느리·사위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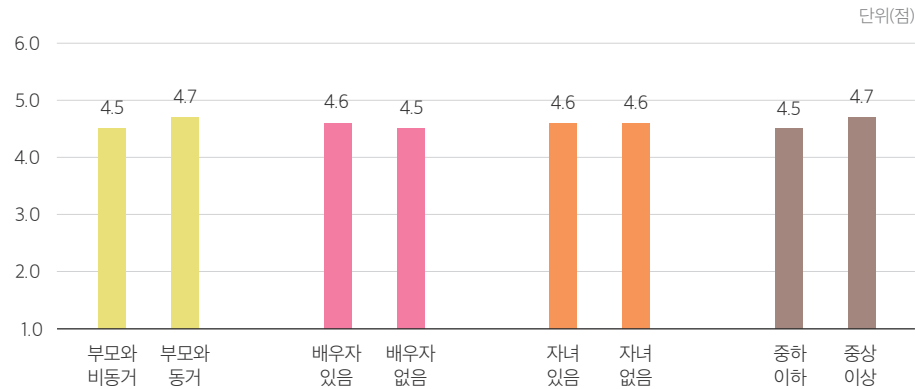
부모와의 친밀감: 전체, 성별, 연령대별, 부모와 동거 여부,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주관적 계층별

- ‘나의 부모님과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니까?’(범위: 1-6점)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평균은 **4.6점**으로 ‘가깝다’(5점)에 근접하였음
-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4.7점)이 동거하지 않는 집단(4.5점)보다 본인의 부모와 느끼는 친밀감 수준이 높았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상 이상인 집단**(4.7점)이 중하 이하인 집단(4.5점)보다 본인의 부모와 느끼는 친밀감 수준이 높았음
- 성별, 연령대, 배우자 및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나의 부모님과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니까?



단위(점)



단위(점)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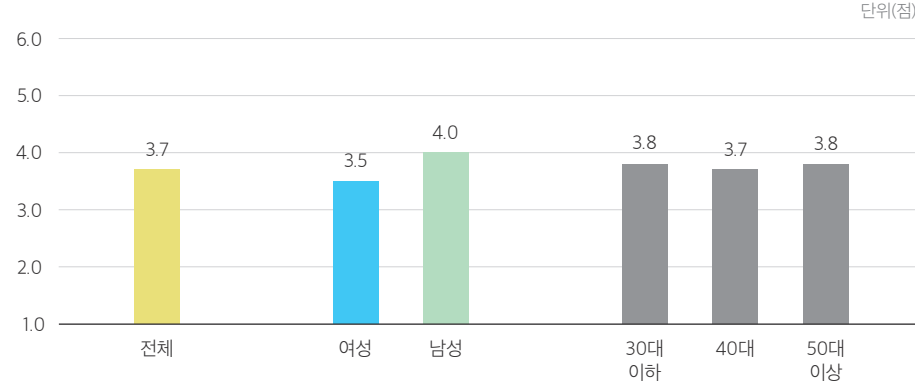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1,452명)

신규 배우자 부모와의 친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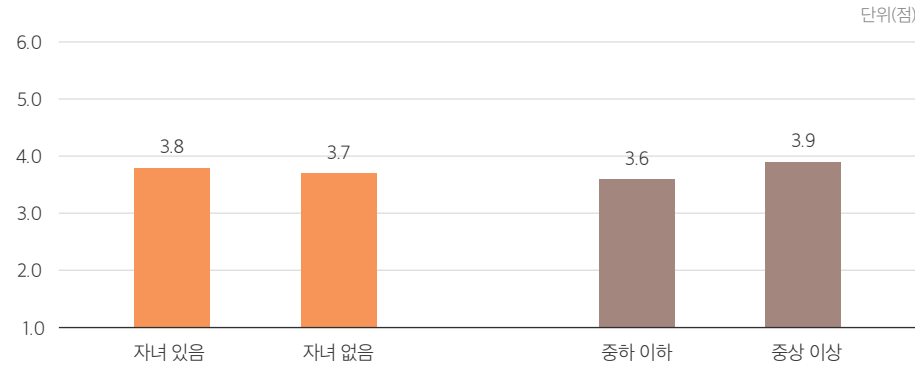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주관적 계층별

- ‘**배우자의 부모님과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니까?**’(범위: 1-6점)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평균은 **3.7점**으로 ‘별로 가깝지 않다’(3점)와 ‘약간 가깝다’(4점)의 사이였음
- **남성**(4점)이 여성(3.5점)보다 배우자의 부모와 친밀하다고 인식하였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상 이상인 집단**(3.9점)이 중하 이하인 집단(3.6점)보다 배우자의 부모와 느끼는 친밀감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배우자의 부모님과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니까?



단위(점)



단위(점)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62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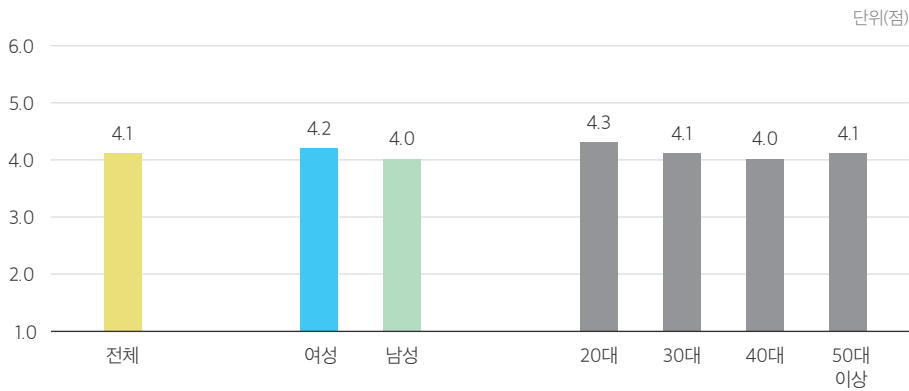


친밀감: 형제자매

신규 형제자매와의 친밀감: 전체, 성별, 연령대별, 형제자매 동거 여부,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주관적 계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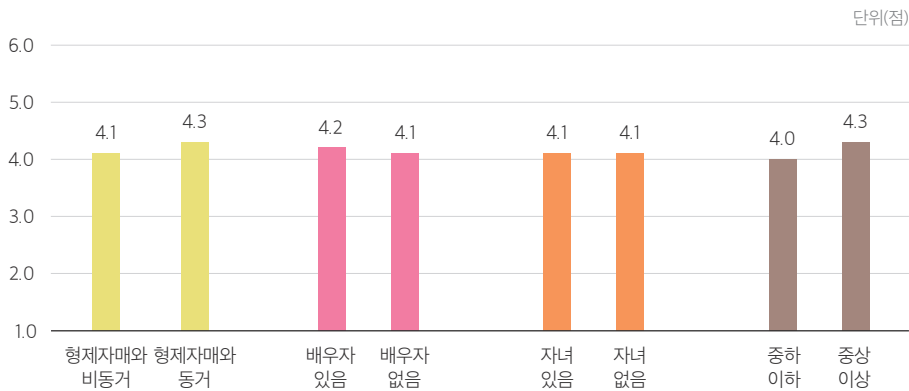
- ‘형제자매와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니까?’(범위: 1-6점)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평균은 **4.1점**으로 ‘약간 가깝다’(4점)에 근접하였음
- 여성(4.2점)이 남성(4점)보다 형제자매와 친밀하다고 인식하였음
- 20대(4.3점)가 다른 연령대보다 형제자매와 느끼는 친밀감의 평균이 높았음
-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집단(4.3점)이 형제자매와 함께 살지 않는 집단(4.1점)보다 형제자매와 친밀하다고 인식하였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상 이상인 집단(4.3점)이 중하 이하인 집단(4점)보다 형제자매와 느끼는 친밀감 수준이 높았음
- 배우자 및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형제자매와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니까?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형제자매가 1명이라도 살아 있는 응답자 1,53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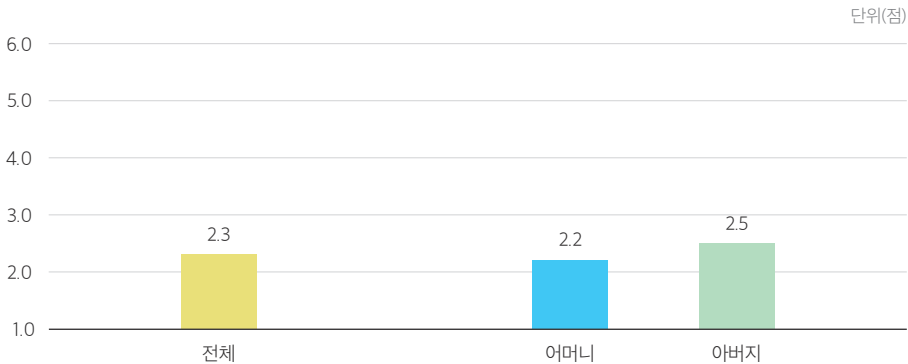


갈등: 부모 관점

성인 자녀와의 갈등: 전체, 성별, 자녀와 동거 여부, 자녀 배우자 유무, 주관적 계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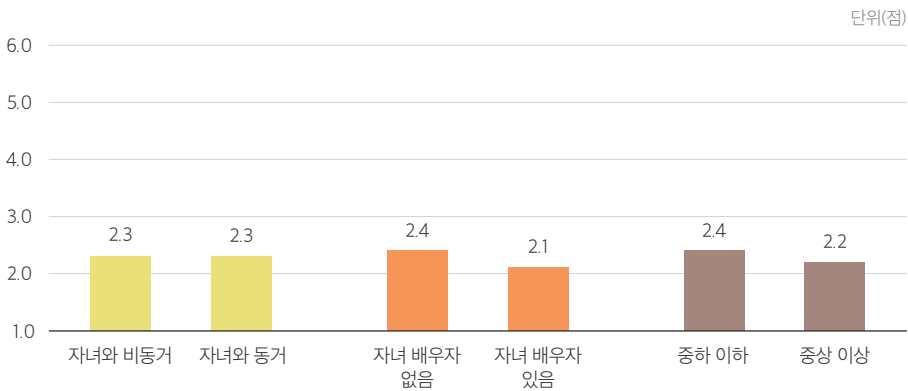
- ‘나의 첫째 자녀와의 갈등(관계상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범위: 1-6점)라고 질문한 결과,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서울 시민의 평균은 **2.3점**으로 ‘심각하지 않다’(2점)에 가까웠음
- 아버지(2.5점)가 어머니(2.2점)보다 첫째 자녀와의 갈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음
- 자녀에게 배우자가 없는 집단(2.4점)이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는 집단(2.1점)보다 첫째 자녀와의 갈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하 이하인 집단(2.4점)이 중상 이상인 집단(2.2점)보다 첫째 자녀와의 갈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음
- 첫째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귀하와 첫째 자녀와의 갈등(관계상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42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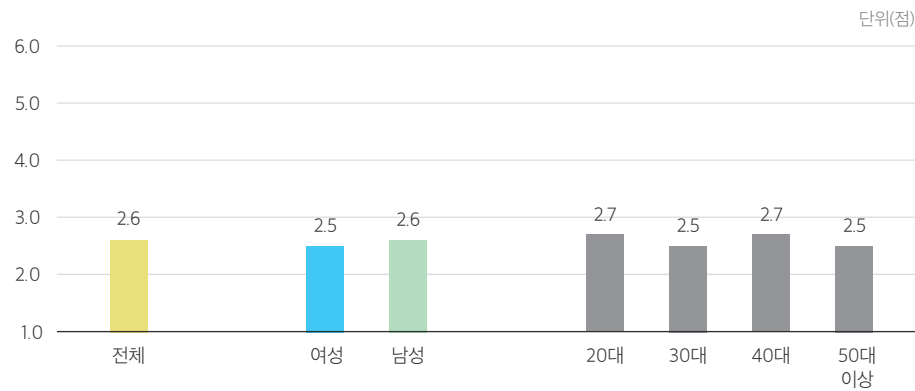


갈등:
자녀 및
며느리·사위 관점

나의 부모와의 갈등: 전체, 성별, 연령대별, 부모와 동거 여부,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주관적 계층별

- ‘부모님과의 갈등(관계상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범위: 1-6점)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평균은 **2.6점**으로 ‘심각하지 않다’(2점)와 ‘별로 심각하지 않다’(3점)의 사이였음
- **20대**(2.7점)와 **40대**(2.7점)가 다른 연령대보다 부모와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음
-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2.7점)이 동거하지 않는 집단(2.5점)보다, **배우자가 없는 집단**(2.8점)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2.3점)보다, **자녀가 없는 집단**(2.7점)이 자녀가 있는 집단(2.4점)보다, 부모와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하 이하인 집단**(2.7점)이 중상 이상인 집단(2.4점)보다 부모와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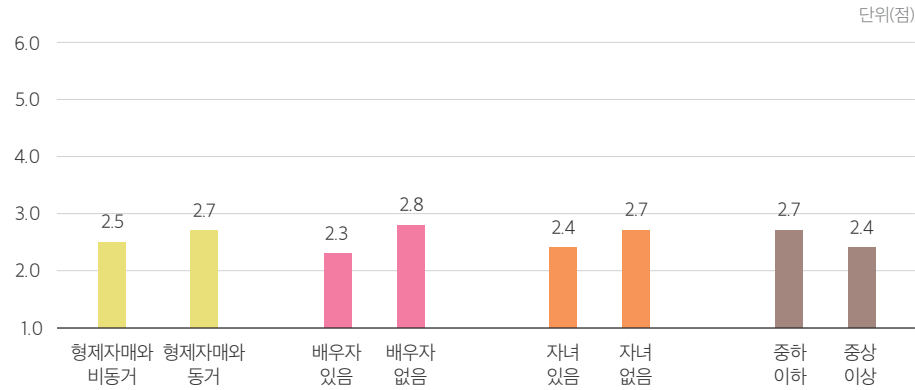
귀하와 부모님과의 갈등(관계상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점)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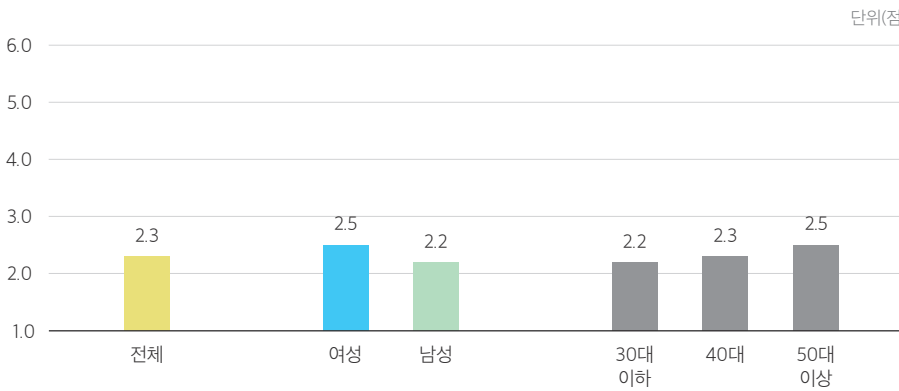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1,452명)



신규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주관적 계층별

-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갈등(관계상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범위: 1-6점)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평균은 **2.3점**으로 ‘심각하지 않다’(2점)에 가까웠음
- **여성**(2.5점)이 남성(2.2점)보다, **50대 이상**(2.5점)이 다른 연령대보다, **자녀가 있는 집단**(2.4점)이 자녀가 없는 집단(2점)보다, 배우자의 부모와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음
- 주관적 계층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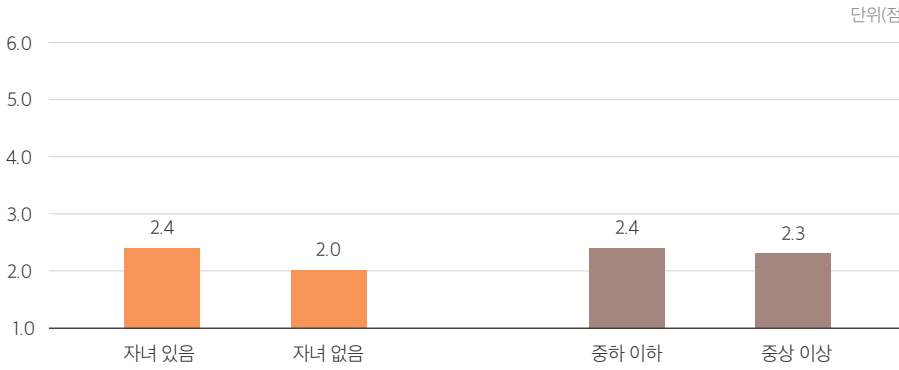
귀하와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갈등(관계상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점)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629명)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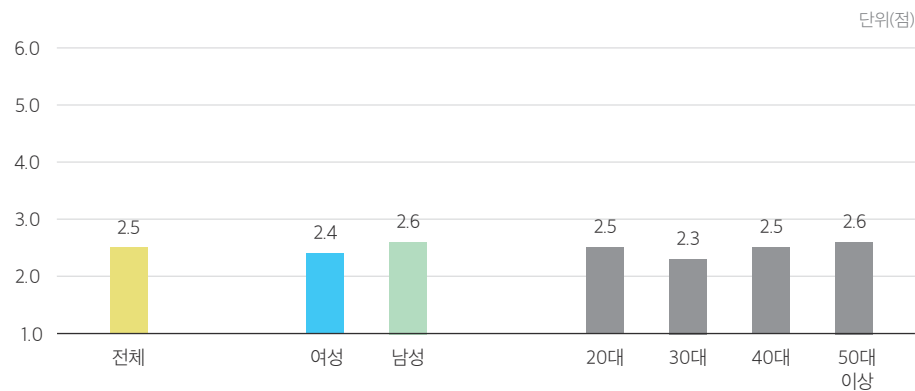


갈등: 형제자매

신규 형제자매와의 갈등: 전체, 성별, 연령대별, 형제자매 동거 여부,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주관적 계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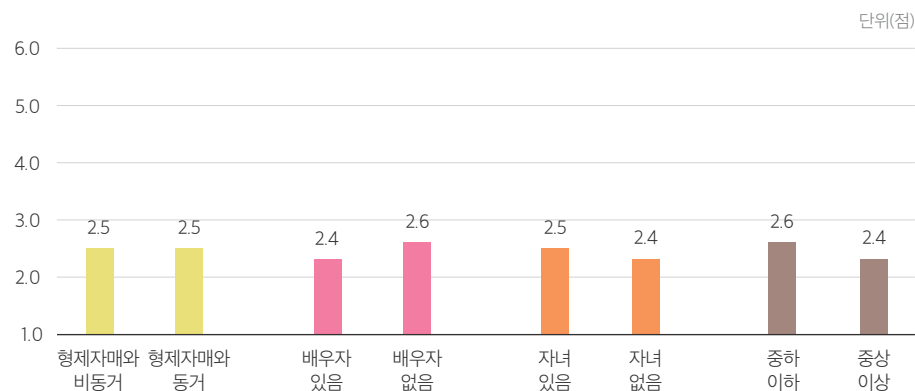
- ‘형제자매와의 갈등(관계상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범위: 1-6점)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평균은 **2.5점**으로 ‘심각하지 않다’(2점)와 ‘별로 심각하지 않다’(3점)의 사이였음
- **남성**(2.6점)이 여성(2.4점)보다 형제자매와의 갈등을 높게 인식하였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하 이하인 집단**(2.6점)이 중상 이상인 집단(2.4점)보다 형제자매와의 갈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음
- 연령대, 형제자매와 동거 여부, 배우자 및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귀하와 형제자매와의 갈등(관계상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
(형제자매가 1명이라도 살아있는 응답자 1,53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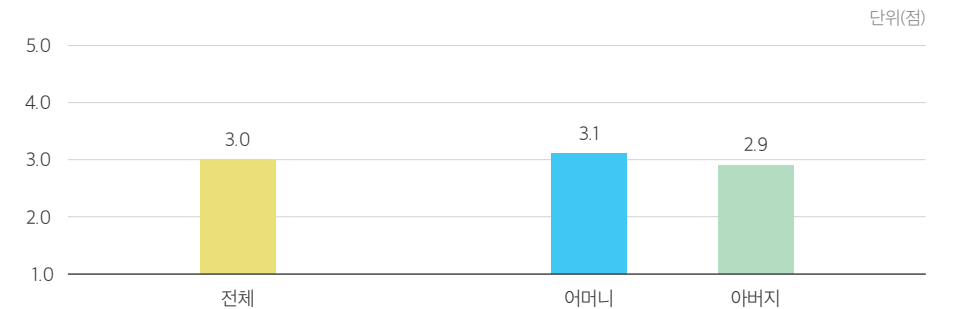


시간 충분성: 부모 관점

성인 자녀와의 시간 충분성: 전체, 성별, 자녀와 동거 여부, 자녀 배우자 유무, 주관적 계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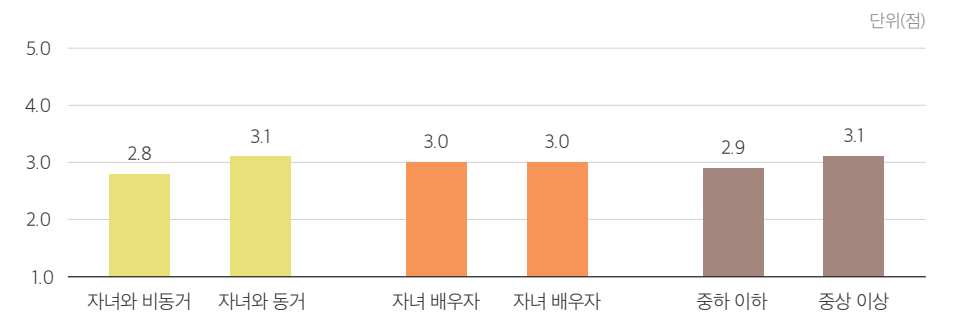
- ‘첫째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서울 시민의 평균은 **3점**으로 ‘보통’(3점)이라고 인식하였음
- **어머니**(3.1점)가 아버지(2.9점)보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음
-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집단**(3.1점)이 성인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2.8점)보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음
- 첫째 자녀의 배우자 유무, 주관적 계층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귀하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42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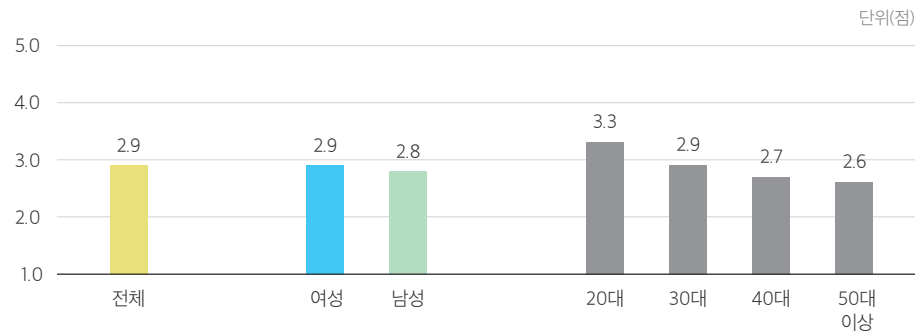


시간 충분성:
자녀 및
며느리·사위 관점

부모와의 시간 충분성: 전체, 성별, 연령대별, 부모와 동거 여부,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주관적 계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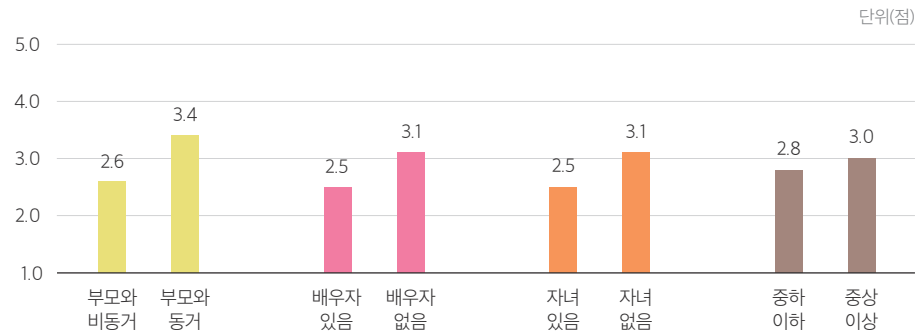
- ‘본인의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평균은 **2.9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음
- **20대**(3.3점)가 다른 연령대보다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음
-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3.4점)이 동거하지 않는 집단(2.6점)보다, **배우자가 없는 집단**(3.1점)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2.5점)보다, **자녀가 없는 집단**(3.1점)이 자녀가 있는 집단(2.5점)보다,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상 이상인 집단**(3점)이 중하 이하인 집단(2.8점)보다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귀하는 본인의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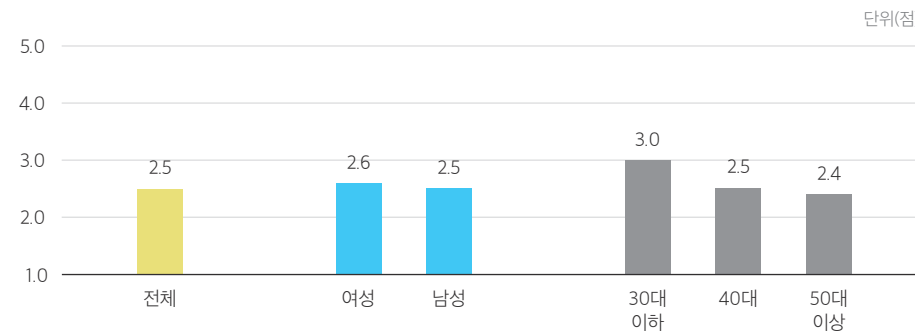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1,452명)



신규 배우자 부모와의 시간 충분성: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주관적 계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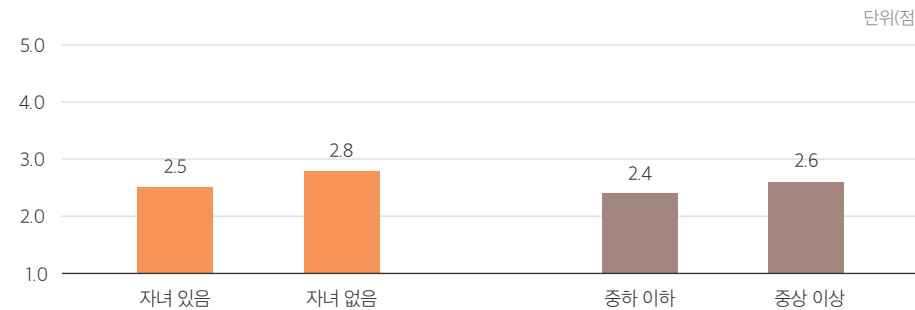
- ‘배우자의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평균은 **2.5점**으로, ‘별로 가깝지 않다’(2점)와 ‘보통’(3점)의 사이였음
- **30대 이하**(3점)가 다른 연령대보다 배우자의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음
- **자녀가 없는 집단**(2.8점)이 자녀가 있는 집단(2.5점)보다 배우자의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상 이상인 집단**(2.6점)이 중하 이하인 집단(2.4점)보다 배우자의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음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귀하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62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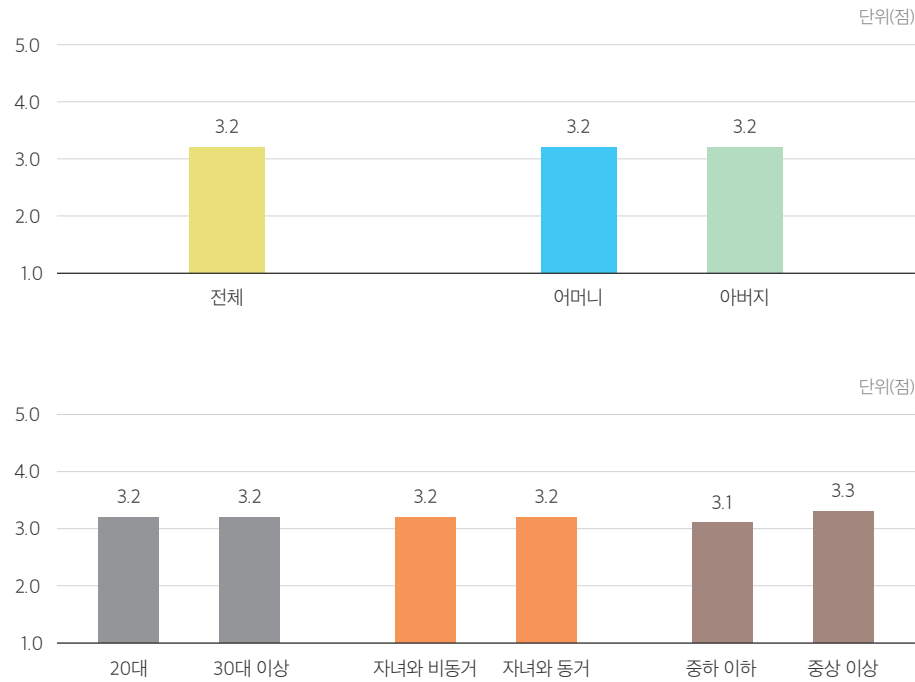
헬리콥터
부모역할:
부모 관점

본인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전체, 성별, 자녀 연령별, 자녀와 동거여부, 주관적 계층별

- 부모가 인식한 자신의 헬리콥터 부모역할(범위: 1-5점)을 질문한 결과,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서울 시민의 평균은 **3.2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높았음. 여기서 헬리콥터 부모역할(helicopter parenting)이란 자녀의 발달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수준으로 부모가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자녀를 통제하는 양육태도를 의미함(이재림, 2022; LeMoyne & Buchanan, 2011)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상 이상인 집단**(3.3점)이 중하 이하인 집단(3.1점)보다 자신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높게 인식함
- 성별, 성인 자녀의 연령, 성인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헬리콥터 부모역할: 부모 보고



주
1) 헬리콥터 부모역할 수준은 LeMoyne & Buchanan(2011)의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강시은, 이재림(2017)의 척도 7문항(예: 나는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모든 것을 감독하였다)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2)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42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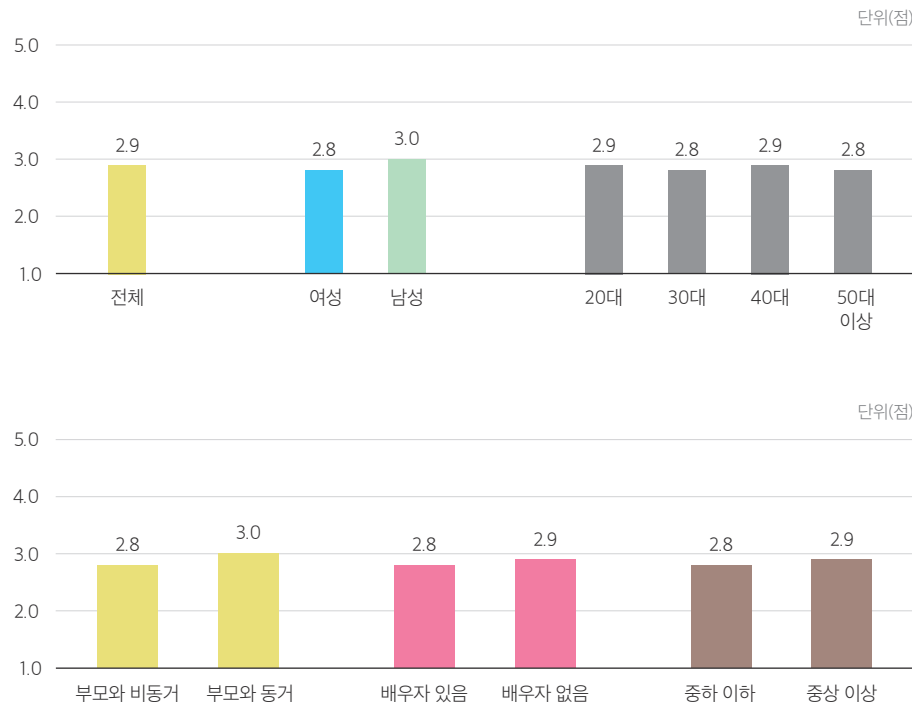
헬리콥터
부모역할:
자녀 관점

본인 부모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전체, 성별, 연령대별, 부모와 동거여부, 배우자 유무, 주관적 계층별

-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성장하면서 경험한 헬리콥터 부모역할(범위: 1-5점)을 질문한 결과, 서울 시민의 평균은 **2.9점**으로 ‘보통’(3점)이었음
- 남성(3점)이 여성(2.8점)보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높은 수준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음
-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3점)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2.8점)보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높은 수준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상 이상인 집단**(2.9점)이 중하 이하인 집단(2.8점)보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높은 수준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음
- 연령대,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헬리콥터 부모역할: 자녀 보고



주
1) 헬리콥터 부모역할 수준은 LeMoyne & Buchanan(2011)의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강시은, 이재림(2017)의 척도 7문항(예: 나는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모든 것을 감독하였다)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2)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에 전체 응답자

2025 서울 가족 클로즈업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가 될 의향과 관련이 있을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가 될 의향의 관련성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일 때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때

부모와 친밀감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부모가 될 의향이 더 있었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없고, 부모가 한 명 이상 생존한 895명)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부모-자녀 관계 등 가족체계 전체에 관심을 두는 저출생 대응 정책 필요

2025 서울가족서베이 심층분석 결과,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부모가 '자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부모가 될 의향이 더 있었다. 성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긴밀하고, 부모가 부모됨에 대한 태도를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때, 성인 자녀 역시 부모가 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의 정서 및 가치체계는 자녀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권소영 외, 2017; 윤태실, 민주홍, 2020). 선행연구에서도 청년 여성의 경우 부모와의 애정적 관계가 높은 결혼 의향을 예측하였으며(권소영 외, 2017), 아버지와의 높은 유대감이 긍정적인 결혼 의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박정윤, 김예리, 2010).

이상의 결과는 자신의 가족에서 부모와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하는 것, 부모됨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는 것이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도 중요함을 의미한다. 즉,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도 자신이 경험한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향후 부모가 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 가고자 하는 동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저출생 대응 정책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가족센터의 교육, 상담, 문화·여가 사업이 실제로는 저출생 현상 완화의 해법이 될 수 있다.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가 단순히 탄생 응원이나 육아응원에 그치지 않고 가족응원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돕는 가족생활교육, 가족 간의 갈등 완화를 돕는 가족상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여가 프로그램 등 가족체계 전체에 관심을 두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기대한다.

자료 1) 권소영, 강시은, 엄세원, 박지수, 이재림(2017). 청년 남녀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세대관계 특성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4), 3-25. <http://dx.doi.org/10.21321/jfr.21.4.3>
2) 박정윤, 김예리(2010). 비혼(미혼) 성인자녀의 부모-자녀 간 유대감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심 지각이 결혼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8(4), 13-24. <https://doi.org/10.6115/khea.2010.48.4.013>
3) 윤태실, 민주홍(2020). 부모-자녀 쌍(dyad) 자료를 활용한 가족가치관과 비혼(미혼)성인자녀의 결혼 의향과의 관련성: 세대관계의 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3), 105-124. <http://dx.doi.org/10.21321/jfr.25.3.105>

2

성인 자녀 지원 및 상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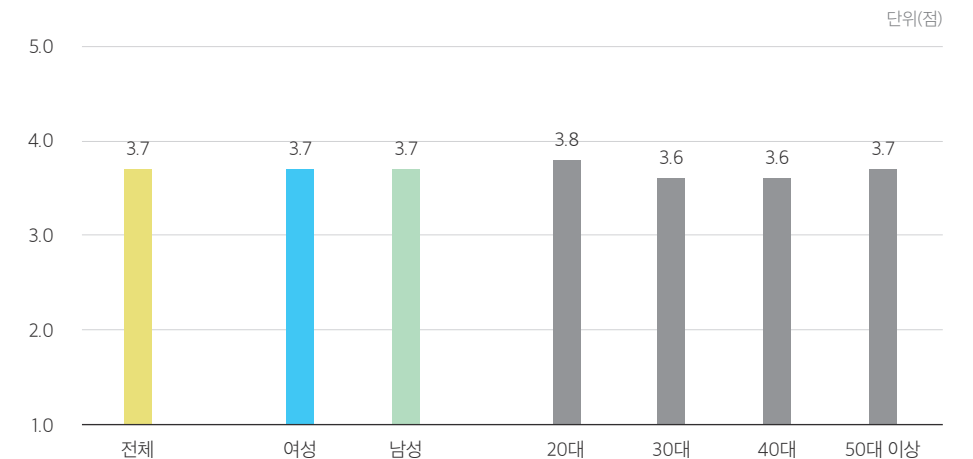
성인 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

성인 자녀의 대학 교육비 지원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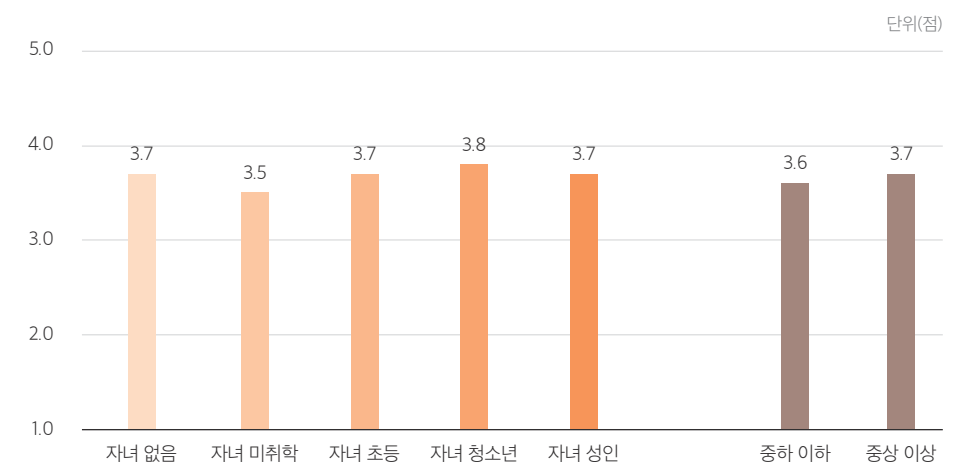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주관적 계층별

- '부모는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범위: 1-5점)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평균은 3.7점으로 '대체로 그렇다'(4점)에 가까웠음
- 20대(3.8점)와 50대 이상(3.7점)이 다른 연령대보다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부모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상 이상인 집단(3.7점)이 중하 이하인 집단(3.6점)보다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부모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 성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부모는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2. 성인 자녀 지원 및 상속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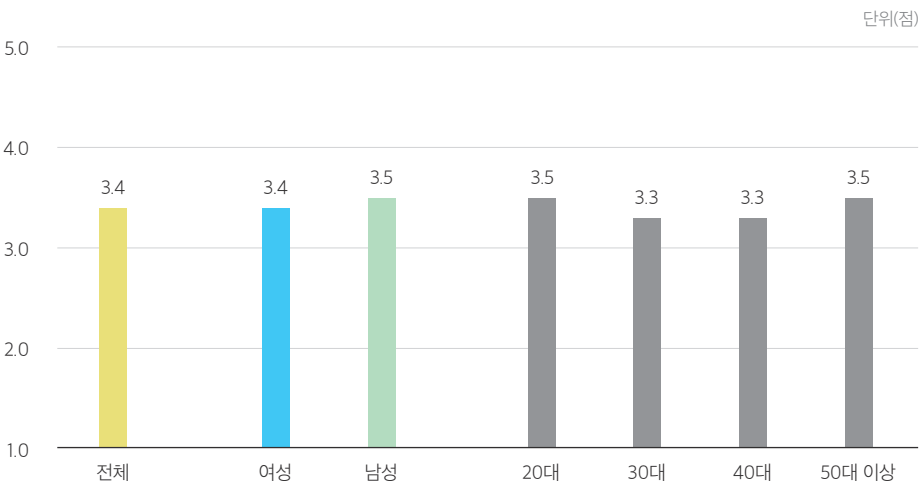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성인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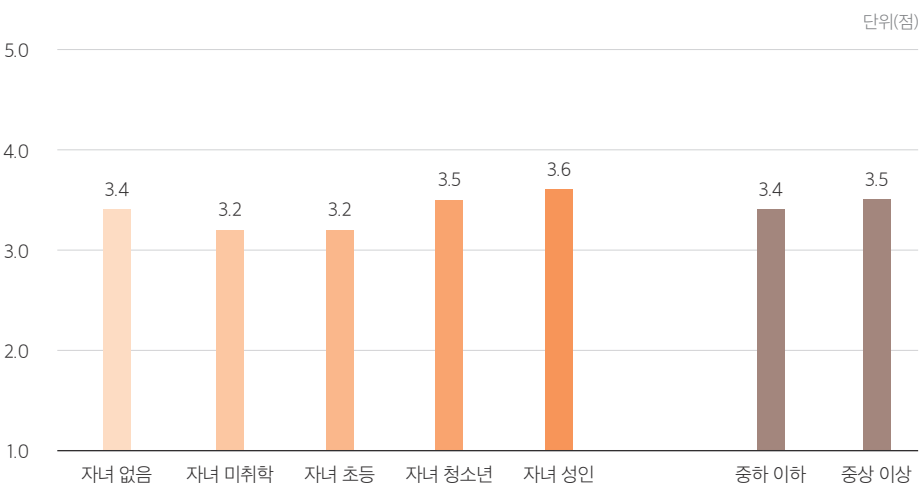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주관적 계층별

-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범위: 1-5점)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평균은 **3.4점**으로 ‘보통이다’(3점)에 가까웠음
- **20대**(3.5점)와 **50대 이상**(3.5점)이 다른 연령대보다 취업 전 경제적 지원을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 **자녀가 없는 집단**의 경우 **3.4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음.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는 **자녀가 성인인 경우**(3.6점)가 자녀가 미취학인 집단(3.2점)과 자녀가 초등학생인 집단(3.2점)보다 취업 전 경제적 지원을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상 이상인 집단**(3.5점)이 중하 이하인 집단(3.4점)보다 취업 전 경제적 지원을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단위(점)



단위(점)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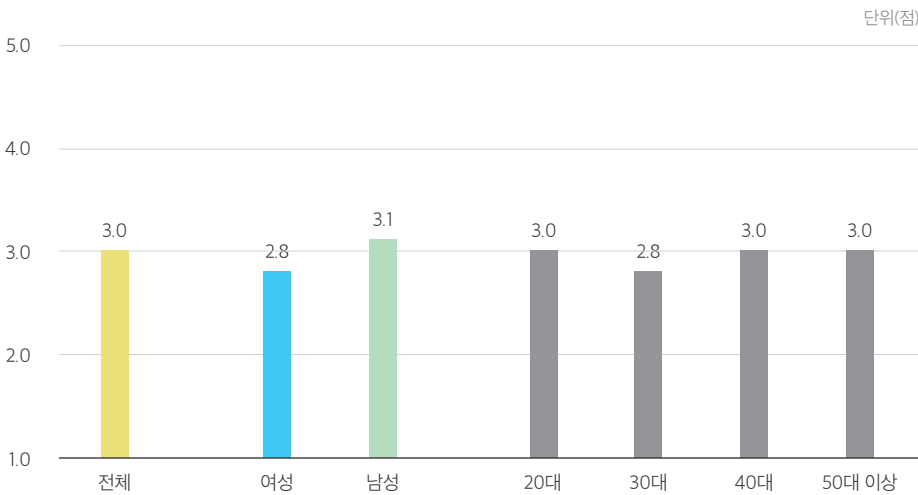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이 전체 응답자

성인 자녀의 결혼 비용 지원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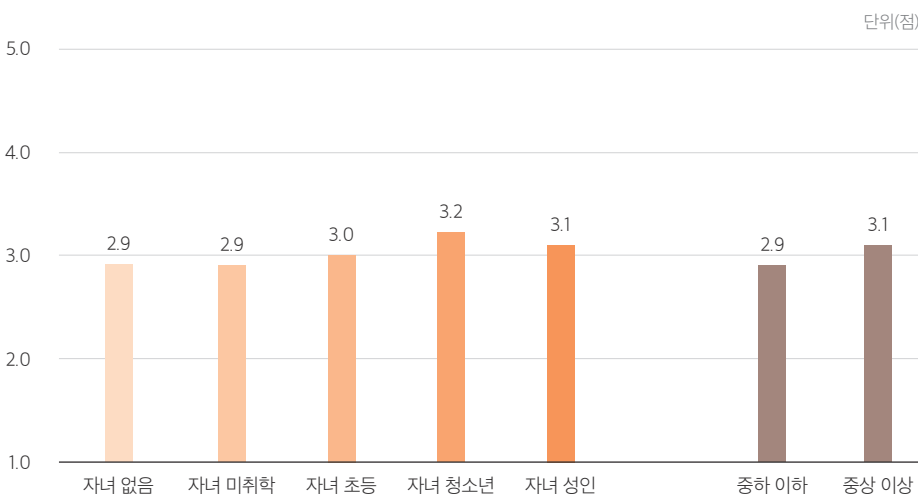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주관적 계층별

-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범위: 1-5점)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평균은 **3점**으로 ‘보통’(3점)이었음
- **남성**(3.1점)이 여성(2.8점)보다 자녀의 결혼준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 **자녀가 없는 집단**의 경우 **2.9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음.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는 **자녀가 청소년인 집단**(3.2점)이 자녀가 미취학인 집단(2.9점)보다 자녀의 결혼준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상 이상인 집단**(3.1점)이 중하 이하인 집단(2.9점)보다 자녀의 결혼준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단위(점)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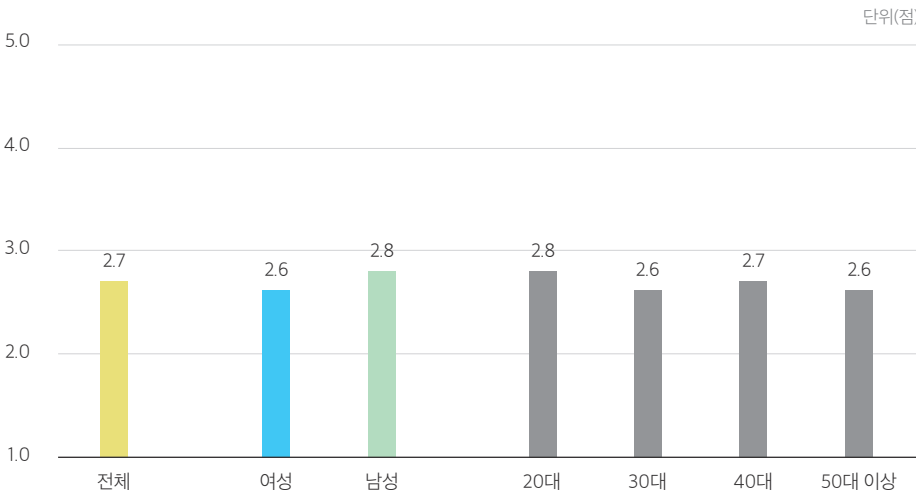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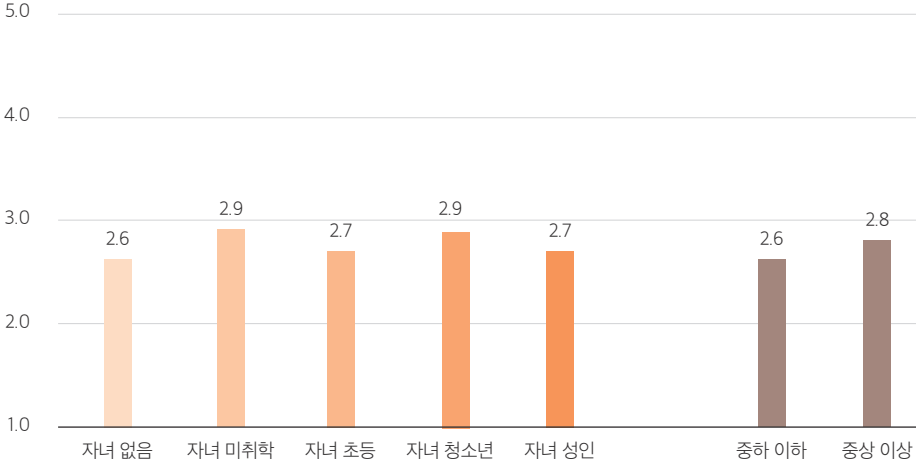
성인 자녀의 결혼 이후 돌봄 지원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주관적 계층별

-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봄 책임이 있다(경제적 도움, 손자녀 돌보기 등)’(범위: 1-5점)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평균은 **2.7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음
- **남성**(2.8점)이 여성(2.6점)보다 자녀의 결혼 이후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음
- **20대**(2.8점)가 다른 연령대보다 자녀의 결혼 이후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음
- **자녀가 없는 집단**의 경우 **2.6점**으로 ‘보통’(3점)보다 낮았음.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는 **자녀가 미취학인 집단**(2.9점)과 **자녀가 청소년인 집단**(2.9점)이 자녀가 초등학생인 집단(2.7점)과 자녀가 성인인 집단(2.7점)보다 자녀의 결혼 이후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상 이상인 집단**(2.8점)이 중하 이하인 집단(2.6점)보다 자녀의 결혼 이후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봄 책임이 있다



단위(점)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부모의 계층과 무관한 청년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해야

2025 서울가족서베이 분석 결과, 자녀의 대학 교육비와 취업 전까지의 지원에 대해서는 부모의 책임으로 강하게 인식하는 반면에 결혼 준비나 결혼 이후의 육아나 가사 등과 같은 돌봄에 대해서는 부모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행동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는데, 성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거나, 성인 자녀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과 돌봄 및 가사 노동을 자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제적, 도구적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연령대로 나타나, ‘부모가 결혼 전까지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현실에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러한 성인 자녀 지원의 양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관적 계층이 중상 이상인 집단의 경우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더 자주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단위의 조사에서도 계층적 지위가 높은 가정일수록 물질적 지원 정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최선영 외, 2024). 이는 부모의 지원이 성인 자녀의 교육,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등 생애 주요 단계에서의 주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청년들의 기회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들의 기회 격차는 단순히 청년들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족 형성과 같은 청년의 삶의 양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곽윤경, 2024).

따라서 부모의 자원과 계층이 청년의 삶의 궤도를 결정짓는 구조가 고착되지 않도록, 교육, 취업, 소득, 자산 형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혼(미혼) 청년의 자립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찮은 일자리 제공, 자산 형성 및 주거 지원 등 청년들이 스스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부모의 배경과 무관하게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료 1) 곽윤경(2024). 청년의 사회불안과 공정성 불안 인식. 보건복지포럼, 333, 4-18.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45508/1/2024.07.No.333.02.pdf>
2) 최선영, 곽윤경, 노현주, 양은정(2024).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계층적 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성인 자녀
지원 실제:
부모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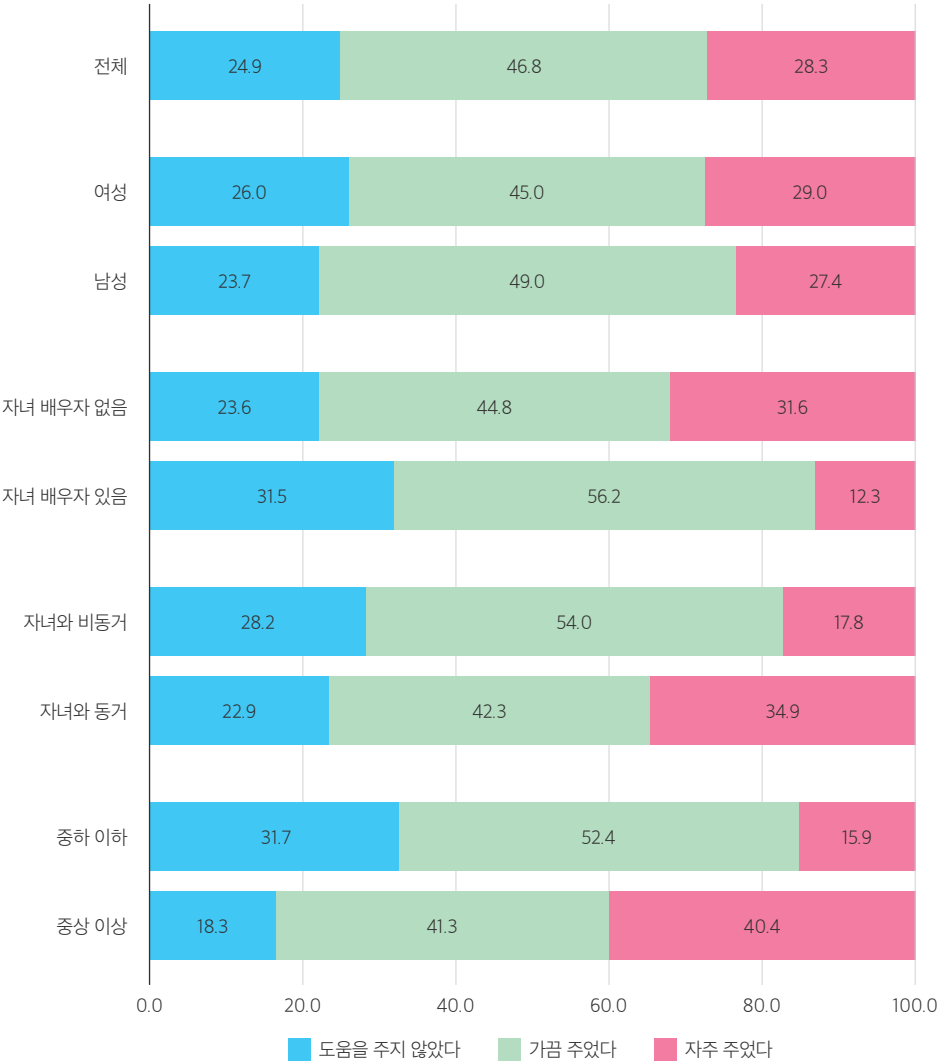
신규 성인 자녀 경제적 지원 실제:

전체, 성별, 자녀 배우자 유무, 자녀와 동거 여부, 주관적 계층별

- ‘지난 12개월 동안 **첫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셨습니까?’(범위: 1-3점)라고 질문한 결과,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서울 시민의 **28.3%**가 **‘자주 주었다’**라고 응답하였음
- **여성(29%)**이 남성(27.4%)보다 첫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자주 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첫째 자녀에게 배우자가 없는 집단(31.6%)**이 첫째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는 집단(12.3%)보다 경제적 도움을 **‘자주 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집단(34.9%)**이 성인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17.8%)보다 경제적 도움을 **‘자주 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상 이상인 집단(40.4%)**이 중하 이하인 집단(15.9%)보다 경제적 도움을 **‘자주 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지난 12개월 동안 첫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셨습니까?

단위(%)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42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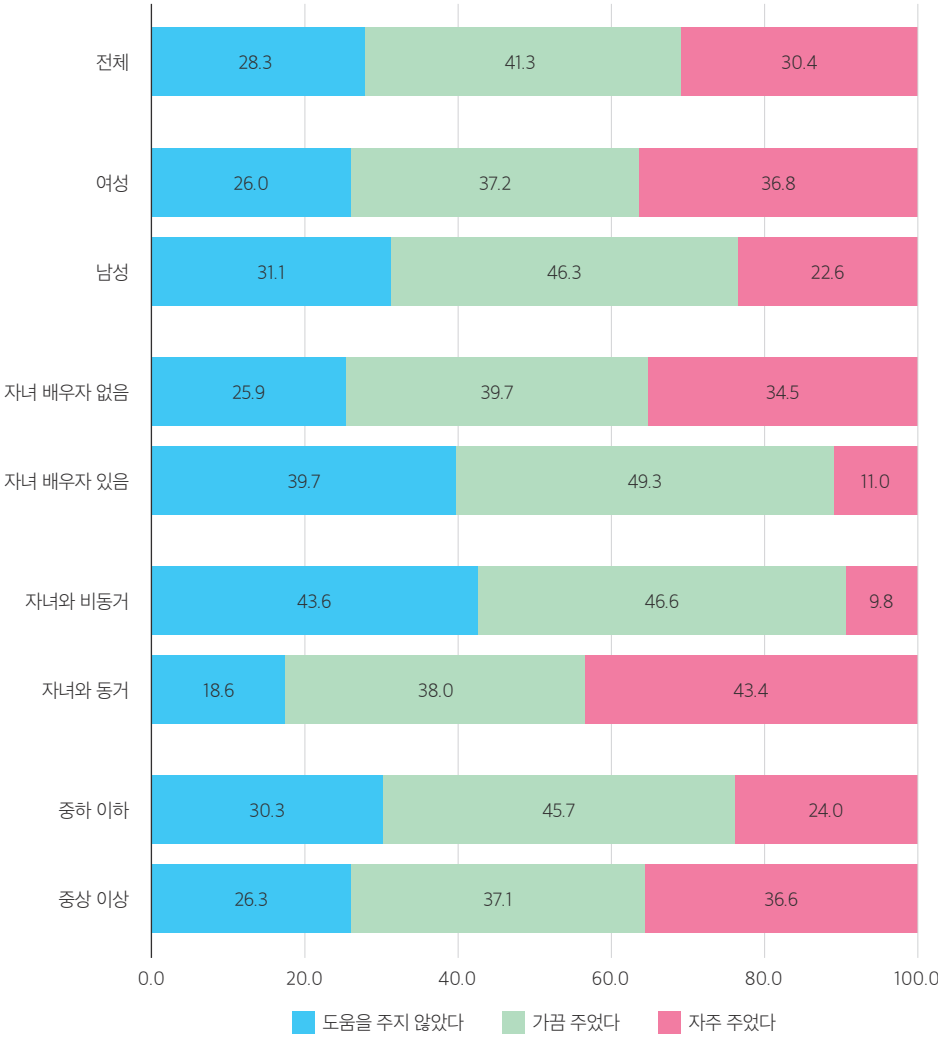
신규 성인 자녀 돌봄 및 가사 지원 실제:

전체, 성별, 자녀 배우자 유무, 자녀와 동거 여부, 주관적 계층별

- ‘지난 12개월 동안 **첫째 자녀에게 돌봄 및 가사 도움**을 주셨습니까?’(범위: 1-3점)라고 질문한 결과,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서울 시민의 **30.4%**가 **‘자주 주었다’**라고 응답하였음
- **여성(36.8%)**이 남성(22.6%)보다 첫째 자녀에게 돌봄 및 가사 도움을 **‘자주 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첫째 자녀에게 배우자가 없는 집단(34.5%)**이 첫째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는 집단(11%)보다 돌봄 및 가사 도움을 **‘자주 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집단(43.4%)**이 성인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9.8%)보다 돌봄 및 가사 도움을 **‘자주 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상 이상인 집단(36.6%)**이 중하 이하인 집단(24%)보다 돌봄 및 가사 도움을 **‘자주 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지난 12개월 동안 첫째 자녀에게 돌봄 및 가사 도움을 주셨습니까?

단위(%)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42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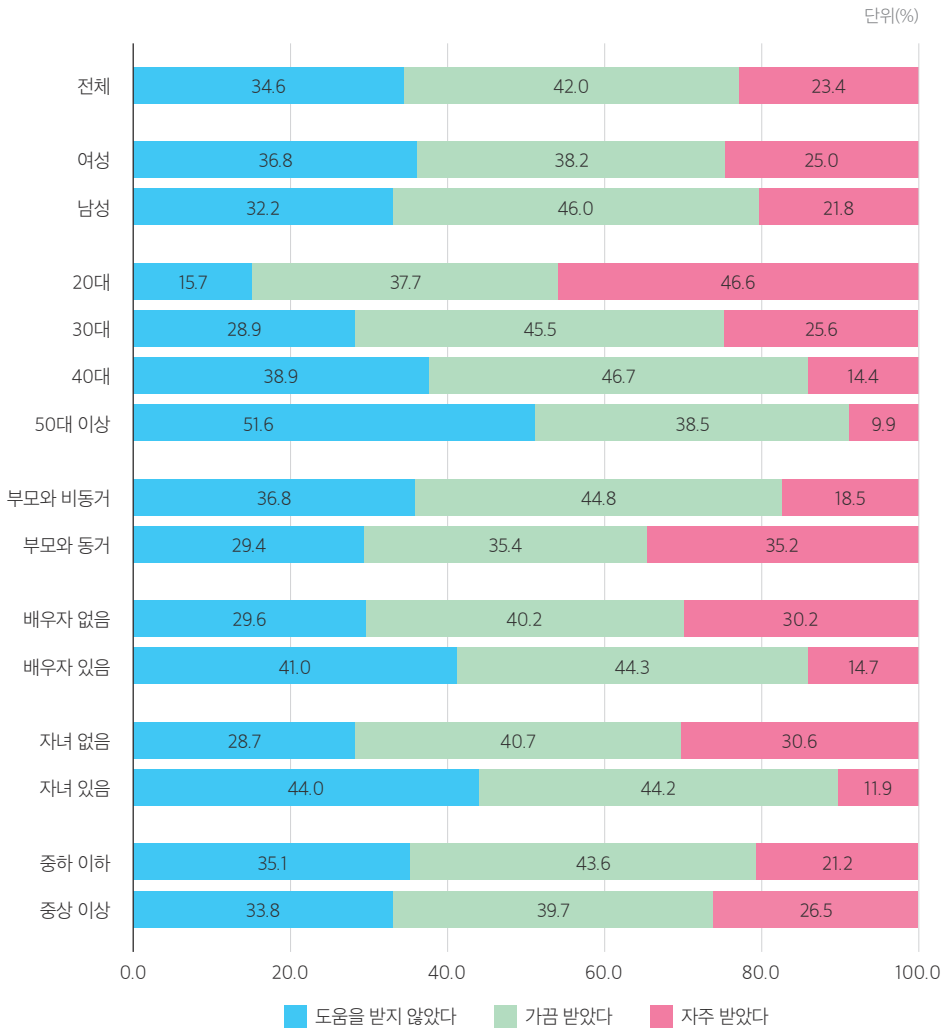


성인 자녀
지원 실제:
자녀 관점

신규 부모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 실제: 전체, 성별, 연령대별, 부모와 동거 여부,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주관적 계층별

- ‘지난 12개월 동안 본인의 부모님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으셨습니까?’(범위: 1~3점)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응답 비율은 ‘가끔 받았다(42%)’, ‘도움을 받지 않았다(34.6%)’, ‘자주 받았다(23.4%)’ 순으로 높았음
- 남성(46%)이 여성(38.2%)보다 경제적 도움을 ‘가끔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20대(46.6%)가 다른 연령대보다 경제적 도움을 ‘자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35.2%)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18.5%), 배우자가 없는 집단(30.2%)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14.7%), 자녀가 없는 집단(30.6%)이 자녀가 있는 집단(11.9%)보다, 경제적 도움을 ‘자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상 이상인 집단(26.5%)이 중하 이하인 집단(21.2%)보다 경제적 도움을 ‘자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지난 12개월 동안 본인의 부모님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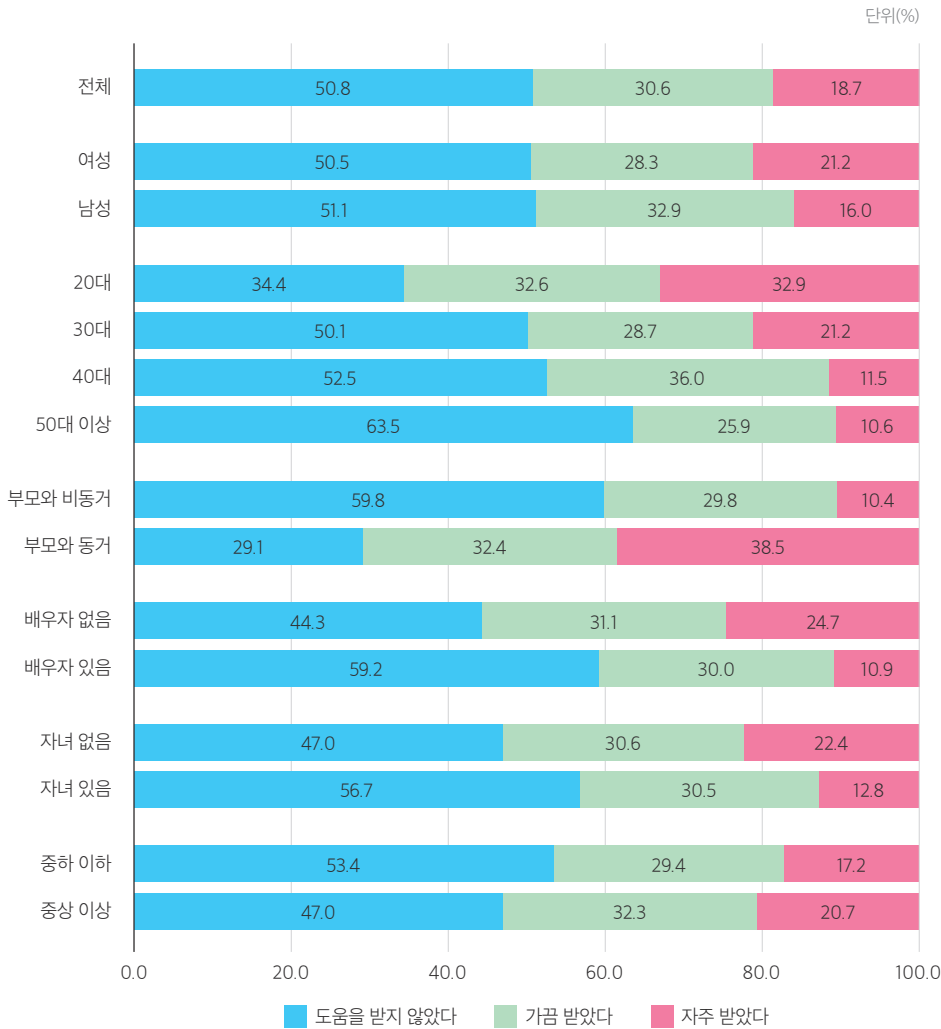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응답자 1,452명)

신규 부모에게 받은 돌봄 및 가사 지원 실제: 전체, 성별, 연령대별, 부모와 동거 여부,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주관적 계층별

- ‘지난 12개월 동안 본인의 부모님에게서 돌봄 및 가사 도움을 받으셨습니까?’(범위: 1~3점)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응답 비율은 ‘도움을 받지 않았다(50.8%)’, ‘가끔 받았다(30.6%)’, ‘자주 받았다(18.7%)’ 순으로 높았음
- 여성(21.2%)이 남성(16%)보다 돌봄 및 가사 도움을 ‘자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20대(32.9%)가 다른 연령대보다 돌봄 및 가사 도움을 ‘자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38.5%)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10.4%)보다, 배우자가 없는 집단(24.7%)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10.9%)보다, 자녀가 없는 집단(22.4%)이 자녀가 있는 집단(12.8%)보다, 본인의 부모로부터 돌봄 및 가사 도움을 ‘자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상 이상인 집단(20.7%)이 중하 이하인 집단(17.2%)보다 본인의 부모로부터 돌봄 및 가사 도움을 ‘자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지난 12개월 동안 본인의 부모님에게서 돌봄 및
가사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응답자 1,45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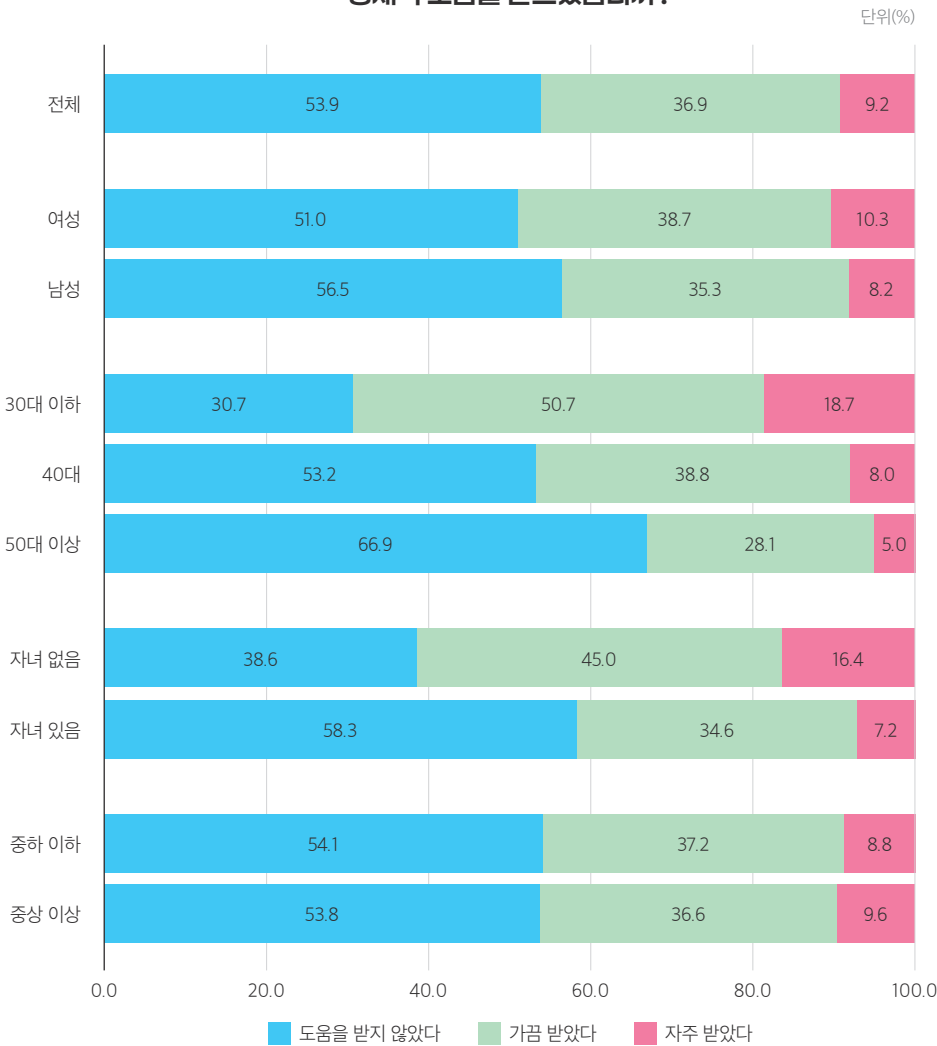


성인 자녀
지원 실제:
며느리·사위 관점

배우자 부모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 실제: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주관적 계층별

- ‘지난 12개월 동안 배우자의 부모님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으셨습니까?’(범위: 1-3점)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응답 비율은 ‘도움을 받지 않았다(53.9%)’, ‘가끔 받았다(36.9%)’, ‘자주 받았다(9.2%)’ 순으로 높았음
- 여성(10.3%)이 남성(8.2%)보다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자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30대 이하 집단(18.7%)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제적 도움을 ‘자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자녀가 없는 집단(16.4%)이 자녀가 있는 집단(7.2%)보다 경제적 도움을 ‘자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상 이상인 집단(9.6%)이 중하 이하인 집단(8.8%)보다 경제적 도움을 ‘자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지난 12개월 동안 배우자의 부모님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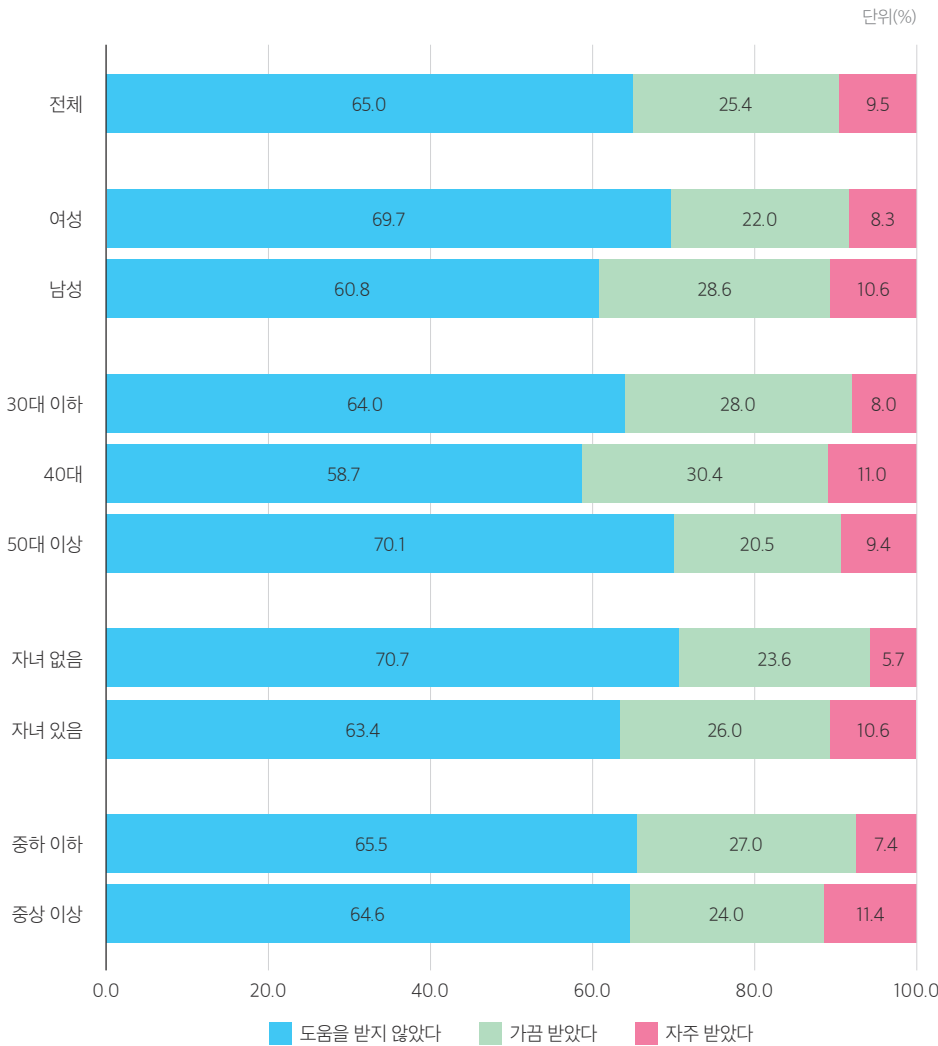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응답자 629명)

배우자 부모에게 받은 돌봄 및 가사 지원 실제: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주관적 계층별

- ‘지난 12개월 동안 배우자의 부모님에게서 돌봄 및 가사 도움을 받으셨습니까?’(범위: 1-3점)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응답 비율은 ‘도움을 받지 않았다(65%)’, ‘가끔 받았다(25.4%)’, ‘자주 받았다(9.5%)’ 순으로 높았음
- 남성(10.6%)이 여성(8.3%)보다 가사 및 돌봄 도움을 ‘자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40대(11%)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사 및 돌봄 도움을 ‘자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자녀가 있는 집단(10.6%)이 자녀가 없는 집단(5.7%)보다 가사 및 돌봄 도움을 ‘자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상 이상인 집단(11.4%)이 중하 이하인 집단(7.4%)보다 가사 및 돌봄 도움을 ‘자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지난 12개월 동안 배우자의 부모님에게서
돌봄 및 가사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응답자 62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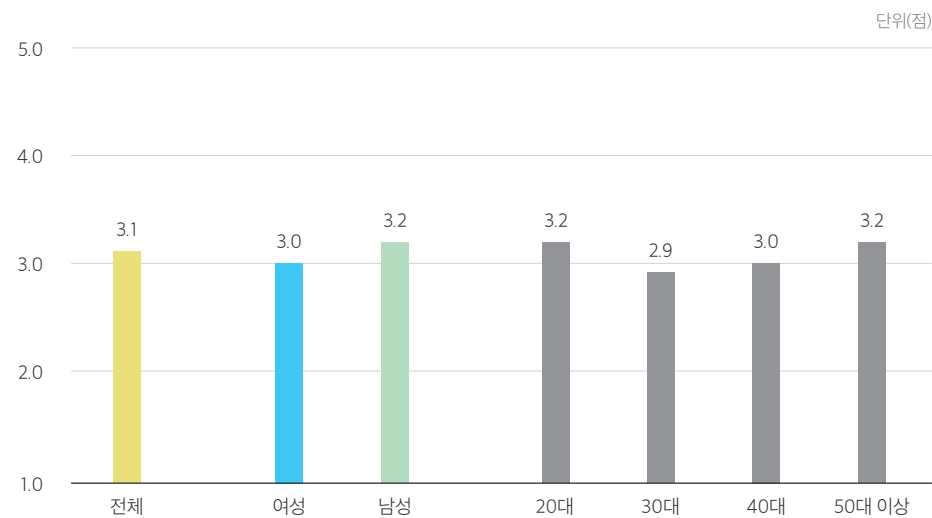
노후를 위해 자녀 필요할까?

노후를 위해 자녀 필요: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주관적 계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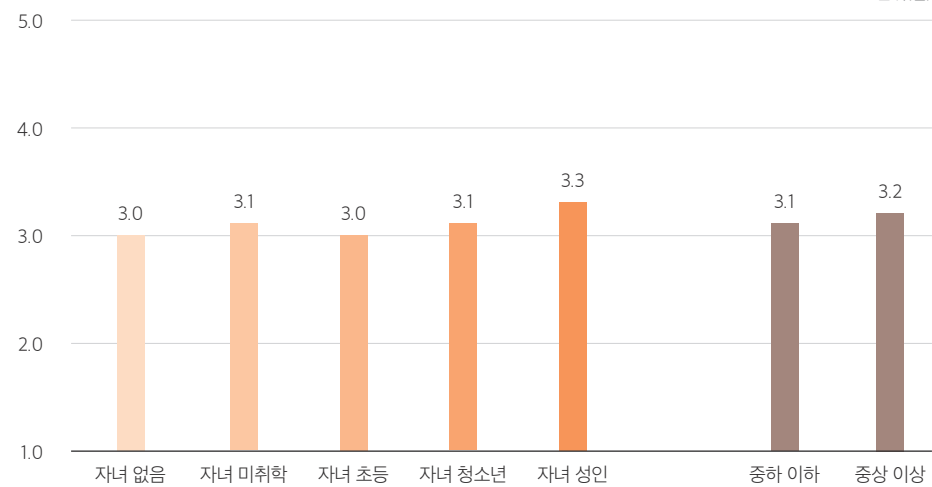
-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은 평균은 **3.1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음
- **남성**(3.2점)이 여성(3점)보다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음
- **20대**(3.2점)와 **50대 이상** 집단(3.2점)이 다른 연령대보다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음
- **자녀가 없는 집단**의 경우 **3점**으로 ‘보통’(3점)이었음.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는 **자녀가 성인인 경우**(3.3점)가 자녀가 초등학생인 집단(3점)보다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음
- 주관적 계층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단위(점)

단위(점)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센터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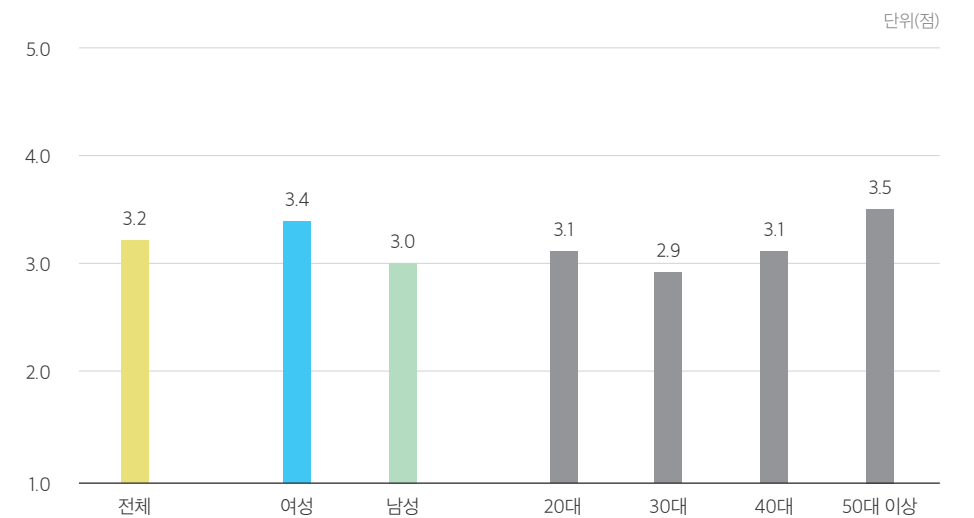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성공일까?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성공: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주관적 계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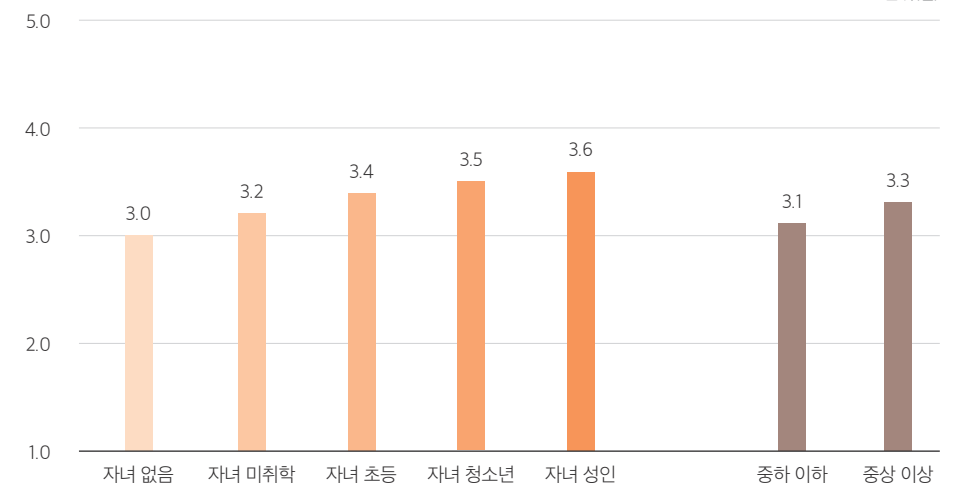
-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성공과 같다’(범위: 1-5점)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평균은 **3.2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음
- **여성**(3.4점)이 남성(3점)보다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성공과 같다고 인식하였음
- **50대 이상 집단**(3.5점)이 다른 연령대보다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성공과 같다고 인식하였음
- **자녀가 없는 집단**의 경우 **3점**으로 ‘보통’(3점)이었음.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는 **자녀가 성인인 집단**(3.6점)이 자녀가 미취학인 집단(3.2점)보다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성공과 같다고 인식하였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상 이상인 집단**(3.3점)이 중하 이하인 집단(3.1점)보다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성공과 같다고 인식하였음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성공과 같다



단위(점)

단위(점)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센터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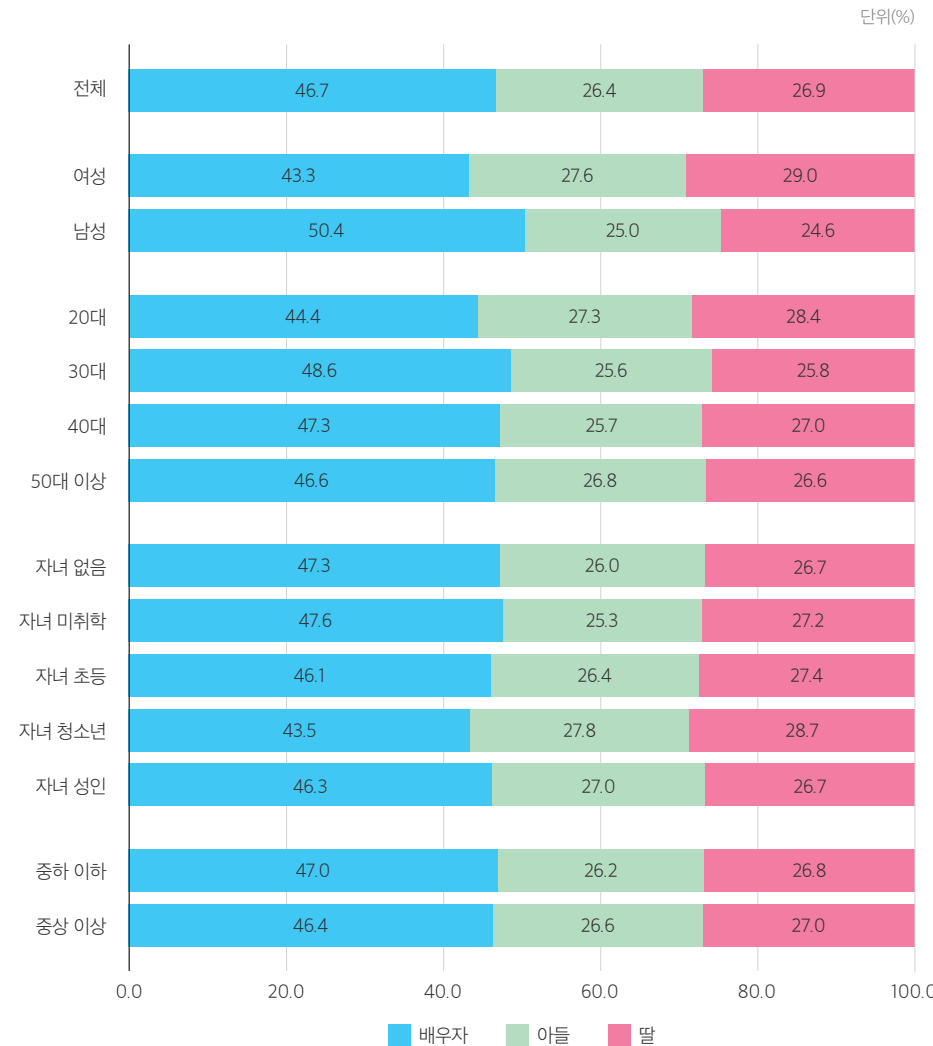
재산 상속,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할까?

신규 내가 사망한 후 재산 상속은 어떻게?: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주관적 계층별

- '귀하의 사망 후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 상속하시겠습니까? 사망 시점에서 배우자, 아들 1명, 딸 1명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고, 전체 재산 100%를 3명에게 몇 %씩 상속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은 평균적으로 배우자에게 46.7%, 아들에게 26.4%, 딸에게 26.9% 상속하겠다고 응답함
- 여성은 배우자:아들:딸 = 43:28:29라고 생각하였고, 남성은 배우자:아들:딸 = 50:25:25라고 생각하였음
- 연령대별로는 배우자에게 상속하겠다는 경우는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48.6%)을 나타냈으며, 딸에게 상속하겠다는 경우는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28.4%)을 나타냈음. 아들에게 상속하겠다는 경우는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27.3%)을 나타냈음
-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로, 주관적 계층별로도 모든 집단에서 배우자에게 상속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귀하의 사망 후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 상속하시겠습니까?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 전체 응답자

해외 사례



미국 상속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상속 문제는 금전적 자산뿐 아니라, 고인의 유품이나 추억이 담긴 물건처럼 비금전적 자산의 분배 과정에서도 감정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의 미네소타대학교에서는 「누가 할머니의 노란 파 이접시를 차지할 것인가?(Who Gets Grandma's Yellow Pie Plat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상속 관련 가족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교육자료(동영상, 워크북)와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상속에서 물건이 가지는 감정적 의미를 이해하고, 공정함이 무엇인지 가족 간에 정의하며, 실제 분배 방법을 수립하는 한편 가족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령자는 상속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가족은 상속 문제로 인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UNIVERSITY OF MINNESOTA EXTENSION

Search Extension

Learn About ▾ Courses and events Connect ▾

Who Gets Grandma's Yellow Pie Plate?

[Home](#) > [Home and financial management](#) > [Later-life decision making](#) > Who Gets Grandma's Yellow Pie Plate

Who Gets Grandma's Yellow Pie Plate? provides research-informed practical strategies to protect your family relationships when passing on personal possessions.

Few families escape making decisions about passing on personal possessions. Paring down and deciding if and how to transfer personal possessions is inevitable when a family member downsizes, declutters, moves or dies. While it may seem simple, decisions about personal property can be challenging and lead to serious family conflicts.

Extension resources [Open all](#) | [Close all](#)

No matter who you are— older parent, spouse, adult child, educator, legal professional or social services practitioner — Who Gets Grandma's Yellow Pie Plate? offers a range of free and for sale research-informed resources to help address common inheritance decision making challenges.

자료 University of Minnesota Extension. Who Gets Grandma's Yellow Pie Plate?
<https://extension.umn.edu/late-life-decision-making/who-gets-grandmas-yellow-pie-plate#quizzes%2C-podcasts-and-family-stories-3220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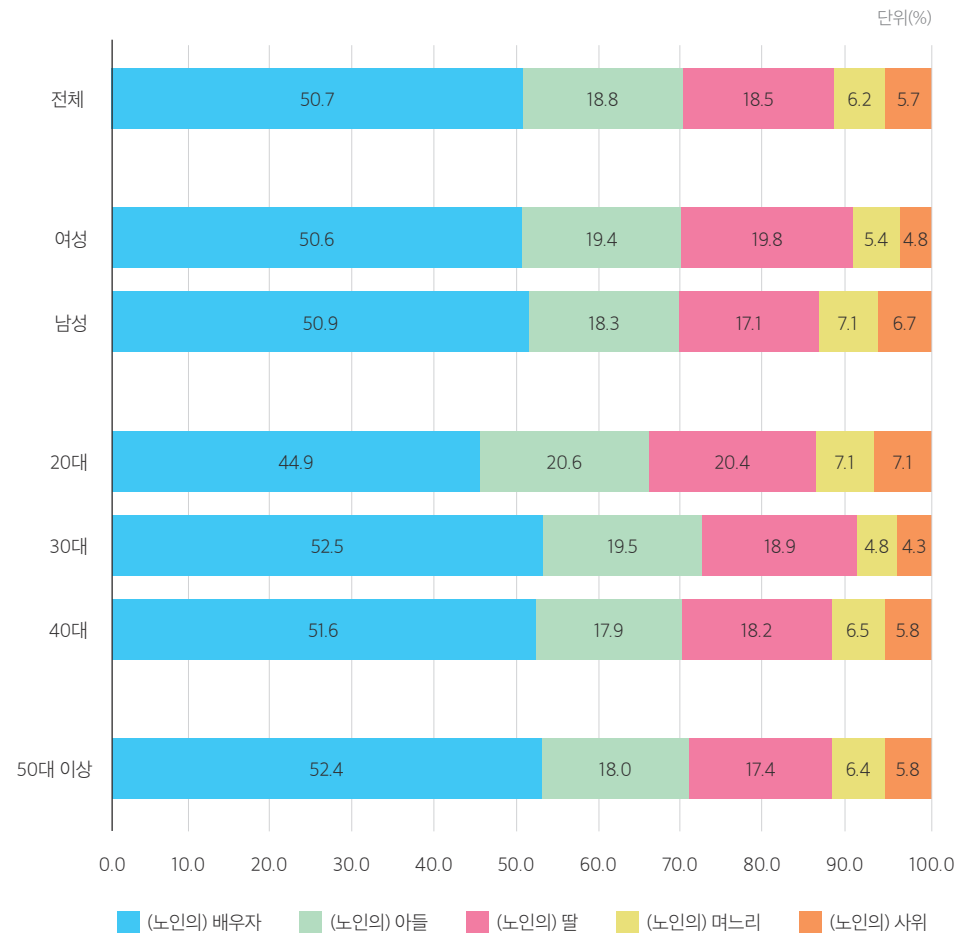


부모 돌봄, 누가 얼마나 해야 할까?

신규 내가 노인이라면, 돌봄 부담은 어떻게?: 전체, 성별, 연령대별

-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이라고 가정할 때, 귀하에게 배우자, 결혼한 아들 1명, 결혼한 딸이 1명 있는 상황이라면 귀하를 일상적으로 돌보는 시간을 전체 100%라고 할 때 가족구성원 각각이 몇 %씩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은 배우자(50.7%), 아들(18.8%), 딸(18.5%), 며느리(6.2%), 사위(5.7%) 순으로 응답하였음
- 여성은 배우자:아들:딸:며느리:사위=51:19:20:5:5, 남성은 배우자:아들:딸:며느리:사위=51:18:17:7:7이라고 생각하였음
- 연령대별로는 배우자에게 돌봄을 기대하는 비율이 20대(44.9%)가 가장 낮고, 50대 이상 집단(52.4%)이 가장 높았음. 자식에게 돌봄을 기대하는 비율은 20대가 아들(20.6%), 딸(20.4%)로 가장 높고, 50대 이상 집단이 아들(18%), 딸(17.4%)로 비교적 낮았음

귀하가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이라고 가정할 때,
가족구성원 각각이 몇 %씩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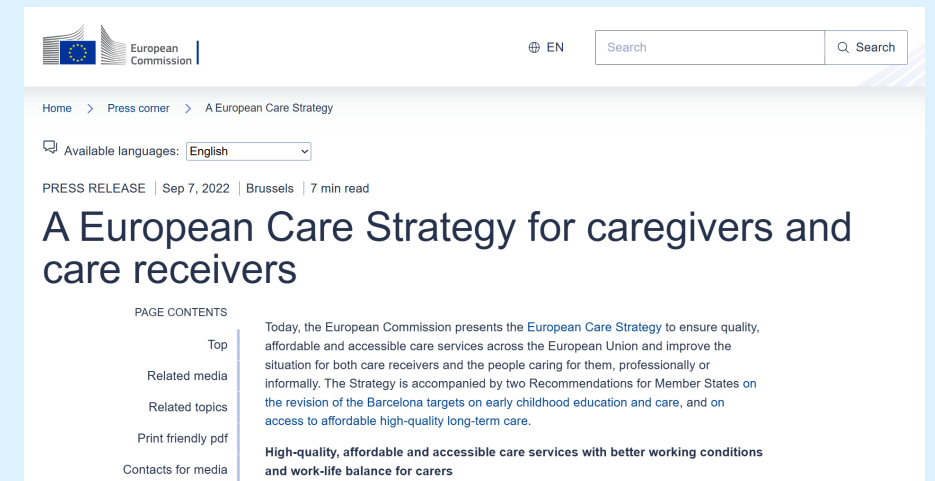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유럽연합(EU) 장기요양 정책

유럽연합(EU)은 2022년 European Care Strategy를 통해 유럽 전역 어디에 살든,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수준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돌봄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이 확보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유럽은 국가, 지역마다 돌봄 서비스의 제공 수준에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시설 중심의 돌봄을 넘어 재택 돌봄, 지역사회 기반 돌봄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및 확대하여 접근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특히, 접근성의 측면에서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히 고령자 돌봄만이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돌봄 수요자가 시설과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와 지원을 강화한다. 원격 모니터링, 비대면 상담, 스마트 홈 케어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리적 제약이 있더라도 돌봄을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힘쓴다. 나아가, 돌봄 수혜자의 가족을 대상으로도 전문적인 돌봄 훈련과 상담, 심리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돌봄 제공 가족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한다.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에도 주목한다.



자료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5169



일본, 미국 인공지능/로봇 돌봄

일본

요양시설에 있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용 로봇인 파로(PARO), 인공지능 센서를 통해 대상을 인식하고 눈으로 교감하는 로봇인 러봇(LOVOT) 등을 일찍부터 노인돌봄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비해 간병인력이 부족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간병인 로봇을 고도화하기 시작했다. 이 로봇은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을 인식하여 자세를 바꿔 주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나아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돌봄로봇 개발·실증·보급을 위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배설 보조, 이동 지원, 낙상 방지 등의 물리적 보조 기능에 집중된 돌봄 로봇의 실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

노인돌봄 안부전화에 인공지능 기능을 더한 케어엔젤(Care Angel), 노인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태를 예측하는 템포(Tempo), 강아지의 외형으로 노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반려로봇 제니(Jennie) 등이 실제 고령층을 대상으로 판매 및 활용되고 있다. 특히, 뉴욕주 고령화청(NYSOFA)은 엘리큐(ELLI Q)라는 고정형 소셜로봇을 구매하여 혼자 사는 노인가구에 배포하였는데, 이 로봇은 체조, 요가, 사회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여 고령자가 건강한 생활 패턴을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특히, 약 복용 시간과 지역사회 활동 소식, 의사 약속 알람 등의 기능과 더불어 선제적으로 대화를 걸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국내에도 돌봄 로봇 ‘효돌’ 등이 보급되어 있다. 주로 음성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정서적 지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형태가 인형으로 한정되어 있다.

자료 1) PARO. <http://www.parorobots.com/>
2) LOVOT. <https://lovot.life/en/>
3) JTBC News. (2025. 2. 28.). ‘초고령화 사회’ 일본…로봇 간병인 시대 준비 [동영상].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ItCUEK9wslk>
4) 厚生労働省. (n.d.) . 介護ロボットの開発・普及支援 . 厚生労働省 . <https://www.mhlw.go.jp/kaigoseisansei/pf/>
5) Care Angel. <https://empowerhealth.ai/>
6) CarePredict. <https://www.carepredict.com>
7) Tomnot. <https://tombot.com>
8) ELLI Q. <https://elliq.com>
9) 효돌. <https://hyodo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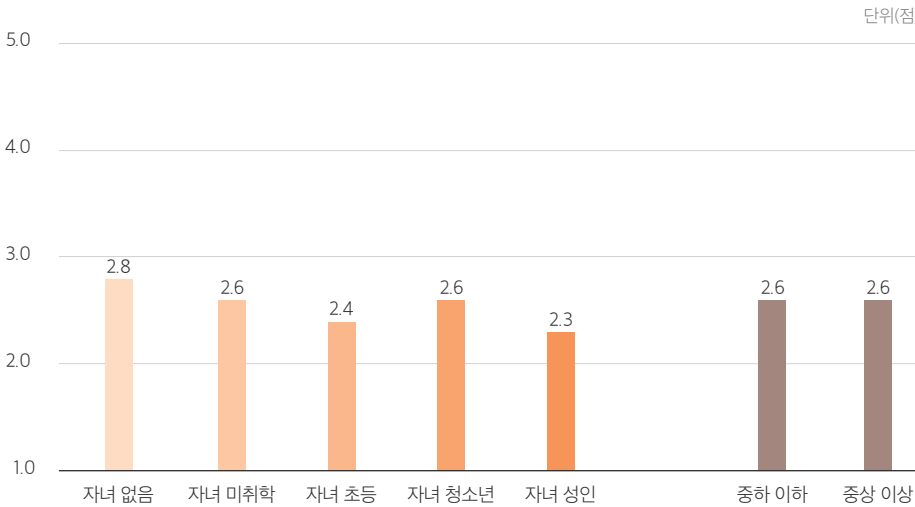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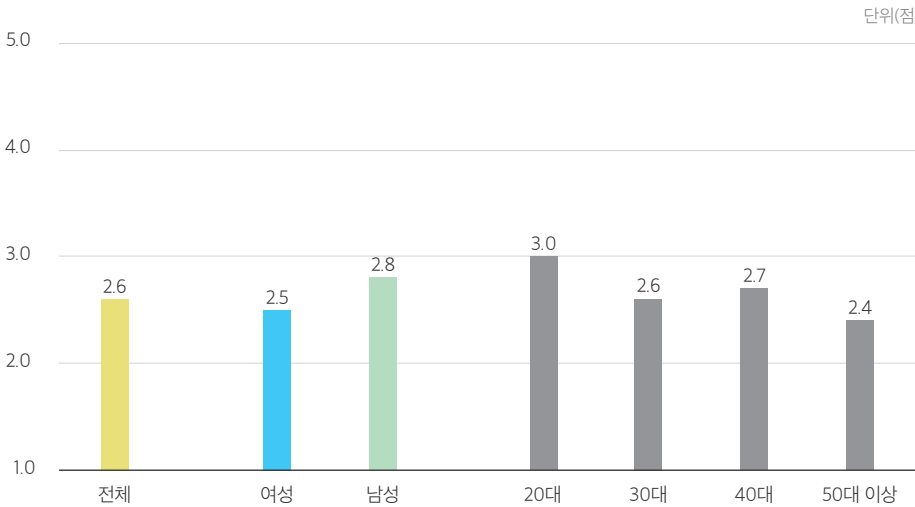
부모 돌봄에 대한 태도

노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주관적 계층별

- ‘자녀는 나이트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은 평균 **2.6점**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2점)와 ‘보통이다’(3점)의 중간이었음
- **남성**(2.8점)이 여성(2.5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20대**(3점)가 다른 연령대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자녀가 없는 집단**의 경우 **2.8점**으로 ‘보통’(3점)보다 낮았음.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는 **자녀가 미취학인 집단**(2.6점)과 **자녀가 청소년인 집단**(2.6점)이 자녀가 초등학교생인 집단(2.4점)과 자녀가 성인인 집단(2.3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주관적 계층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자녀는 나이트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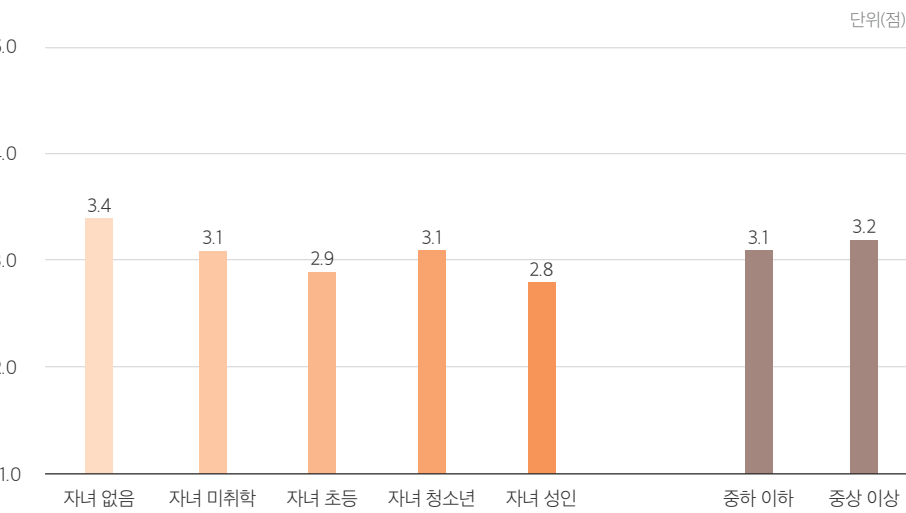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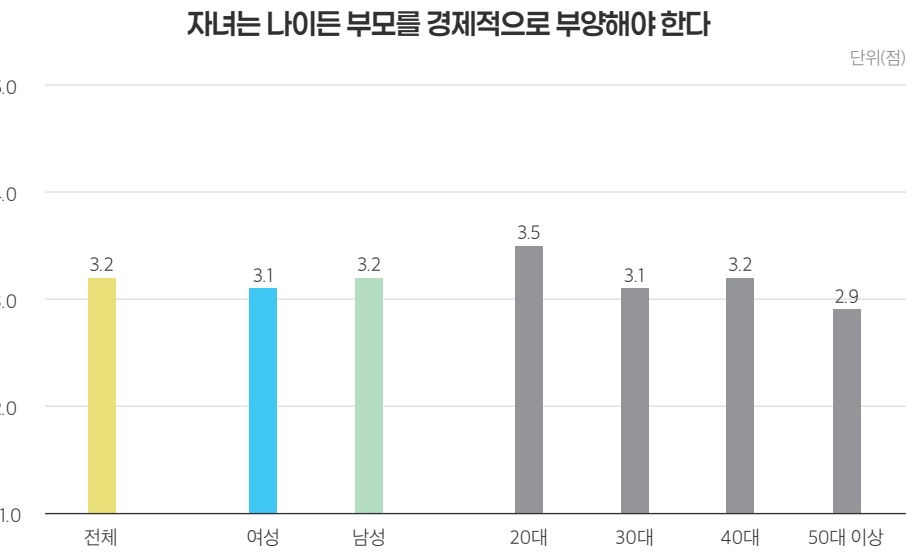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센터 전체 응답자

노부모 경제적 부양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주관적 계층별

- ‘자녀는 나이드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은 평균 **3.2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음
- **남성**(3.2점)이 여성(3.1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20대**(3.5점)가 다른 연령대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자녀가 없는 집단**의 경우 **3.4점**으로 ‘보통’(3점)보다 높았음.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는 **자녀가 미취학인 집단**(3.1점)과 **자녀가 청소년인 집단**(3.1점)이 자녀가 초등학교생인 집단(2.9점)과 자녀가 성인인 집단(2.8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주관적 계층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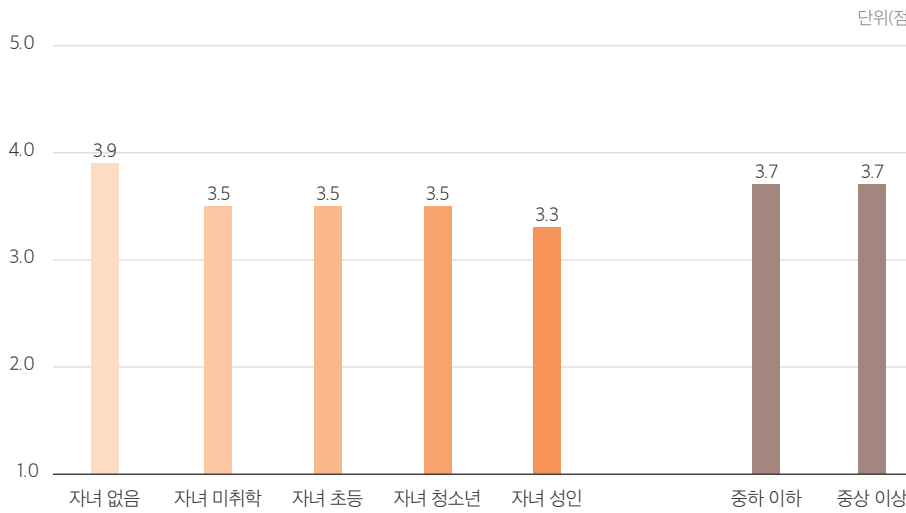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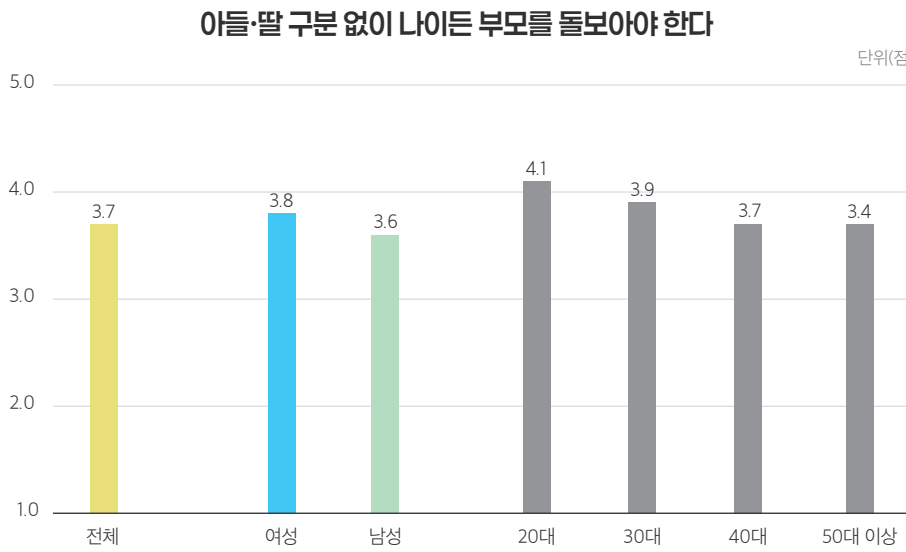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 전체 응답자

자녀 성별에 따른 노부모 돌봄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주관적 계층별

- ‘아들·딸 구분 없이 나이드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은 평균 **3.7점**으로, ‘대체로 그렇다’(4점)에 가깝게 나타남
- **여성**(3.8점)이 남성(3.6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20대**(4.1점)가 다른 연령대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자녀가 없는 집단**의 경우 **3.9점**으로 ‘대체로 그렇다’(4점)에 가까웠음.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는 **자녀가 미취학인 집단**(3.5점)과 **자녀가 초등학교생인 집단**(3.5점), **자녀가 청소년인 집단**(3.5점)이 자녀가 성인인 집단(3.3점)보다 아들·딸 구분 없이 나이드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 주관적 계층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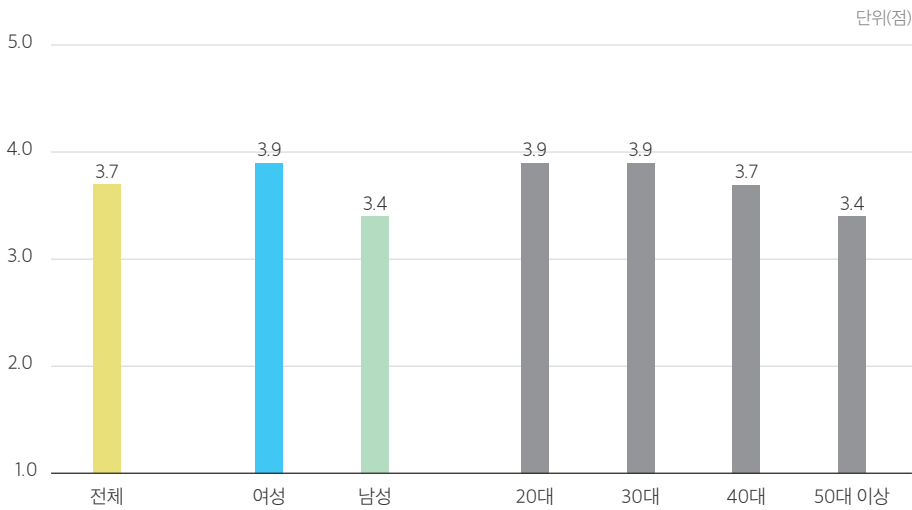
셀프 효도에 대한 태도

신규 셀프 효도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 및 발달단계별, 주관적 계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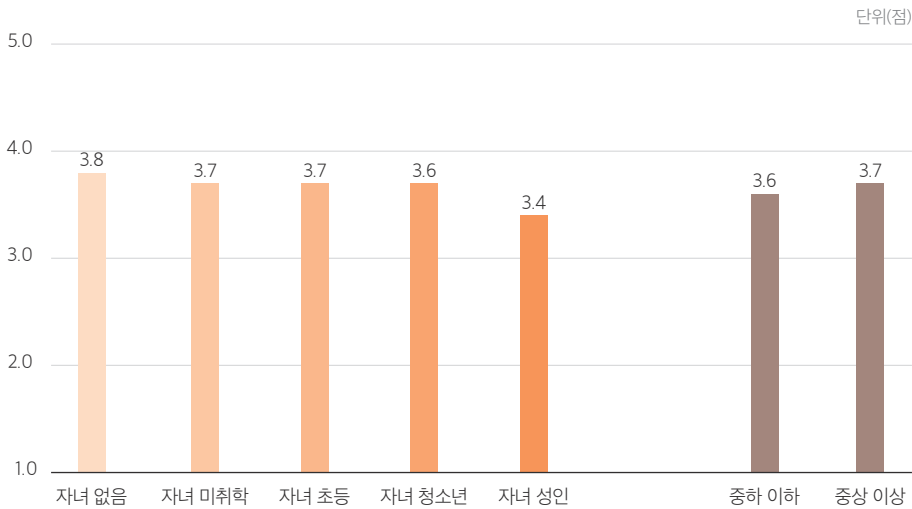
- ‘부부는 각자의 부모님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은 평균 **3.7점**으로, ‘**대체로 그렇다**’(4점)에 가깝게 나타남
- **여성**(3.9점)이 남성(3.4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20대**(3.9점)와 **30대**(3.9점)가 다른 연령대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자녀가 없는 집단**의 경우 **3.8점**으로 ‘대체로 그렇다’(4점)에 가까웠음.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는 **자녀가 미취학인 집단**(3.7점)과 **자녀가 초등학생인 집단**(3.7점)이 자녀가 성인인 집단(3.4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주관적 계층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부부는 각자의 부모님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셀프 효도)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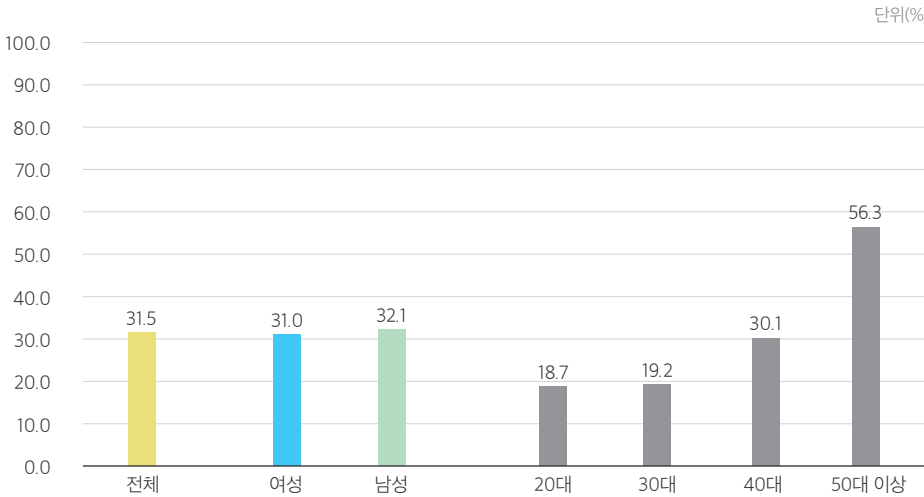


돌봄 필요 여부: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신규 어머니의 돌봄 필요 여부: 전체, 성별, 연령대별

- ‘부모님 중 일상생활에서 가족의 도움(예: 병원 동행, 간병)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습니까?’를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 중 **31.5%**가 **어머니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남성(32.1%)**이 여성(31%)보다 어머니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50대 이상 집단(56.3%)**이 다른 연령대보다 어머니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돌봄이 필요한 어머니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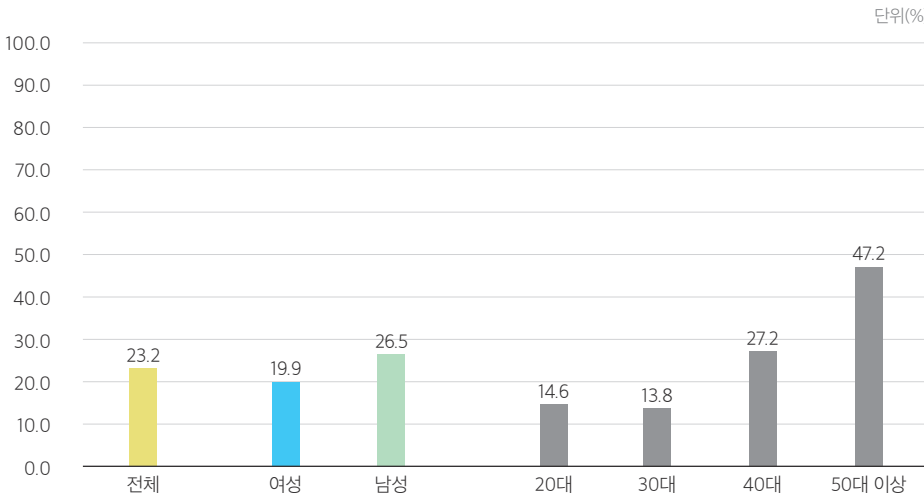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어머니가 생존한 응답자 1,377명)

신규 아버지의 돌봄 필요 여부: 전체, 성별, 연령대별

- ‘부모님 중 일상생활에서 가족의 도움(예: 병원 동행, 간병)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습니까?’를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 중 **23.2%**가 **아버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남성(26.5%)**이 여성(19.9%)보다 아버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50대 이상 집단(47.2%)**이 다른 연령대보다 아버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돌봄이 필요한 아버지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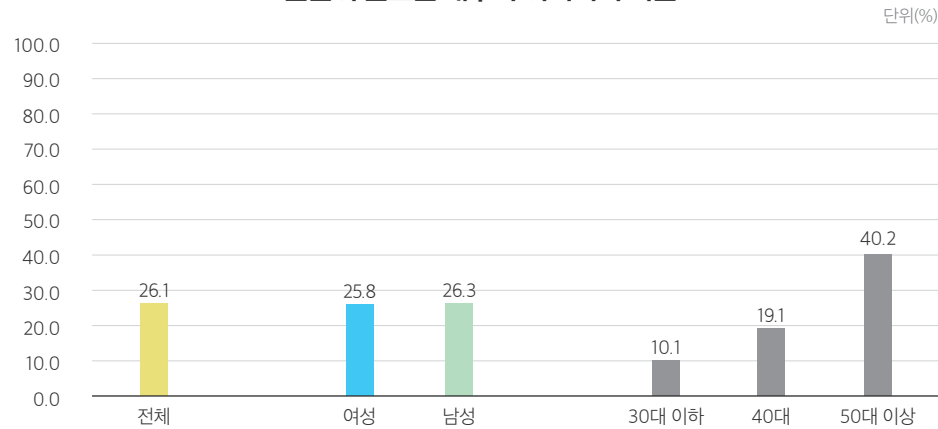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아버지가 생존한 응답자 1,109명)

신규 배우자의 어머니 돌봄 필요 여부: 전체, 성별, 연령대별

- ‘배우자의 부모님(귀하의 시부모 또는 처부모) 중 일상생활에서 가족의 도움(예: 병원 동행, 간병)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습니까?’를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 중 **26.1%**가 배우자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남성(26.3%)**이 여성(25.8%)보다 배우자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50대 이상 집단(40.2%)**이 다른 연령대보다 배우자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돌봄이 필요한 배우자 어머니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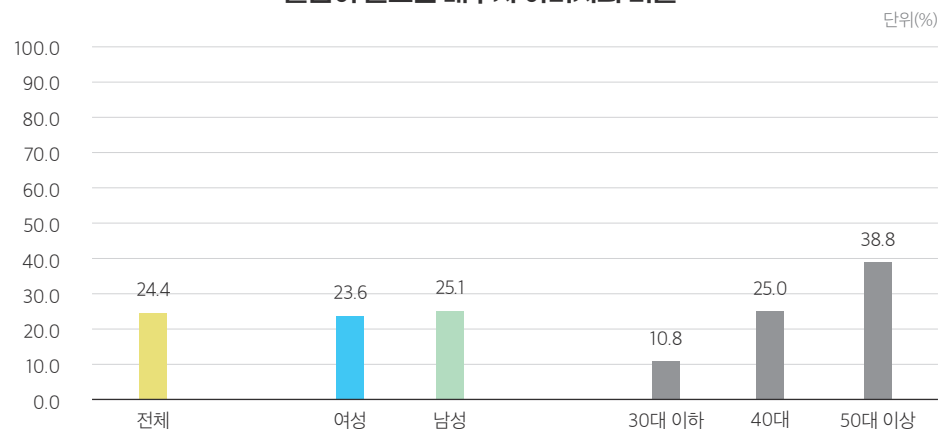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
(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의 어머니가 생존한 응답자 598명)

신규 배우자의 아버지 돌봄 필요 여부: 전체, 성별, 연령대별

- ‘배우자의 부모님(귀하의 시부모 또는 처부모) 중 일상생활에서 가족의 도움(예: 병원 동행, 간병)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습니까?’를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 중 **24.4%**가 배우자 아버지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남성(25.1%)**이 여성(23.6%)보다 배우자 아버지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50대 이상 집단(38.8%)**이 다른 연령대보다 배우자 아버지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돌봄이 필요한 배우자 아버지의 비율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
(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의 아버지가 생존한 응답자 406명)

2025 서울가족정책



서울시 공공 호스피스 병상 추가 확보

중증 질환의 말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은 가족에게 신체적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호스피스 및 재가 돌봄의 영역에서 돌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그간 289개에 그쳤던 서울시 소재 공공병원의 호스피스 병상 수를 2027년까지 108개 추가로 확보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립 북부병원에서는 일반 병동 1개를 전면 개조하여 호스피스 병상 수를 2배 이상인 54개까지 확보했다. 2026년 및 2027년에는 서울시립 동부, 서북, 북부병원에 도 총 224개의 호스피스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호스피스 전문인력을 구성하고 심리·정서 지원, 가족돌봄교육 등을 포함하는 통합형 완화의료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 서울특별시. (2025. 7. 4.). 서울시 생애말기 돌봄 강화한다... 27년까지 호스피스 병상 224개 확충
[보도자료] <https://opengov.seoul.go.kr/press/33825109>





오스트리아, 일본, 싱가포르 세대 통합 돌봄

최근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족 내 돌봄이 약화되면서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노인 돌봄 체계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시설 기반 돌봄은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며, 살던 집에서 계속 돌봄을 받기 원하는 고령자들의 욕구와는 괴리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지역과 재가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인돌봄은 단순한 물리적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세대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

빈과 클라겐푸르트에 위치한 Caritas Pfliegewohnhaus St. Magdalena는 가족 같은 분위기의 소규모 공동체로 구성 및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 요양시설이다. 다학제 팀이 개별 요구에 맞춘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일 공간 내에 어린이집도 위치해 있어 세대 간 일상적 만남과 교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일본

가시와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요시키다이 주택단지 재생프로젝트’는 거주자가 본인이 살던 집에서 고령자가 되어서도 계속 거주하게 하는 ‘에이징 인 플래스(Aging in Place)’를 목표로 하는 주택단지이다. 이곳에서 고령자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가정 방문 간호서비스와 같은 의료 서비스를 본인의 집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부 세대도 입주가 가능하여 단지 내에는 보육시설, 도서관 등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는 단지 내 여러 시설에서 근로하며 사회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싱가포르

‘Kwong Wai Shiu 커뮤니티케어 센터’는 탁아소와 노인 돌봄 센터를 결합한 복합 시설로 고령자가 유아 교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세대 간 교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을 유아 교육의 자산으로 활용하여 노화를 늦추고 이들의 고립을 예방한다.

자료 1) Caritas Pflege. (n.d.). Haus St. Magdalena: Wohnen & Lage.
<https://www.caritas-pflege.at/wien/pflegewohnhaeuser/unsere-haeuser/haus-st-magdalena/wohnen-lage>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4. 6. 18.). “폭발하는 노인돌봄 수요 대비, ‘재가중심 전환’ 필요”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464&listLen=10&searchKey-word=%EC%9E%AC%EA%B0%80&position=M>
 3) 백상숙(2018). 싱가포르 노인 보건의료체계의 최근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7, 83-93.
 4) 김정근(2020. 10. 31.). 일본 싱가포르에 세대공존형 노인 주거단지 눈길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08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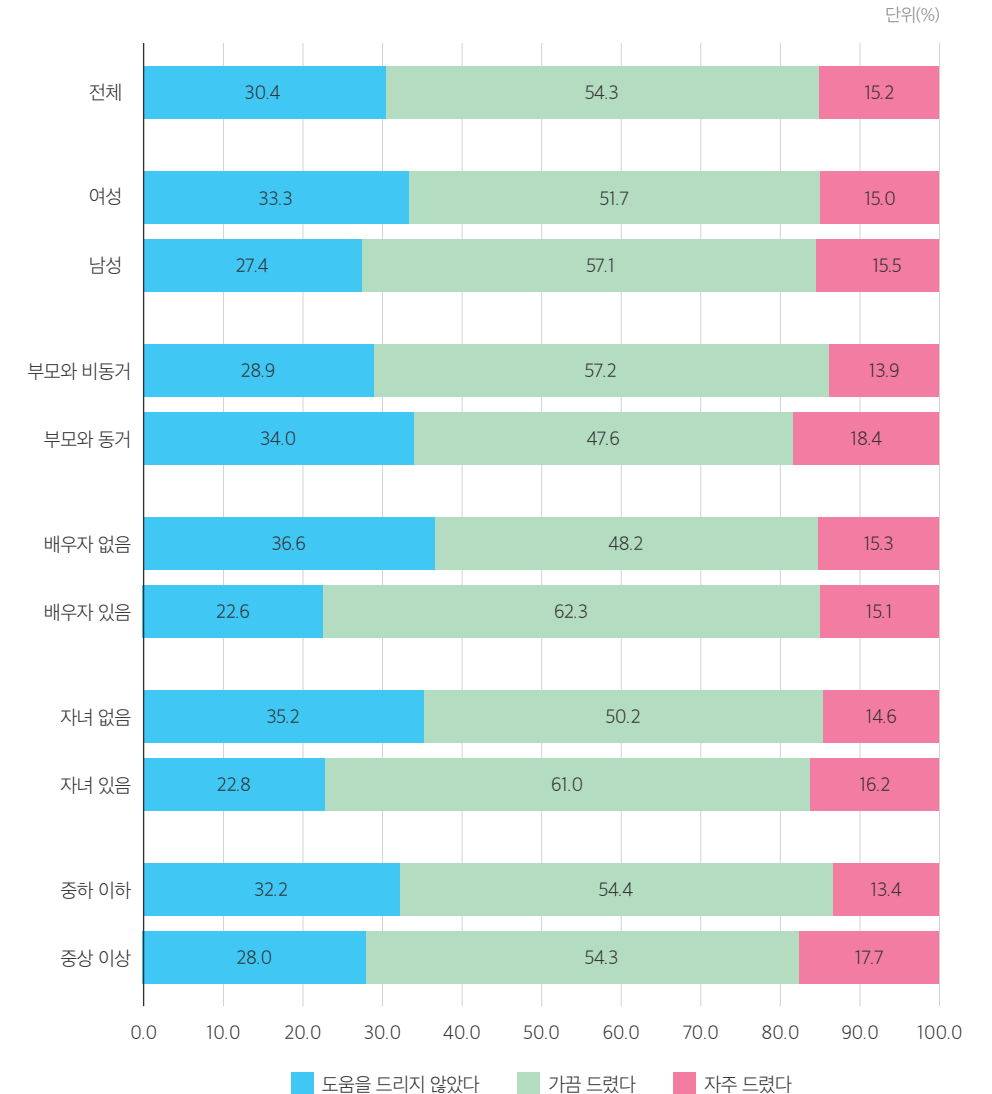
부모 지원 실제

신규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

전체, 성별, 부모와 동거 여부,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주관적 계층별

- ‘지난 12개월 동안 본인의 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예: 생활비, 용돈, 주택마련)을 드렸습니까?’를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응답 비율은 ‘가끔 드렸다(54.3%)’, ‘도움을 드리지 않았다(30.4%)’, ‘자주 드렸다(15.2%)’ 순으로 높았음
- 남성(57.1%)이 여성(51.7%)보다 경제적 도움을 ‘가끔 드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57.2%)이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47.6%)보다, 배우자가 있는 집단(62.3%)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48.2%)보다, 자녀가 있는 집단(61%)이 자녀가 없는 집단(50.2%)보다, 경제적 도움을 ‘가끔 드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상 이상인 집단(17.7%)이 중하 이하인 집단(13.4%)보다 경제적 도움을 ‘자주 드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지난 12개월 동안 본인의 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을 드렸습니까?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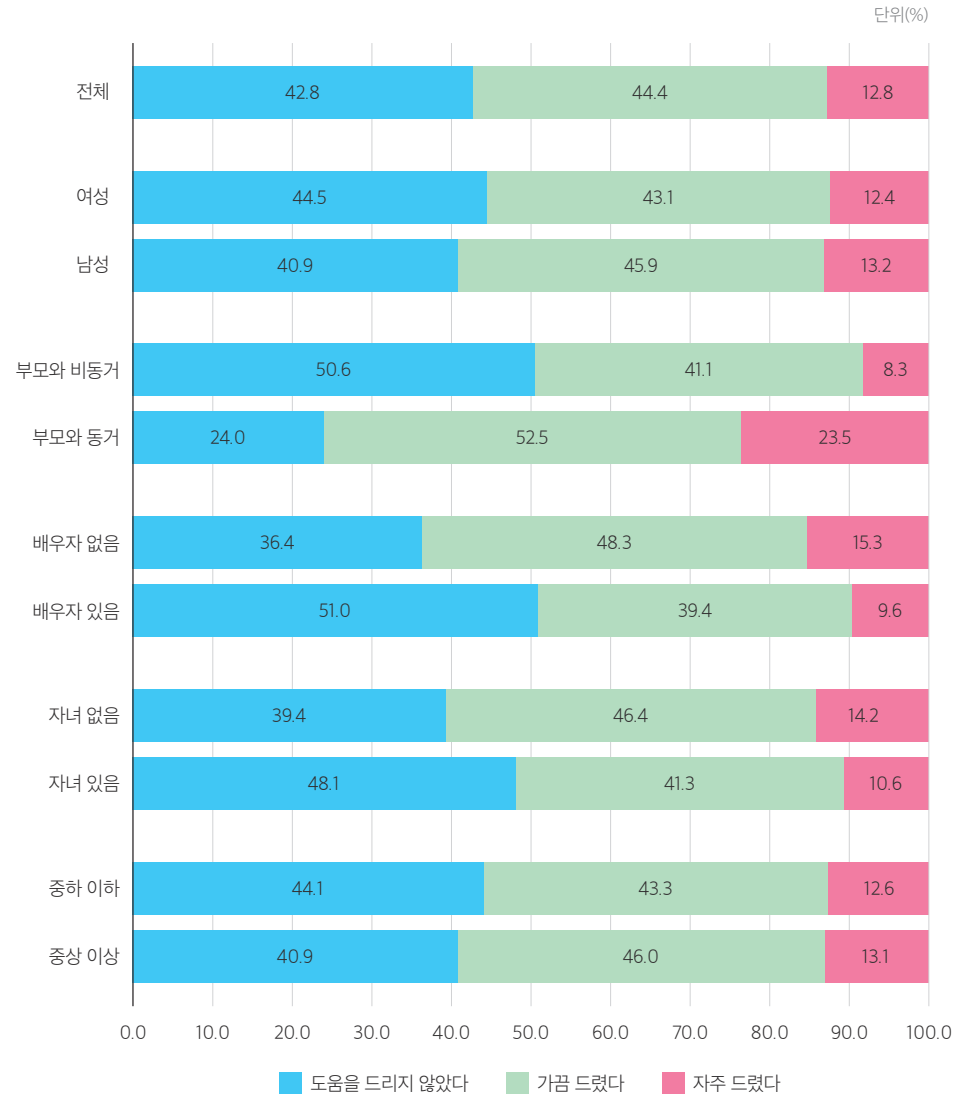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비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응답자 1,452명)

신규 부모에게 돌봄 및 가사 도움:

전체, 성별, 부모와 동거 여부,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주관적 계층별

- ‘지난 12개월 동안 본인의 부모님에게 돌봄 및 가사 도움(예: 병간호, 식사준비, 청소)을 드렸습니까?’를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응답 비율은 ‘가끔 드렸다(44.4%)’, ‘도움을 드리지 않았다(42.8%)’, ‘자주 드렸다(12.8%)’ 순으로 높았음
- 남성(45.9%)이 여성(43.1%)보다 돌봄 및 가사 도움을 ‘가끔 드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52.5%)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41.1%)보다, 배우자가 없는 집단(48.3%)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39.4%)보다, 자녀가 없는 집단(46.4%)이 자녀가 있는 집단(41.3%)보다 돌봄 및 가사 도움을 ‘가끔 드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상 이상인 집단(46%)이 중하 이하인 집단(43.3%)보다 돌봄 및 가사 도움을 ‘가끔 드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지난 12개월 동안 본인의 부모님에게
돌봄 및 가사 도움을 드렸습니까?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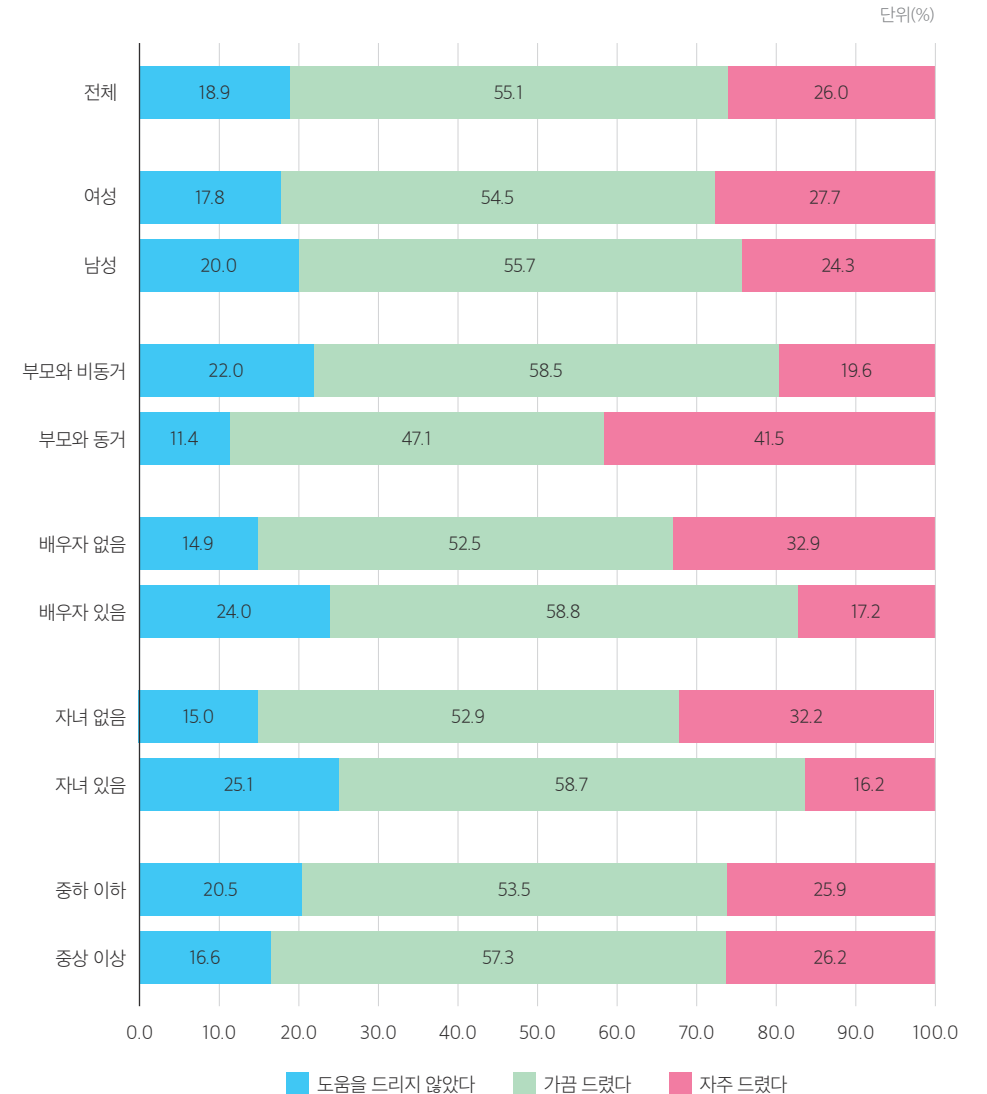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응답자 1,452명)

신규 부모에게 일상생활 도움:

전체, 성별, 부모와 동거 여부,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주관적 계층별

- ‘지난 12개월 동안 본인의 부모님에게 일상생활 도움(예: 스마트폰, 인터넷, 가전제품 관련 도움)을 드렸습니까?’를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응답 비율은 ‘가끔 드렸다(55.1%)’, ‘자주 드렸다(26%)’, ‘도움을 드리지 않았다(18.9%)’ 순으로 높았음
- 남성(55.7%)이 여성(54.5%)보다 일상생활 도움을 ‘가끔 드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41.5%)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19.6%)보다, 배우자가 없는 집단(32.9%)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17.2%)보다, 자녀가 없는 집단(32.2%)이 자녀가 있는 집단(16.2%)보다, 일상생활 도움을 ‘자주 드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상 이상인 집단(26.2%)이 중하 이상인 집단(25.9%)보다 일상생활 도움을 ‘자주 드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지난 12개월 동안 본인의 부모님에게
일상생활 도움을 드렸습니까?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응답자 1,452명)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범위 확대, 청소년과 청년으로 세분화

서울시는 장애인 질병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s, young caregivers)의 지원 연령을 확대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세분화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범위가 14-34세에서 9-34세로 확대되었으며, 본인이 가족돌봄청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가족돌봄청년지원팀도 운영하고 있다.

자료 1)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https://www.seoul.go.kr/policy/view.do?id=70&lan=KO>
2) 서울정책아카이브(2024. 5. 16.).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 적극적 발굴·체계적 지원...전국 최초 자가진단표 개발·배포. <https://seoulsolution.kr/ko/content/10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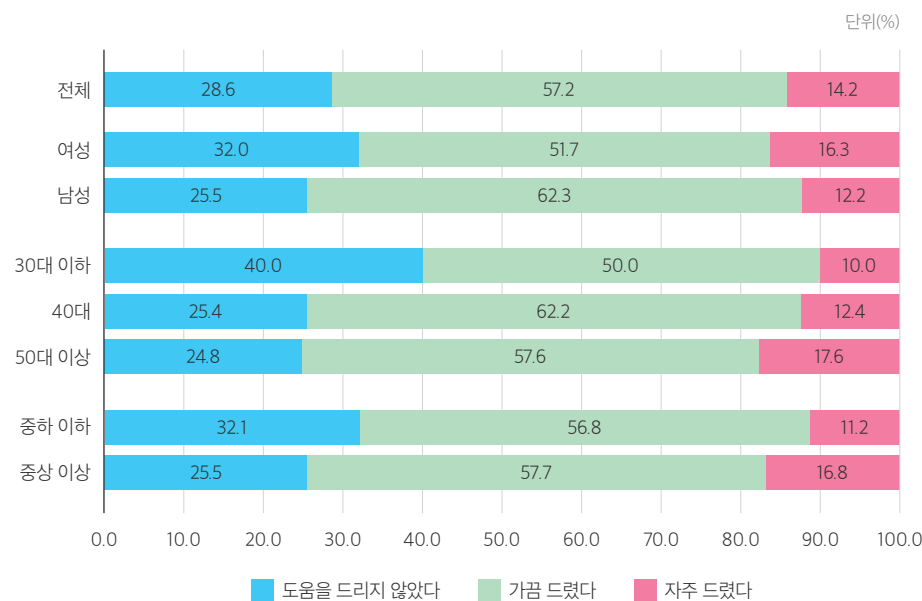


배우자 부모 지원 실제

신규 배우자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 전체, 성별, 연령대별, 주관적 계층별

- ‘지난 12개월 동안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예: 생활비, 용돈, 주택마련)을 드렸습니까?’를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응답 비율은 ‘가끔 드렸다(57.2%)’, ‘도움을 드리지 않았다(28.6%)’, ‘자주 드렸다(14.2%)’ 순으로 높았음
- 남성(62.3%)이 여성(51.7%)보다 경제적 도움을 ‘가끔 드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40대(62.2%)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제적 도움을 ‘가끔 드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상 이상인 집단(57.7%)이 중하 이하인 집단(56.8%)보다 경제적 도움을 ‘가끔 드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지난 12개월 동안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을 드렸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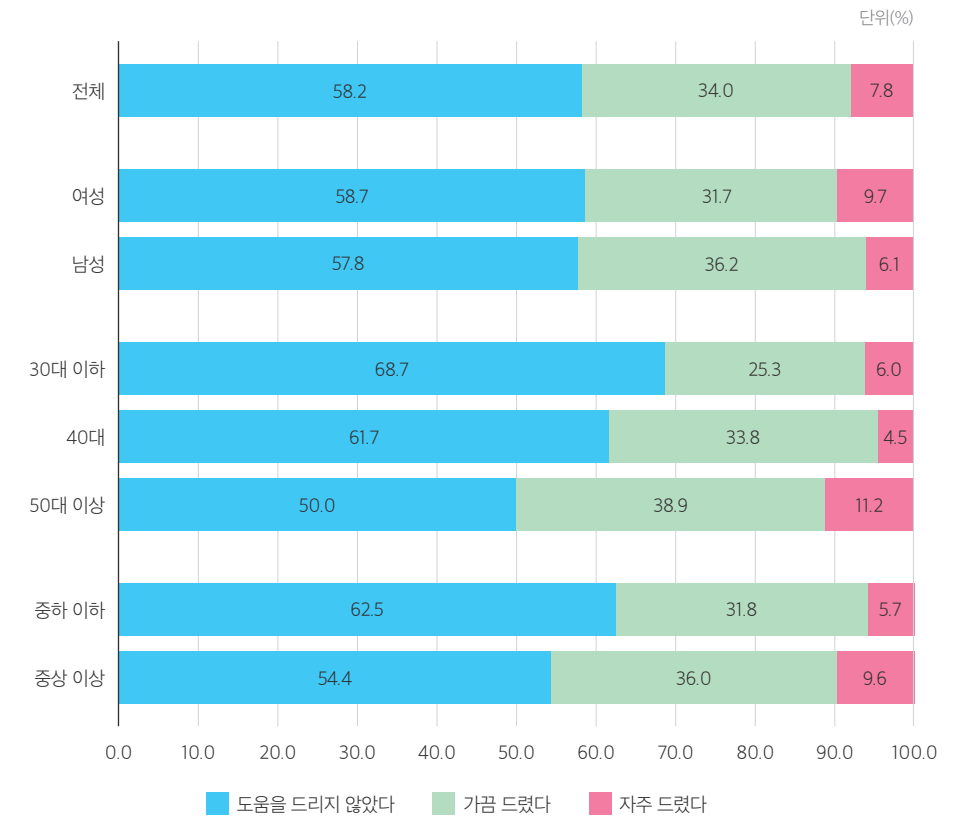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배우자의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응답자 629명)

신규 배우자 부모에게 돌봄 및 가사 도움: 전체, 성별, 연령대별, 주관적 계층별

- ‘지난 12개월 동안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돌봄 및 가사 도움(예: 병간호, 식사준비, 청소)을 드렸습니까?’를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응답 비율은 ‘도움을 드리지 않았다(58.2%)’, ‘가끔 드렸다(34%)’, ‘자주 드렸다(7.8%)’ 순으로 높았음
- 남성(36.2%)이 여성(31.7%)보다 돌봄 및 가사 도움을 ‘가끔 드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50대 이상 집단(38.9%)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돌봄 및 가사 도움을 ‘가끔 드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상 이상인 집단(36%)이 중하 이하인 집단(31.8%)보다 돌봄 및 가사 도움을 ‘가끔 드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지난 12개월 동안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돌봄 및 가사 도움을 드렸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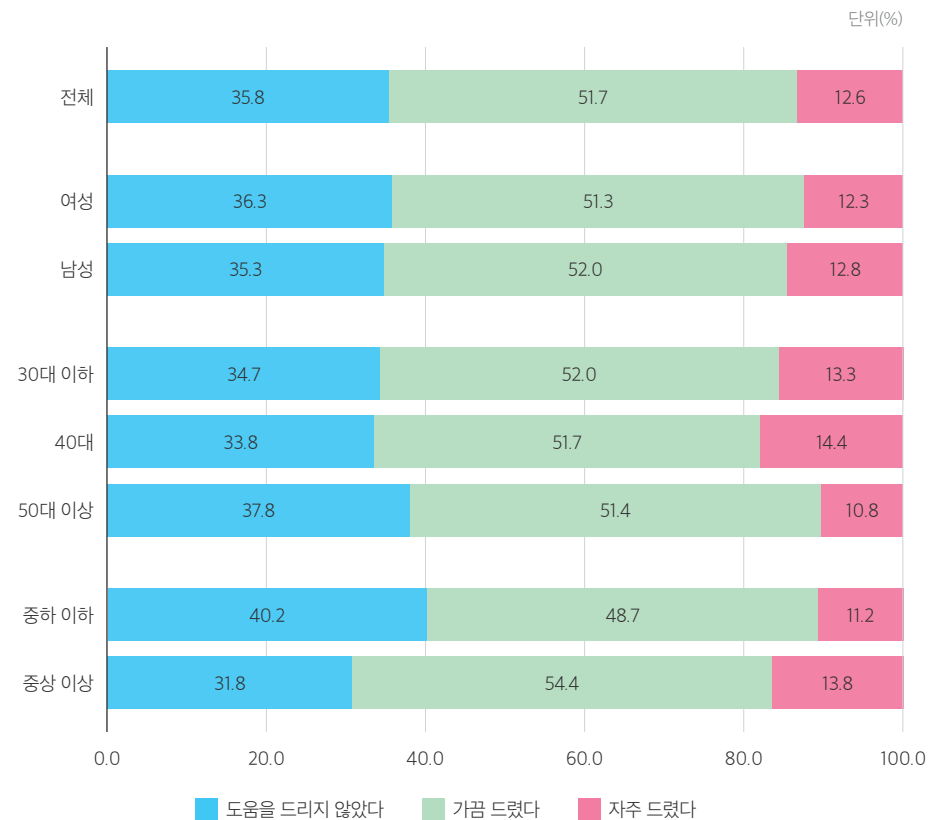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배우자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응답자 629명)

신규 배우자 부모에게 일상생활 도움: 전체, 성별, 연령대별, 주관적 계층별

- ‘지난 12개월 동안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일상생활 도움(예: 스마트폰, 인터넷, 가전제품 관련 도움)을 드렸습니까?’를 질문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의 응답 비율은 ‘가끔 드렸다’(51.7%), ‘도움을 드리지 않았다’(35.8%), ‘자주 드렸다’(12.6%) 순으로 높았음
- 남성(52%)이 여성(51.3%)보다 일상생활 도움을 ‘가끔 드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30대 이하(52%)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일상생활 도움을 ‘가끔 드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상 이상인 집단(54.4%)이 중하 이하인 집단(48.7%)보다 일상생활 도움을 ‘가끔 드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지난 12개월 동안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일상생활 도움을 드렸습니까?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배우자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응답자 62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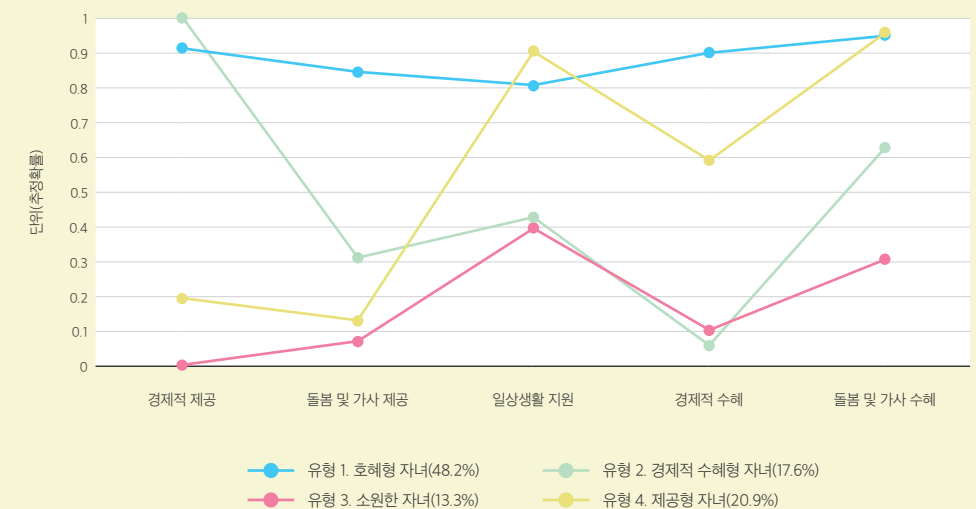
2025 서울 가족 클로즈업



부모와 성인 자녀가 주고받는 지원, 어떻게 유형화될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응답자 중 부모가 한 명 이상 살아 있는 서울 시민이 경제적 지원(부모 → 자녀, 자녀 → 부모), 돌봄 및 가사(부모 → 자녀, 자녀 → 부모), 일상생활 지원(자녀 → 부모)을 부모와 주고 받았는지의 경험 여부를 분류지표로 부모-자녀 간 교환 유형을 분류하였다. 잠재계층분석 결과, 네 개의 유형이 나타났다.

- **호혜형 자녀**(48.2%): 경제적, 돌봄 및 가사 영역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은 동시에 경제적, 돌봄 및 가사, 일상생활 영역에서 지원을 제공한 집단
- **경제적 수혜형 자녀**(17.6%): 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만 다른 영역에서의 주고 받음은 적은 집단
- **소원한 자녀**(13.3%): 모든 영역에서 주고받음이 별로 없는 집단
- **제공형 자녀**(20.9%):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 돌봄 및 가사, 일상생활 도움을 제공하지만, 부모로부터 받는 지원은 거의 없는 집단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부모가 한 명 이상 생존한 1,452명)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유형에 속할까?

·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 부모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 때

· 부모가 모두 생존할 때



(‘호혜형’보다)
‘경제적 수혜형 자녀’일
가능성이 높았음

· 연령이 적을수록

·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 부모가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제공형 자녀’보다)
‘경제적 수혜형 자녀’일
가능성이 높았음

· 연령이 많을수록

·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 부모가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호혜형’보다)
‘소원한 자녀’일
가능성이 높았음

· 연령이 많을수록



(‘호혜형’보다)
‘제공형 자녀’일
가능성이 높았음

교환 유형별로 부모와의 친밀감, 갈등 정도가 다를까?

부모와의 **친밀감**은 ‘제공형 자녀’와 ‘호혜형 자녀’가 가장 높았고, ‘경제적 수혜형 자녀’가 다음이었으며, ‘소원한 자녀’가 가장 낮았다. 반면, 부모와의 **갈등**은 ‘소원한 자녀’와 ‘호혜형 자녀’가 가장 높았으며, ‘제공형 자녀’가 가장 낮았다. 즉, 호혜적 관계의 경우에는 친밀감과 갈등이 모두 높은 반면에, 부모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갈등이 낮고 친밀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부모-자녀 간 지원 교환의 다양성을 고려한 지원 전략 필요

2025 서울가족서베이 심층분석 결과,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호혜형 자녀’로 분류되어 부모와 지원을 주고받는 관계였다. 그러나, ‘소원한 자녀’와 ‘경제적 수혜형 자녀’처럼 특정 영역에서만 도움을 주거나 교류가 별로 없는 집단도 있었다. 각 유형별 특성을 알아본 결과, 연령이 많을수록 노부모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제공형 자녀’일 가능성이 높았고, 개인소득과 주관적 계층이 낮은 경우에는 ‘경제적 수혜형 자녀’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부모와 자녀 간 제공과 수혜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 ‘**경제적 수혜형 자녀**’의 경우, 성인 자녀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지원이 부모의 노후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공형 자녀**’는 부모와의 친밀감은 높지만, 갈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관계가 좋은 자녀는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만, 이에 따른 갈등은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부모에게 여러 도움을 제공하더라도 자녀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부모 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호혜형 자녀**’의 경우 부모와의 친밀감과 갈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관계의 호혜적 측면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상호작용이 갈등의 소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소원한 자녀**’ 또한 부모-자녀 간의 갈등 수준이 높았다.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호혜형 자녀’와 ‘소원한 자녀’의 부모-자녀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은 성인기 부모-자녀관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25 서울가족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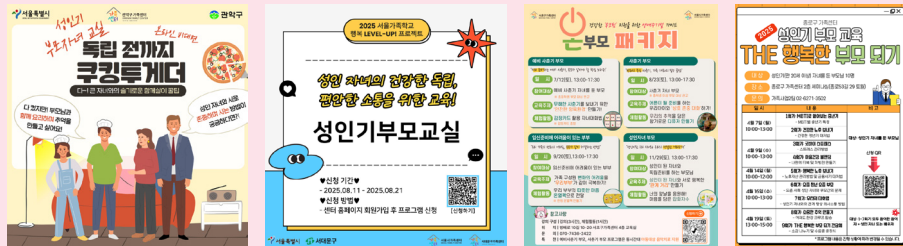
성인기 부모자녀관계 및 부모 돌봄가족 지원 가족센터 프로그램

서울시 소재 가족센터에서는 성인기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노부모 돌봄 가족을 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2025년에 실시한 프로그램 및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인기 부모자녀관계 교육 프로그램

- 관악구 가족센터 2025 성인기 부모자녀교실 ‘독립 전까지 쿠킹 투게더’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가족 의사소통 유형을 알아보고, 서로를 위한 맞춤형 요리 만들기 활동

- 서대문구 가족센터 2025 성인기 부모교실
 - 부모를 대상으로 성인 자녀의 건강한 독립 지원, 경계 설정, 행동유형별 소통법 등 교육
- 서초구 2025 온부모 패키지 중 '성인자녀의 독립을 준비하는 부모' 프로그램
 - 부모를 대상으로 성인이 된 자녀와 서로 행복한 관계 거리 만들기 교육
- 종로구 가족센터 2025 중장년기 프로그램
 - 9회기 프로그램 중 총 2회기에 걸쳐 성인자녀와 부모의 관계 및 의사소통 관련 교육



부모 돌봄 가족 지원 사업

- 관악구 가족센터 '오늘은 돌봄심포 VR 상담'
 - 간병, 노인부양, 자녀 양육 등을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가상현실(VR) 체험을 활용한 마음챙김 상담 제공
- 동작구 가족센터 가족돌봄청년 집단상담 '작은 심, 깊은 나'
 -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을 돌보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긍정심리 기반 집단상담 제공
- 서대문구 2025 노부모 부양가족 집단 상담 '버드나무'
 - 노부모 부양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소진 예방, 자기 돌봄, 커뮤니티 형성 등을 지원
- 용산구 가족센터 2025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사업 '오감으로 함께하는 힐링여정'
 - 노부모를 부양하는 중장년기 자녀에게 청각, 미각, 후각, 촉각적 힐링 활동 제공



- 자료 1) 서울시가족센터(2025). 2025 성인기 부모자녀 교실(독립 전까지 쿠킹 투게더). <https://familyseoul.or.kr/node/24670>
- 2) 서울시가족센터(2025). 2025 성인기 부모교실 참여자 모집. <https://familyseoul.or.kr/node/26179>
- 3) 서울시가족센터(2025). 2025 온부모 패키지. <https://familyseoul.or.kr/node/26012>
- 4) 서울시가족센터(2025). 2025년도 중장년기 프로그램. <https://familyseoul.or.kr/node/24818>
- 5) 서울시가족센터(2025). VR상담. <https://familyseoul.or.kr/node/24665>
- 6) 서울시가족센터(2025). 가족돌봄청년 집단상담. <https://familyseoul.or.kr/node/26074>
- 7)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5). 노부모 부양가족 집단 상담 - 버드나무. <https://www.familynet.or.kr/web/lay1/program/SIT304C450/recruitReceipt/view.do?seq=202413>
- 8) 서울시가족센터(2025). 오감으로 함께하는 힐링여정: 4월 프로그램. <https://familyseoul.or.kr/node/24863>

부록

1. 2025 서울 가족 현황
2. 2015-2024 서울가족보고서
3. 서울지역 가족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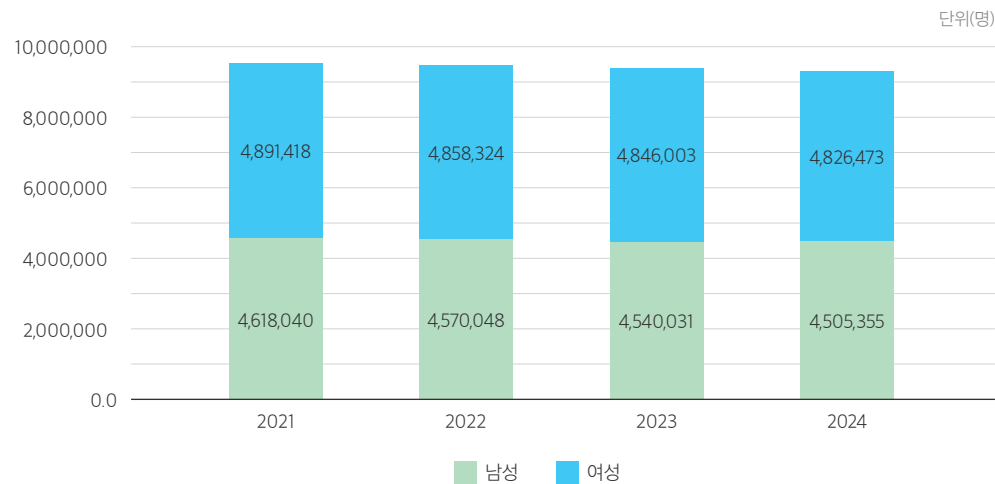
2025 서울 가족 현황



인구 및 가구

서울시 성별 인구(2021-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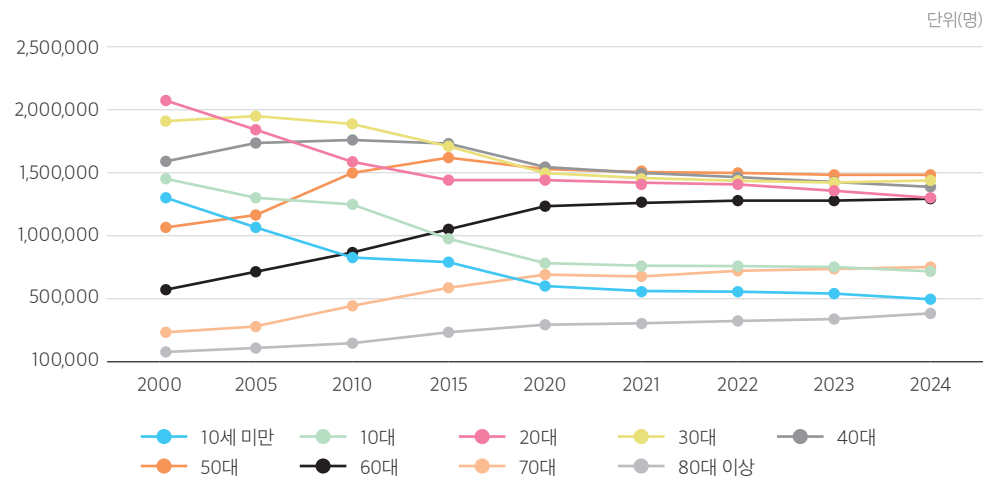
· 서울시 인구는 2024년에 총 9,331,828명으로, 2023년에 비해 약 5만 4천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총인구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남녀성비(여성 100명당 남자 수)는 93.4로, 전국에서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서울시 연령대별 인구(2000-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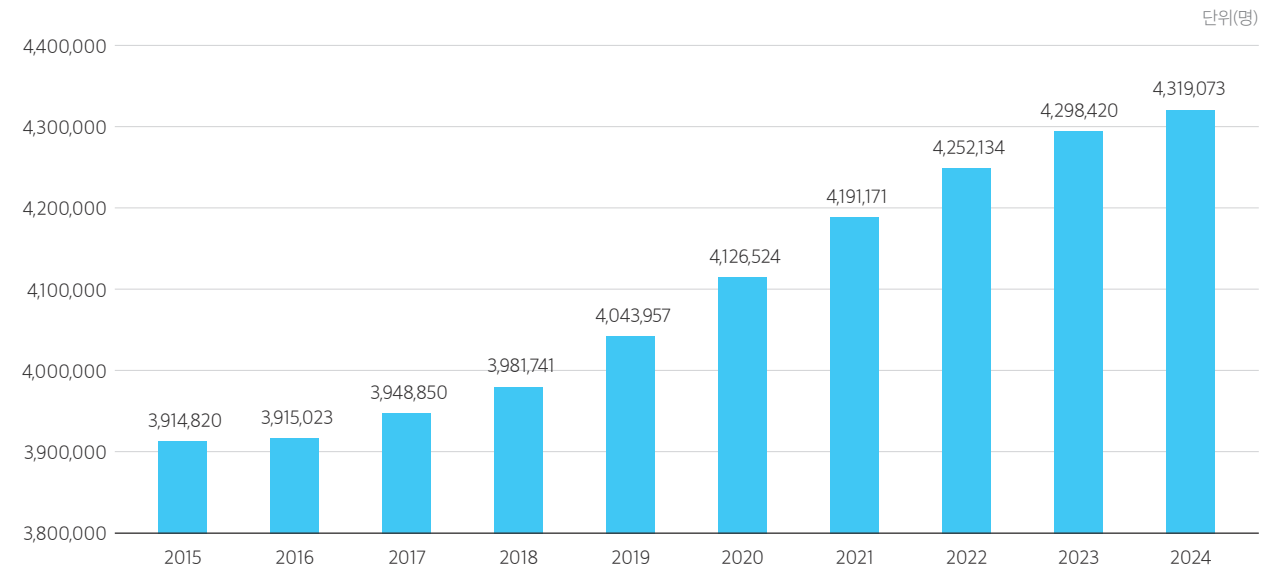
· 서울시 연령대별 인구(2024년 기준)는 50대가 1,486,068명으로 전체 인구의 15.9%를 차지합니다. 2021년부터 서울시는 전 연령대 중 50대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 30대 1,442,665명(15.5%), 40대 1,383,950명(14.8%), 60대 1,326,239명(14.2%), 20대 1,308,260명(14%), 70대 773,771명(8.3%), 10대 720,767명(7.7%), 10세 미만 483,780명(5.2%), 80대 이상 406,328명(4.6%)의 순입니다.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서울시 가구 수(2015-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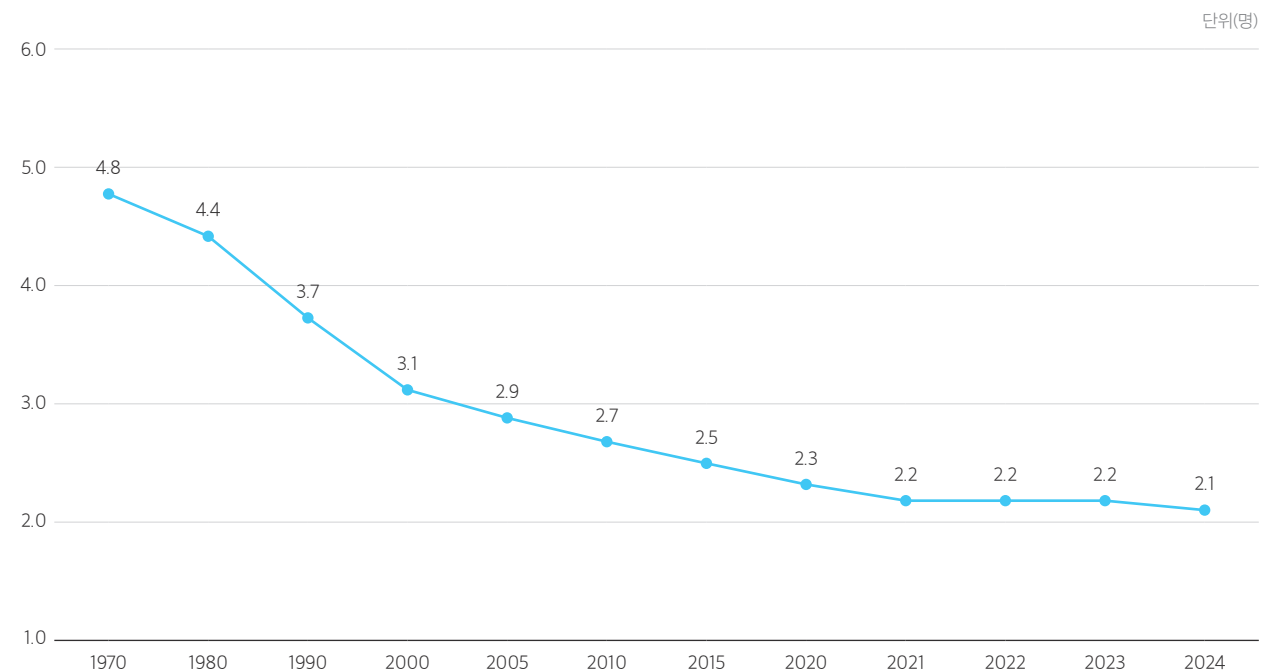
· 서울시의 전체 가구 수는 4,319,073가구(2024년 기준)로 2023년과 비교해 1p% 증가하였습니다.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가구 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서울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1970-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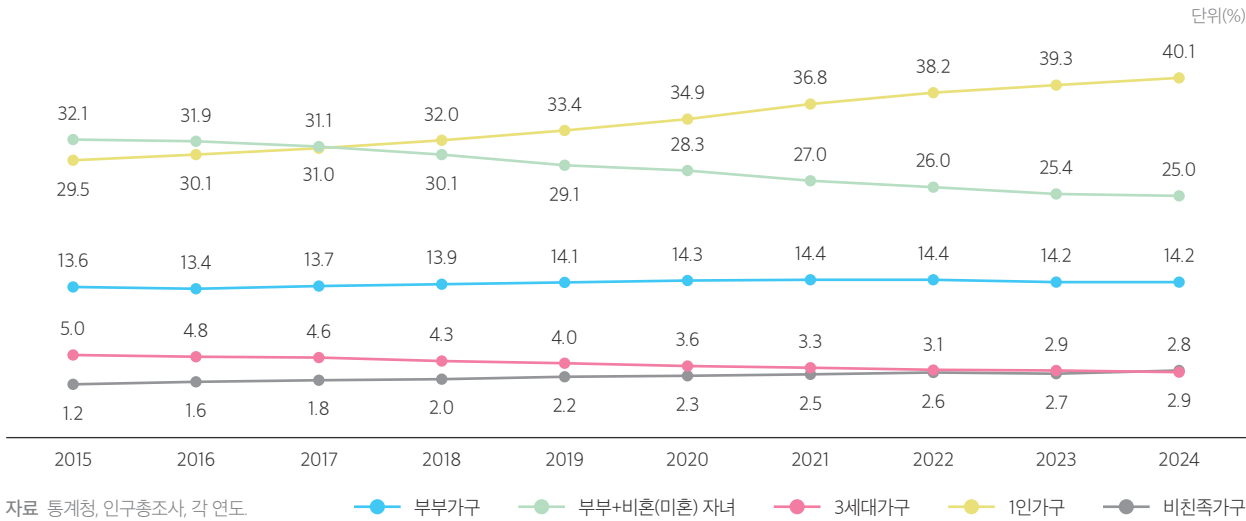
· 서울시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024년에 2.1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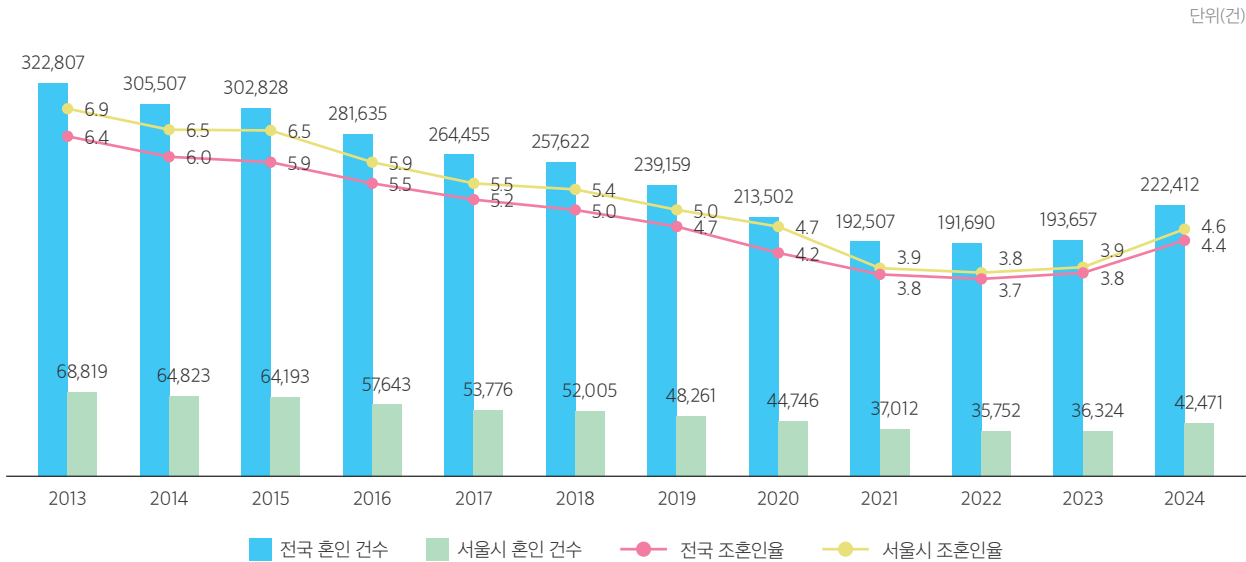
서울시 가구형태별 가구 수(2015-2024년)

· 가구형태별로는 부부와 비혼(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1인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가 1,660,813가구(40.1%)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부부와 비혼(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 1,034,385가구(25%),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 590,015가구(14.2%), 비친족가구 121,478(2.9%), 3세대가구 116,025(2.8%) 순입니다.



서울시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2013-2024년)

· 서울시의 2024년 총 혼인 건수는 42,471건, 조혼인율은 4.6건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서울시 혼인 건수와 조혼인율은 2024년에 반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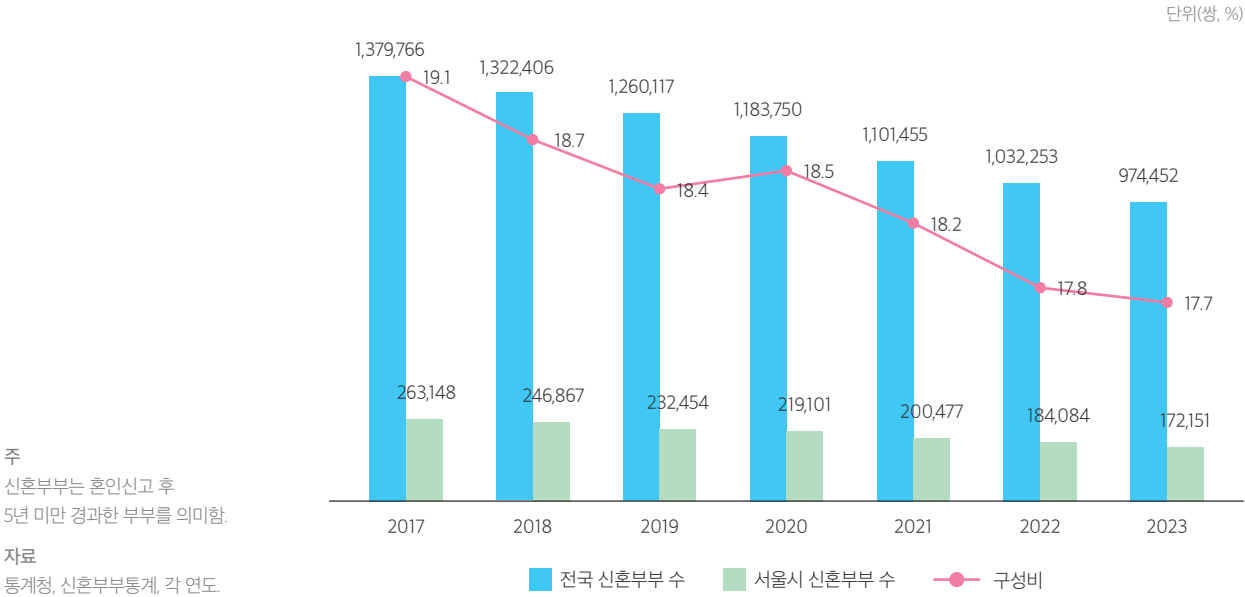


주 조혼인율은 1년간에 발생한 총 혼인 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 연앙(7월 1일)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 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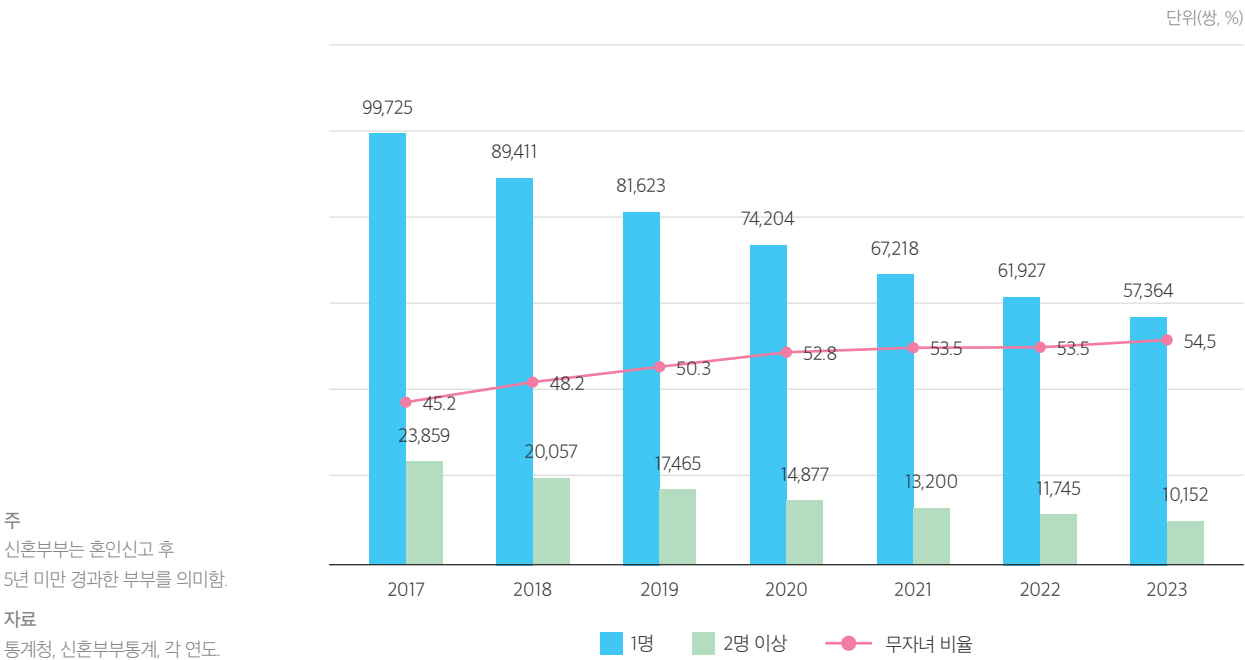
서울시 신혼부부 수(2017-2023년)

·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2023년에 총 172,151쌍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서울시 초혼 신혼부부 자녀 수(2017-2023년)

·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혼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 미만 경과) 중 54.5%(80,864쌍)는 자녀가 없습니다(2023년 기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는 서울시 거주 신혼부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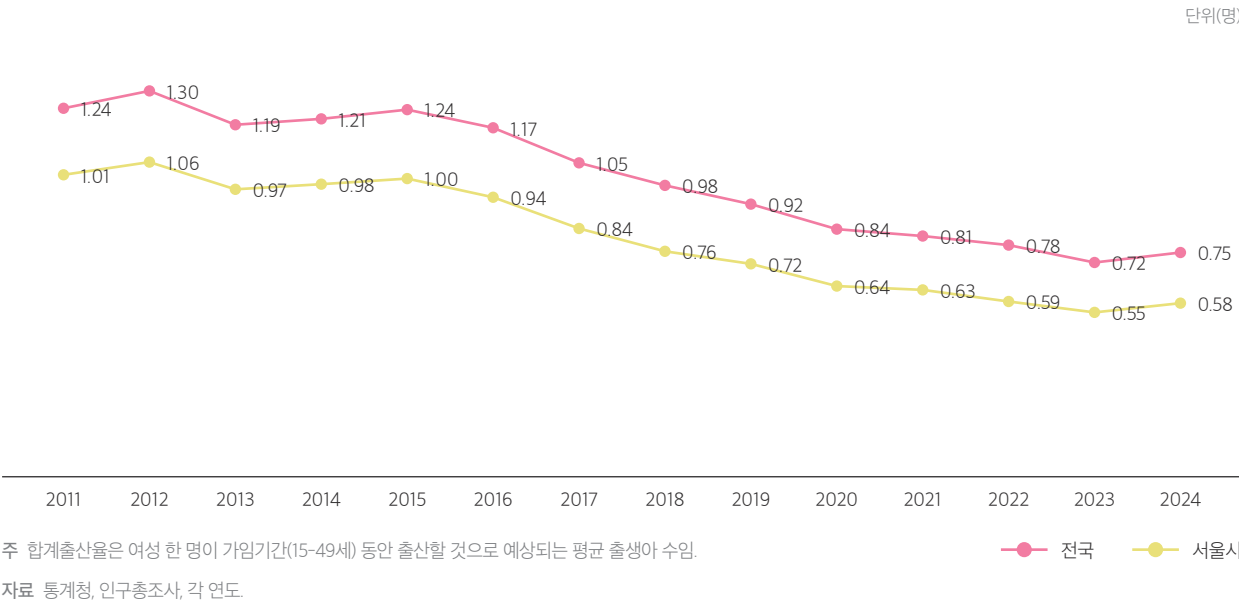




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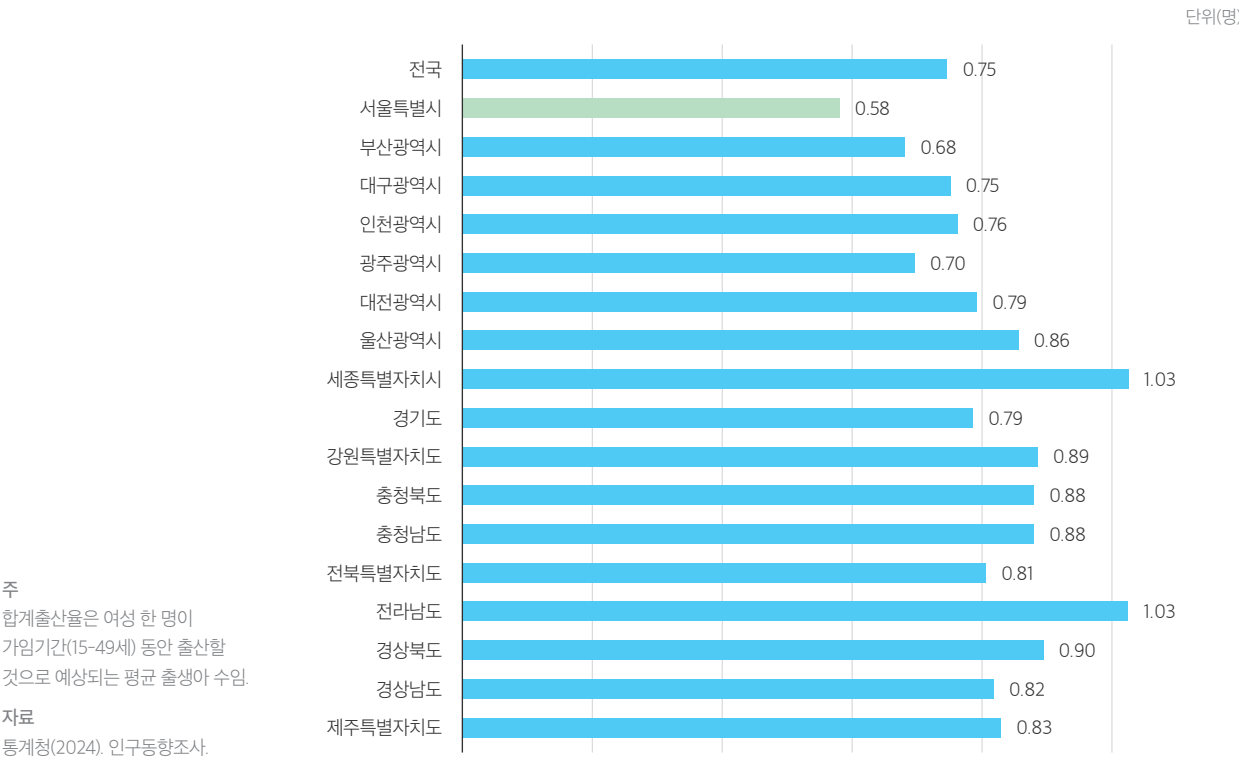
전국-서울 합계출산율(2011-2024년)

· 서울시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58명으로, 전국의 합계출산율 0.75명보다 낮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합계출산율은 전국과 서울시 모두 2024년에 반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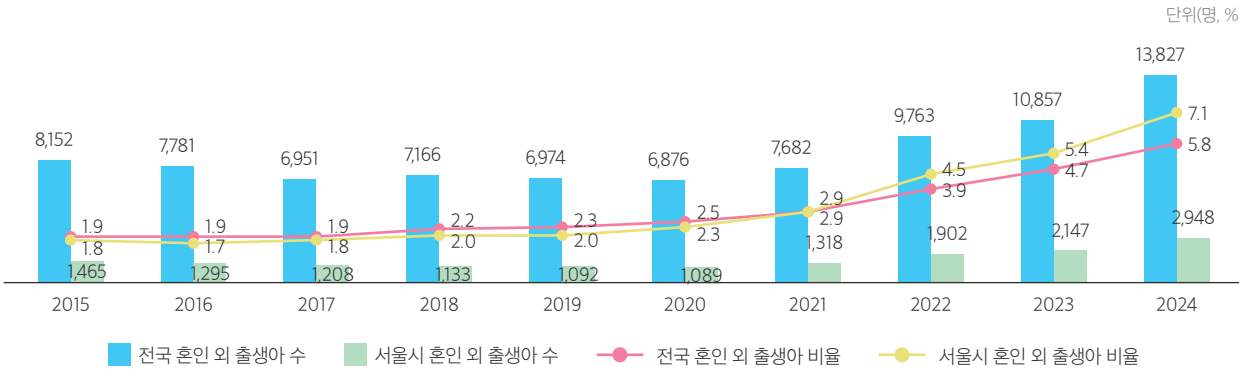
2024년 시도별 합계출산율

· 서울시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58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서울시 혼인 외 출생아 수 및 비율(2015-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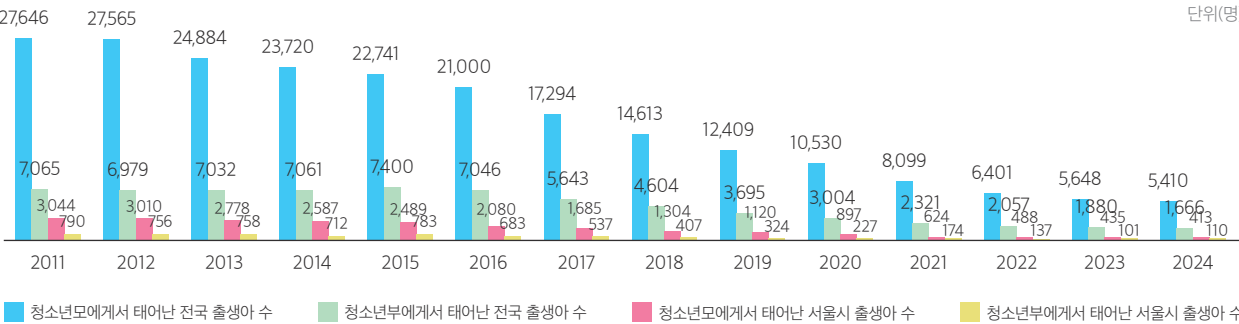
· 전국의 혼인 외 출생아 중 21.3%(2,948명)가 서울시에서 출생하며, 이는 서울시 전체 출생 인구의 7.1%에 해당합니다(2024년 기준). 서울시의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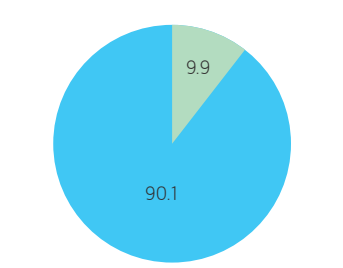
서울시 청소년모(부)의 출생아 수(2011-2024년)

· 서울시 출생아 41,605명 중 413명(1.0%)은 엄마가 청소년(9-24세)이고, 110명(0.3%)은 아빠가 청소년(9-24세)입니다(2024년 기준). 그러나 청소년 엄마, 아빠 중 미성년자는 많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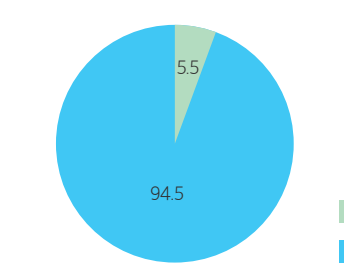
· 청소년 엄마를 둔 출생아의 9.9%(41명), 청소년 아빠를 둔 출생아의 5.5%(6명)만이 미성년 엄마, 아빠를 두었습니다.



청소년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 (2024년)



청소년부의 연령별 출생아 수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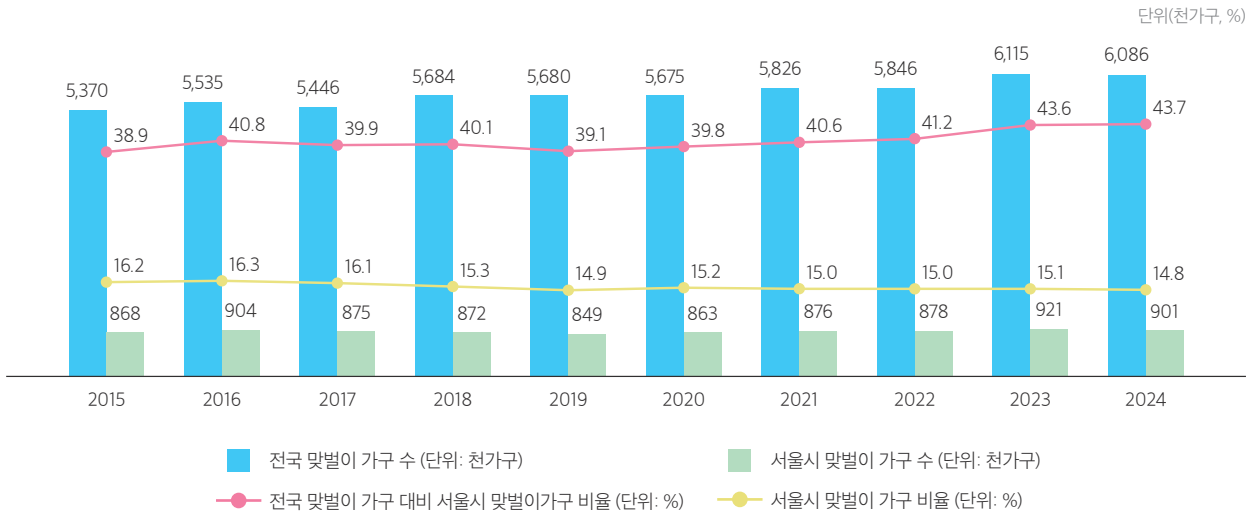


맞벌이 가구

서울시 맞벌이 가구 수(2015-2024년)

· 전국 맞벌이 가구의 14.8%(약 90만 1,000가구)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시 유배우자 가구의 43.7%가 맞벌이 가구입니다(2024년 기준).

· 서울시 맞벌이 가구의 수 및 비율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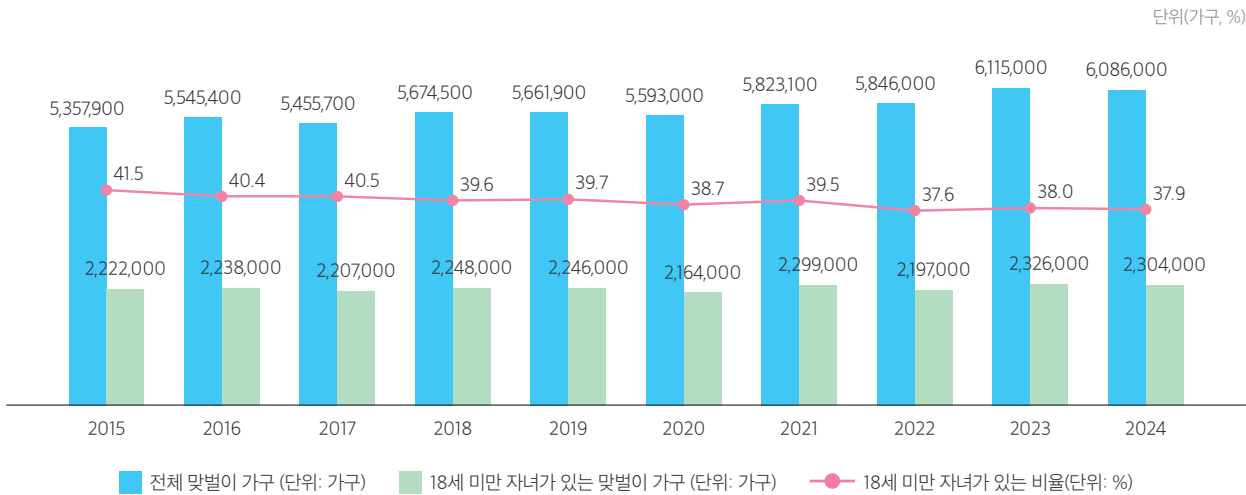


주 1) 맞벌이 가구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임
2) 맞벌이 가구 비율 = (맞벌이 가구 / 유배우자 가구) × 10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전국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비율(2015-2024년)

· 전국 맞벌이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는 37.9%(230만 4000가구)입니다 (2024년 기준). 즉, 맞벌이 가구 중에는 무자녀이거나 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가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보다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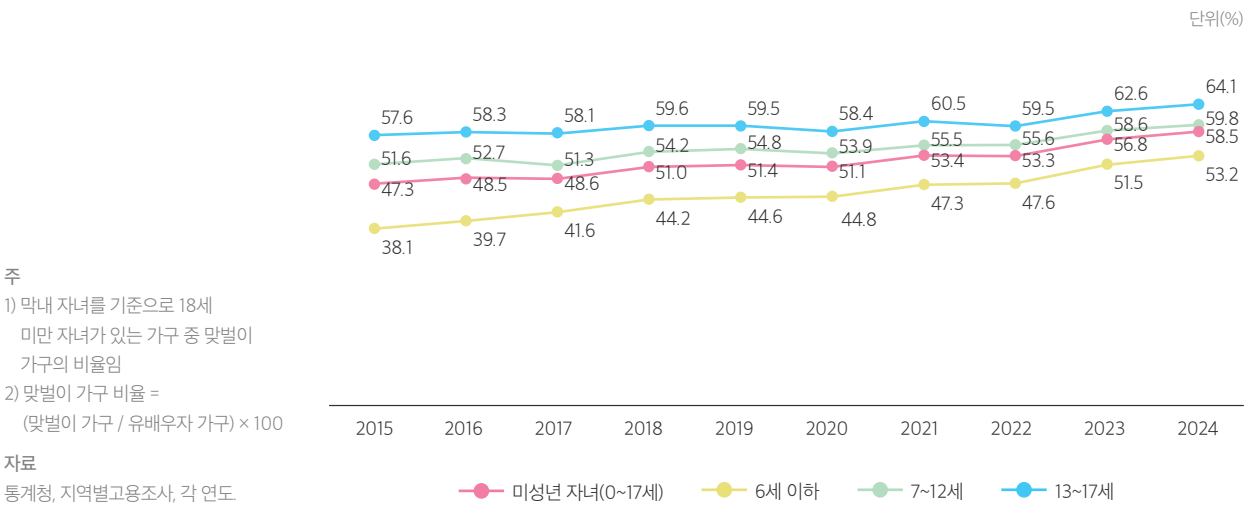
주 1) 맞벌이 가구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임
2) 맞벌이 가구 비율 = (맞벌이 가구 / 유배우자 가구) × 10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전국 막내 자녀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율(2015-2024년)

· 전국에서 미성년 자녀(18세 미만)를 둔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대별로 보면, 전국에서 막내 자녀가 중·고등학생(13~17세)인 가구의 64.1% > 막내 자녀가 7~12세인 가구의 59.8% > 막내 자녀가 6세 이하 자녀인 가구의 53.2%가 맞벌이 가구입니다(2024년 기준). 증가 추세를 보면, 막내 자녀가 영유아(6세 이하)인 가구 중 맞벌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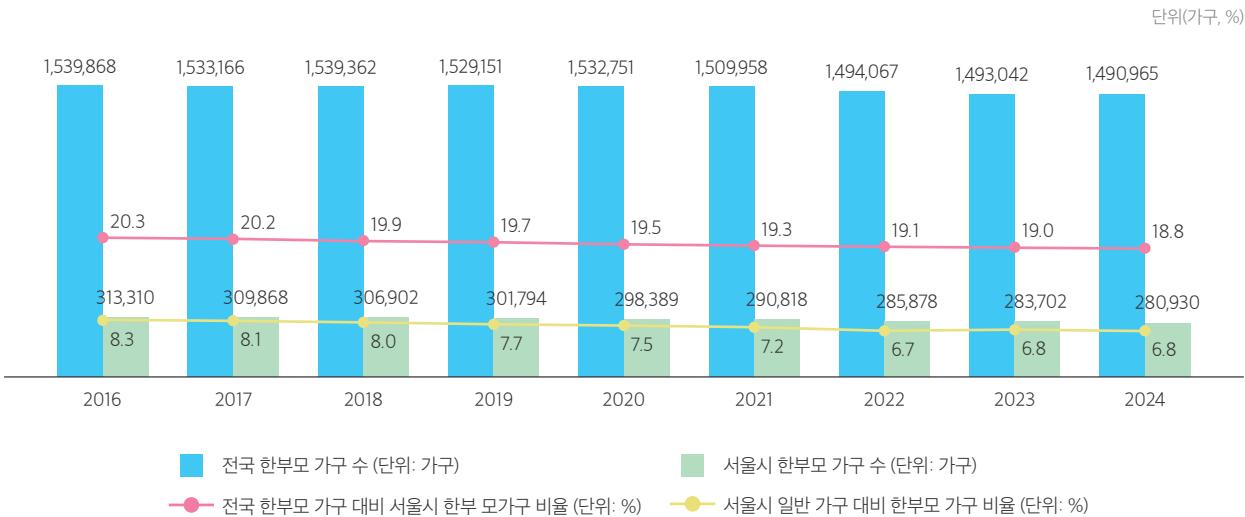


주
1)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임
2) 맞벌이 가구 비율 = (맞벌이 가구 / 유배우자 가구) × 10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서울시 한부모 가구 수(2016-2024년)

· 전국 한부모 가구의 18.8%(280,930가구)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일반 가구의 6.8%에 해당합니다(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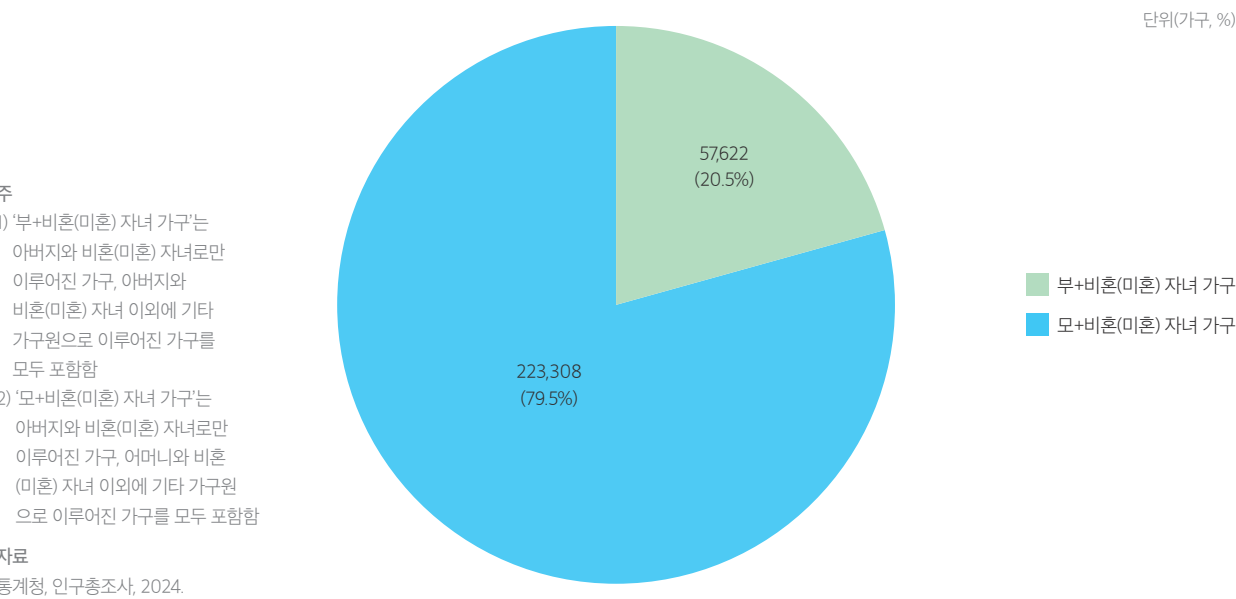


주 1) 한부모 가구는 비혼(미혼) 자녀와 비혼(미혼) 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비혼, 이혼 및 사별인 모 또는 부(원거리 거주 부부 제외)로 이뤄진 가구를 의미함
2) 일반 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포함함. 일반가구 내 외국인도 포함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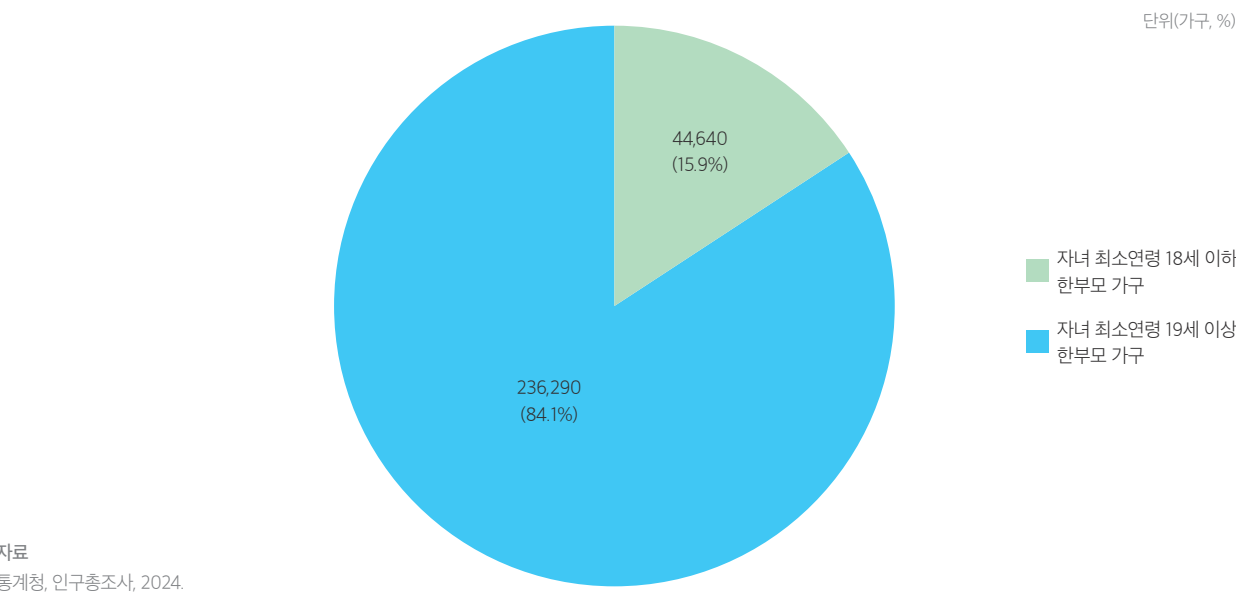
서울시 한부모 가구 부모 성별 분포(2024년)

· 서울시 한부모 가구 중 79.5%(223,308가구)는 어머니와 비혼(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모자가구이며, 20.5%(57,622가구)는 아버지와 비혼(미혼) 자녀로 이뤄진 부자가구입니다(2024년 기준).
2023년에 비해 부자가구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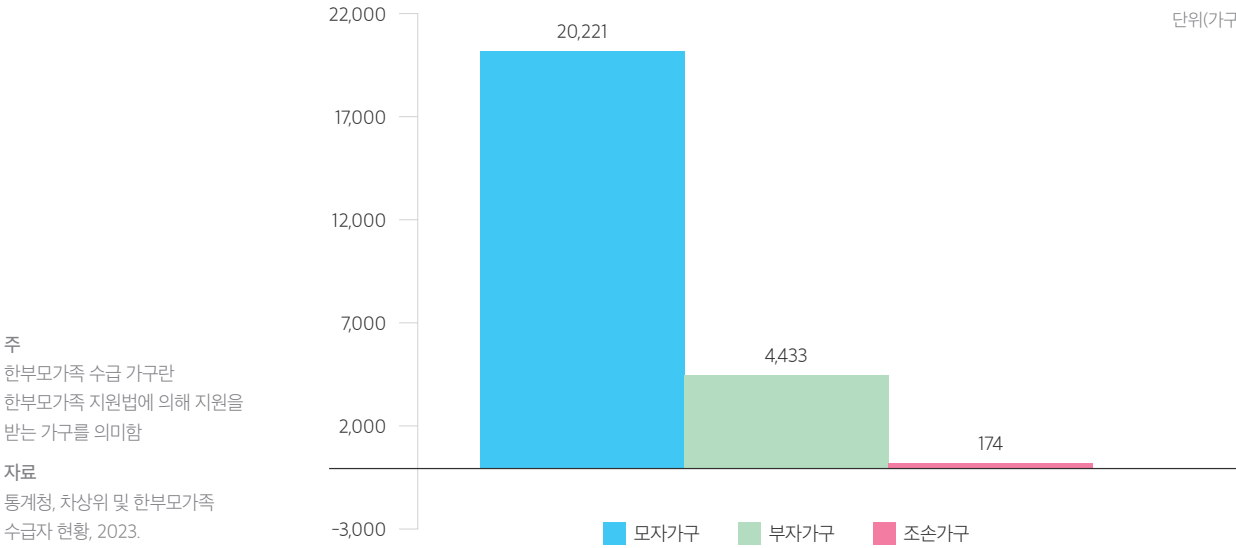
서울시 한부모 가구 자녀연령별 분포(2024년)

· 서울시 한부모 가구의 84.1%(236,290가구)는 모든 자녀가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입니다 (2024년 기준).



한부모 가구 유형별 서울시 한부모 수급 가구 현황(2023년)

· 서울시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된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는 2023년을 기준으로 모자가구가 81.4%(20,221가구), 부자가구가 17.9%(4,433가구), 조손 가구가 0.7%(174가구)를 차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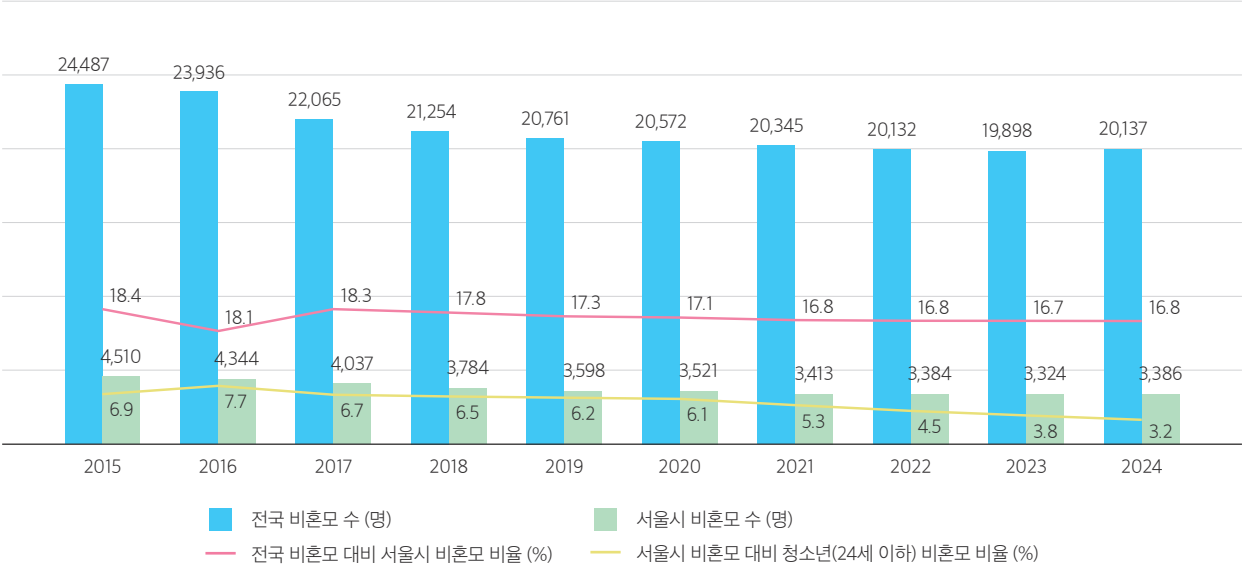
비혼모(부),
조손 가구

서울시 비혼모(부) 수(2015-2024년)

· 전국 비혼(미혼) 엄마의 16.8%(3,386명)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3.2%(110명)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비혼(미혼) 엄마입니다(2024년 기준). 전국 비혼(미혼) 아빠의 14.6%(730명)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24세 이하 청소년 비혼(미혼) 아빠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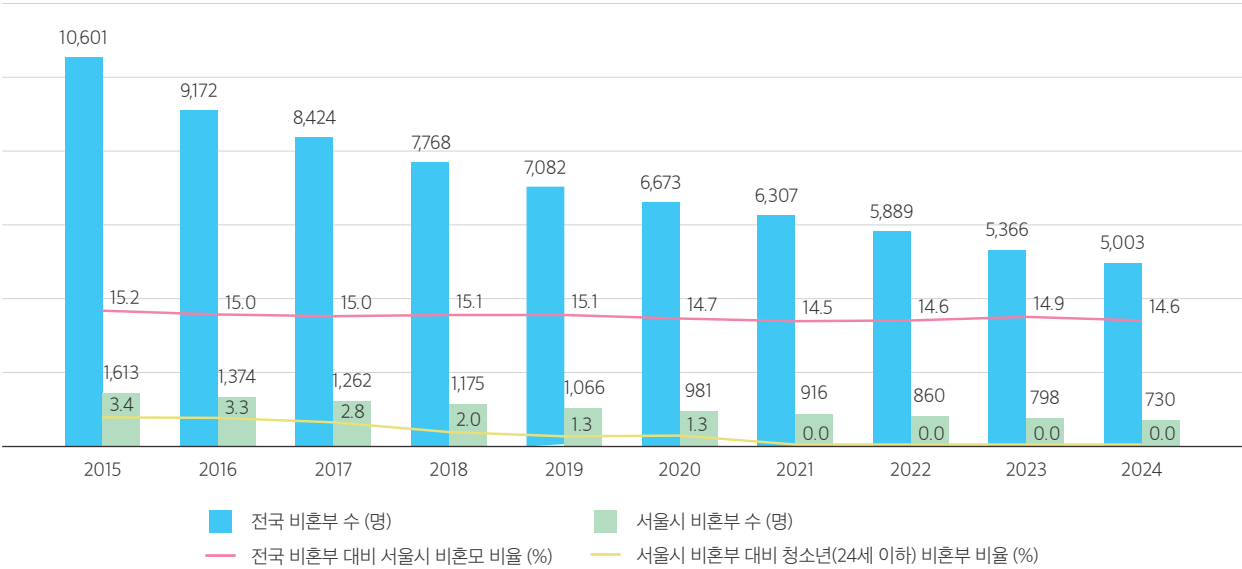
서울시 비혼모 수(2015-2024년)

단위(명, %)



서울시 비혼부 수(2015-2024년)

단위(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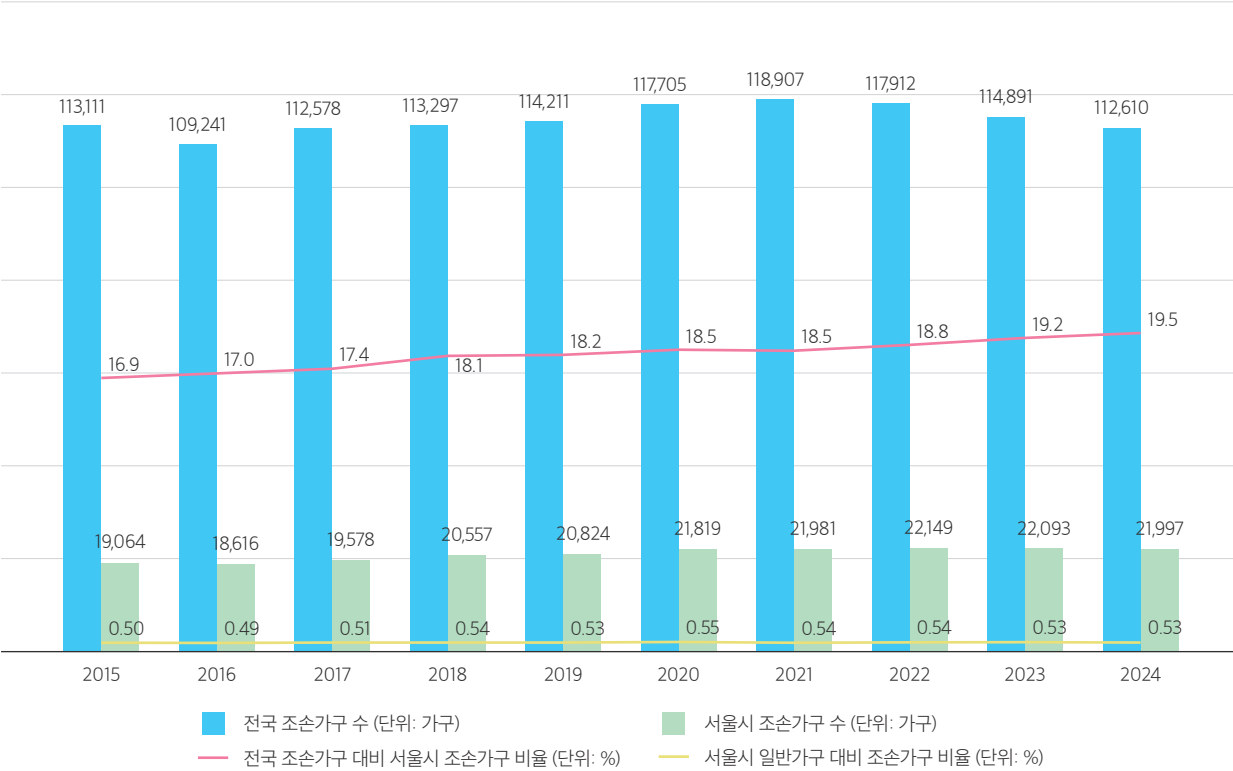
주 1) 비혼모(부)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엄마 또는 아빠를 의미함
2) 청소년 비혼모(부)란 9-24세인 비혼모(부)를 의미함
3) 원자료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자료에서 5 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에 따라, 본 그래프에서 X는 0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서울시 조손 가구 수(2015-2024년)

· 전국 조손 가구의 19.5%인 21,997가구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2024년 기준).
· 서울시 조손 가구는 2016년 이후 미세하게 증하고 있으나 서울시 총 일반 가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0.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위(가구, %)



주 1) 조손 가구는 (외)조부모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 가구(이하 '(외)조부모+비혼(미혼)손자녀가구'와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한 명과 비혼(미혼)손자녀로 구성된 조손 가구(이하 '(외)조부(모)+비혼(미혼)손자녀가구')로 분류됨
2) 일반가구란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포함함. 일반가구 내 외국인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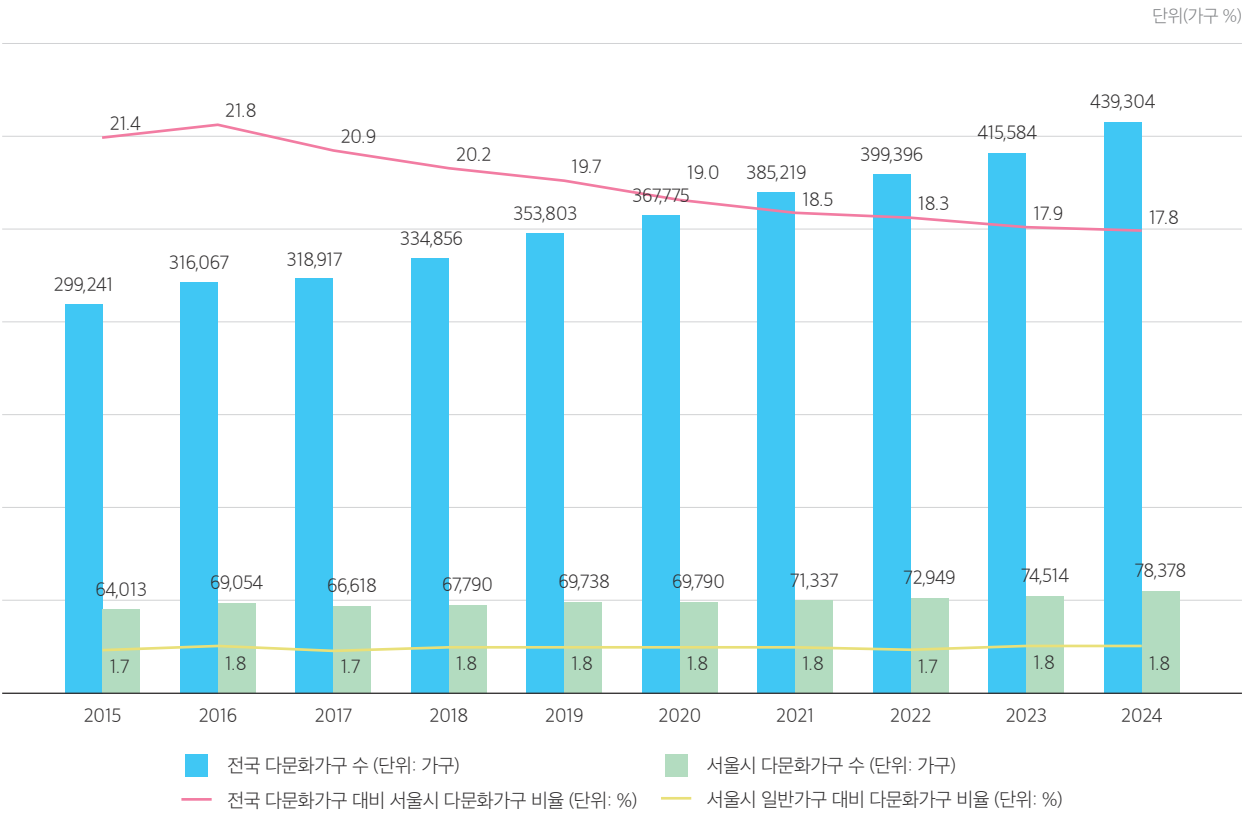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부록 1. 2025 서울가족현황



서울시 다문화가구 수(2015-2024년)

· 전국 다문화가구의 17.8%인 78,378가구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일반가구의 1.8%에 해당합니다(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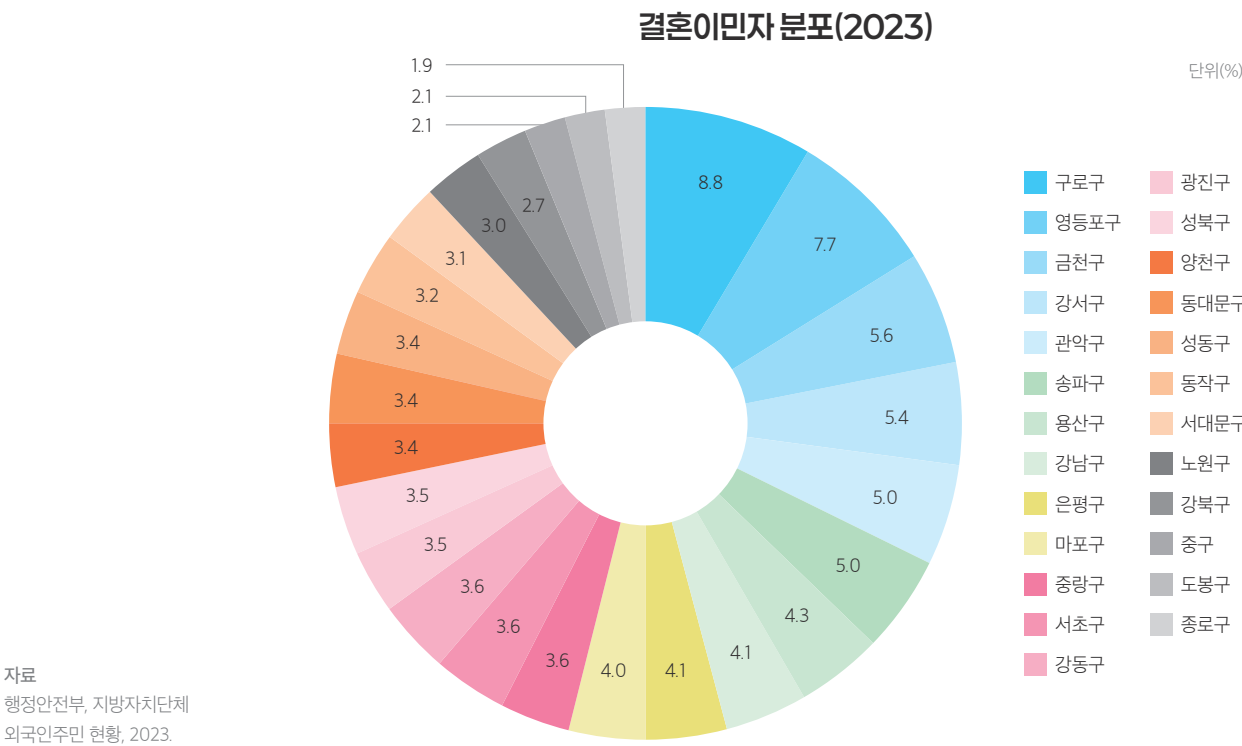


주 1) 다문화가구란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 배우자와 혼인해서 이뤄지거나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를 의미함
2) 일반가구란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포함함. 일반가구 내 외국인도 포함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서울시 결혼이민자 분포: 자치구별(2023년)

·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강서구, 관악구, 송파구, 용산구 등의 순으로 결혼이민자의 수가 많습니다(20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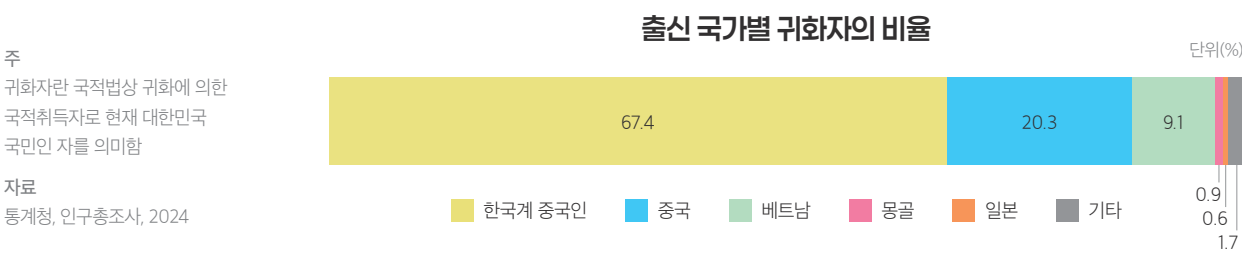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23.

부록 1. 2025 서울가족현황

서울시 귀화자(2024년)의 비율

· 서울시에 거주하는 '귀화자'의 출신국가는 한국계 중국(67.4%) > 중국(20.3%) > 베트남(9.1%) > 기타(1.7%) > 몽골(0.9%) > 일본(0.6%)의 순입니다(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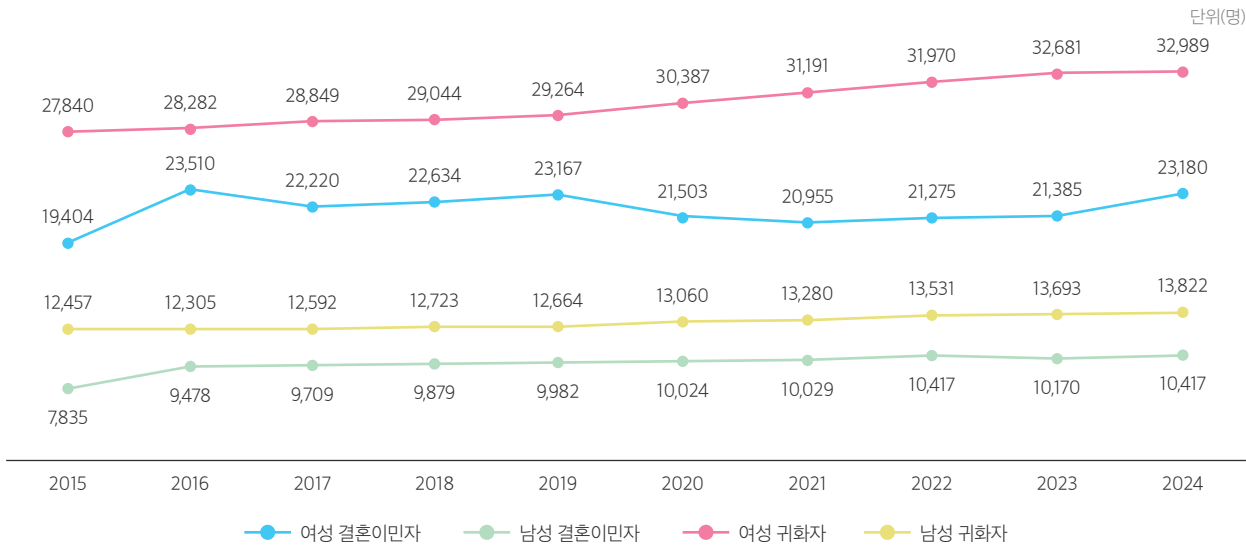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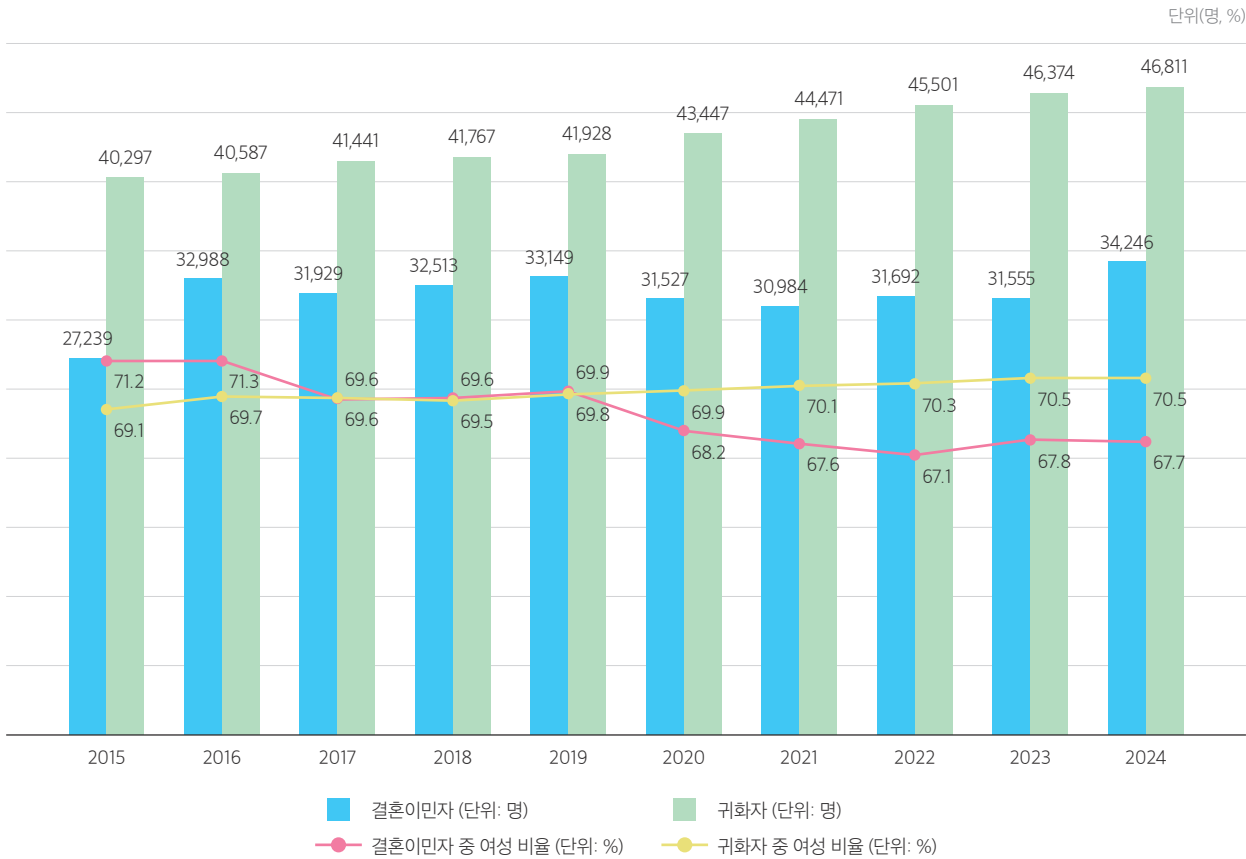


주
귀화자란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4

서울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수: 성별(2015-2024년)

· 서울시 다문화가구의 구성원 중 결혼이민자는 34,246명, 귀화자는 46,811명입니다(2024년 기준).
결혼이민자 중 67.7%, 귀화자 중 70.5%가 여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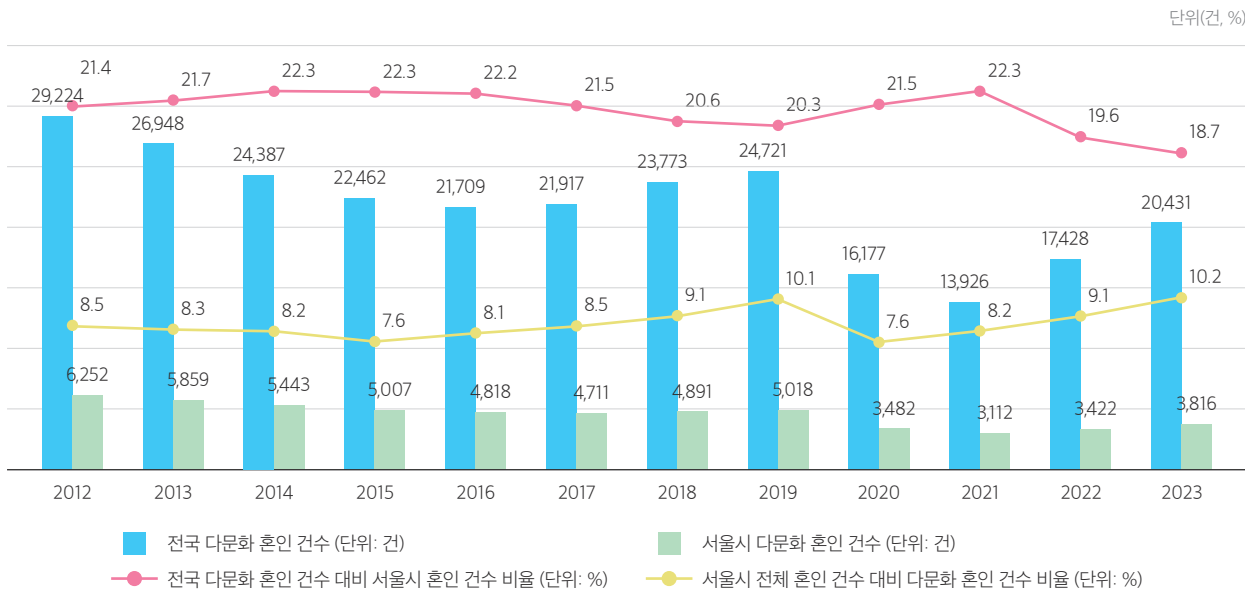


주 1)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내국인 또는 국적법상 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을 의미함
2) 귀화자란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서울시 다문화 혼인 건수(2012-2023년)

· 서울시 다문화 혼인 건수는 전체 혼인 건수의 10.2%인 3,816건입니다(20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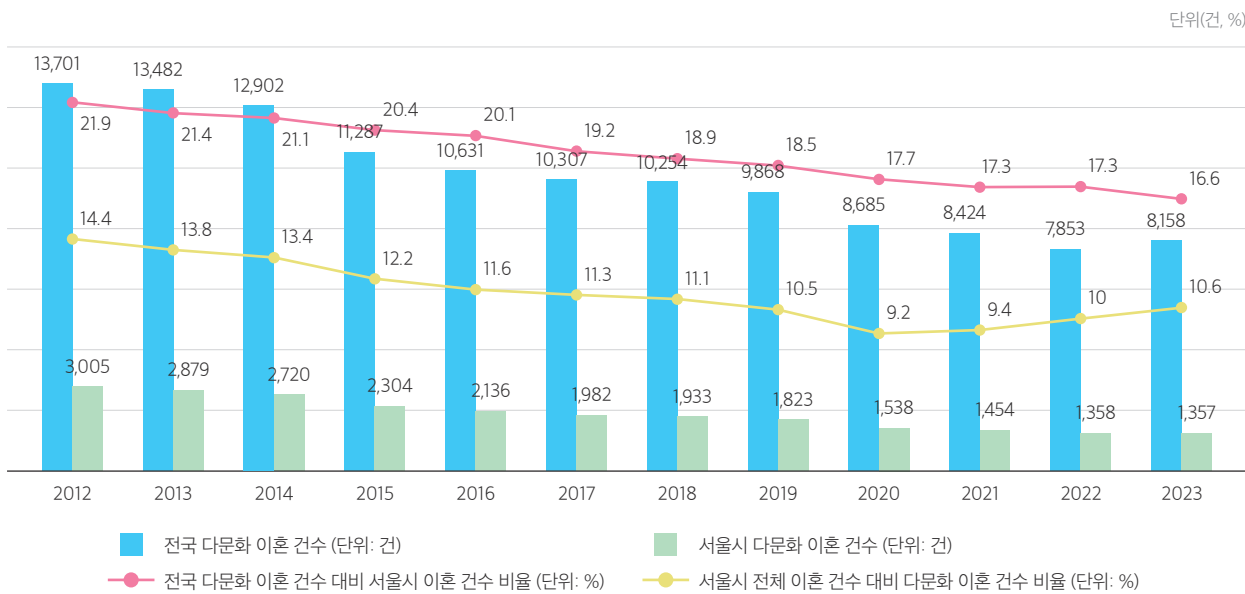


주 다문화 혼인은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외국국적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의 '인구(개인)'별 혼인사건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서울시 다문화 이혼 건수(2012-2023년)

· 서울시 다문화 이혼 건수는 전체 이혼 건수의 10.6%인 1,357건입니다(20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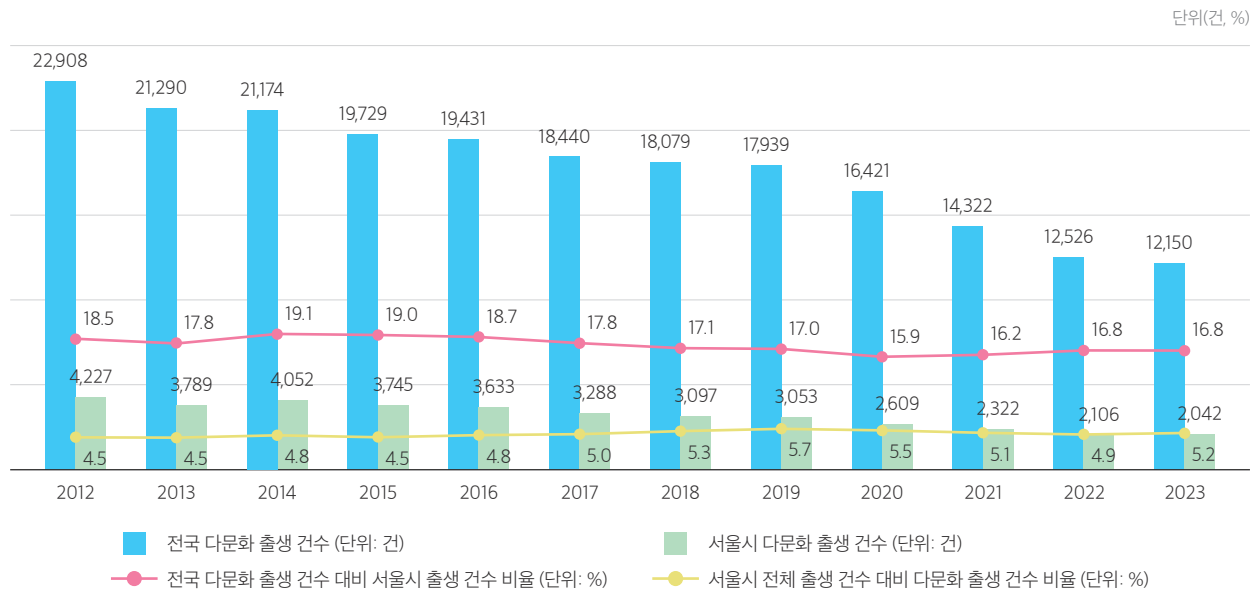


주 다문화 혼인은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외국국적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의 '인구(개인)'별 혼인사건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서울시 다문화 출생 건수(2012-2023년)

· 서울시 다문화 출생 건수는 전체 출생 건수의 5.2%인 2,042건입니다(20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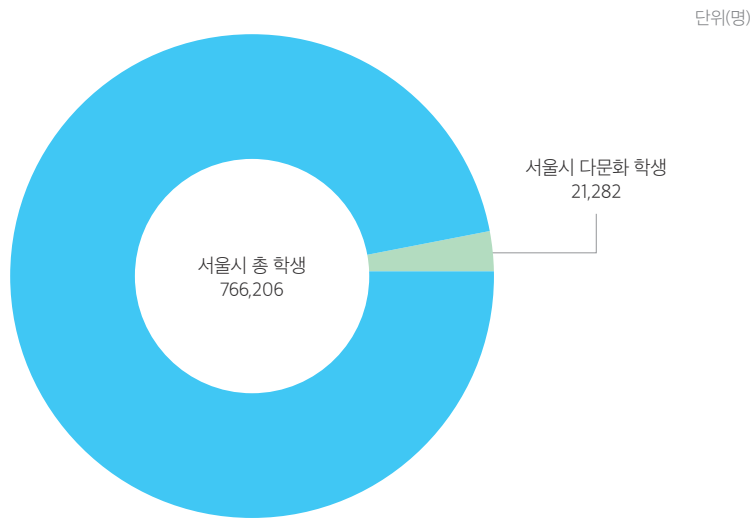


주 다문화 혼인은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외국국적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의 '인구(개인)'별 혼인사건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서울시 다문화 초·중·고등학생 수(2024년)

· 서울시 거주 다문화 초·중·고등학생은 21,282명이며, 이는 서울시 총 초·중·고등학생 수의 2.8%에 해당합니다(2024년 기준).



주 다문화 학생 수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의 합으로 계산함.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의미하며, 외국인 가정 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의미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년별 학급 수 및 학생 수, 202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다문화(유형별) 학생 수, 2024.

주

- 1) 다문화 학생 수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의 합으로 계산함.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의미하며, 외국인 가정 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의미함
-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학교(예. 대안 학교 등) 학생 수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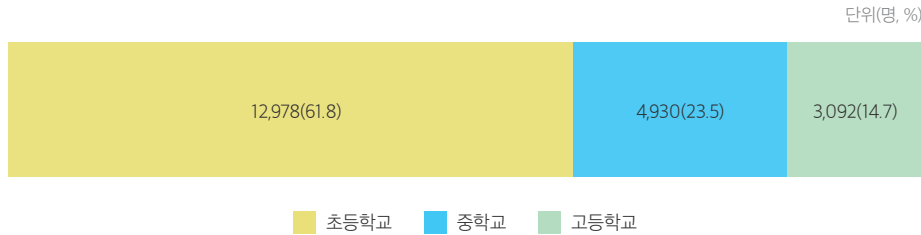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다문화(유형별) 학생 수, 2024.



비혈연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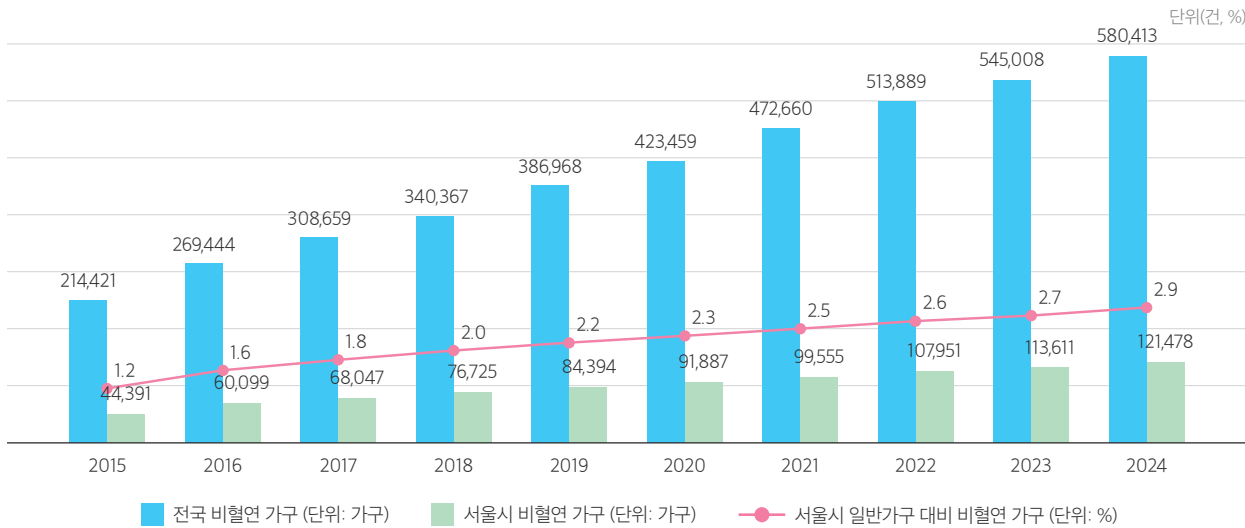
서울시 다문화 초·중·고등학생 분포(2024년)

· 서울시 다문화 초·중·고등학생 중 초등학생이 61.8%(12,978명), 중학생이 23.5%(4,930명), 고등학생이 14.7%(3,092명)를 차지합니다(2024년 기준).



서울시 비혈연 가구(2015-2024년)

· 전국 비혈연 가구의 20.9%(121,478가구)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일반가구의 2.9%에 해당합니다(2024년 기준). 서울시 비혈연 가구의 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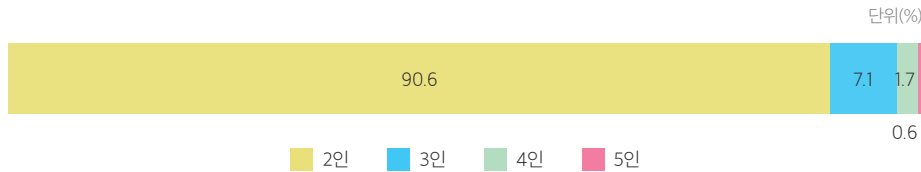
주 1) 비혈연 가구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임. 비혈연인 6인 이상의 가구는 집단가구로 따로 분류함.

2) 일반가구란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 이외에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비혈연 가구)를 포함함. 일반가구 내 외국인도 포함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서울시 비혈연 가구 가구원 수(2024년)

· 서울시 비혈연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1명이며, 2인으로 구성된 비혈연 가구가 9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2024년 기준).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4.

2015-2024 서울가족보고서

2015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는 서울가족보고서는 서울가족서베이 결과를 토대로 서울 시민의 가족 현황 및 가족 관련 인식과 변화를 살펴보고, 가족 관련 국내외 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패밀리서울 누리집에서 [서울가족보고서] 메뉴로 들어가거나,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면 각 연도 보고서 원문을 조회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영문 요약본도 함께 발행되고 있다.



서울지역 가족센터 현황

가족센터는 성평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 다양한 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 돌봄 등 종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와 25개 자치구 가족센터를 총괄하는 서울시가족센터(광역)가 있다.

지역	주소	전화번호	누리집
서울지역 광역기관	· 1센터) 중구 소파로4길 6 · 2센터) 동작구 노량진로 10, 지하2층	02-318-0227	familyseoul.or.kr
강남구	· 강남구 개포로 617-8 · (공동육아나눔터) 강남구 자곡로11길 28, 210동 1층	02-3412-2222	gangnam.go.kr/office/ gngfamily/main.do
강동구	· 강동구 양재대로 1634, 3층	02-471-0812	gangdong.familynet.or.kr
강북구	· 강북구 한천로129길 6 · (수유동공동육아나눔터) 강북구 수유로 12길 63, 101동 2층 · (인수동공동육아나눔터) 강북구 인수봉로 78길 24, 1층 · (번3동공동육아나눔터) 강북구 오현로 208, 1층 · (강북구1인가구지원센터) 강북구 덕릉로 28길 28, 2층	02-987-2567	gangbuk.familynet.or.kr
강서구	· 강서구 강서로5길 50, 4층	02-2606-2017	gsfc.familynet.or.kr
관악구	· 1센터) 관악구 신림로3길 35, 3~4층 · 2센터) 관악구 낙성대로 4가길 5, 4층 · (공동육아나눔터 은천점) 관악구 은천로 9길 20, 2층	02-883-9383	gwanak.familynet.or.kr
광진구	· 광진구 천호대로 136길 55, 3~4층 · (광진구평생학습센터) 광진구 자양로 15길 60, 1층 · (광진 글로벌 가족센터) 광진구 능동로 87, 114호	02-458-0622	gwangjin.familynet.or.kr
구로구	· 구로구 우마2길 35, 2층 · (공동육아나눔터) 구로구 경인로20가길 68, 2층	02-869-0317	gurofc.familynet.or.kr
금천구	· 금천구 금하로11길 40, 1층	02-803-7747	geumchfc.familynet.or.kr
노원구	· 노원구 동일로173가길 94, 3층 · (공동육아나눔터) 노원구 동일로173가길 87, 1층	02-979-3501	nowon.familynet.or.kr
도봉구	· 도봉구 도봉로 552, 2층 · (도봉구1인가구지원센터) 도봉구 마들로 664-17, 3층 ·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나라점) 도봉구 노해로69길 151, 3층 · (공동육아나눔터 창동이음점) 도봉구 덕릉로63길 53, 3층	02-995-6800	dobong.familynet.or.kr
동대문구	· 1센터)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6~7층 · 2센터) 동대문구 무학로 89, 2층	02-957-0760	ddmhfc.familynet.or.kr

지역	주소	전화번호	누리집
동작구	· 1센터) 동작구 매봉로 37 · 2센터) 동작구 신대방1길 42, 3층	02-599-3301	dchfc.familynet.or.kr
마포구	· 마포구 양화로 19, B2층	02-3142-5482	mapo.familynet.or.kr
서대문구	· 서대문구 증가로 244, 2층 · (공동육아나눔터 홍제점) 서대문구 통일로 27길 19, 2층 · (공동육아나눔터 꿈도담터) 서대문구 연희로 32길 48, 2층	02-322-7595	sdmfc.familynet.or.kr
서울중구	· 중구 퇴계로 460, 10층 · (공동육아나눔터) 중구 다산로33길 3, 2층	02-2279-3891	sujung.familynet.or.kr
서초구	· 본부센터) 서초구 방배로10길 10-20, 4~5층 · 1센터) 서초구 강남대로201, 2층 · 2센터) 서초구 사평대로205, 2층 · 3센터) 서초구 청계산로9길 70, 301-1호	02-576-2852	seocho.familynet.or.kr
성동구	· 성동구 무학로6길 9, 3층 · (공동육아나눔터) 성동구 난계로 6, 2층 · (작은책마루이음) 성동구 왕십리로24나길 10, 202호 · (교류소통공간‘다가온’) 성동구 행당로82, 제2관리 사무소 3층	02-3395-9447	sdfc.familynet.or.kr
성북구	· 성북구 안암로 145, 라이시움 102호 · (온가족행복지원센터) 성북구 정릉로27길 61-6 · 성북구 안암로 145, 한국학관 A119호 언어발달교실	02-3290-1660	sbfc.familynet.or.kr
송파구	· 1센터) 송파구 양산로 5, 2층 · 2센터) 송파구 마천로41길 12, 1층 · 3센터) 송파구 백제고분로42길 5, 3층 ·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송파구 토성로19길 37, 2층 ·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송파구 백제고분로145, 3층 · (1인가구지원센터) 송파구 거마로8길 20, 3층	02-443-3844	songpa.familynet.or.kr
양천구	· 양천구 남부순환로 83길 53, 3층	02-2065-3400	ychc.familynet.or.kr
영등포구	·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5, 4층	02-846-5432	ydpfc.familynet.or.kr
용산구	· 용산구 이태원로 224-19, 3층 · (공동육아나눔터) 용산구 서빙고로 17, F동 2층	02-797-9184	yongsan.familynet.or.kr
은평구	· 1센터) 은평구 은평로21가길 15-17 · 2센터) 은평구 연서로41길 31 · (공동육아나눔터 대조점) 은평구 서오릉로 114-16, 2층 · (1인가구지원센터) 은평구 통일로 767, 101동	02-376-3761	eunpyeong.familynet.or.kr
종로구	· 종로구 종로53길 29, 2층	02-764-3524	jongno.familynet.or.kr
중랑구	· 중랑구 용마산로 369 · (공동육아나눔터) 중랑구 용마산로 327	02-435-4142	jungnang.familynet.or.kr

2025 서울가족보고서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기획·편집	서울시가족센터
집필진	책임연구원: 이재림(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손서희(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보조연구원(가나다순): 김민식(김민식(관악구가족센터,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유혜민(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이민지(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이진영(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조수진(아이오와주립대학교 인간발달가족학과 박사과정)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일	2025. 12.
편집·디자인	그래픽오션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3418-10
ISSN	3022-4179(Online)

‘본 자료집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무단복제를 금지합니다.’